



2008년도 KINU Korea-China 민간전략대화 Project

중·북 분야별 협력 현황과 북한의 변화 전망



중·북 분야별 협력 현황과 북한의 변화 전망

인 쇄 2008년 12월

발 행 2008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국제관계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7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표지·레이아웃 디자인 양동문화사

인 쇄 처 양동문화사

가 격 10,000원

© 통일연구원, 2008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중·북 분야별 협력 현황과 북한의 변화 전망 / 통일연구원 [편]. — 서울 : 통일연구원, 2008

p. ; cm. — (핵심국정과제 연구시리즈; 08-05)

ISBN 978-89-8479-491-8 93340 : ₩10,000

중국 외교 정책[中國外交政策]

북한 외교 정책[北韓外交政策]

340.12011-KDC4

327.5105193-DDC21

CIP2008003970

서 문

1992년 11월에 돌발한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개방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북한인민들의 생활수준을 10년 내에 연 소득 3,000달러로 향상시키도록 지원한다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표방하고, 대북 정책기조를 상생과 공영으로 정하였습니다. 비핵·개방3,000과 상생공영 정책은 실로 한반도 선진화를 실현하는 통일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의 개혁·개방에서 중국만큼 중요한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통일연구원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설명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하기 위하여, 중국과 한·중 민간인 전략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은 중·북 양국이 수교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이 북한에 주는 의미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 사업은 3년 단위로, 1단계 연도인 2008년에는 대주제를 『중·북 분야별 협력 현황과 북한의 변화 전망』으로 정하여, 우선 중국 동북 3성에 있는 저명한 북한문제 전문가들과 학술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중·북 관계를 정치·외교·경제·과학기술·사회문화 분야로 구분하여 원고를 위촉하였습니다. 옥고를 제출해 주신 6명의 교수님들, 張英(吉林省社會科學院), 張宝仁(吉林大學), 金哲(遼寧社會科學院), 呂超(遼寧社會科學院), 李鐘林(延邊大學), 禹穎子(遼寧社會科學院)께 감사를 포함합니다.

책 출판을 위하여 통일연구원 최춘흠 박사(편자), 이은정 연구원, 이상연 인턴, 중국사회과학원 정미영 박사(번역)께 감사를 포함합니다. 끝으로 본 책자가 한·중 양국의 독자, 정부부처, 국책기관, 전문가, 교수 및 학생들에게 정책적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통일연구원 원장 서 재 진

목 차

1. 중국과 북한의 정치합작 현황과 북한의 변화 전망	1
张 英 (중국길림성사회과학원, 조선한국연구소, 교수)	
2. 중·북 정치합작의 현황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전망	19
张宝仁 (중국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 조선한국연구중심, 교수)	
3. 중·북 정치협력 현황과 북한의 변화 현황	37
金 哲 (중국요녕사회과학원, 조선반도연구중심, 교수)	
4. 중·북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59
吕 超 (중국요녕사회과학원, 조선한국연구중심, 교수)	
5. 중·북 경제 및 과학기술협력과 북한변화에 대한 영향	103
李钟林 (중국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 교수)	
6. 중·북 사회·문화 교류와 북한의 변화 전망	119
禹颖子 (중국요녕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 부교수)	
[부록: 중국어 원문]	
1. 中国同朝鲜的政治合作现况与朝鲜的变化展望	139
张 英 (中国吉林省社会科学院, 朝鲜韩国研究所, 教授)	

목 차

2. 中朝政治合作现状与朝鲜变化展望 153
张宝仁 (中国吉林大学 东北亚研究院, 朝鲜韩国研究中心, 教授)
3. 中朝政治合作现状与朝鲜的变化前景 167
金哲 (中国辽宁社会科学院, 朝鲜半岛研究中心, 教授)
4. 中朝经济关系的现状与前景 185
吕超 (中国辽宁社会科学院, 朝鲜韩国研究中心, 教授)

중국과 북한의 정치합작 현황과 북한의 변화 전망

장 잉(张英)(중국길림성사회과학원, 조선한국연구소, 교수)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는 외압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과 대한민국(한국)의 두 국가로 분단되었다. 중국과 북한은 지금까지 역사적, 정치적 이유로 지속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서로의 대내외 정책이 각각 다른 시기에 변화되었던 이유로 양국 간의 정치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양국의 정치관계는 어떤 때에는 서로 비협조적이기도 하였고 심지어 냉담한 관계가 지속된 적도 있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정세의 진전과 중·북 양국의 대내외 정책의 변화로 인해, 향후 중·북 양국의 정치관계에는 분명히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의 북한의 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I. 중·북간 밀접한 정치합작이 진행되었던 시기

지난 반세기동안 중·북 양국은 대부분 긴밀한 정치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직후부터 북한과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미국이 지휘하는 UN군이 전쟁에 참가하자 북한 인민군은 천리로 뿔뿔이 흩어졌다. 북한이 이러한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김일성의 요청으로 중국 인민지원군은 북한을 도와 전쟁에 참가했다. 수십만의 중국의 아들딸들은 자신들의 청춘과 생명을 바침으로써 중·북 양국에 ‘선혈응결(鮮血凝成)’의 우애를 남겼다. 전쟁이 끝난 후 60년대까지 중국은 3년 동안의 심각한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참기 힘든 기근을 이겨내며 한국전쟁 당시 사용했던 소련의 무기사용에 대한 대가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갚아야 했다. 또한

중국은 전후 북한의 재건을 위해 상당량의 인적, 물적 자원과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네바협정을 포함한 여러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입장에 섰었다. 그로 인해 50년대 말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래로 지금까지 중·북 양국은 돈독한 우호적인 정치협력 관계를 유지해 올 수 있었다.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중국은 3년 동안 심각한 자연재해가 이어지고 국제적으로 반중 분위기가 생겨나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1960년과 1961년에 순차적으로 북한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선민주주의공화국에 대한 차관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북한의 경제건설을 위해 대량의 자금과 물자를 지원하였다. 또한 1961년 7월 11일 중·북 양국정부는 <중·북 상호 우호협력 조약>을 통하여 “양국은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양국 중의 어느 한쪽을 침략하는 세력을 억제하기로 한다. 만일 양국 중의 어느 한쪽이 다른 국가 또는 여러 국가의 연합에 의해 무력 침공을 당하거나 전쟁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른 한쪽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군사적 지원과 필요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기로 한다.”와 “양국은 향후 공동의 이익과 관련 있는 모든 중대한 국제문제를 반드시 서로 협상하기로 한다.”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의심할 여지도 없이 당시 중·북 양국은 정치적 동맹이었을 뿐 아니라 명실상부한 군사동맹국관계였다.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중반까지 중국공산당은 소련공산당 및 유럽의 일부 공산당과의 사이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나타난 사회주의의 원칙과 정의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북 양국은 사회주의 건설의 문제뿐 아니라 국제정치 및 국제 공산당 활동 등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매우 비슷한 관점을 유지하였고, 그로 인해 양국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60년대 중반 중국에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이 시작됨으로써 전국에 혼란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중·북 관계에 특히 정치협력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양국 정부가 서로 냉담한 관계가 되었으나, 양국 간의 경제, 과학방면의 협력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이후 1970년 4월에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북한을 정식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을 만나 중국의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들에 관해 해명하고 설명함으로써, 그동안 양국 간에 쌓여있던 장벽과 오해를 청산했다. 그 후 중·북 양국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방면의 대표단을 서로 파견하여 방문함으로써

써 정치, 경제, 군사, 문화방면에서의 협력을 다시 강화하였다.

마오쩌둥(毛澤東)주석의 사망 이후 중국 인민들은 강청(江靑)의 반당집단(江靑反黨)을 분쇄하고 ‘문화대혁명’의 종결을 선언함으로써, 1976년 이후의 중·북 관계 또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1978년 이후 중국의 당과 국가의 주요 지도자인 후야궈핑(華國鋒), 덩샤오핑(鄧小平), 후야오방(胡耀邦), 짜오즈양(趙紫陽) 등이 차례로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의 당과 국가의 지도자인 김일성 역시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중·북 양국의 지도자들이 상호 방문하여 공동의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마련되었고 그로 인해 양국의 정치협력 관계가 개선되고 상호발전을 위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II. 중·북간 정치협력이 소원했던 시기

1978년 10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제11기 3중전회의에서 이전의 대내, 대외 정책을 조정하여 새로운 대내개혁과 대외개방 정책 실행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였다. 특히 대외정책에 있어 중국은 미국, 일본 등 서방 자본주의 국가와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무역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對) 한국 정책을 조정하여 한국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켰다. 대외 원조정책에 있어서는 중국의 국력현황에 근거하여 실사구시(實事求是) 전략으로 우호국들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고, 북한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원조를 축소하였다(북한에 대한 원조는 중국의 전체 대외 원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제관례에 부합하는 중국의 이러한 국정변화에 대해 북한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양국의 정치협약 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 7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까지의 중·북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양국 간의 합작과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70년대 말 이후부터 상호간의 대내외 정책에 비교적 큰 모순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1986년과 1988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0회 아시안게임과 제24회 올림픽게임을 거행하는데 있어 또 한 번 중·북 관계의 발전에 불리한 발언을 하였다. 북한은 1986년 1월 22일자 <노동신문>에 게재된 <올림픽 역사상 또 하나의 그림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평화와 우호의 취지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게임을 왜 남한과 같은 전쟁의 화약고에서 거행하는가? 이성을 상실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곳에 갈 수 있는가?”라고 말하며 서울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참가하는 중국을 포함한 여러 참가국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서방국가로 편향되자 세계정세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정세에서 1992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이 80세 생일을 맞이하여 중국 국가주석 양상쿤(楊尚昆)과 당정 대표단 및 그 외 50여 국가의 70여개 공산당과 공인당 대표단이 김일성을 축하하기 위해 평양에 모였다. 북한은 이 기회를 빌려 <사회주의 사업의 유지와 발전에 대한 선언>을 중국이 대표로 발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중국 당정 대표단은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은 후에 ‘평양선언’으로 불리게 되는 <선언>을 발표하였고, 중국이 이 <선언>에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중·북 관계의 대립이 공개화되었다.

1992년 8월 24일 중국은 한국과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에 분개한 북한은 중·북 국경의 개항지를 폐쇄하고 주 북한중국대사관 내의 홍보관 유리를 파괴하였으며 심지어 중국의 어선을 향해 북한 경비정이 발포하는 등 일련의 비우호적인 행동도 취하였다. 이 외에도 북한은 이전의 협상에 대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북한 휴전위원회’의 중국측 대표단에게 중국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게다가 중국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미국과 “신(新)평화보장 체제”의 건립 문제를 협상하였으며, 여러 해 동안 유지해 온 양국 고위급 지도자들의 상호방문의 전통을 중단시켰다. 그 뿐 아니라 “대만패(牌)”에 손을 대어 대만과의 관계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려 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하자, 덩샤오핑을 포함한 중국당과 국가 지도자들은 북한 당과 정부에 즉각 연락을 취하여 김일성의 사망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그 후 북한은 겉으로는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암암리에 중국을 비방하고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난했다.

1994년 11월 4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일이 서명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 김정일은 “사회주의의 반역”, “개혁이라는 희극을 전개”,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물질지상과 경제만능으로 떠들어대고 있다.”라는 말로 중국을 비난하

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멋대로 치켜세우면서 “사회주의의 반역이 자산계급의 자유화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끌어들이고,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며, 북한의 소위 ‘인덕정치(仁德政治)’를 미화시키는 동시에 “사회주의의 반역이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위하여, 실업과 빈곤을 이용해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노동력 향상의 압박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사회주의의 대 인민 정책을 포기하고, 서방 자본주의 국가의 ‘원조’, ‘합작’ 등에 환상을 가지고 제국주의자들에 굴복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비방했다. 당시 중국이 시행중이던 개혁개방 정책과 연관 지어 보면 이러한 글에 담긴 공격의 의도는 아주 명백하였으며, 북한의 태도와 방법은 양국 간의 정치협력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십여 년간 중·북 양국이 정치적, 안보적 측면에서 진행한 중대협력 사안은 서로 합심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었다. 90년대 초 북·미간에 처음으로 핵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중국은 양국 간의 적대적 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북·미 베를린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은 이 상황에서 제재를 가함으로써 북핵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았으며,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완전하게 자주적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과 입장을 고수하였고, 북한에 대해 어떠한 내정간섭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등의 서방세계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제재조치를 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자, 중국은 발 벗고 나서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맡아 형국을 안정시키고 북한의 이익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중국은 이를 두고 당연히 하여야 할 국제적 의무라 생각하였으며 조금도 업적을 과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4년 12월 1일 북한 <노동신문>은 <우리는 자주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하여 북한과 미국 간의 북핵문제 협의를 두고 “북·미간에 협의된 사안은 완전한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 대외정책의 성과이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 없다.” “우리는 누군가의 ‘동정’이나 ‘충고’에 의해가 아니라, 자주적 입장에서 미국과 독자적으로 이 회담을 진행하고 완성하였다.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에 의해 북·미 협상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라고 논설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북한은 말끝마다 “자주(自主)”라고 언급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몇몇 우방 국가들의 북한 제1차 핵 위기 때 취했던 여러 방면의 노력을 모두 부인

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실사구시적 태도로 보기가 절대로 불가능하다.

2002년 10월에 제2차 북한 핵 위기가 촉발된 이후,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4대 강국들과 한반도의 주인인 북한과 한국이 참가하는 '6자회담'을 여러 차례 개최했다. 평화적이고 효율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6자회담을 두고 미국, 한국 등의 세계 여러 국가들은 주최국인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쉽지 않은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였으며, 모두가 이점을 높이 평가하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만약 중국이나 관련국들의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북한 핵문제는 오늘날의 이러한 진전과 성과를 얻지 못하였을 것이며, 국제사회로부터 공정한 중재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중국이 매년 6자회담을 개최할 때마다 항상 모순과 불협화음이 생겨 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고 심지어는 더 벽을 쌓고 거리를 둘 때도 있었다.

Ⅲ. 중·북 양국의 정치협작에 있어 모순이 생기는 원인

중·북 양국 간의 정치협작관계는 항상 지속되어 왔지만 양국관계는 때에 따라 친밀하기도 했다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서로 융화되다가 갑자기 비협조적으로 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수시로 변하는 양국의 대내외정책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대내정책의 변화

여기에서 말하는 대내정책의 변화란 국가 경제건설 노선의 변화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대로 중·북 양국은 50, 60년대에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노선에 국내 경제건설의 구조와 방식이 서로 동일하게 발전되어 왔다. 즉, 당의 절대적 지도자, 획일화 된 계획경제 체제, 중공업 우선 발전주의, 공업학 대청정신(工业学大庆)¹⁾

1) 1964년부터 시작된 '공업학 대청운동'을 칭함. 대청(大庆)은 흑룡강성에 있는 도시로서 1964년부터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외국에 의지하지 않으며 자력갱생으로 공업의 발전을 이룩한다.'라는 구호로 공업발전 운동이 일어났다. 1963년말 중국이 이곳에서 대청 유전을 개발하여 석유를 생산하였다.

(북한의 대안공업 체계), 농업학 대채정신(农业学大寨)²⁾(북한의 청산리정신), 중국 인민공사(북한의 합작농장)…… 등 대부분이 비슷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고 모방이 잘 되어있다. 심지어 양국은 지도자를 포함해 인민들의 사고방식과 시각까지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당연히 양국 간의 경제건설에 있어 생기는 문제들과 사회적 빈곤이나 낙후된 상태의 정도에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 시대에의 중·북 양국의 대내 정책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70년대 말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여러 해 동안 걸어온 단순한 계획경제의 노선을 조금씩 포기해 나갔고,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서로 결합시킨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으로 개선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공업 방면에서 중국은 하청 제도와 지분 제도를 실행하고, 개별경제는 국유경제와 병행하면서 상당히 큰 비중으로 발전시켰다. 농업 방면에서는 가족 단위의 작업조로 구성된 집단에 생산을 하청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농민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서 일하는 것을 허가했다. 또한 대외 개방정책을 시행하여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모든 외국의 기업과 자본이 중국시장에 투자하여 공장을 건설하고 재화를 생산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완전하게 중국 내정의 문제임에도, 북한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중국에 대해 큰 반감을 가짐으로써, 피할 수 없이 중·북 관계에 대립과 모순이 발생하게 되었다.

2. 대외정책의 변화

냉전이 종식된 후 1970년대부터 세계의 전략체제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의 동(사회주의)-서(자본주의) 양 진영 간의 대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동북아 국가들 간의 관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원래 적대적 관계였던 남측(미국, 일본, 한국)과 북측(소련, 중국, 북한)의 양 군사동맹 체제가 해체되면서 몇몇 국가들 사이에서는 적대관계가 우호관계로 바뀌기도 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해 원래 적대적 관계에 있던 미국, 일본, 한국과 친밀한 경제무역관계를 성립시키고, 중요한 경제협력 동반자와 무역 대상국으로써 상호협정을 체결하였다.

2) ‘농업은 대채를 따라 배워야 한다.’ 여기서 대채(大寨)는 중국 산서성(山西省) 석양현(昔陽縣) 경내에 소속된 모범적인 농업생산 조직의 이름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자리를 마련하여 미국, 일본, 한국과 같은 입장에 서서 협상과 협력을 진행했다. 따라서 미국, 일본, 한국에 적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던 북한은 중국의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고 중국에 대립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양국 간에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3.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상반된 입장

오랫동안 중국은 한반도가 비핵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적 발전과 국가 안전에도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핵무기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핵 개발 사업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다. 중국은 6자회담을 개최하여 북한이 핵 개발 계획과 핵무기 폐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로 인해 북한이 에너지 자원의 넉넉한 보상을 받고 경제회복을 가속화하여 인민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북경에서 개최된 6자회담에 완전히 적대적인 자세로 대하였다. 북한은 6자회담을 자국을 무장해제 시키려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에게 ‘백해무익’하다고 공식 선언하였다.³⁾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북한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충고와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2006년 10월 9일에 제1차 지하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북한이 이러한 행위를 자행함과 동시에 전 세계로부터 규탄과 비난을 받았고, 중국도 이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외교부의 성명을 통하여 “중국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단호히 반대의사를 밝힌다”고 표명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중·북 수교 반세기 이래 처음으로 있는 중대한 실수에 해당하며 중·북간 정치적 대립이 심각해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국제연합(UN)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북한은 핵실험이 중국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큰 장애가 된다는 것에 대해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국제연합에서

3) 『(한국)연합신문』 인터넷, “2003년 8월 30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 2003년 8월 30일.

북한제재에 대한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질타하며 이를 북한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하고 ‘중국 불신임’ 등에 관한 언급을 비공개적으로 유포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진행하는데 있어 중·북간에는 큰 입장 차이가 있고, 이는 중·북 양국이 친밀한 협력관계를 실현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4. 중북 관계의 실용주의 태도

오랜 기간 동안 중·북 관계를 이어오며 중국은 최대한 전폭적이고 전면적인 범위에서 북한을 원조를 했고, 심지어 북한을 위해 최대의 민족적 희생인 항미원조전쟁⁴⁾을 치르기도 하였으나 북한은 이 모든 것이 합당한 행위이며 당연히 받을 수도 있는 도움이라고 여기고 있다. 만약 중국이 북한의 원조와 지원이 필요하여 요청을 했더라면 북한은 중국에게 그 조건을 받아들여가 힘들 것이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거절했을 것이다. 특히 김정일 주석의 사망 이후 북한은 중국에 대해 실용주의적 태도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게 있어 손안에 두고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는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최고의 패(牌)인 동시에, 때에 따라 적을 막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병참기지가 되기도 하며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금고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중국은 언제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인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여러 차례 중국의 이권에 개입하려 했고, 마음대로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 해 동안의 중·북 관계의 진실에 대하여 기술한 것이다.

북핵문제에 있어 북한은 계속해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다. 2006년 10월에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하여 또 한 번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2007년 3월 초에는 미국에서 열린 북·미 관계정상화회담에 참가한 북한의 6자회담 대표단 단장이자 외무성 부장인 김계관(金桂冠)이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와 가진 공개적인 자리에서 “중국은 단지 북한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그다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미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지나친 기대를 걸지 말아야한다.” “과거 6년 동안 미국은 중국에 의지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무슨 결과를 얻었는가?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고 핵실험을 진행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지만, 중국은 단 한 가지의 일도

4) 항미 원조 전쟁(抗美援朝战争): 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을 돕는 전쟁, 6·25 한국전쟁

해결하지 못했다.”⁵⁾

김계관이 북한의 ‘제1호 적대국’인 미국의 면전에서 ‘제1호 우호국’ 중국을 비방한 것은 절대 한순간의 말실수가 아닌 처음부터 의도된 발언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북한이 중국을 조금도 안중에 두지 않고 스스로 비방함으로써,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동인 것이다. 또한 북한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금도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북한은 왜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대담하게 남을 비방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돼 온 중·북 관계의 현실이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이 어떤 식으로 중국을 비방하든 중국은 북한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김정일은 “중국의 지도자는 나를 싫어만 할 뿐, 함부로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다.⁶⁾ 북한이 이렇게 조금도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중·북간의 정치합작에 장애가 없을 수 있겠는가!

IV. 북한의 변화에 대한 전망

현재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될 지, 그 대내외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생겨날지 하는 문제들은 우리 모두의 지대한 관심사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1. 선군정치 노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 시대’의 특징으로, 북한이 김정일의 지시로 1995년부터 ‘군대를 모든 사업의 우선에 두는’ ‘선군정치’의 정치노선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이 선군정치의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며 군대에 대하여 “군대는 바로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다.”, “‘군대’는 국가의 기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고, ‘국방’은 부유하고 강한 국가를 건설하는 생명선이다. 군대와 국방을 떠나서는 경제 강국을 건설할 수

5) 『(한국)조선일보』중문 사이트, 2007년 3월 9일.

6) 차오리친(曹麗琴), 『황장엽(黃長燁)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봤다』, 중문 번역본 (중국동북변강연구, 2005. 10), 216쪽.

없고 국가와 인민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⁷⁾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이 선군정치的重要性을 강조하였다. 2003년 북한의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은 <위대한 선군정치 기치아래 공화국의 준엄과 위력을 강화하자>라는 제목의 신년 사설을 공동으로 게재하였다.

이 사설을 통해 북한은 “2003년은 위대한 선군정치 기발을 높이 추켜들어 강성대국으로 용감하게 돌진하는 진군의 해이며, 광활한 변혁이 진행되는 해”라고 강조하였다. 2005년도에는 <전당, 전군, 전인민이 일심으로 단결하여 선군정치 위력을 선양하자>라는 제목의 <3개 신문사 연합 신년사설>을 게재하였다. 이 사설에서 ‘선군정치’라는 단어가 41회나 사용됨으로써, 현재의 북한 정치체제에 있어 선군정치的重要性이 재차 강조되었다. 2006년의 <3개 신문사 연합 신년사설>에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자”, “선군혁명의 대진군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여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두드러지게 하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선군정치를 강조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선군정치’가 이미 북한에서 영원히 추앙되는 정치적 이념이 되었고, 현재에도 국가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이 이 이념을 포기할 리 없다는 것을 전망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이 이 ‘선군정치’의 선전에 열기를 더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의 헌법과 노동당의 규정에는 ‘주체사상’이 전체 북한의 지도사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2003년 <3개 신문사 연합 신년사설>에서 정식으로 ‘선군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후부터 북한의 매체들은 ‘선군사상’은 “당과 국가의 행동지침이고 혁명의 지도방침이며 북한의 지도 사상”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김정일의 시대는 ‘선군시대’이며 ‘선군정치’는 모든 강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보배”라고 선포하고 있다. <노동신문> 역시 평론을 통하여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의 더욱 새롭고 높은 단계”라고 표현하였다. 결론적으로 볼 때 오늘날 북한에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김정일의 ‘선군정치’ 사상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 김정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457쪽.

2. 진정한 의미의 개혁개방 노선을 추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개혁개방을 꺼리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김정일은 심지어 “개혁개방은 망국의 길”이라고 까지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90년대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개혁개방을 진행하였으며, 대외개방을 통하여 나진(羅津)과 선봉(先鋒)의 자유경제무역지구 및 금강산 관광단지와 개성(開城)공업단지 등을 건설하였다(신의주 경제특구의 개발은 중단되었음).

북한은 또한 대내경제의 개혁을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였다. 그 예로 공장과 기업에 대한 물질 장려 정책을 도입하여 농장 협력단위에 의한 생산과 분배를 시행하였다. 대표적인 것은 2002년 7월 1일 공포한 <경제관리 개선시책>으로 이를 통해 유통 분야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을 통해 북한정부는 이전의 배급제 방식을 철폐함으로써 국가가 심각한 재정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고, 암시장 경제를 억제하여 상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평균주의를 타파하고, 이로 인해 노동자의 생산 적극성을 향상시켜 경제발전이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수년간의 개혁을 진행한 결과 그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악성 인플레이션 및 심각한 사회 양극화 현상, 물질 만능주의 팽배 현상,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북한은 부득이하게 개방시책을 거두어 들이고 배급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했다.

그 뿐 아니라 북한은 시장경제로 인해 발생된 일련의 문제들을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해결하였다. 북한당국은 2006년 말 부터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비사회주의 검열’의 시행에 착수하여 검열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관련자들을 면직 또는 수감시키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 총살하기도 하였다. 이는 사실상 개혁개방에 대한 일종의 억제이고 제동이라고 보아야한다. 이러한 대처는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을 가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다. 북한이 시장경제에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개혁개방을 통해 국내에서 ‘자본주의 시장체제’가 형성됨으로써 폐쇄된 북한경제 뿌리가 흔들리고 ‘북한식 사회주의’의 존재가 위협받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완전한 핵 포기는 없을 것이다.

북핵문제가 대두된 이래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핵 개발 계획의 중단 및 이미 가지고 있는 핵무기 폐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였으며,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의 각종회담이 개최되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6자회담 ‘2.13 합의’를 통하여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핵 개발계획과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하는데 동의하였고, 주변 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평화적인 핵에너지의 이용 권리를 보장하고, 북한에 대한 핵에너지의 원조도 약속하였다.

그러나 ‘2.13 합의’가 실행되도록 하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지금까지도 북한은 규정한 기간 내에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국제사회와 협상하려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국제적 규정과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낙인찍혀 있어 북한으로 하여금 핵 개발 계획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현재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핵 개발 계획’은 현 체제를 안정시키고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책략인 동시에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기본이라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선군정치 핵심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이 선군정치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핵 개발계획과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야한다.

4. “후 김정일 시대”의 권력구도 예측

김정일은 올해 66세로서 이미 인생의 말년에 접어들었으며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미 “후 김정일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향후 북한의 집권자가 누가 될 것인지, 새 집권자는 어떠한 대내외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북한의 상황으로 볼 때 향후 북한의 집권자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집단이 될 수도 있으며, 그보다 더 큰 가능성은 어떤 개인과 집단이 결합된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이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넘기기 어렵다.

북한 최고 권력자인 김정일이 후계자를 결정할 때는 당연히 몇 명의 친아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넘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둘째, 군대는 정권유지의 도구에 불과하다.

설령 북한이 선군정치를 지향함으로써 국방위원회가 북한 권력의 핵심이 되고, 그곳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권력이 막강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새로운 집권자가 되거나 또는 군대집단이 북한의 지도체제로 형성될 가능성은 거의 조금도 없다. 이는 선군정치도 좋고 국방위원회도 좋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은 당과 지도자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군대는 당과 떼어 수 없는 관계이지만, 당은 군대의 감독을 받지 않고 군대는 당으로부터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군대를 동원하여 노동당을 무력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군대 인사의 지도자 직위 계승 또는 지도부의 점령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전 북한 노동당 중앙서기 황장엽(黃長燁)은 “북한군대는 전투전략만 알고 정치는 모른다.” “정치수준이 낮은 국가는 군대에 의해 정권이 장악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나 북한에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군인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하였다.⁸⁾ 또한 그는 “후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당에 의해 정권이 장악될 가능성은 있으나, 군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현재 북한의 가장 이상적인 직권승계 방식은 노동당 중앙의 한 실권자가 한 왕자(김정일의 아들)를 지지하고 또한 군대의 지지를 얻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당내 관료들이 김정일의 아들을 후계자로 지지하는 것은 김정일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이며, 현재 김정일도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당내 관료들이 김정일의 아들을 후계자로 지지함으로써 군대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 군대의 태도로 인해 후계자 계승체계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셋째, 당내 관료들은 김정일의 아들이 정권을 승계함으로써 인민들의 옹호를 얻을 수 있으며, 인민들의 입장이 정권 승계문제에 있어 주요 관건이기 때문이다.

8) “2008년 9월 16일, 황장엽(黃長燁)이 서울 모처에서 대학생들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 『(한국)Daily NK』 인터넷 사이트, 2008년 9월 7일.

5. 북한은 중국과의 합작을 중단할 수 없다.

김정일은 외국 주재 사절들과의 회견을 통해 “전 세계는 우리의 적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역량으로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⁹⁾ 전 세계가 북한의 적으로 변한 이상 중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중·북간의 정치합작은 가능한 것인가? 분명한 것은 중·북간의 정치합작은 지속될 것이고, 북한은 중국을 떠날 수 없으며, 떠날 생각 또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첫째, 경제적으로 중국을 떠나지 못한다.

현재 북한에는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경제 방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며, 북한은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서방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원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원하는 만큼 넉넉하게 원조를 해주는 국가는 많지 않았다. 설사 원조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 것이었다. 북한은 결국 진정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원조를 제공해주는 국가는 중국(그리고 한국)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 경제를 구제하는 것은 중국의 원조 없이는 불가능하며, 중국과의 합작 없이는 북한의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은 없다.

둘째, 확고한 정권체계가 필요하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북한의 사회적 분위기가 또한 점점 악화되었다. 식량 절도나 약탈 등 형사범죄를 비롯하여 정치적 성향이 있는 범죄까지 여기저기에서 발생하였으며 탈북자도 끊임없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의 지지를 얻어서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을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의 요구에 순응하여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등 서방국가들에 의해 “테러지원 국가”, “상환능력이 없는 국가” 등의 오명을 가지고 있으며, 서방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제재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국제사회로부터 피소를 당하기도 하여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지내왔다. 북한이 자신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화합을 하

9) 『(한국)동아일보』 중문 사이트, 2006년 10월 9일.

는 것이 급선무이며, 다방면의 외교를 통하여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의 개발도상국가이자 국제적으로 높은 신용도를 가진 중국과의 관계도 돈독히 한다면, 국제무대에서 여러 방면으로 중국의 지지도 얻을 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북한의 현재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미국, 일본, 한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가져야 한다.

경제 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든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든, 북한은 우선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와 한국과 다방면의 협상과 협력을 하여야 한다. 북한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강대한 중국이 일단 북한의 후원자가 된다면 북한은 일종의 비장의 카드를 손에 쥐는 것과 같으며, 어떠한 교섭에서도 상대방이 북한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높임으로써 미국, 일본, 한국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북 관계의 현황에도 큰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오늘날의 중·북 관계는 이미 50, 60년대의 무산계급 국제주의 원칙에 의한 사회주의 진영의 피를 나눈 형제의 관계도 아니며 적대관계도 아니다. 냉정하게 말해 오늘날의 중·북 관계는 일종의 일반적인 전략적 협력관계이고, 전통적으로 우애가 있는 좋은 이웃의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중·북 양국은 대내외 정책에 있어 공통점도 차이점도 있다. 다시 말해 양국관계에는 공동의 이익도 있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모순도 있다. 따라서 우호적인 중·북 관계를 유지하면 양국에는 유리한 점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로운 점도 있게 된다. 따라서 중·북 양국은 어느 한쪽도 이러한 상호협력관계를 끊을 수 없고, 북한은 더욱 이러한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정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북한로동당출판사, 2000.

차오리친(曹丽琴). 『황장엽(黄长烨)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봤다』 (중문 번역본).

중국동북변강연구, 2005년 10월호.

『(한국)Daily NK』. 인터넷 사이트.

『(한국)동아일보』. 중문 사이트.

『(한국)연합신문』. 인터넷 사이트.

『(한국)조선일보』. 중문 사이트.

중·북 정치협작의 현황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전망

장바오런(张宝仁)

(중국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 조선한국연구중심, 교수)

I. 서 언

중국과 북한은 산수(山水)가 서로 접해있는 이웃 국가로서 정치와 역사 방면의 깊은 교류관계를 맺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우호협력을 지속하여 온 순망치한(唇亡齒寒)관계로 서로의 생사를 의지하는 전우와 형제 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에 양당, 양국 정부와 국민들은 구세대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적 우의관계를 더욱 중요시 여김으로써, 상호존중, 상호협력, 상호지원을 통한 중·북 양국 간의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새로운 활력과 생명력이 생겨나고 있다.

최근 세계정치의 형국이 변화로 인해 양국 간의 정치와 경제관계에도 과거의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즉 50~60년대의 “피를 통해 얻은 전우관계” 인식에서 전략적 합작관계로 변화하였고, 양국만의 협력에서 양국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전환되었으며, 협력의 영역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협력 의미도 더욱 복잡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완성시키는 데는 아직도 어느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의 중·북 합작교류 관계에는 아직도 전통적 우호관계에서 비롯된 인식이 깊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양국 간 정치, 경제, 문화 방면의 합작의 기본적인 토대와 원동력이 되고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양국 간의 긴밀한 합작과 상호의지, 상생을 실현하는 것은 앞으로의 양국 간 정치, 경제 합작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북한은 북핵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고 국내외 정세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

재의 상황에서, 정치와 경제방면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강성대국’ 목표를 실현하고자 할 것이다. 우선 정치적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김정일의 입지는 더욱 커질 것이고, 그 권리와 지위 또한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럴 경우 현재의 국가주석으로서의 지위가 상승하여 국가원수로까지 거듭날 수 있는 명분도 생길 수 있다. 또한 군대의 지위는 낮아지고 당의 지위는 더욱 높아져서 국가 최고지도자의 권력의 상징이 될 것이며, 당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각 부서 간, 상하 간의 기능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북·미 관계가 개선된 이후에는 서방 선진국들과의 외교관계를 급속도로 발전시켜 정책이 경제건설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며 결과적으로 종합국력이 강화되어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이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II. 중·북 정치협조의 현황과 특징

지금까지 중·북 양국은 정치방면에서 비교적 긴밀하고 활발한 협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었고, 이러한 관계 유지를 통해 여러 계층 간의 다방면의 협조형태를 만들 수 있었다. 계층 간의 협조이라 함은 양국 간의 당과 당, 중앙정부와 중앙정부, 고위급 간부와 고위급간부, 중앙의 각 부처와 그에 상응하는 기관, 지방 당정부서와 지방 당정부서간의 교류와 협력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상호 간 특수한 목적을 가진 특수들을 파견하여 국제적, 지역적 문제를 협의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협조의 목적은 서로 간에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태도를 표명함으로써 더 깊고 솔직한 교류와 대화를 하고, 나아가 상대방의 입장이나 태도를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상호 협조하여 공생의 방안을 모색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있다.

협조를 진행하는 데는 직접적인 방식과 간접적인 방식이 있다. 직접적 방식은 양국 간의 정치적 협조이나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를 협의하는 협조를 들 수 있으며, 간접적 방식은 양국 중 어느 한쪽이 제3국이나 그 외의 지역적 협조를 통해 서로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어 내는 교량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북한과 한국,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의 사절들이 함께하여 서로의 이익을 논의하는 베이징 6자회담을 들 수 있다.

2000년 이후 중·북 양국 간의 정치협조는 완전히 새로운 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양국의 당(黨), 정(政), 군(軍)의 고위층 인사들은 상호 방문과 교류를 통해 합작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켰으며, 양국 지방정부간의 교류 또한 더욱 활발해졌다. 예를 들어 전(前) 중화인민공화국 중앙 총서기 겸 국가주석 장쩌민(江澤民), 현 중화인민공화국 총서기 겸 국가 주석 후진타오(胡錦濤), 전국인민대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우방궈(吳邦國), 국무원, 정협, 중앙군사위원회의 고위급 간부들은 북한의 초청을 받고 지속적으로 평양을 방문하였으며, 북한 노동당 총서기 겸 국방위원장인 김정일도 여러 번 중국의 초청을 받고 방문하였고 북한 최고인민대회 상설위원회 위원장 김영남(金永南)과 내각 총리 및 국방위원회 등 여러 명의 당, 정, 군 고위급 간부들도 중국을 방문하였다. 그 외에 양국의 중앙 소속 각 부 위원회와 지방정부 관리들 또한 단체를 조직하여 서로를 방문함으로써 양국 고위층 지도자들과 관련 부서간의 대화와 협력이 더욱더 공고해졌다. 이는 20세기 80년대 이래로 중·북 양국관계가 더욱 긴밀하고 깊어진 시기였다.

고위층 지도자들의 상호방문과 교류를 통해 양국은 새로운 공감대를 이루었으며, 양국 간의 정치, 경제적 합작으로 인해 상호간에 더욱 우호적인 분위기와 강한 결속력을 다질 수 있었다. 또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정치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능한 빨리 벗어나게 하려는 강한 신념과 책임감이 생기게 하였으며, 북한 또한 이러한 중국의 지원을 점점 더 받아들이고 중국과의 합작의 중요성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해 나가고 있다.

후진타오 총서기의 새 중앙정부는 새로운 시대의 중·북 우호관계 발전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국 고위층 및 각계각층 간의 교류를 한층 더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양국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하여 이익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중·북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로 향하여, 선린우호 관계를 맺고, 합작을 강화한다(繼承傳統, 面向未來, 睦鄰友好, 加強合作)”의 “16자(字) 방안”을 제창함으로써, 국가를 통치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서로가 배우고 서로의 본보기가 되어 중요한 국제적 지역적 문제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여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도 이러한 중국과의 정치, 경제적 협력관계 발전에 만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개혁개방 이래 얻은 성과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중·북 관계가 전통적 우의 계승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정세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뜻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북·중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확고 불변의 전략방침으로 정하고 “지난날의 사업을 계승하여, 앞날을 개척하고, 어울려 나간다”는 의지로 중국과의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중국정부와 인민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전폭적인 지원과 원조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북 관계는 이미 확연한 봄의 분위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양국 간의 협력 강화의 중요성과 합작의 의지 또한 갈수록 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중·북 정치합작의 주요 내용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1. 양당(党) 간의 협력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은 모두 무산계급 정당이며, 또한 국가의 집권당이다. 이는 일찍이 사회주의 집권국가의 元祖로써 존중받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의 기수가 되었던 소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90년대초 비록 구소련이 해체되고 그 지위가 상실되었지만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은 여전히 그 소련 공화국의 지위지시 않은 잔재로 남아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의 성격, 취지 목적, 지위, 기관구조, 운영체제와 당원의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많은 공통점과 유사점이 있다. 이러한 공통점들은 양 당의 협력과 교류의 기초가 되고,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진 두 나라의 집권당이 어떻게 건설되고 부패를 척결하며 당의 존엄성을 유지하느냐에 있어서 공통의 기준이 되었다. 이는 또한 당의 영예를 수립하고 인민들로부터의 명망을 지속적으로 높이며 당의 영도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세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중·북 양당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오랫동안 대화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또한 당의 역량 강화, 집정의 경험 공유, 현세의 당의 주요임무의 상의, 쌍방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는 국제적 지역적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함께 할 수 있었다.

교류와 합작의 기본 형태는 당의 고위층 지도자들과 중앙당 부서 조직 간, 지방성(도) 시급 지도자의 단체 상호 방문을 들 수 있으며, 각 계층마다 여러 가지 각자의 사명과 임무를 가지고 방문을 한다. 그 중 중앙의 일급 당 대표단의 주요 임무는 어떤 문제에 관한 유관 정보의 전달 및 의견의 교환, 대화와 이해를 통해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일급 당대표단은 포괄적인 교류를 진행함으로써

지방간의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감정을 돈독히 하여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어떠한 형식의 교류든 그 주요 목적은 양당 간의 상호이해, 우호 증진, 교류촉진, 사업협력과 같은 향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는데 있다.

중·북 양당 관계는 양국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양당 간의 접촉과 교류로 인해 더욱 밀접한 당정관계를 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무역과 문화와 같은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작을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중·북 양당의 협작은 양국 간의 협력과 교류를 기초로 하여 양국관계를 발전시키고, 경제무역을 포함한 여러 영역의 교류와 발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중·북 양국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양당 간의 교류와 협작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목표로 삼아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양당 간의 소통과 협작은 상호간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그것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 보기는 어렵다.

현 단계에서의 중·북 양당 간의 교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양당의 지도자들은 밀접한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로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해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둘째, 여러 영역에서의 교류는 중·북 관계와 양국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한다.

셋째, 양당은 국제적 형세와 지역 간의 문제에 있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핵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다.

2.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협작

20세기 90년대 초에 사회주의였던 국가들 대다수가 국가의 성질을 변화시켜 자본주의 발전노선을 선택하였다. 특히, 사회주의국가의 주인이었던 ‘소련’이 자본주의 체제를 택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에 붕괴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북한, 쿠바,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내외의 각종 압력을 견뎌내면서 동요하지 않고 사회주의 노선을 이어 왔다. 또한 중국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의

신조류(潮流)에 적응하여, 본국의 실정과 현황에 맞추어 사회와 경제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본국의 국정과 특색에 부합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였으며, 사회주의의 혁명의 불씨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세계정세 속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기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중국과 북한 모두 변화의 조류에서 빚어지는 충격과 시련을 함께 경험하였으며, 어떠한 노선을 가야할 지에 대해서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자세를 고수해 왔다. 양국은 또한 외부적인 충격과 영향력을 이겨냈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노선을 걷는데 있어 확고한 신념과 결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사회주의의 발전 형태를 모색하여 왔다. 그동안 양당과 양국 정부, 양국 인민의 정치적 신념에는 조금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현재 양국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진 같은 길을 걷는 사회주의 국가 동일 진영의 전우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이념과 신조는 그 나라 정권의 성격과 국가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고, 서로 같은 정치이념과 신조는 양국의 정치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과거 양국은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강력한 우호협력자였으며, 반미 반제국주의 투쟁에 있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며 사회주의를 지켜왔다. 현재의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형세에서 양국은 어떻게 사회주의 제도를 좀 더 견고하게 강화시키고 좀 더 완벽하게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지의 문제에 관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양국은 과거에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같은 현실에 직면해있고 또한 같은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의 지도자는 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제도를 설립하여 상호 원조와 지원으로 상호이해와 신임을 가지고 자본주의思潮가 사회주의에 침투하는 것을 공동으로 저지하여 사회주의 진영을 완성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이룩하여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당과 인민들이 사회주의 진영을 고수하기를 명백히 희망하며 북한이 본국의 국정에 맞는 발전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지지한다. 북한 또한 중국이 중국의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여 그로 인해 진심으로 기쁨을 느끼고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찬양하기를 희망한다.

현재, 중국은 중국만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더욱 완벽한 사회주의적 정치, 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세계무대에서 지위와 영향력이 끊임없이 향상되었으며 사회주의국가의 정치체제 개혁과 경제발전

모범이 됨으로써 이미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또한 특색 있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새로운 정책과 조치들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새 세기의 핵심 국가가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주체적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발걸음을 시작하였다.

중국과 북한 등 국가가 이행해온 사회주의식의 정치, 경제체제의 건설은 사실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경쟁을 의미하기도 한다. 두 가지의 다른 사회제도와 정치, 경제체제 이념간의 격렬한 경쟁은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한편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진보와 경제의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을 증가시키고 강성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과 북한의 두 사회주의 국가는 특색 있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특히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정치, 경제체제 개혁의 성공적 경험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자본주의 사조의 잠식을 막고, 서방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침투를 공동으로 저지하여야 한다. 또한 두 개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 경제체제를 지속적으로 완성시켜 나감으로써 각 분야에서 월등한 발전을 이룩하고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강한 생명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3. 국제적, 지역적으로 중대한 문제의 합작

중·북 양국은 지금까지 국제적, 지역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협의하는데 있어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합작관계를 유지해왔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서로의 의견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교환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북 양국은 이러한 방면의 합작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주로 양국 고위층 지도자의 상호 방문과 특사파견 및 각 국에 주재하는 상대방 국가의 영사관 직원들을 통함으로써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서방국가들이 비난하는 양국에 존재하는 인권문제에 관한 합작

미국 등 서방국가는 지금까지 중국과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거칠게 비난해 왔다.

그들은 “중국과 북한에는 인권이 없다”, “조금도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말들을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시켰으며, 미국국회의 한 의원은 <중국 인권 법안 (中國人權法案)>과 <북한 인권 법안 (北韓人權法案)>등을 의회에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토론되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서방의 몇몇 국가들도 부화뇌동하여 중·북 양국을 비난하였으며 양국의 국제 이미지를 함부로 훼손하였다. 이에 중·북 양국 정부는 서방국가의 모함과 간섭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의 협의를 통해 통일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 사실을 국제 사회에 폭로하였으며, 인권문제를 위한 더욱 강화된 기준을 만들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2)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합작

중·북 양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북한은 중국에 대해 6자회담에서 중국이 맡은 역할을 인정하고 지지해 오고 있으며, 중국의 능력과 작용에 대해 신임하고 있다. 중국도 또한 북한의 합리적 주장과 요구를 충분히 존중하고 고려하고 있으며, 북한의 당과 정부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베이징 6자회담의 주최국으로서 매회 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북한과 회담 내용에 관해 논의하고 사전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기타 회담 참가국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북한을 도와 사전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회담을 주동하는 입장에 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중국은 또한 북한의 생각과 요구를 기초로 기타 회담 참가국들과 사전협의를 진행함으로써 6자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상당한 진전을 거두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사실 6자회담은 중국이 대화의 방식을 통해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자리이며, 이는 또한 북한의 주권과 국가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또한 6자회담을 통해 ‘2. 13’ 합의와 ‘10. 3’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동북아 국가들의 지역분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도 큰 공헌을 하고 있다.

(3) 통일문제에 있어서의 합작

북한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중국의 <분열

국가법(分裂國家法)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또한 대만 당국의 ‘대만독립(台獨)’과 달라이라마(Dalai Lama) 집단의 조국을 분열시키는 활동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만과 티베트와 관련된 문제에서 북한은 중국 정부의 ‘일국가이체제(一國兩制)’의 방침을 지지하며, 그로 인한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도 북한이 제안한 북·남 평화통일 정책의 합리적 주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북·남 관계의 개선과 조선반도의 자주평화통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다. 또한 남북화해와 대화교류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4) 국제 연합기구 내에서의 긴밀한 합작

북한은 국제기구 내의 선거에서 여러 차례 중국의 후보자를 지지하였으며, 중국은 국제연합이 한반도의 남북대화 강화와 평화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하였다. 또한 중국은 관련 국가들이 이유 없이 북한의 인권현황에 대해서 비난하고, 북한의 내정을 간섭하는 안전에 반대의사를 표명해왔으며, 북한에 대한 정치 경제적 제재를 해제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북한을 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5) 반(反) 패권주의에 대한 합작

동북아지역은 아직도 완벽한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았으며 냉전의 산물이 여전히 남아있어 전통적 방식의 세력균형 논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북간의 군사 동맹관계는 오랜 기간 동안 ‘북 삼각, 남 삼각(北三角, 南三角)’¹⁾의 대립구도를 형성하게 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북한은 중국에게 있어 중요한 전략적 완충지이며, 중국은 북한에게 있어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이다. 냉전이 종식된 후에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한반도의 세력균형이 깨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안보환경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이는 미국이 이 지역에 군사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여 북한을 억누르고 중국과 러시아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1) 북 삼각, 남 삼각(北三角 南三角) : 북 삼각 - 중국, 북한, 러시아, 남 삼각 - 한국, 미국, 일본 -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 구조 (역자 주).

게다가 일본은 지속적으로 ‘중국 위협론(中國威脅論)’과 ‘북한 위협론(朝鮮威脅論)’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을 비난하고, <신방위대강(新防圍大綱)>을 통해 중국과 북한을 주요 위협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를 핑계로 일본은 군사력을 증강시켜 군사 대국으로 거듭나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새로운 미사일방어시스템(NMD)을 구축하여 중·북 양국에 직접적인 위협의 대상이 되었다. 미일 양국은 군사적 교섭과 교류를 통해 정식으로 군사합작을 진행하고, 양국의 안전과 주권을 유지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지역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대항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 안정적 체제를 건설한다고 하고 있다.

Ⅲ. 정치합작에 있어서의 문제점

중·북 양국은 정치합작을 하는데 있어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얻게 된 성과 또한 적지 않지만, 반면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점들 또한 존재하고 있다. 양국의 정치합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1. 의식의 차이로 인해 존재하는 이견과 대립

중·북 양국은 비록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같은 국가의 이념과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현 단계의 사회주의 관념에 대해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노선과 방침,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비교적 큰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치적 이념을 비롯하여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에서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1978년 12월의 제11기 3중 전회에서 현시대 사회주의 발전을 위한 인식을 새로이 정하고, 이는 중국 사회주의 발전의 초기단계였다. 공유경제를 공고히 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동시에 사유재산 제도와 시장경제의 발전 및 ‘일부의 사람들을 먼저 부유하게 하는(先富論)’ 정책을 허용하였다. 또한 개혁개방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이전의 정치 경제체제에 큰 변화를 가하였다. 정치방면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개방된 사고방식으로 민주적 의식을 강화하였으며 언론의 자유도 또한 향상시켰다. 이로 인해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의 정도는 갈수록 확대되었으며, 관념

의 갱신을 장려함으로써 새로운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여전히 오래된 정치 경제체제를 고수하면서 그것을 사회주의의 낙원이라 칭하며 국가가 전 인민에 의해 소유되는 형식으로 편성하였다. 단순히 ‘전인민소유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현재 사회주의의 중·고급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사실상 북한의 이러한 전 인민 소유제는 현대사회의 현실적인 소유제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조금도 우세한 면이 없는 제도이다. 북한은 심지어 관념의 갱신이나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조차 허용하지 않으며 지금까지도 인민의 의식에 대해 엄격한 억압과 규제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뒤로는 중국이 사회주의 궤도를 탈피하여 자본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비난하면서 표면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통한 변화에 대해 칭찬하고 축하를 하고 있다.

중국 인민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그다지 곱지 못하다. 중국 인민들은 북한에 대해 정치체제가 비교적 경직되어 있고 경제의 개방도 부족하며 봉건통치의 색채가 농후하고, 경제가 낙후되어 있고, 생산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이 빈곤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양국의 의식형태에서 비교적 큰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국가들끼리 협작을 하는 데는 모순이 크게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동일한 사회주의체제의 국가 간에 협작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모순이 크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에 대해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되며, 서로 대립할 때의 반응도 더 강하게 표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및 변화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인민들의 북한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을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북 양국 간의 정치경제 협작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 상호간에 여전히 존재하는 경계심리

중·북 양국은 정치경제 협작에 있어 어떤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서로 어느 정도의 경계 심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상대방과의 협작에서 자신이 상대방에게 이용되지

않으려는 걱정을 하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현상은 북한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어떠한 국제간, 지역 간의 중대한 합작문제에 있어서 북한은 중국을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3자 회담 방안이 거론될 때, 북한은 중국을 배제하였으며 마지막에 미국과 한국의 지지로 중국은 겨우 회담에 참가하여 4자회담의 구도를 형성 할 수 있었다. 그러나 4자회담과 6자회담의 자리에서도 북한은 중국을 완전히 신임하지 않고 중국이 북한의 지위와 작용을 대신하고 회담의 기회를 이용해 지위와 영향력을 높이게 될까봐 염려하였다. 동시에 중국도 북한의 지나친 요구와 강경한 태도에 우려를 표하였으며 그로 인해 미국, 한국, 일본 등의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이 그렇게 불만을 표하고 의심하는 행동이 북한을 뒤에서 조종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이 문제로 북한과 대화를 하여야 했으며 또한 함부로 북한을 충고하기가 매우 어려웠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러한 방면에서 더욱 신중해져야 했고 각 측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다른 예로, 중국이 국제학술회의 등을 조직하여 개최할 때 북한에 보낸 초청은 항상 거절되었다. 이는 외교활동의 제약에 관한 규정상의 이유 이외에도 북한의 중국 주최측에 대한 경계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가 중국의 지위와 작용을 향상시키고 중국의 이익을 크게 한다고 여기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중·북 양국 인민들 간의 접촉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자유롭게 교류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에서 공부하는 중국 학생과 연수생들조차 수업이 끝난 후 북한 선생님들과 약속을 정해 만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중국의 조선족과 북한에 있는 그들의 친척간의 만남도 엄격히 제한받고 있다. 그 이유는 양국 인민들의 상호접촉으로 인해 북한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인민들의 신념이 동요되어 정치적 불안정의 요소가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만약 중·북 양국이 당정 고위급 지도자간의 접촉과 교류만을 중시하고 인민들 간의 교류를 제한한다면, 양국의 정치, 경제교류 및 합작에 근원적인 문제가 분명히 생기게 될 것이다. 인민들 간의 합작이 결여된 국가 간의 합작은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 새로운 합작형식에 완전히 적응하였는가?

시대의 변화로 국제정세가 새롭게 바뀔에 따라 양국 간의 정치경제 합작의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양국은 당연히 새로운 형세에 적합한 합작방식을 주동적으로 협의하고 모색해야 한다. 우선 중국은 양국 간의 전통적인 합작의 형태를 현 실정에 맞도록 조금씩 정상적인 국가 간의 합작형태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북한 또한 ‘혈맹관계’, ‘친형제와 같은 관계’를 내세워 중국에 정치, 경제, 군사적 원조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 양국 간에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당연한 선택인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해야 하는 최종목표이기도 하다. 만약 양국이 새로운 형세변화에 발맞추어 전통적인 합작형태를 새롭게 바꾸지 못한다면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합작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상호간에 불신과 불만만 가중되어 결과적으로 양국관계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장기적으로 볼 때 조금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중·북 합작관계에 있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조와 부축만으로는 양국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북한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자구책을 강구하여 가능한 한 빨리 현재의 낙후된 경제를 신속히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생각만이 중·북 양국의 장기적 합작관계에 더욱 활력을 줄 수 있으며 합작의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

IV. 북한의 변화에 대한 전망

국제형세와 국내정세가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주변 국가들의 북핵문제 해결에 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북·미, 북·일, 남북한 관계가 조금씩 개선됨에 따라 북한의 정치, 경제상황에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전망, 예측할 수 있다.

1. 정치형세의 변화에 관한 예측

단기적으로 볼 때 북한의 정치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전망된다. 그들은

여전히 주체사상 하에서 자주, 자립, 자강의 건국방침을 유지해 갈 것이며, 대외관계에서는 ‘나 자신을 위주로(以我爲主)’라는 관념으로 주변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책략만을 강구할 것이다.

정치체제에 있어서는 조금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그 전에 북핵문제 타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북·미 관계가 개선되어야 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들이 해소되고, 북한이 국제정세의 변화와 발전의 추세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경우 현재의 총서기 김정일이 국가주석의 지위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순조롭게 국가원수의 지위까지 차지할 수도 있는 명분도 생기게 된다. 그럴 경우 김정일은 서방국가들과의 접촉을 통해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확고히 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정치와 사상에의 분위기도 어느 정도 이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되며, 정치 체제 또한 비교적 부드럽고 개방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제발전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도 형태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정책의 중점방향이 경제를 건설하는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선군정치(先軍政治)’의 노선에 충격이 가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 군대의 권위와 지위가 약화될 것이다. 또한 당의 핵심 지도자의 지위와 역할이 새롭게 바뀌게 될 것이며, 권력구조가 현재의 군(軍)-당(黨)-정(政) 체제에서 당(黨)-정(政)-군(軍) 체제로 전환되어 국가의 형태가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성격에 부합되는 동시에 경제건설을 위한 요구조건에도 점차 적응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 책임, 이익은 더욱 명백하게 구분될 것이며, 예전에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했던 (경제관리권, 경제정책 결정권)은 점차 지방으로 분산되어 지방의 경제 자주권 확대시키고 지방정부 관리들의 업무에 대한 적극성이 커짐에 따라 지방정부의 업무역량 또한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현재 북한 국내의 정치형세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따라서 정권이 전복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북한의 정치형세를 전망하는데 기본적으로 생각되어야 하는 요소로써 그에 대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 군대를 완전히 통제하고 조종하고 있다. 군대는 국가

안전을 유지하고 국가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김정일은 최고지도자로서 특히 국내외 정세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는 군대를 장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므로 군대에 대한 사상 확립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행해왔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이행하고 있는 ‘선군정치’의 사상은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세뇌되어 있으며, 군대는 국가와 사회발전을 이룩하는 주요 권력기관으로써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과 국가안보에 지대한 작용을 하고 있다.

또한 전체 군인과 인민들에게 주체적 사회주의 정치이념을 확고히 고수하도록 함으로써 정권 안정을 도모하고 인민들로 하여금 김정일 위원장에게 충성하도록 사상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군대의 고위급 지도자들은 모두 김정일의 신임을 얻어 지명되었으며 그들은 모두 김정일에 대한 깊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어 군대를 통제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보조자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김정일이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는 군대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고 북한의 정국에는 동요가 생기기 어렵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둘째, 당의 사상교육 작업이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은 당의 사상교육 작업을 확대하여 더욱 광범위하고 세부적으로 보급하였다. 그 목적은 북한 인민들로 하여금 애당심, 애국심 및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도록 하여 인민들의 동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 결과 북한군대와 국민들의 사상이 통일되었고 전국 모든 곳에서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고양되어 그의 위엄과 지위가 김일성 주석과 같은 위치에 올라 있다.

또한 당의 사상교육 작업을 통해 양성된 청년지도자 간부들은 각각 군, 당, 정부 각 부서의 주요 위치에 배치 받아 근무하고 있으며 군사위원회, 각 병과의 지휘부, 노동당 중앙 지도부, 대외 연락부, 통일전선부, 재정부, 35호실, 38호실 등의 부서에서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40~50세 사이의 청상파(靑狀派: 중장년층)에 속하는 연령대로서 모두 똑똑하고 유능하여 상당한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김정일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주요 집단이 되어 있다. 이들은 일찍이 군대 및 당과 국가의 지도업무를 파악하여 각 방면의 풍부한 경력과 경험이 쌓여있다. 현재 그들은 지도자 집단의 위치에서 김정일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김정일의 정치의도를 충실히 수행하여 김정일의 양팔과 머리가 되어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정치무대에

서 이들의 역할은 나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정세를 안정시키는데 유리하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북한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관계이든 우호적 관계이든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망하고 있으며 내란으로 인해 대규모의 난민유출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여 자국이 이유 없이 화를 입는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 주변국가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경제적인 부담 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북한 정국의 동요를 좌시하며 방관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러 양국의 동북아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 양국도 북한이 현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조금씩 변화하여 경제발전을 회복시키기를 바라고 있으며, 북한의 내란으로 인해 경제, 사회적 발전에 영향이 미치는 사태를 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내외적 요인으로 미루어 판단하였을 때 북한이 현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북핵문제가 현재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이미 일련의 성과를 얻었으며, 설사 현재 북핵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는 있지만 그 해결 전망은 비교적 밝은 편이다. 또한 북핵문제가 조금씩 해결되어 감에 따라, 북한은 더 많은 정치, 경제적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즉, 북한이 테러국가 명단에서 제외되게 되면 북·미, 북·일 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와 지위는 상당히 높아져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지위가 신장 될 것이다. 그 외 서방국가들의 대북 경제봉쇄 정책이 해제되면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게 되어 북한 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북한의 정치적 안정을 통해서만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적 안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러한 유리한 요소도 있는 반면에 몇 가지 불리한 요소도 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식량문제가 오랜 시간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북한 경제는 매우 악화된 상태이며 몇 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작년(2007년)에는 홍수재해가 발생해 식량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식량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었고 식량을 수입할 수 있는 역량

조차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 도시거주민의 매월 식량 배급량은 60% 수준까지 줄어든 상황이며 나머지 부족분은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 종합시장의 쌀 가격은 1kg당 북한 돈 2,000원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 노동자들의 한 달 월급이 있어야만 1kg의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현재 북한 주민은 심각한 기근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이고 어느 정도가 되면 그것이 폭발하여 폭동이 일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키고 정국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둘째, 선군정치는 군대의 지위와 대우를 끊임없이 상승시켜 특권을 가지게 하였다. 이는 군인들 특히 간부들로 하여금 더욱 교만하고 난폭한 안하무인의 인격으로 만들어 군인들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현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 군인과 인민들 간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어 군대에 대한 사회적 이질감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자행된다면 북한 인민들은 분명히 군대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선군정치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북한노동당에 대한 신임도가 약해지고 나아가 김정일의 권위와 정통성에 위협을 가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셋째, 군-당-정의 정치체제가 당-정-군의 정치체제로 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군대의 핵심지위와 역할이 위협을 받고 군대의 능력이 도전을 받는 현상이 생기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 과거의 권력과 지위가 추락하고 과거에 누렸던 특권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건은 군대가 이러한 현상을 받아들이고 지위와 권력이 사라졌을 때의 불쾌감을 억제하고 현실을 받아들여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처리가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 정과 군대의 관계에 마찰이 빚어지고 심지어 충돌이 발생하여 정국의 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정치변화는 전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또 그렇게 대대적이지도 않은 그저 충분히 그럴만한 가능성이 있는 단순한 내부적, 국부적 또는 형식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북한정책의 조정방향은 국내정치의 안정을 일순위로 두고 ‘선안보후경제(先安保後經濟)’ 전략을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 선군정치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지키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서방국가들에 의한 재제와 봉쇄조치를 해제하도록 하여 생존

과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 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의도가 실현된다면 북한은 정치, 경제 방면의 큰 변화를 이루게 것이다. 즉 정치, 경제체제의 전면적인 개혁을 진행함으로써 정치체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정립하여 진정으로 경제건설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목표를 실현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구체적인 발전방향과 변화정도가 어떠할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만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중·북 정치협력 현황과 북한의 변화 현황

김 철(金哲)(중국요녕사회과학원, 조선반도연구중심, 교수)

I. 머리말

정치협력이란 정치주체가 특정된 정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간격과 분기 및 충돌을 버리고 일치한 인식과 단결을 달성하는 정치행위를 뜻 한다.¹⁾ 국가 간의 정치 협력은 본질적으로 양국 간의 양자관계이거나 더욱 광범한 국제관계로서 그 실질은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실력을 기반으로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겨룸을 한 결과이다.²⁾ 그러므로 외교의 실질은 국제관계에서 나라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이익의 집중체현인 것이다. 때문에 외교관계의 지도사상은 필연적으로 국가이익이 지고지상으로 되게 하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예로부터 순치상의(脣齒相依)의 친선적인 이웃나라이었다. 양국은 1949년 10월 6일에 국교를 정식 체결하였고 1950년 한국전쟁이 폭발한 후 양국인민은 어깨 곁고 싸워 공동의 외적을 물리치면서 피로서 맺어진 친선을 결성하였으며 1961년 7월 11일, 중·북 양국은 『中朝友好合作互助條約』을 체결하였다. 반세기 동안의 냉전구도에서 중·북 양국은 동일진영의 전우(戰友)로서 “홍망과 성쇠를 같이 하고 곡절도 겪는 노정을”³⁾ 거치었다. 결국 양국관계는 이데올로기를 유도방향(導向)

1) 宋衍壽·陳明凡, “政治合作與政治衝突的互動關係研究,” 『北方論叢』, 2005년 제01기.

2) 실력은 각종 구도의 토대로 되지만 구도는 또한 나라의 실력을 가강하거나 쇠약하게도 만들 수 있다. 국제투쟁에서 한 나라의 국제지위는 그 나라가 국제적으로 처한 정치, 경제 및 군사의 종합실력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외교전략 과도 관계된다. 고명한 외교수단은 상당한 정도로 한 나라의 실력부족을 미봉할 수 있다.

3) 陳峰君, 『冷戰後亞太國際關係』(新華出版社, 1999), 442쪽.

으로 하던 데로부터 국가이익을 유도방향으로 하는 전향적인 변화를 가져왔다.⁴⁾ 냉전 후 중·북양국은 대방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繼承傳統, 面向未來, 睦鄰友好, 加強合作)” 방침으로 양국관계를 정립하였다. 이는 중·북 관계가 이데올로기 주도로부터 정상적인 국가전략협력을 벌리는 데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부터 중·북 양국관계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2005년 10월 28일, 胡錦濤주석은 김정일위원장과 회담에서 양당, 양국관계를 진일보 발전시키기 위한 네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고층왕래를 계속 밀접히 하고 상호소통을 가강한다. 둘째, 교류영역을 넓히고 협력의 내용을 탄탄히 다진다. 셋째,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한다. 넷째, 적극 협력배합하고 공동이익을 수호한다. 김정일위원장은 이에 대해 찬성을 표시하면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북한은 전략적 차원에서 북·중 친선을 파악할 것이며 북·중 친선을 견정불이(堅定不移)한 전략방침으로 삼을 것이라고 하였다. 중·북간 정치관계의 건전한 발전은 향후 북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은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II. 중북 정치관계의 발전과정

중국과 북한은 산과 물을 잇대고 있는 나라로써 양국친선은 노 세대 지도자들이 몸소 창립하고 돈독히 하여옴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여 왔다. 반세기 동안 중·북 양국은 각자의 국정에 맞는 발전도로를 탐색하였고 양국은 모두 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였으며 서로 돕고 지지하였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북간의 정치관계는 줄곧 안정하고 견고하였으며 시련을 이겨냈다. 반세기 동안의 중·북 관계를 돌이켜 보면 대체로 아래의 몇 개 발전단계를 거쳤다.

1. 제1단계: 1949~1964년

새 중국이 방금 성립되자 북한은 1949년 10월 6일 중국과 국교를 건립함으로써 중국과 가장 일찍 국교를 건립한 나라 중의 하나로 되었다. 그때 당시 각국의 대외정

4) 劉長敏, 『論朝鮮核問題解決中的國際斡旋與調停』(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7. 3), 205쪽.

책과 국제관계는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중국, 구소련과 북한은 모두 사회주의진영으로 공동이 미국을 수반으로 한 제국주의 진영을 반대하였다. 북한과 구소련은 특수한 관계에 있었고 냉전사과의 논리로 북한과 중국의 관계도 아주 밀접하였다. 더욱이 3년간의 한국전쟁을⁵⁾ 거쳐 중·북 양국인민은 피로서 맺어진 전투우정을 맺었으며 양국관계는 더욱 발전되었다. 1953년 11월, 중국과 북한은 『中朝經濟及文化協定』을 체결하였다. 중·소 관계가 긴장해지면서 북한은 중국으로 경향을 돌렸다. 1958년 10월, 중국인민지원군은 모두 철거하였고 1961년 7월, 중국과 북한은 『中朝友好合作互助條約』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중·북양국은 정치,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모두 형제와 같은 친선관계를 유지하였다.

2. 제2단계: 1965~1969년

이 시기 국제정세와 양국의 국내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구소련의 정국에 변화가 생겼으며 흐르쇼브가 내려앉은 후 북한과 구소련과의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다. 이때 중국에서는 전례 없는 “문화대혁명”이 일어났다. 이번 운동은 중국의 대내정세와 대외관계에 모두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문화대혁명”운동 중에서 중국의 홍위병(紅衛兵)들은 북한지도자를 포함한 국내외 지도자들을 직접 공격하였다. 이로 하여 중국과 북한 간에는 간극이 생겼고 양자관계도 냉각되었다. 이때 북한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대해 중립을 지키었고 그 대신에 구소련과의 관계가 밀접해 졌다.

3. 제3단계: 1970~1989년

1970년 4월, 周恩來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이 연합공보를 발표하면서 양국인민의 친선단결과 상호협력관계를 한층 더 공고하고 발전시킬 것을 다지었다. 북한은 또 주체사상에 근거하여 중·소 양국에 등거리 외교정책을 취하였다.

이 시기 국제정세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동서관계가 완화되었고 중·미, 중·일 관계 정상화를 실현하면서 중국은 “일직선”외교정책을⁶⁾ 제정하였다. 중·북 관계는

5) 이번 전쟁을 중국은 “항미원조”전쟁이라 하고 북한은 조선전쟁, 한국은 한국전쟁이라 한다.

6) “일직선”외교전략: 1970년대에 국제정세가 큰 변화를 가져왔다. 미·소 초대국의 군사역량대비가 구소련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장기적인 대외확장, 더욱이 베트남전쟁으로

“일직선”외교정책의 지도하에 안정된 발전을 가져왔다.⁷⁾

1980년대에 북한은 중국과 정치, 경제, 문화, 체육 등 영역에서의 밀접한 협력을 활성화하였고 양국고층지도자와 더불어 정치, 경제, 군사, 무역 방면의 대표단들도 상호방문을 빈번히 하여 양국인민의 친선단결을 촉진하였다. 1989년은 중·북 수교 40돌이 되는 해이다. 이를 경축하여 양국은 모두 경축행사를 하였다. 이 시기 중·북 관계는 봄날 같았다.

<표 II-1> 1970~1989년 중·북 양국지도자들의 상호방문

순서	성명	당시 신분	방문성격	방문시간
중국지도자들의 북한방문				
1	周恩來	총리	공식친선방문	1970.4.5~4.7
2	姬鵬飛	외교부장	친선방문	1972.12.22~12.25
3	華國鋒	당주석, 총리	공식친선방문	1978.5.5~5.10
4	鄧小平	당부주석, 부총리	친선방문	1978.9.8~9.13
5	趙紫陽	총리	공식방문	1981.12.20~12.24
6	胡耀邦	당주석	비공식방문	1982.4.26~4.30
	鄧小平	당부주석		
7	吳學謙	외교부장	공식방문	1983.5.20~5.25
8	胡耀邦	당총서기	공식친선방문	1984.5.4~5.11
9	胡耀邦	당총서기	비공식방문	1985.5.4~5.6
10	李先念	국가주석	친선방문	1986.10.3~10.6
11	楊尙昆	국가주석	친선방문	1988.9.7~9.11

하여 실력이 뚜렷이 약화되었고 패권지위도 도전받게 되었다. 이 기회에 구소련은 군비확장에 박차를 가했고 팽창된 군사실력을 바탕으로 대외확장을 하였다. 양자의 치열한 겨룸에서 구소련이 공격세에 있고 미국이 수세에 있는 전략적 태세가 나타났다. 미국은 전 세계적인 패권지위를 수호하기 위하여 대외정책을 조절하고 아시아에서의 수축전략을 취하면서 중·미 대문을 열고 인도차이나에서 탈선하여 역량을 집중하여 유럽을 중점으로 확보하려 하였다. 국제정세가 평화와 안정된 국면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여러 나라인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도록 추동하기 위하여 毛澤東주석은 1973년에 키신저를 만날 때 목표만 같다면 우리도 당신들을 해치지 않고 당신도 우리를 해치지 말고 공동이 소련패권주의를 대처하자고 하면서 미국이 유럽, 일본과 협력을 가강하여 하나의 선을 긋도록 제안하였다. 즉 미국, 일본, 중국, 파키스탄, 이란, 터키, 유럽이다. 이것이 바로 연합하여 소련패권주의를 반대하는 “일직선”전략이다.

7) 陶常海, 李曉光, “一條線”外交政策下的中朝關係, 『安徽教育學院學報』, 2006년 제05기.

12	趙紫陽	당총서기	공식친선방문	1989.4.24~4.29
북한지도자들의 중국방문				
1	허 담	외교부장	공식방문	1973.2.9~2.14
2	김일성	주석	친선방문	1975.4.18~4.26
3	이종옥	총리	공식방문	1981.1.10~1.14
4	김일성	주석	국사방문	1982.9.16~9.25
5	김정일	비서	비공식방문	1983.6.2~6.12
6	김영남	부총리, 외교부장	공식방문	1984.2.7~2.14
7	강성산	총리	공식방문	1984.8.5~8.10
8	김일성	주석	비공식방문	1984.11.26~11.28
9	김일성	주석	공식친선방문	1987.5.21~5.25
10	이근모	총리	공식친선방문	1987.11.9~11.14
11	김영남	부총리, 외교부장	공식방문	1988.11.3~11.7
12	김일성	총비서	비공식방문	1989.11.5~11.7

자료출처: 중국외교부사이트.

4. 제4단계: 1990~1998년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동유럽이 급변하고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구도가 붕괴되었다. 이에 따라 이데올로기가 더는 국제관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되지 않게 되었다. 이 기간 동유럽과 구소련은 연이어 한국과 수교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도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수교하였다. 이러한 국제구도와 동북아정치관계의 변화는 북한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북한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파동은 중·북 관계에도 미묘한 영향을 주었다. 1990년대 초에 鄧小平은 남훈강화를 발표하여 중국의 개혁개방의 속도를 다그쳤고, 사회주의시장경제이론 탐구와 실천속도를 다그치었다. 같은 사회주의나라인 북한은 중국의 거대한 변화를 주시하고 있었다. 동시에 중국은 대외경제관계에서 주로 시장경제논리를 적용하였기에 중·북 경제협력과 양자무역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1994년 7월, 김일성주석이 사망하고 잇따라 연이어 몇 년간 큰 자연재해를 겪어 북한경제는 아주 어려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위의 원인으로 하여 중·북 고층상호방문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가 가장 어려울 때 중국은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표 II-2> 1990~1998년 중·북 양국지도자들의 상호방문

순서	성명	당시 신분	방문성격	방문시간
중국지도자들의 북한방문				
1	江澤民	당총서기	공식친선방문	1990.3.14~3.16
2	李 鵬	총리	공식친선방문	1991.5.3~5.6
3	錢其琛	국무위원, 외교부장	공식친선방문	1991.6.17~6.20
4	楊尙昆	국가주석	공식친선방문	1992.4.12~4.17
5	胡錦濤	정치국상무위원, 서기	중국당정대표단	1993.7.26~7.29
6	羅 干	국무위원, 국무원비서장	중국당정대표단	1996.7.10~7.13
북한지도자들의 중국방문				
1	연형묵	총리	공식방문	1990.11.23~11.28
2	김일성	주석	공식친선방문	1991.10.4~10.13

자료출처: 중국외교부사이트.

5. 제5단계: 1999년~현재

1998년 김정일위원장이 공식집권 후 당년 9월에 헌법수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북한은 내정과 외교에서 모두 새로운 방법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도 점차 정상발전의 궤도로 회복하였다. 1999년 6월, 북한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당해 10월에 중국외교부장 唐家璇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중·북 관계가 새로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2000년 5월, 북한노동당총비서,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정일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비공식방문하여 양국 간의 전통적인 친선이 한층 더 공고발전 되었고 양국의 정치관계에도 새로운 내용을 부여하였다. 2001년 2월, 김정일위원장은 1년도 안되어 재차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당해 9월에는 江澤民총서기가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로부터 중·북 양당 및 양국 정부사이에는 고층지도자들의 상호방문이 매년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중·북 관계도 새로운 역사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표 II-3> 1999년~현재 중·북 양국지도자들의 상호방문

순서	성명	당시신분	방문성격	방문시간
중국지도자들의 북한방문				
1	唐家璇	외교부장	친선방문	1999.10.5~10.9
2	遲浩田	군위부주석, 국무위원, 국방부장	중국고급군사 대표단	2000.10.22~10.26
3	姜春雲	전국인대부위원장	중국친선 대표단	2001.7.9~7.13
4	江澤民	당 총서기, 국가주석	공식친선방문	2001.9.3~9.5
5	賈慶林	정치국위원, 북경시서기	중공대표단	2002.5.6~5.10
6	李長春	정치국상무위원	공식친선방문	2004.9.10~9.13
7	唐家璇	국무위원	胡錦濤주석 특별대표	2005.7.12~7.14
8	吳 儀	부총리	정부대표단	2005.10.8~10.11
9	胡錦濤	총서기, 국가주석	공식친선방문	2005.10.28~10.30
10	曹剛川	정치국위원, 군위부주석, 국무위원, 국방부장	공식친선방문	2006.4.4~4.6
11	顧秀蓮	전인대부위원장, 전국부련회주석	중국부녀 대표단	2006.4.18~4.22
12	回良玉	정치국위원, 부총리	친선방문	2006.7.10~7.15
13	唐家璇	국무위원, 胡錦濤주석 특별대표	-	2006.10.18~10.19
	戴秉國	중앙외사판공실주임		
14	楊潔篪	외교부장	공식방문	2007.7.2~7.3
15	劉雲山	정치국위원, 서기처서기, 중앙선전부장	친선방문	2007.10.29~10.30
16	王家瑞	중련부장	중련부대표단	2008.1.29~2.2
17	習進平	정치국상무위원, 국가부주석	공식친선방문	2008.6.17~6.19
북한지도자들의 중국방문				
1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공식친선방문	1999.6.3~6.7
2	백남순	외무상	공식친선방문	2000.3.18~3.22
3	김정일	총비서	비공식방문	2000.5.29~5.31
4	김정일	총비서	비공식방문	2001.7.10~7.14
5	양형섭	최고인민회의부위원장	공식친선방문	2002.10.15~10.19

6	김정일	총비서	비공식방문	2004.4.19~4.21
7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공식친선방문	2004.10.18~10.20
8	박봉주	내각총리	공식친선방문	2005.3.22~3.27
9	노두철	내각부총리	공식친선방문	2005.12.24~12.27
10	김정일	총비서	비공식방문	2006.1.10~1.18
11	양형섭	최고인민회의부위원장	친선방문	2006.7.11~7.15
12	박의춘	외무상	공식방문	2008.4.26~4.29
13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북경올림픽 찬식	2008.8.7~8.9

자료출처: 중국외교부사이트 및 북한주재중국대사관사이트의 자료에 근거하여 저자가 정리함.

Ⅲ. 중·북 정치관계 현황

새 세기에 들어선 후 중·북 관계는 새로운 역사기점(起點)에 들어서게 되었다. 양국의 지도자는 지난날의 사업을 계승하여 앞길을 개척하고(繼往開來)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高瞻遠矚) 중·북 전통친선을 공고하고 양국의 친선협력을 발전시키며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인식을 일치하였으며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繼承傳統, 面向未來, 睦鄰友好, 加強合作)” 방침을 확립하였다. 김정일위원장은 선후로 4차례 중국을 방문하였고 江澤民, 胡錦濤총서기도 각기 북한을 방문하였다. 양국지도자들의 관심과 직접적인 지도는 중·북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끊임없는 정치동력을 제공하였다. 새 시기에 있어서 친선을 소중히 여기고 전통을 계승하며, 노 세대 혁명가들이 몸소 창립한 중·북 전통친선을 수호하는 것은 양국민민들의 근본이익에 부합되며 양국민민들의 공동한 염원이다. 미래를 향하고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며 중·북 친선협력관계의 전략내포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것은 시대가 중·북 인민들에게 부여한 영광스러운 사명이다.⁸⁾

8) 劉曉明, “繼承傳統, 面向未來: 共建中朝友好合作關係,” 劉曉明중국주북한대사가 김일성종합대학에서의 연설, 2007년 11월 26일.

1. 중·북 양국최고지도자들의 상호왕래를 회복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선 후 중·북 관계는 새로운 정세하에서 한층 더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2000년 5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 江澤民의 초청으로 북한노동당총비서,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정일은 17년 만에 중국을 비공식 방문 하였다. 김정일위원장의 이번 중국방문은 1990년대 중후기 부터 잠시 정체상태에 있었던 중·북 양국최고지도자들 간의 왕래가 정식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방문은 김정일위원장이 북한노동당총비서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되는 중국 방문으로서 새 세기를 향한 중·북 관계를 돈독히 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江澤民총서기는 김정일위원장과 중·북 양당, 양국관계를 진일보 발전시키고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중요한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

쌍방은 공동이 노력하여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선린우호와 협력강화로 중·북 친선협력관계의 내포를 끊임없이 풍부하여 양국의 친선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을 다짐하였다.

2. 중·북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인식의 일치를 달성하였다.

①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얻은 성적에 대하여 적극적인 평가를 하였다.

2005년 5월, 김정일위원장이 북한노동당총비서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한 당과 정부는 鄧小平이 제기한 개혁개방 정책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였으며 2001년 1월, 김정일위원장이 재차 중국을 비공식방문 할 때 상하이(上海)시도시 계획전시관, 상하이통용자동차유한회사, 상하이화홍(華虹)NEC전자유한회사, 푸둥신구(浦東新區), 상하이베이얼(貝兒)유한회사, 상하이증권교역소, 상하이보산철강그룹, 장강(張江)첨단기술단지, 순초우(孫橋)현대농업개발구를 답사하면서 상하이의 개혁개방과 발전상황을 요해하였다. 답사 후 김정일위원장은 “중국, 특히는 상하이가 개혁개방이래 천지개벽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실행한 개혁개방 정책이 정확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한다”고 감수를 말하였다.

2005년 10월, 胡錦濤가 중국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의 신분으로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 할 때, 김정일총비서는 중국이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서 얻은 성취에 대해 높이 칭찬하였으며, 胡錦濤를 총서기로 하는 새로운 중공중앙 지도 그룹의 지도하에 중국인민이 소강사회를(小康社會)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위업이 새로운 업적을 쌓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② 중·북 관계의 미래발전방향

2001년 9월, 중국공산당총서기, 국가주석 江澤民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江澤民총서기는 김정일총비서와 중·북 전통친선협력관계를 진일보 공고하고 가강할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다. 쌍방은 공동으로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繼承傳統, 面向未來, 睦鄰友好, 加強合作)” 방침을 확립하였고 이 방침으로 노 세대 혁명가들이 몸소 창립하고 육성한 중·북 전통친선협력관계를 계속 공고하고 발전시키며 양당, 양국과 양국인민들의 친선협력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동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2005년 10월, 胡錦濤총서기가 북한을 방문할 때 양당, 양국의 최고지도자들은 중·북 관계의 발전방향을 진일보 가리켜 주었다. 쌍방의 최고지도자들은 중·북 수교 56년의 발전 역사를 뜻 깊게 회억하고 중·북 친선은 노 세대 혁명가들이 몸소 창립하고 육성한 것이며 중·북 양당, 양국 및 양국인민들의 공동재부이고 중·북 친선을 계속 공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쌍방이 공동이 견지해야 할 견정불이(堅定不移)한 정책이며 중·북 친선협력관계를 추동하는 것은 쌍방의 공동책임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은 “고층왕래를 밀접히 하고 상호소통을 가강하며 교류영역을 넓히고 협력의 내포를 풍부히 하며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하며 적극적으로 조율배합하고 공동이익을 수호한다”고 다짐하였다. 이는 중국과 북한이 쌍방이 직면한 새로운 정세 앞에서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 방침의 정신내포를 더욱 풍부히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지역 및 국제문제에서 소통과 논의 및 협력을 가강한다.

2004년 4월, 김정일위원장이 제3차 중국을 비공식방문 할 때 胡錦濤총서기는 새로운 정세하에서 중·북 친선협력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쌍방이 양당, 양국 고층왕래를 가강하고 상호이해와 신임을 증진시키며 상호교류를 가강하

고 여러 영역의 전면협력을 심화시키며 국제와 지역의 중대한 문제를 놓고 상호소통, 논의 및 협력을 가강하며 양국의 경제협력을 진일보 발전시키자고 제안하였다.

2005년 10월, 胡錦濤총서기가 북한을 방문할 때 중·북 양국지도자들은 대화를 통하여 한반도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계속 추동한다고 공동이 재천명하였다. 胡錦濤총서기는 여러 측의 공동노력으로 제4차 6자회담이 중요한 단계성 성과를 거두었고 중국은 한반도비핵과 목표, 대화로서 평화적인 해결방향,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수호를 견지하며 북한 측을 비롯한 여러 측과 공동이 노력하여 제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이 제기한 총체적 목표를 수행하고 제5차 6자회담의 새로운 진전을 추동할 것임을 표시하였다.

김정일총비서는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정력을 기울이고 이를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은 비핵화를 견지할 것임을 재천명하였고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제4차 6자회담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 쉽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북한은 자기의 승낙에 따라 제5차 6자회담에 참가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④ 중·북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과업을 확인하였다.

2005년 10월, 胡錦濤총서기가 북한을 방문할 때 중·북 양국지도자들은 자국의 정치, 경제, 사회발전상황을 상호 통보하였다. 쌍방은 중국과 북한은 모두 자국의 국정에 부합되는 발전도로를 탐색하고 있으며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제고하는 공동의 과업을 가지고 있다고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또한 중국과 북한은 정상적인 교류를 유지하고 서로 학습하고 서로 따라 배우는 것은 각자의 사회주의건설사업이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유리하다고 인정하였다.

3. 중국에 있어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놓고 볼 때 중·북 관계에서 정치관계가 주도적이다.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정치이익이 경제이익보다 크고, 전반이익이 국부이익보다 크며, 장원이이익이 단기이익보다 크고, 잠재적 이익이 현실이익보다 크다. 따라서 중·북 관계에서 정치관계가 주도적이다. 이 점은 북한주재 중국대사관에서 발표한

“2007년 중·북 관계 10대사건”⁹⁾ 에서도 여실이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중·북 관계 10대사건에서 8건이 정치관계이거나 정치와 관계되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관계가 중·북 관계에서 차지하는 주도적 위치를 알 수 있다.

4. 새 시기에 중북 양당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중·북 관계가 이데올로기를 유도방향으로 하던 데로부터 국가이익을 유도방향으로 하는 전향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이데올로기 주도로부터 정상적인 국가전략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당관계는 한때 멀어졌었다. 양당관계가 멀어진 근본원인은 개혁개방에 대한 인식상의 분기이었다. 하지만 새 세기에 들어선 후 중·북 관계에서 양당관계가 날로 밀접해지는 특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아래의 몇 가

9) 2007년 중·북 관계 10대사건: 첫째, 胡錦濤총서기가 劉雲山서기, 楊潔篪외교부장, 劉曉明주북한대사를 통하여 김정일위원장에게 중요한 구두메시지를 보내었다. 胡錦濤총서기는 구두메시지에서 중국당과 정부는 양당, 양국 노세대 혁명가들이 몸소 창립하고 육성한 중·북 전통친선을 매우 아끼고 고도로 중시한다. 중국 측은 북한 측과 함께 계속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 원칙에 따라 근 년래 쌍방이 달성한 중요한 의견합의를 실천에 옮길 것이며 중·북 친선협력관계를 끊임없이 심화함으로써 양국민민들이 더욱 많은 복을 누리도록 할 것이며 본 지역의 지구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둘째, 김정일총비서가 3월 4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劉曉明대사의 초청을 받고 중국대사관을 방문하였다. 劉曉明대사는 胡錦濤총서기의 친절한 문안과 중요한 구두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셋째, 북한은 중국공산당17대의 개최를 축하하였다. 김정일총비서는 胡錦濤가 재차 총서기와 중앙군위주석으로 당선됨을 축하하는 전보를 보내었다. 『노동신문』도 胡錦濤총서기가 17대에서 한 보고를 실었다. 넷째, 중공중앙정치국위원, 서기처서기, 중앙선전부장 劉雲山이 10월 29~30일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노동당비서 최태복과 회담하면서 중국공산당 17대결과를 북한 측에 통보하였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이 처음으로 당대표대회 후 중앙정치국위원을 파견하여 북한 측에 내용을 통보한 것이다. 김정일총비서의 접견에서 劉雲山서기는 胡錦濤총서기의 친절한 문안과 중요한 구두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다섯째, 楊潔篪외교부장이 7월 2일~3일에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는 楊潔篪가 외교부장으로 부임된 후 첫 공식출국방문이다. 김정일총비서의 접견을 받았고 胡錦濤총서기의 친절한 문안과 중요한 구두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여섯째, 중·북간에 상호간 정치협상이 가강되었고 국제문제에서도 협력이 밀접해졌다. 북한외무성 부상 김영일, 최수현이 선후로 중국을 방문하였고 중국외교부 부부장 武大偉도 북한을 방문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국제무대에서 중·북 양국은 서로 지지하고 밀접히 배합하였다. 북한은 하나의 중국정책을 견지하고 대만당국의 “대만독립” 분열활동을 견결히 반대하였으며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측의 입장을 견결히 지지하였다. 중국과 북한은 유엔에서 밀접한 협력을 유지하였고, 북한은 국제기구의 경선에서 여러 차례 중국호보를 지지하였다. 중국 측은 유엔에서 한반도 남북쌍방이 대화를 가강하고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도록 호소하는 결의안을 통과하는 것을 지지하였고 개별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무리하게 지적하고 북한의 내정을 간섭하는 결의안을 통과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중국과 북한은 6자회담에서도 좋은 협력을 하여 다른 측들과 함께 “2.13,” “10.3” 공동문건을 도출해냄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였다. 일곱째, 중·북 경제, 기술협력이 활성화되었다. 여덟째, 중·북 문화교류가 잘 되었다. 아홉째, 중·북 쌍방은 평양을 올림픽성화 전달도시로 확정하였다. 열 번째, 중국 측은 북한의 재해제거를 적극 협조하였다.

지 방면에서 체현되고 있다.

① 2005년 10월, 胡錦濤총서기가 북한을 방문할 때 제1신분은 중국공산당총서기이었다. 그리고 구체적 방문일정도 중련부에서 맡았다. 또한 胡錦濤총서기는 양당의 고층왕래를 가강하고 상호이해와 신임을 증진하자고 제안하였다.

② 김정일위원장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적극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쌍방은 모두 자국의 국정에 부합되는 발전도로를 탐색하고 있으며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제고하는 공동의 과업을 가지고 있다고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③ 중공중앙정치국위원, 서기처서기, 중앙선전부장 劉雲山이 10월 29~30일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노동당비서 최태복과 회담하면서 중국공산당 17대 결과를 북한 측에 통보하였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이 처음으로 당대표대회 결속 후 중앙정치국위원을 파견하여 북한 측에 내용을 통보한 것이다.

④ 2008년 6월, 習進平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여 양형섭 부위원장과 회담에서 중·북 관계 및 쌍방 간의 왕래와 협력을 강화할 데 관하여 5가지 제안을 제기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고층왕래의 추세를 유지하고 정치소통을 가강하며 양당 간의 왕래를 진일보 밀접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당을 건설하는 경험을 교류하자는 것이다.

IV. 북한의 변화전망

새 시기에 중·북 정치관계의 발전은 양국의 국가이익의 기반위에 건립된 것이다. 당면하여 중·북 양국의 공동이익은 모두 자국의 국정에 부합되는 발전도로를 탐색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제고하는 공동의 과업을 가지고 있으며 정상적인 교류를 유지하고 서로 학습하고 서로 따라 배우는 것은 각자의 사회주의건설 사업을 추동하는데 유리하다는데 있다. 결코 이데올로기 주도하의 진영외교가 아니다. 새로운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중·북 정치관계의 발전은 북한의 향후 발전

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 북한이 변화하는 관건요인

사실상 북한은 이미 일정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 주요특징을 보면 아래와 같다.¹⁰⁾

① “先 행동, 後 이론”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북한은 아직 당대표대회에서 개혁을 추진할 데 관한 결의를 내오지 않고 개혁에 관한 이론도 내오지 않았으며 다만 최고 지도자의 의지를 내각의 결정을 통하여 개혁이 추진되었다.

② “先外後內”로 개혁의 시작점을 선택하였다. 북한은 일찍 1984년에 <합영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처음으로 개혁을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1년에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였는데 이를 두 번째로 개혁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7월에 “7.1” 경제개선조치를 내놓았는데 이를 세 번째로 개혁을 시도한 것이다.

세 번째로 시도한 개혁에서 시작점을 임금과 물가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오랜 기간 탐색 끝에 드디어 개혁의 범위를 대외경제로부터 국내경제로 돌리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을 고려하여 북한은 특구와 기타지역을 격리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였는데 이것을 독특한 “북한특색”이라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계속 계획경제를 견지하는 전제 하에 현실상황에 따라 경제관리를 가장하고 개선하면서 “북한식” 현대화의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개혁”은 필경 과거나 현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부정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는 불가피하게 과거에 습관화된 사고방식이나 경제문화, 이익구조와 마찰이 생길 것이다. 때문에 북한이 향후 개혁을 추진하는데서 국내정세의 안정여부가 관건요소로 나선다. 이를 전제로 개혁이 순조로우면 인심을 얻게 되고 아니면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10) 于美華, “朝鮮特色經濟調整: 涉及面廣, 利幣共存,” 『世界知識』, 2003년 제23기.

2. 중·북 정치협력은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의 사고방식을 따라 배우게 될 것이다.

1998년 김정일위원장이 공식집권한 후 중·북 양국 최고지도자간의 왕래가 회복되었고, 2000년에서 2006년간에 김정일위원장은 4차례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북한도 줄곧 자기의 국정에 맞는 경제발전전략을 검토하였다. 비록 아직 계획경제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지만 시장경제의 일부 요소들을 동원하여 계획경제의 부족점을 미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아주 실용적인 것인바 이것을 북한이 경제건설이론의 중대한 창조라고 인정을 해야 한다.

① 실리주의 원칙

실리주의 원칙 김정일 위원장이 공식집권한 후 첫 번째로 내놓은 새로운 관점이다. 2004년 9월 조선백과사전 출판사에서 출판한 《조선말 사전에서는 실리주의를 “실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타산하고 일처리를 하는 사업태도”라고 정의하였다.

다른 한편, 북한 이론가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실리주의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된다. 첫 번째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실제로 이바지한다는 것이다.¹¹⁾ 김정일 위원장의 말을 인용한다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실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실제적인 이득을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건설 사업에서 생산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실리는 생산과 건설에서 노력, 원료, 자재, 설비 등 인적, 물적 자원을 집단주의 원칙에서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최소한의 지출로 최대한의 경제적 효과성을 내어 얻게 되는 이득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²⁾

다른 한편, 실리주의는 지난날 실리를 따지지 않는 허세,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11) 박영근(북한),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실리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 『사회과학원학보』, 2004년 2호.

12) 위의 글.

경영, 제품의 질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일부 편향들에 대한 비판을 내포하고 있다.¹³⁾ 현재 실리주의는 모든 분야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다. 북한의 경제학자들은 실리주의는 중국의 실사구시와 같다고 비유한다. 이로 볼 때 실리주의는 북한인민들이 사상을 해방하고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이론기초로 된다.

②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전략

북한의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전략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분투목표에서 체현된다. 북한이 처음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전략목표를 제기한 것은 1998년 8월 22일 <로동신문> 정론 <강성대국>에서이다. 이 정론에서 북한은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새로운 목표에 직면하여 있다고 지적하였다.

북한의 “사회주의 강성대국” 개념은 1998년 8월에 나타나서부터 지금까지 점차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치었다. 만약 시초에 나타날 때에는 주요하게 김정일 집권체제의 권위를 수립하고 인민을 단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와서는 이미 21세기 북한의 국가발전의 전략목표로 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변화 과정에서 경제의 지위가 끊임없이 높아졌으며 경제발전이 이미 국가의 중심과업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내용을 볼 때 군사강국, 정치강국, 경제강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군사강국과 정치강국은 이미 실현되었고 경제강국건설과업만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은 곧 경제건설 중심을 의미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③ “신사고(新思考)” 관점

2001년 북한은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공동사설을 통하여 “신사고” 이론을 내놓으면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투쟁기풍과 작업태도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룩하는 것이 선차적인 과업이라고 하였다. 김정일위원장도 이미 새 세기에 들어섰다면 기존의 토대위에서 낡은 방식대로 생활하지 말고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낡은 관념에 속박되지 말고 과거의 낡고 낙후한 것을 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21세기에는 새로운 관념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출발하여 모든

13) 장 석, 『김정일 시대의 조선, 오늘과 내일』 (평양인민출판사, 2005. 6).

문제들을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노동신문>도 사실을 발표하여 대담히 변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경제관리체제를 개선하고 새 환경과 새 기후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새 세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인민들의 사상관념, 사고방식 및 사업방법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 새롭게 제기된 관점을 총화 한다면 이들의 공통성은 모두 부동한 차원에서 경제발전을 가져오기 위하여 변화하여야 한다는 이론적인 혁신을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이들 상호관계를 보면 실리주의는 경제개혁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강성대국 이론은 경제개혁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신사고이론은 경제개혁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중·북 정치협력은 북한이 향후 발전하는데 믿음직한 뒷받침이 될 것이다.

①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중·북 관계에서 정치관계가 주도적이다. 다시 말하면 밀접한 정치관계가 경제협력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평화적 궤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열심히 건설하고 한마음으로 발전”하며 중국의 현대화를 힘껏 건설하는 중국의 근본이익이다. 鄧小平이 지적하듯이 발전은 중국의 “최대의 정치”이며 중국인민의 “최대의 이익”을 대표한다. 따라서 중국은 장기적인 평화적인 환경이 수요 된다. 중국이 진정으로 세계일류국가로 부상되려면 아직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국이 현대화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대외관계에서 장기 간 견지해야 할 목표로 나서고 있다.

중국에게 있어서 주변관계를 잘 처리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국내건설을 지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선린친선적인 주변환경을 마련하자면 관건이 주변의 이슈를 잘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가장 큰 기회가 주변에 있는 동시에 가장 큰 도전도 주변에 있으며 가장 큰 희망도 주변에 있고 가장 문제가 나기 쉬운 곳도 주변에 있다. 때문에 중국은 전통적인 선린친선정책의 기반 위에서 주변국들을 상대하여 “이웃을 벗으로 삼고 이웃을 잘 대하며” “睦隣, 富隣, 安隣” 정책을 취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새 시기에 들어서서 중국의 선린정책이 업그레이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중국은 자체의 발전과 이러한 발전이 주변국에 주는 영향을 하나의 통일체로 간주하여 중국의 선린정책이 더욱 개방적이고 협력의 정신이 내포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공동안전과 공동발전의 이념을 富隣, 安隣이란 구체적인 방침으로 전환하여 이를 선린정책의 바탕으로 하였다. 중국과 북한은 모두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제고하는 공동의 과업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북 정치관계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양국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② 중국은 북한의 발전을 위하여 안정된 외부환경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량이다.

2005년 4월, 胡錦濤주석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공동이 조화세계(和諧世界)를 구축할 것을 주장하였다. 동년 9월, 유엔성립60돌 경축축제에서 胡錦濤주석은 “평화가 지구적이고 공동이 번영하는 조화세계를 건립” 하자는 새로운 이념을 천명하였다. 조화세계는 중국정부의 국제정세와 세계를 다스리는 원칙과 입장을 집중적으로 표현하였으며 21세기 중국의 세계전략을 체현하였다. 이것은 또한 중국의 조화외교의 이념이기도 하다. 중국의 조화외교는 “대화협상, 협력공영, 구동존이, 포용개방(對話協商, 合作共贏, 求同存異, 包容開放)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평등하고 친선적이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상호이해, 상호신임과 상호존중의 폭을 넓히고 최대한 인식의 합의를 달성한다.

둘째, 평등하고 윈-윈 협력을 통하여 최대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양자 혹은 다자가 모두 이익이 있도록 노력한다.

셋째, 나라 간에 분기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각자간의 의견합의를 늘이기 위해 노력한다. 양자 간에 잠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할 경우 쟁점을 놓아두고 미래를 지향하는 방침을 취한다.

넷째, 세계의 문명과 민족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국의 부동한 정치, 경제와 문화에 대해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며 자기의 문명, 가치와 제도를 다른 나라에게 강압하는 것을 반대한다.¹⁴⁾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조화외교는 중·북 정치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할 뿐만 아

14) 俞可平, 『瞭望, 新聞週刊』, 2007년 4월 24일.

나라 북한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외부환경을 마련하는데도 유리한 것이다.

V. 결속어

본문의 핵심의제는 중·북 정치관계가 북한의 변화에 주는 영향이다. 본문에서는 아래의 기본결론을 도출하였다.

1. 반세기동안 중국과 북한은 각자의 국정에 맞는 발전도로를 탐색하였고, 양국은 모두 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였으며, 서로 돕고 지지하였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북간의 정치관계는 줄곧 안정하고, 견고하였으며, 시련을 이겨냈다. 새 시기에 친선을 소중히 여기고 전통을 계승하며 노 세대 혁명가들이 몸소 창립한 중·북 전통 친선을 수호하는 것은 양국민민들의 근본이익에 관계되는 것이며 양국민민들의 공동한 염원이다. 미래를 향하고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며 중·북 친선협력관계의 전략 내포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것은 시대가 중·북 인민들에게 부여한 영광스러운 사명이다.

2. 새로운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중·북 정치관계의 발전은 북한의 향후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 새 세기에 들어선 후 중·북 양국의 지도자는 지난날의 사업을 계승하여 앞길을 개척하고(繼往開來)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高瞻遠矚) 새로운 기점에서 중·북 전통친선을 돈독히 하고 양국의 친선협력관계를 발전시키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기존의 관점을 버리고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개혁개방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줄곧 자기의 국정에 맞는 경제발전전략을 검토하였고 시장경제의 일부 요소들을 동원하여 계획경제의 부족한 점을 미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아주 실용적인 것인바 이것을 북한이 경제건설이론의 중대한 창조라고 인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변화는 굴곡적이고 험난할 것이다.

1.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북한이 향후 개혁을 추진하는데서 국내정세의 안정여부가 관건요소로 나선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개혁이 가져오는 충격이 북한의 정세안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본문은 북

한정세의 불안정은 개혁이 시작되기 전인 개혁의 기발을 내건 시기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개혁을 결심하였을 때 구경 얼마만한 사람들이 개혁을 지지할 것인가가 미지수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개혁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는 관건원인이다. 이렇듯 선천적으로 부족한 나라에게 개혁을 내부적으로부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마땅히 외부로부터 개혁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여 주고 북한의 개혁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

2. 북한문제의 관건은 경제문제이다. 북한문제는 안전문제와 경제문제로 체현되는데 근본적으로는 경제문제이다. 경제토대가 없는 강대한 군사력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문제가 해결되어야 북한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전과 경제의 관계에서 안전이 확보되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통상적인 논리이지만 오늘날 북한은 악화된 경제상황이 체제안정을 위협주고 있다. 표면적으로 안전문제로 나타나는 문제들은 본질적으로는 경제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문제의 해결에서 북한경제를 살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를 발전시키자면 개혁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핵문제로 하여 북한경제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핵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북한의 경제개혁이 없으면 북한경제는 여전히 어렵게 될 것이다. 때문에 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놓을 것이 아니라 핵문제의 해결과 북한의 경제발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3. 중·북 관계는 건전히 발전하고 있으나 역시 분기도 존재한다. 더욱이 북핵문제는 중국과 북한사이에 존재하는 분기와 어느 정도의 불신임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평화적 궤기를 국제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중국은 중·미 관계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있으며 협력을 발전시키며 대항하지 않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원칙을 견지하되 융통성을 버리지 않는 정책과 방침을 파악한다. 때문에 북핵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국의 전략목표는 중·미관계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동시에 북한과의 전통친선을 수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소국의 생존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하나는 대국에 의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력갱생이다. 북한을 자력갱생을 선택하였다. 그 이

유는 중국이 관건시각에 항상 북한을 포기하며 중국은 또 미국과 겨룰 수 있는 역량이 없기에 북한을 보호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하는 출발점이다. 여기서 북한이 관건시각에 중국을 “무시”하는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요약하여 말한다면 북한의 발전은 더욱 많은 차원에서 이미 국제문제로 되었다. 국제사회는 노력하여 북한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외부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변화를 촉진 할 수 있는 근본도경이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 陣峰君. 『冷戰後亞太國際關係』. 新華出版社, 1999版.
- 慶義·趙文靜·劉會清. 『朝鮮半島: 問題與出路』. 人民出版社, 2006. 12.
- 劉長敏. 『論朝鮮核問題解決中的國際斡旋與調停』.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7. 3.
- 장 석. 『김정일시대의 조선: 오늘과 내일』. 평양인민출판사, 2005. 6.
- 于美華. “朝鮮特色經濟調整: 涉及面廣, 利弊共存.” 『世界知識』, 2003년 제23기.
- 宋衍濤·陳明凡. “政治合作與政治衝突的互動關係研究.” 『北方論叢』, 2005년 제01기.
- 李敦球. “中朝: 從友好隣邦到友好合作伙伴.” 『世界知識』, 2005년 제22기.
- 邱震海. “中朝: 從意識形態到戰略合作.” 『鳳凰衛視時事評論』, 2005년 10월 29일.
- 李南周. “朝鮮的變化與中朝關係——一个韓國學者的視覺.” 『現代國際關係』, 2005년 제9기.
- 陶常海·李曉光. “一條線’外交政策下的中朝關係.” 『安徽教育學院學報』, 2006년 제05기.
- 于美華. “中朝關係在世界形勢變革中與時俱進.” 『世界知識』, 2008년 2월 13일.
- 박영근.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실리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 『사회과학원학보』, 2004년 2기.
- 劉曉明. 『繼承傳統, 面向未來: 共建中朝友好合作關係』. 劉曉明중국駐북대사가 김일성종합대학교에서의 연설, 2007년 11월 26일.
- 중국외교부사이트.

중·북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여 초(呂楚)(중국요령사회과학원, 조선한국연구중심, 교수)

I. 중·북 경제 합작에 있어서의 자연적 조건과 자연자원의 합작

1. 자연 현황

북한은 중국과 산수(山水)가 서로 접해있는 매우 가까운 나라이다. 중국과 북한은 압록강(鴨綠江)과 두만강(圖們江)을 경계로 국경이 나누어져 있으며, 압록강의 발원지는 백두산(長白山)의 남쪽 기슭으로 총 길이가 759km 전체 면적은 62,703.2km²에 달한다. 요녕성(遼寧省)과 길림성(吉林省)을 따라 도는 압록강, 두만강과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천연의 강을 경계로 국경을 접하고 있다.

강을 경계로 한 중국과 북한의 국경 구분방식은 일반적인 국제 관례상의 구분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중·러 간의 경계는 흑룡강(黑龍江)의 주요 항로를 경계로, 강 사이의 작은 섬이나 삼각주 모든 곳에 경계가 나뉘어져 있다. 이러한 경계의 구분 방식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국제관례이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은 어떠한 경우라도 강의 가장자리를 국경의 경계로 하고, 그에 접하는 하류는 양국이 공유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며, 항해 및 어획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공동으로 강을 이용하고 있다.

북한과 접해 있는 강의 섬 및 삼각주의 경계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중·북 변경조약(中朝邊界條約)이 체결되기 전(1962년 10월 12일 체결)에 이미

사용되고 있던 주민들의 고정 거주지 또는 경작 용도의 섬과 삼각주는 그 주민이 속한 국가의 영토로 하며 변경되지 않는다.

② 그 이외의 섬과 삼각주는 내륙에 더 가까운 쪽의 영토로 정하며, 양쪽의 정중간에 있는 영토는 쌍방이 협의하여 귀속 여부를 결정한다.

③ 한쪽의 해안과 그 소속된 섬 사이의 다른 섬이나 삼각주는 설령 다른 쪽의 해안과 더 가깝거나 정 중간에 위치해 있더라도 모두 한쪽에 귀속된다.

강물의 충적 및 물살의 변형 등의 이유로 강 사이 섬의 형태에 자주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중국과 북한정부는 매년 정기적인 회합을 가짐으로써 강 사이 섬의 변화와 물살의 변형으로 인해 생기는 새로운 문제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중국과 북한의 총 국경의 길이는 1,334km로써 그 중 내륙에 있는 국경의 길이가 45km이며 수상에는 압록강의 국경 길이가 803.2km 두만강의 국경 길이가 485.8km이다(중국과 북한의 경계는 두만강으로부터 15km 거리에 있는 방천(防川)까지며 방천 이남의 두만강은 러시아와 북한의 경계이다).

<표 1-1> 요녕성과 길림성의 국경지역 대조표

성(省)	항목	면적 (km ²)	국경선 (km)	국경 길이		접경국 수
				북한 (km)	러시아 (km)	
요녕		14.75만	577	577	-	1
길림		18.74만	1438.7	1206	232.7	2

중국과 북한의 경계가 되는 길림성은 두만강과 압록강의 상류 지역에서 구획이 나누어진다. 두만강(圖們江:Tumen jiang)이라는 명칭의 어원은 만주어 “Tumenula”에서 파생된 것으로 “圖們江”의 “圖們:Tumen”은 만주어로 만(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圖們江”이라 함은 “만강의 근원(萬江之源)”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Tuman-Gang 이라고 하며 이는 만주어의 “Tumen”과 중국어의 “Gang”이 합성되어 사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두만강(圖們江)의 한국어 명칭은 “도

滿江”으로 사용된다. 두만강은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 북부지역의 국경이 되는 강이며, 강의 하류는 북한과 러시아의 경계가 된다. 두만강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상에 있는 백두산(長白山, 해발 2,744m)의 협곡에서 발원하여 동북쪽으로 흐르다가 동남쪽으로 돌아서 일본해로 흘러 들어간다. 이는 북한에서 세 번째로 긴 강에 속하며 전체 길이는 521km(324리(哩))이고 선박의 통행이 가능한 곳은 85km(53리(哩)) 강 의 총 면적은 10,513km²(4,059리(哩))에 이른다. 강 상류의 무산(茂山) 부근에는 철광 석이 있으며 중류의 중성(鐘城), 온성(穩城), 아오지(阿吾地) 지역에는 석탄이 매장 되어 있고, 하류지역은 조선 반도 제일의 풍부한 자원매장 지역에 속한다. 또한, 강 하구 부근의 웅기(雄基) 지역에는 러시아의 크라스키노(Kraskino)로 통하는 철도가 연결되어 있다.

두만강은 또한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의 최대 강으로 금(金), 원(元)나라 시대에는 아이예쿠허(愛也窟河)로 하류의 일부 지역은 통먼허(統門河)라는 명칭으로 불리었으며, 명(明)나라 시대에는 아이예쿠허(愛也窟河)와 투먼허(徒門河)로, 청(淸)나라 시대에는 따랑허(大浪河)와 홍기(紅旗)하구 이남지역은 투먼지 양(圖們江)으로 불리었다. 1962년 중·북 양국의 협정에 의해 홍투수(紅土水)와 나요 리우수(溺流水) 이남을 “투먼지양”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한국어로는 “두만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두만강은 백두산(長白山) 동남부의 석을수(石乙水)에서 발원하여 중국과 북한의 경계를 따라 동북으로 흐르다 방향을 틀어 동남쪽으로 흐르며 화룡(和龍), 용정(龍井), 도문(圖們), 혼춘(揮春)의 4개의 시를 지난다. 혼춘시(琿春市) 경신진(敬信鎭) 방천(防川)에 있는 국경 표식비 - 청조(淸)시기에 설립된 중국과 러시아의 경계비 - 부근은 중국, 러시아, 북한 3국의 분계 지점으로써 동경 130도 42분 북위 42도 17분에 위치해 있으며 일본해에 인접해 있다.

두만강 주하류의 길이는 525km이며 중국 쪽의 강의 면적만 2.2만km²이다. 북한과 경계를 이루는 하류의 길이는 510km이며 표식비 이남의 15km에 달하는 하류는 북한과 러시아의 경계가 된다. 하류의 총 낙차는 1,200m이며 강바닥의 평균 경사도는 1.6%이다. 길을 따라 10km 이상을 흐르는 지류는 180 가닥이 있으며 30km 이상의 지류는 30 가닥이 있다. 중국 쪽에 있는 주요 지류로는 홍치허(紅旗河), 시야야허(嘎呀河), 부얼하통허(布爾哈通河), 하이란허(海蘭河), 후이춘허(琿春河)등이 있다. 두

만강과 홍치허의 합류지점은 상류 쪽의 수원 지대로써 백두산의 주요 봉우리가 몰려 있는 산세가 험하고 삼림이 무성하며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다.

중국과 북한의 변경지역에 있는 요녕성 일대는 압록강을 수원으로 이용한다. 압록강은 한(漢)조 시대에는 “마자수(馬訖水)”로 당(唐)조 시대에는 “압록수(鴨露水)”로, 송(宋), 요(遼) 시대에 와서는 “압록강(鴨綠江)”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압록강은 백두산 남쪽 산기슭에서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길림성의 장백(長白), 임강(臨江), 집안(集安) 등의 지역을 따라 흐른다. 이 물줄기는 집안에서 훈강수(琿江水)와 만나 요녕성의 관전(寬甸), 동강(東港) 및 동강시(東港市)의 조가구(趙家溝) 부근에서 황해로 유입된다. 압록강의 전체 길이는 795km이며 강의 전체 면적은 62,703.2km²이다. 요녕성 내에서는 크고 작은 50여 개의 지류가 합쳐지는데 그 중 큰 지류로는 훈지양(渾江), 따푸스허(大浦石河), 따안핑허(大安平和), 아이허(曖河), 따샤허(大沙河) 등이 있다.

압록강 중상류에는 양쪽에 고산지대가 있어 하류의 낙차 폭이 크고 협곡이 좁으며 깎아지른 듯한 산봉우리들이 있어 유량이 많으며 큰 자갈과 돌들로 강둑이 형성되어 있고 곳곳에 초석이 쌓여있다. 강 양쪽으로는 높은 산들이 이어져있으며 협곡의 절단면이 깊이 패여 있고 물줄기가 완곡하게 이어져있다. 압록강의 하류는 수량이 풍부하고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으며 큰 만이 3단으로 이어져있어 넓고 풍부한 수원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길림성의 하이관촌(海關村) - 북한이 섬 지구로 지정한 곳 - 과 요녕성의 라구샤오(拉固哨) - 북한이 수원지로 정한 곳 - 사이의 지역 또한 길림성 일대에 있는 풍부한 수원지대이다.

압록강에서 황해로 유입되는 수량은 매년 300여 억m³에 달하며, 윈핑(云峰)(중·북 합작으로 건설), 웨이유엔(渭源)(북한), 쉘이핑(水丰)(중·북 공동관리), 타이핑완(太平灣) 등의 수력 발전소가 건설되어 있다. 압록강의 풍부한 수자원은 중국과 북한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며, 주로 전력생산의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관개, 운송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조선 중앙통신은 이와 관련하여 북한과 중국은 2007년 6월 5일 평양에서 제46차 “북·중 경계하천의 항로은행에 관한 합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하천의 항로이용 등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고, 북측의 대표단 단장 이남정(李南正)과 중국 측의 단장

장용(張勇)이 협의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를 통해 북·중 양국이 1960년 5월 북경에서 처음으로 회담을 개최한 이후 매년 양국이 함께 모여 경계하천의 항로 이용문제 등에 관하여 회담을 열어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국과 북한 양국은 또한 압록강에 일련의 건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요녕성 지역에 쉘이핑(水丰) 댐 (발전소), 야바거우(啞巴溝) 제방 (여수로), 타이핑완(太平灣) 댐 (발전소), 상허커우(上河口) 철교, 장띠엔허커우(長甸河口) 대교(1951년 미군의 폭격으로 훼손됨), 단동 중·조 우의 철로 (丹東中朝友誼鐵), 공루양용교(公路兩用橋), 단동 중·조 우의 지하 송유관 (丹東中朝友誼地下輸油管道), 중·조 우의 국제 송전로 (中朝友誼國際輸電線路), 중·조 우의 국제 통신선로 (中朝友誼國際通訊線路) 등의 시설을 건설하였으며, 현재 압록강 경계지역의 주요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쉐이핑 댐 발전소는 요녕성 관디엔 만주족 자치현 장띠엔진 라구샤오촌과 북한의 평안북도 삭주군(朔州郡) 수풍 공업지구(水丰工人區)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단동으로부터 76km 떨어져있다. 쉘이핑 발전소는 1937년의 일제 통치시기에 당시의 만주국과 조선 총독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건설한 것으로 1943년에 완공되어 1945년 일본이 투항하기 전까지 6대의 발전기와 7대의 수력 터빈 발전기 시설을 갖추었다. 1955년 4월 17일 중·북 양국 정부는 《압록강 쉘이핑 발전소에 관한 협의》에 조인하여 5월 7일에 《중·북 압록강 발전소 공사(公司) 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쉘이핑 발전소의 모든 자산을 중국과 북한 양국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한국전쟁(항미원북전쟁: 抗美援朝戰爭) 기간에는 미군 폭격기가 발전소를 폭격하였으나 1958년에 재 완공되었다. 현재 발전소 내에는 7대의 수력 터빈 발전기 (예비용 1대 포함)가 있으며 발전 능력은 60Kw로써 압록강 유역의 51,200km² 지역에 전력의 공급이 가능한 용량이다. 쉘이핑 저수지의 정상 수위는 123.3m이며 사수위(DSL:Dead Storage Level)는 95m이다. 저수지의 유효 저수량은 79.3억m³ 이며 최대 저수량은 147억m³이다. 쉘이핑 발전소는 현재 북한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야바거우 제방은 예비용 수로로써 관디엔 만주족 자치현(縣) 장띠엔진(鎭) 베이지에즈촌(村) 야바거우에 위치해있다. 1939년에 시공하여 1945년 8월에 준공되었고, 1946년 홍수로 훼손된 후 1958년 재건되었으며, 쉘이핑 댐의 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를 막기 위한 용도로 건설되었다. 야바거우 제방에는 18개의 수문이 있으며, 수문 하나의 폭은 9m 전체 제방의 폭은 213m에 이른다. 꼭대기의 높이는 116m이며 10m

X 9m의 수문으로 개폐를 한다. 야바거우 제방은 북한의 책임 하에 관리와 보수작업이 진행되며 감찰 감독의 임무는 중국이 수행한다.

타이핑완 수력발전소는 중국과 북한이 공동 경영하는 발전소로써 압록강 하류에 위치해 있는 주요 발전소 중의 하나이며 중국의 관디엔현(縣) 구로즈향(鄉) 타이핑완촌(村)에 북한의 삭주군 방산리에 위치해있다. 제방은 상류의 쉐이핑 발전소로부터 29.6km 떨어져 있으며 하류의 단동시로부터 40km 떨어져 있다. 1987년 10월에 준공된 이 발전소는 양국의 공동투자로 건설되었으며 중국이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고 완공 후에도 중국이 관리운영하며 중국과 북한에 각각 송전을 하고 있다. 발전소에는 4대의 수력 터빈 발전기가 있으며 전체 발전용량은 190mW로써 연 평균 발전량은 7.2억kwh이다. 현재는 발전을 주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발전소 하류에 선박의 운행 및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공급사업도 고려중이다.

상류 하구 - 칭쉐이교(橋)는 중국 평양철로의 종점에 위치해 있으며 상허커우에서 북한의 삭주군 청수 공업지구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 교각은 1940년 4월 준공된 것으로 전체길이는 673m, 폭 3m, 높이 20.8m에 29개의 수로가 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1951년 미군에 의해 폭격을 당했으나 한국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임시로 사용되다가 1954년 이용이 전면 중단되었다. 전쟁과 홍수로 인한 훼손, 오랜 기간의 방치, 철 구조물의 부식 등의 문제로 인해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어야만 다시 이용이 가능하다.

장디엔허커우 - 칭청 도로교(橋)는 1937년에 시공되어 1950년 한국전쟁시까지 이용되다가 1951년 미군 폭격에 의해 파손된 후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다. 단동 중·조우의 철도와 공루 양용 대교는 심단(沈丹)철도의 종점에 위치해 있으며, 단동에서 신의주에 걸쳐 연결되어 있다. 1941년 시공되었고 12개의 수로가 있으며 서쪽에 철도가 동쪽에는 자동차용 도로가 놓여있으며 전체길이 940m, 폭 9m, 높이 16.2m의 규모이다. 1954년 6월 이전까지는 교각 전체가 중국의 책임 하에 보수, 관리되었으나 그 후에는 경간(Span) 90m와 6개의 수로까지 570m 구간을 중국 측이 보수 경비하고, 북한 측은 경간 90m와 6개수로의 370m 구간을 보수 경비하고 있다. 이 교각은 요녕성의 중·북 국경선에 있는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유일한 물자수송용 교각으로서 차량 한대 정도만 겨우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노후되어 있으며 노면 또한 상당히 훼손되어 있다.

그 외에 단동시 중·북 국제 통행 세관 1개소 - 단동에서 신의주까지의 국경 통행구간, 국경 통행 세관 1개소 - 타이핑완에서 북한 방산리까지의 국경 통행구간, 양국 간의 편리한 국경무역을 위해 임시로 증설된 화물 수송용 세관 여러 곳, 중국 정부에서 개설한 1급 세관 2개소(단동, 동향), 2급 세관 2개소(타이핑완, 따타이즈(大台子)), 어획작업용 항구 11개소, 정박지 78개소 등이 있다. 단동시는 현재 중국 최대의 국경 도시로서 공업과 농업 모두가 잘 발달되어 있다. 단동시의 교통 운수업은 비교적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철도, 도로, 해상운송, 항공운송이 함께 발전하고 있어 사통팔달의 운송시스템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인민들의 생활수준 또한 요녕성에서 중·상위 계층에 속한다.

중·북 국경에 위치한 북한지역의 자연 현황

요녕성과 북한의 평안북도 신의주시, 염주군, 신도군, 용천군, 의주군, 삭주군, 창성군, 벽동군과 자강도 금산군, 우시군(2개도, 1개시, 9개 군)은 모두 강에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이다. 북한의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200만 명이며 국경에 인접해 있는 주요 도시로 신의주시(북성구), 염주읍, 주단도 공업지구, 서호공업지구, 용천읍, 용암포구, 의주읍, 덕용공업지구, 덕연공업지구, 삭주읍, 수풍공업지구, 청수공업지구, 벽동읍, 우시읍, 발은공업지구가 있으며, 그 중 신의주시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중공업 도시 중 하나이다.

북한 평안북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자연 지리적 조건

평안북도는 북한의 북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 함경도, 남쪽으로 평안남도, 서쪽으로 서해와 접해있고 북쪽으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요녕성과 마주보고 있다. 전체 면적은 12,300km²(북한 전체 면적의 1/10)로서, 약 220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평안북도의 도내 행정구역으로, 2개 직할시(신의주시, 귀성시)와 21개 군(의주군, 비군, 염주군, 철산군, 동림군, 선천군, 정산군, 정주군, 운전군, 박천군, 영변군, 구장군, 태천군, 운산군, 동창군, 벽동군, 창성군, 대관군, 용천군, 천마군)과 1개의 지구 위원회(신도 일조 단도지구 위원회)가 있다. 이전의 향산

군(묘향산의 소재지)은 1986년 중앙직속으로 편입되었다. 평안북도의 수도는 신의주 시로서 인구 28만 명(1987년 기준)의 작은 도시였으나 북한정부가 남신의주에 개발 계획을 입안하면서 수도 도회(道會)의 소재지가 옮겨왔다.

평안북도의 철도, 도로, 운하, 해운 항만시설은 북한 전체에서 높은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다. 도내에는 7개의 철도 노선이 있으며 신의주에서 평양으로 연결되는 철도에는 전기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다. 신의주는 중국 단둥과 국제선 통로로 연계되어 있으며 6개의 주요 도로가 있다. 그 중 신의주-삭주-벽동 구간을 연결하면서 압록강에 인접해 있는 도로가 가장 길다. 강과 해상의 주요 항구로는 신의주, 용암포, 신도, 철산이 있다. 신의주에서 용암포, 웨이평에서 벽동에 이르는 운송구간은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북한 국경지역의 철도, 도로상황은 (북한 국내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국경지역에 위치해 있는 주요 세관에는 모두 내지로 연결되는 철도와 도로가 있다. 국경지역의 군(郡)과 군 사이, 바다에 인접해 있는 리(里)와 리 사이에는 대부분 도로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철도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이 노화되어 있고 전력공급이 부족한 편이며 도로에는 곳곳에 낙석이 산재해 있고 기후와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다. 삭주군은 북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겨울철에 많은 눈이 내리고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여 도로가 끊기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철도는 두 개의 간선 노선이 있으며 단둥, 장띠엔 상허커우 철도와 연결된다. 주요 도로는 대부분 북쪽으로 압록강변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신의주와 단둥의 도로는 강을 따라서 뻗어있다.

평안북도의 교육, 문화, 위생수준은 모두 상당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현재 1,600여 개소의 각 급 학교가 있으며, 그 중 초등학교(인민학교) 650개교, 중학교(고등중학) 630개교, 고등 전문학교 35개교(그 중 농업 전문학교 19개교), 대학 8개교(사범대학, “공산주의 대학”, 농업대학, 의과대학, “교원대학”, “교양원 대학”, 공업대학 등)가 있다. 또한 공장에서 설립한 “대학” 13개교, “고등 전문학교” 30개교, “근로자 고등 중학”(인민 노동자들을 위한 중학교) 250개교 및 유치원 및 탁아소 3,000개교가 있다. 각계각급 학교의 학생은 70여 만 명으로 전체 도민의 3분의 1에 달한다. 도시와 농촌지역에는 11년(취학 전 교육 포함) 무료 교육제도가 보급되어 있다.

도내 시, 군 단위의 지역 모든 곳에는 극장, “문화회관”, 도서관, 영화극장, 클럽과

같은 시설이 있으며 각 시, 군 및 공업지구에는 병원이 설립되어 있다. 이는 모든 리(중국의 향(鄉)과 같은 지역 단위) 단위의 지역에 “진료소의 병원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으며, 북한사회는 이러한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대부분의 병원에는 의료시설이나 약제의 보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군대나 대도시의 고급간부에 대한 의료제공 상황은 비교적 나은 편이나 평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2. 중·북 전력 합작

압록강의 수자원은 매우 풍부하며 전체 길이는 795km에 달하며 이는 백두산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황해로 유입된다. 압록강 상 하류간의 낙차는 2,400m이며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매년 황해로 유입되는 수량은 약 300여 억³m³이며 주로 발전의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지금은 홍수예방 관개, 해상 운송의 목적으로도 개발되고 있다. 현재 중·북 압록강 간류에는 원평 발전소(云峰發電廠), 웨이엔 발전소(渭源發電廠), 쉘이핑 발전소(水丰發電廠), 타이핑완 발전소(太平湾發電廠) 등이 있다.

중국과 북한은 2006년 창춘에서 압록강 상류 경계지역에 왕장로(북한명 임토)와 문악(중국명 창추안)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4억 위안을 공동 투자하여 건설하기로 협정을 맺고 조인식을 가졌다. 이들 발전소 설비의 전체 역량은 4.2만kwh로서 연간 1.6억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은 이 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요녕성 꺼린스 투자 유한공사(遼宁格林司投資有限公司)”로부터 4,50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자 받음으로써 북한이 사용하게 될 전기는 모두 중국의 투자로 생산되게 되었다.

압록강 수자원의 보다 더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중·북 수력 발전공사 이사회는 1995년 12월 1일에 열린 제48차 회의에서 중국이 왕장로(임토) 발전소를 북한이 문악(창추안) 발전소를 각각 투자하여 건설하기로 협의 하였다. 왕장로(임토) 발전소는 중국의 길림성 지안시 청석전 왕장촌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북한의 임토 기차역으로부터 상류 쪽으로 5.5km 떨어져 있다. 전체길이 602.7m 제방높이 15.5m에 이른다.

2004년 3월 길림성 지안시 시정부는 투자기금을 유치하여 지안 왕장로 수력 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왕장로 발전소 건설에 착수하였다.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왕장로(임

토)와 문악(창추안) 두 곳의 발전소는 2006년 동시에 착공을 시작함으로써, 원평 발전소, 웨이옌 발전소, 웨이핑 발전소, 타이핑완 발전소들과 함께 모두 심양의 중·북 수력 발전공사의 관할에 놓이게 되었으며, 원평 발전소와 웨이옌 발전소는 현재 북한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다.

길림성에 있는 원평 발전소와 웨이옌 발전소는 북한 측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다. 웨이핑 발전소와 타이핑완 발전소는 요녕성에 있으며 중국 측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다. 웨이핑 발전소의 지난 몇 년간 평균 발전량은 40억kwh이며, 원평 발전소 15억kwh, 웨이옌 발전소 12억kwh, 타이핑완 발전소 7.7억kwh의 발전 기록을 가지고 있다. 1969년에 북한측이 웨이핑 제방에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여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하 발전소의 건설을 제안하였고, 1971년 2월 제 24차 이사회에서 '웨이핑 저수지의 지하 발전소 보수 건설 문제'를 협의하여 중·북 양측이 자국의 국경 내에 각각 15만KVA 지하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중국은 1985년에 장띠엔 발전소 건설을 시작하여 1988년에 완공하였으며 현재는 장띠엔 발전소와 타이핑완 발전소 모두 타이핑완 발전소 한곳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중·북 수력 발전공사에 소속된 네 곳의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연 평균 75억 kwh의 용량으로 중국과 북한에 동등하게 공급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경제건설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중·북 양국의 전력 합작 사업은 어려운 과정도 있었다. 지난 80~90년대에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과 에너지 자원의 공급이 부족한 이유로 갈수기에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를 차용하고 이를 증수기에 반환하는 일을 반복하였다. 갈수기와 증수기의 전기 생산단가는 다르기 때문에 중국은 이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북한 측이 관리 운영하는 두 곳의 발전소 용량이 중국보다 더 컸기 때문에 - 북한 60%, 중국 40% - 전력 분배에 있어 북한이 더 주동적이었고 중국에서 생산된 전력을 쉽게 차용할 수 있었다. 중국은 또한 북한이 차용해 간 전기의 채무를 여러 번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북한이 전기를 조금씩 반환하였더라도 그 채무는 여전히 많은 양으로 남아있다. 여러 해 동안 북한의 전력 수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2005년부터 북한은 단동 지역에 상당량의 전기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북한의 공업이 현재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외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자국에 급히 필요한 전기까지 수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Ⅱ. 중·북 경제무역 관계의 역사와 현황

1. 중·북 무역의 역사와 발전

중·북 무역은 1950년부터 시작했다. 1992년 이전까지는 국가 간 외상 거래 형식의 무역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1992년 양국정부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었다. 정부 간 외상거래 형식의 무역방식을 취소 한 후 중·북간 무역액은 1993년 8.99억 달러까지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 후 북한의 경제가 침체되어 양국간 무역액은 1999년에 3.7억 달러까지 감소하였다.

20세기 70년대에 들어서 중국은 북한과 <1971~1976년 상호간 주요화물 공급협정>을 체결하고 북한에 매년 50만 톤의 석유를 제공하였다. 1976년 1월에는 북한과 공동으로 “중·북 우의 송유관”을 건설하였으며, 1976년부터 1979년 까지는 매년 특혜 가격으로 100~150만 톤의 석유를 제공하였다. 이는 북한의 전체 석유 수요량의 30%에 달하는 물량이다. 또한 중국은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의 미상환분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주기도 하였다.

80년대 이후 중국은 매년 북한에 특혜 가격으로 석유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4,000만 달러에 상당하는 코크스탄과 100톤 이상의 식량 원조 및 경공업 위주의 경제적 원조를 하고 있다. 또한 1984년에는 북한에 4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압록강 상류에 있는 3곳의 수력발전소의 송전로 보수 공사를 원조하였다. 1982년에는 발전 용량 19만kw의 타이핑완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였으며 신의주에는 정유공장 건설을 지원하였다(이곳의 연간 정유 처리량은 20만 톤에 달하며 중국이 원유를 제공한다). 그 외에 희천오일(熙川五一) 연료공장, 평양 기어공장, 계량기 공장 건설을 원조하였으며, 1988년에는 해주 제지공장, 신의주 섬유공장, 함흥 만년필 공장, 라디오 부품 공장건설 및 평양시 송전망 건설을 지원하였다.

1996년에 중국과 북한은 <중·북 경제기술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12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무상 지원하였으며, 1997년에는 20.7만 톤의 식량, 1998년에는 10만 톤의 양식과 2만 톤의 화학비료, 1999년에는 15만 톤의 양식과 40만 톤의 코크스탄을 무상 지원하였다. 90년대는 북한의 경제가 침체되었던 시기였지만 중·북간 경제 교류관계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1세기에 들어 북한의 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중국과 북한의 무역교류는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며, 2003년 이후부터는 양국 무역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무역액은 1999년의 3.7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15.8억 달러로 증가하여 6년 동안 27.4%의 성장률을 보였다. 중국과 북한의 무역액은 2005년 한 해 동안 14% 증가한 16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상품(석유와 옥수수 포함)을 수입하였고, 중국에 5억 달러의 상품(주로 석탄과 철광석)을 수출하였다.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의 무역교류는 양국 경제관계의 급속한 발전과 중국의 대북 관광산업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에 의해 큰 성장세를 보였다.

2006년 1월 중순에 북한 조선노동당 총서기 김정일은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였다. 관계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여러 가지 현상을 종합해 볼 때 중국과 북한의 경제 합작은 이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북한은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의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고 한다. 중국과 북한간의 무역량 확대에 의해 북한에 투자하고자 하는 중국기업 또한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북한은 중국 대외투자의 새로운 개체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경제발전에 있어 2005년은 외자의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한 해였다.

첫째, 오랜 기간 북한의 발전을 저해했던 식량자급의 문제가 다소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2005년 북한은 지난 10년 이래 가장 많은 식량을 생산하였다. 북한의 한 관리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의 최소 수요는 연간 380만 톤 수준이며, 이를 초과하는 생산분은 축산업과 기타 공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북한정부는 이러한 식량 문제를 우선 해결한 후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북한정부는 중국과의 경제 무역합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는 북한의 대외교류에 큰 걸림돌이 되었었다. 2005년 10월 미국은 북한이 위조지폐를 제조하고 국제 돈세탁을 한 이유로 북한에 금융제재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북한은 외환 보유고까지 줄어들어 경제가 설상가상으로 어려워졌었다. 최근 북한과 경제 합작을 재개한 국가는 중국과 한국이며, 2004년도 북한의 대중, 대한 무역액은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의 60%를 차지했다. 2005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과 북한의 무역총액은 14.6억 달러에 달했고, 한국과 북한의 무역총액은 9.7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는 북한 전체 대외무역 총액의 65%에 이르는 액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한국과의 경제 합작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중국과의 교류를 더 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대외 경제교류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비교적 평행한 경제무역합작의 태도를 유지하려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투자합작은 상호간에 이득이 될 수 있다. 2005년에는 중국과 북한 고위층 인사들의 상호 방문이 특히 잦았으며 그들이 만난 자리에서는 주로 경제무역합작 문제가 논의되었다.

양국 정부대표는 <투자특혜와 보호협정>과 같은 일련의 경제무역합작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투자합작에 관한 법률의 제정도 논의하였다. 원자바오(溫家宝) 총리는 2006년 1월 중순 김정일 총서기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주도, 기업참여, 시장운영”의 경제 합작의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는 중국과 북한의 경제 합작이 과거의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양자 간에 이득이 되는 공동의 발전, 쌍방이 윈-윈(win-win)하는 새로운 시기, 끊임없는 사업영역과 합작방법의 개척 등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북한의 핵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고 북한과 미국과의 갈등도 크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원칙으로 한 외교 방식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는 명백하며, 이는 평화발전을 위한 공통된 인식임은 물론이고 북한과의 경제 합작이 유리한 보장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기업은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사실상 2002년 “7·1 북한 경제정책조정”이 공표된 이후 수많은 중국기업이 북한의 경제개방 정책을 통해 대북 투자에 밝은 전망을 가졌고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역에서는 중개를 통한 대북 투자가 시작되었다. 2004년 한 해 동안 북한의 외자총액 5,900만 달러 중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5,000만 달러로 전체 외자규모의 85%를 차지하였다. 한국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2004년 현재 북한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300여 곳이며 이 중 40%가 중국기업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은 중국기업의 투자열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내수경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게 하였다.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자연자원은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큰 매력을 느끼게 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통해 외자유치를 늘일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2005년 2월 북한정부는 북경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에서 북한의 정치안정과 풍부한 자원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으며,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정하고 대외 개방시장, 수출증진, 순조로운 자금유통, 자금압력 완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하였다.

그 결과 대북 투자는 최근 들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2006년 10월 말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정부의 대북 투자와 관련한 대한 비준은 총 49건이며, 이들의 합작 투자액은 1.35억 달러로 나타나며 투자항목은 식품, 의약, 경공업, 전자, 화공, 광산 등의 영역이다. 중국과 북한의 무역교류에서 지린, 요녕성을 중심으로 한 국경무역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이 북한에 수출하는 품목은 주로 식량, 원유, 동력 기계, 철강재, 방직물, 자동차, 플라스틱 상품 등이며,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원목, 고철, 플라스틱, 액화기체, 선철, 수산물 등이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합작의 개별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며 중국기업의 마진율은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다.

2. 중·북 무역의 여러 가지 형태

일반적으로 국경무역에는 주로 국경시장과 소규모 보따리 무역, 관광 무역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무역형태인 국경시장은 국경선 20km 이내의 변방지역주민이 정부에서 허가한 개방지역이나 지정된 장소를 통해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금액이나 수량의 범위 내에서 상품교환을 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이 세 가지 이외에 단동시의 수상무역 역시 국경 무역의 한 형태에 속한다.

(1) 단동시의 수상무역

요녕성과 북한 신의주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있다. 최근 중국과 북한의 국경무역은 최근 2년간 물류 교역량이 300만 톤을 넘어섰으며 그 중 수로를 통한 교역량이 170만 톤에 이른다. 북한이 수출한 물품의 종류는 수산물, 고철, 철, 금, 은 등 금속광물과 석탄이 주를 이루었으며, 중국이 수출한 물품은 곡물, 식량, 일용품과 가전제품이 대부분이었다. 80년대 말부터 발전해 온 이러한 요녕성과 북한간의 수상무역은 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1996년에 <단동시 국경 소규모 무역에 대한 수상운송 관리법>이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 국경무역의 수송 규정이 법제화되었다. 20여 년간 지속적인 발전을 해 온 이 곳 국경지역의 운송선박은 현재 168척이며, 선박의 정박부두는 6곳이 있다.

중국과 북한의 수로 무역은 고정된 항로, 고정된 선박, 짧은 운송거리(4~40해리),

짧은 항해시간(30분~5시간), 소형선박(10~100톤), 짧은 영업기간(1~3월에 강이 얼어 항해가 중단 됨)의 특징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 또한 수상 운송의 발전은 국내의 기업들을 단동시로 운집시켰고, 이로 인해 동북부 동부지역에서 현대화된 연해도시로 거듭났으며, 국무원의 지지를 얻어 “변방 경제합작 지구, 시장 무역지구, 수출 가공구역, 물류무역의 집합지, 수입가공 지역” 등의 기능을 갖춘 종합 운송지역이 되었다.

북한경제가 조금씩 개방됨에 따라 중·북 국경무역량은 요녕성의 수로항만을 통해 수출입 활동이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2006년 이후의 연간 물동량은 300~400만 톤에 달하며 신의주에서 요녕성 단동시까지 공업원료와 연료 등의 물량이 대량으로 이송되고 있다. 압록강 대교는 자동차의 일방통행만 가능하고 화물 철도는 하역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북한 세관의 관리체계 또한 효율적이지 않은 이유로 도로운송을 통한 물류의 이동은 늘어나는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량의 물량이 신의주를 통해 운송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신의주 국경무역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게 되었다.

중·북 국경무역 발전의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성(省)의 교통관리부와 지방정부가 압록강의 상량토허(上浪頭港)에서 신의주 항만까지의 수상 국경무역 운수통로를 개통하였으며, 중·북 수상 국경무역 운수항로를 북한의 각 항만까지 개통하고 단동의 강랑토허(港浪頭港)구역에 많은 수의 대형 선박들을 물자 운송에 투입하였다.

중·북 양국 인민들의 교역시장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아직까지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국경무역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단동 대교 항만 연안에서의 해상 소규모 무역은 선박 적재량이 적고 운송 거리가 멀며 항만 하역설비가 없기 때문에 수산물과 식품을 사고파는 형태의 무역만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형식의 소규모 무역은 큰 규모로 발전할 수 없으며 오늘날 중·북 양국의 국경 경제와 무역의 총체적 발전에도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지리적 우세의 조건으로 ‘있는 것을 내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走出去, 請進來)’ 전략을 통해 주변 국가들과의 에너지자원, 원자재, 광산자원의 개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주동적으로 경제 합작을 이끌고 적극적으로 국제시장을 개척하여 상품, 기술, 노동을 수출하고, 주변 국가들과 함께 동북아지역의 국제무역과 투자, 과학기술 합작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국가 36호 문건의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국경무역의 발전은 요녕성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지역적 우세로 인해 장기적으로 중국정부가 국경무역에 대한 수입관세와 수입세를 반액 징수하는 특혜를 받고 있으므로 국경무역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국내외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 그 외 한반도의 형세가 평온하고 북한이 개방의 발걸음을 가속화하고 신의주 항만에 대량의 각종 물량의 정박을 허가하고 있으며, 국내 해상들 또한 중·북 국경무역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남방의 선박회사는 중·북 항만간의 무역운수에 참여하는 것 또한 국경 무역이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단둥 수상 국경무역 운수의 구조는 견고하고 규범적인 해상 소규모 무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압록강의 신의주와 랑토우항 간에 대량의 물자 운송역량을 발전시킴으로써 단둥항에서 북한의 남포항간의 해상 무역 항로를 활성화시켰다.

랑토우항은 중국의 일급 항구중의 하나로써 신의주 항에서 5해리, 대동항에서 20해리 떨어져있으며, 부동항이지만 매년 1~3월엔 갈수기라 선박을 운행할 수 없다. 이곳에는 1,000~4,000톤 급의 선박을 정박할 수 있는 곳이 4곳이 있으며 연간 입출항 능력은 90만 톤이지만, 2005년 이후로 선박 출입량이 60만 톤에 그쳤으며, 이 중 외국 선박의 출입량이 10여 만 톤에 달했다. 2005년 이 항구는 신의주 항으로부터 고철, 석탄 등 대량의 혼합물 6,000여 톤을 수입하고 있다. 국경 감찰기관은 비지정 선박의 국경무역과 항로 운행 및 정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랑토우항은 세관과 협의하여 이들에 대한 수상운송을 허가하고 있다.

(2) 국경지역 주민들의 물품휴대를 통한 무역

혼춘(琿春) 공안국 국경대대의 보고에 의하면 매년 설 무렵 국경 출입 통행증을 신청하는 개인이 급격히 증가하며, 국경지역 무역회사들의 북한 비자 신청인원 또한 평소 20~30명 선에서 400여 명으로 늘어나서 중·북 국경무역은 최대 성수기를 맞는다고 한다. 조사보고에 의하면 설 전 기간 해산물의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며 각 국경 무역회사의 북한에 대한 해산물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한다. 또한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약 15만 명이 매년 북한의 친인척을 방문하고 이들 대부분은 대량의 식량과 옷, 생필품을 휴대하고 국경을 넘는다. 북한 주민 또한 3~4만 명의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을 방문하며 요녕성 단둥에서 이동하는 북한 주민이 휴대

하는 물품은 6,000만 위안의 가치에 달한다. 국경을 지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쓰는 물품뿐 아니라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의 물품도 휴대하여 통과한다. 이러한 물품은 중국의 수출입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지만 이미 그 물량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3) 식량 밀수 “무역”

최근 2년(2006~2008년)간 북한에는 식량이 부족하였지만 중국은 식량이 풍부하였던 이유로 국경지역에서의 식량밀수는 매우 성행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제재할 방도가 없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2008년과 2009년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식량기근이 점점 더 심각해질 수 있으며 풍작이라 하더라도 북한은 정상적으로 식량을 자급할 능력이 모자란다고 경고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는 또한 올해 북한의 식량은 166만 톤이 부족하고 이는 2007년에 비해 배로 증가한 양이며, 2001년 이후 식량이 가장 부족한 해가 될 것이라 예고했다. 현재 평양의 식량가격은 이미 2004년 이래 최고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쌀 가격은 1kg당 작년 4월 북한 화폐로 700~900원 수준에서 2,000원으로 올랐으며, 돼지고기 가격은 1kg당 5,500으로 올랐다. 현재 북한 근로자들의 한 달 평균 월급은 6,000원 수준이다(정부당국이 공시한 환율 기준에 의하면 1유로는 북한 돈 199.02원에 상응한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는 이러한 북한의 식량기근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북한 정부는 이에 대해 최근 북한의 식량 총 생산량은 468만 톤에 달하며 이는 북한의 2009년도 수요량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한다. 또한 2009년 식량의 부족현상은 설사 존재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2008년도 보다는 상황이 많이 호전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민둥산이 많아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기초시설의 부족으로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길림성의 식량국 국장인 주예후위(祝業輝)는 “북한의 가뭄은 매우 심각하여 이미 상당량의 중국 옥수수가 북한으로 밀수되고 있으며, 현재 북한의 옥수수 가격은 중국의 10배가 넘는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8년 초 중국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옥수수와 식량의 수출을 억제했지만 북한, 대만, 홍콩 지역에 대한 수출억제는 효과적이지 못하였다고

한다. 중국 세관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중국은 북한으로 수출하는 옥수수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량이 이미 97,606톤에 달하였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4% 증가한 수치이며, 2007년 겨울에 일시적으로 수량이 감소하였다가 올 6월 들어 수출량이 다시 37,111톤으로 상승하여 최대의 식량을 수출하였다고 한다.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에 5억 달러의 가치에 해당하는 620만 명분의 식량을 제공하는 긴급 원조방안을 제정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와 식량계획은 2008년 6월에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북한 총 가구 수의 3/4에 해당하는 가정은 이미 하루 식량 섭취량을 줄였으며, 절반의 가정은 매일 두 끼만 먹고 있고, 영양이 불균형하며 병원에 입원하는 어린이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7월에 세계식량계획과 북한정부는 북한에 대한 원조물량 확대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이로 인해 식량계획의 원조를 받는 인구는 120만 명에서 5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원조지역은 50개 군에서 100개 군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북한 정부는 이전에는 식량계획의 진입이 허가되지 않았던 지역에 50여명의 국제기구 관계자의 파견을 허가하였다.

최근 북한의 심각한 식량문제로 인해 단동과 도문 지역에서는 식량밀수가 성행하고 있다. 국제 식량가격의 폭등으로 2008년 하반기 이후 중국은 국내 식량 안전을 위해 식량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게 되어 정식 경로를 통한 중국의 대북 식량 수출량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단동 세관은 이와 관련하여 2008년 1월에서 5월까지 대북 식량 수출량은 작년 동기 대비 50.5%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식량의 밀수량은 정식 수출량보다 점점 많아지고 있다.

3. 2008년 중·북 무역의 현황과 특징

최근 들어 중·북 무역액은 2005년도 16억 달러에서 2006년 17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2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중·북간 무역액은 2008년 상반기에 이미 11.9억 달러에 달했고 이는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한 수치이며 연말에는 전년도 보다 많은 20억 달러를 초과할 전망이다. 2008년 중·북간 무역에는 새로운 특징들이 나타났다.

(1) 원유와 식량 등 주요 수출 상품의 가격 폭등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의 수출량을 감소시켰다. 단동 세관의 정보에 의하면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단동에서 수출되는 원유가격도 상승하였고 원유에 대한 수출관세도 상향 조정 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2008년 1~6월 단동 항의 원유 수출량은 30.4만 톤으로 2.43억 달러어치의 물량이며 이에 대한 관세 징수는 8,225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69%, 55% 상승한 것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단동항의 원유 수출 가격은 1월의 톤당 687 달러에서 6월에 974.5 달러로 증가했고 증가 폭은 37%에 달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원유의 수출관세도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2) 단동 항의 식량수출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수출된 종류는 대부분 완두, 옥수수, 쌀, 밀가루, 옥수수 전분, 대두였다. 이들 대부분은 국경 소규모 무역을 통해 거래되었다. 2007년 말 중국 정부는 밀, 벼, 쌀, 옥수수 대두 등의 곡물과 분말에 대한 수출세의 환급을 폐지하였고, 2008년 1월 1일부터 임시 수출관세를 징수하게 되어 단동항의 식량수출량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008년 1~5월 국경 소규모 무역을 통한 단동항의 식량수출 물량은 모두 2.06만 톤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5%가 감소한 물량이다. 밀가루 수출량도 급격히 감소하여 1월분 수출은 0.67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5% 감소하였으며 2월 이후로는 수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쌀과 옥수수 또한 4월 이후부터는 수출 되지 않고 있다.

(3) 단동항을 통한 화학비료의 수출이 감소하였다. 단동항에서의 화학비료 제품 및 일부 원자재의 수출은 2008년 5월까지 지속되었으며, 총 6,813.94 톤 235.9만 달러에 상당하는 물량으로 세금 징수액은 375.6 만 위안이다. 그러나 4월 20일부터 화학비료 제품과 원재료에 대한 특별 수출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인해 화학비료 가격은 톤당 1,454 달러로 상승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 징수액은 5,850위안에 달했다.

수출제품의 특징으로 북한으로 수출하는 화학비료는 요소가 대부분이며 1~4월의 수출량이 6,531.5 톤 227.6만 달러의 물량이며 전년 수출량 대비 9배와 12배가 성장하였다. 이 제품들의 수출은 4월 20일 이후 특별 수출 관세를 징수하기 시작한 후 중단되었다. 질소, 인(P), 칼륨(K)의 두세 가지의 비료원소의 혼합물 비료수출량은 96 톤이고 27,845 달러의 물량이며 전년 동기 대비 59%와 63%가 감소했다. 이 또한 4월 20일

특별 수출세 징수가 시작된 후 수출이 중단 되었다.

2008년 북한이 화학비료를 이렇게 대량으로 수입하게 된 이유는 한국의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이 취임 후 대북지원정책을 조정하여 연초에 대 북한 화학비료 무상원조 (과거 한국은 매년 북한에 화학비료 약 30만 톤을 무상원조 했음)를 중단시켰고 이로 인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화학비료 수입을 늘리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2009년 북한에 대한 화학비료 원조를 재개할 예정이며, 2009년 연초 중국은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화학비료의 수출을 축소시킬 계획이다.

(4) 수출입 상품의 종류에 변화가 나타났다. 2008년 5월 단동항 세관의 수출세 징수액의 4위까지 상품은 원유, 철강제품, 금속 실리콘, 식량의 순서이다. 북한의 수입품의 특징은 광물자원 종류 및 철, 납 등과 같은 광물자원의 수입이 증가 한다는 것이며 아연(Zn), 은 등의 수입 또한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폴리브덴, 텅스텐의 수입은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희귀금속의 수입이 증가하여 산화 프라세오디뮴의 수입은 단동항 최대의 수입상품에 속한다. 전력수입은 단동 실리콘회사가 대량의 금속 실리콘을 수출한 것에 영향을 받아 수입량도 증가했다.

상품구조를 분석해보면 수입되는 최대 품목은 의복과 관련 부자재들로서 전체 수입 물량의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반 금속 제품으로 21%의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전기제품과 그 부품들로 10.7%를 차지하며, 마지막으로 무연탄이 전체 수입의 6.7%를 차지한다. 수출상품은 원유, 전기제품과 부품, 의복 및 부자재, 농산품, 일반 금속과 부품, 방직재료와 방직물, 수산품과 플라스틱 제품 순으로 무역량이 크다.

그 외에 대북 수출상품 중에서 가구의 수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단동 세관의 통계에 의하면 2008년 1분기에 단동 항만의 대외무역 수출입은 3.8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5% 증가하였으며, 그 중 수입이 5,402.7만 달러 수출이 3.28억 달러로써 전년 동기 대비 19.6%와 64.9% 성장했다. 1분기는 무역 수지 흑자는 2.74억 달러로써 그 중 가구의 수출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수출상품의 새로운 주요 품목이 되었다.

현재 단동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북한, 한국, 일본, 미국, 홍콩이다. 최대 무역국은 북한으로 3억 달러어치의 물량을 유통하며 단동 항만 수출입 무역총액의 81.4%를 차지하고 다음이 한국으로 3,914.6만 달러어치의 물량을 수출입 함으로써 전체의

10.2%를 차지하고 있다. 관리방식으로 볼 때 일반 무역은 수출입 무역 총액의 55.8%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보세창고 운영으로 수출입 무역총액의 19%이고 다음은 국경 소규모 무역으로써 수출입 무역총액의 17.4%를 차지하며 마지막은 가공무역으로 수출입 무역총액의 7.1%를 차지한다. 가구 수출량의 증가는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설명할 수 있다.

중국 세관총국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3분기에 산둥(山東)성은 북한에서 165.6만 톤의 무연탄을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체 수입량(190.9만 톤)의 86.8%를 차지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물량이 120% 증가하였다. 이는 북한의 석탄 매장량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하자원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2007년 북한으로부터 수입되는 광산자원의 총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중국 세관총국 통계에는 2007년 1월~11월에 린장(臨江)과 지안(集安) 등의 길림성 통화(通化) 지역의 세관을 통한 북한 무연탄과 광물자원의 수입은 1.7150만 톤(약 104.1만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6.7%(4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 북한으로부터 수입된 무연탄의 양은 71.9만 달러어치의 물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9%가 감소했다.

(5) 북한의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고급 장식재료, 가구, 컴퓨터, 가전제품, 중·고급 의류 등 고급 제품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북한의 상류층의 소비계층이 점점 두터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에 의하면, 현재 북한의 고층 소비자들은 주로 다음의 신분에 속한다. ① 해외 거주자 가족. 평양의 상류층 가정 중 60~70%는 해외 거주자의 가족이고 이들 대부분은 중국, 미국, 동남아에 거주하고 있다. ② 일부 정부관료 및 외교관, 세관직원, 무역회사 주재원들이다. 북한정부는 민영기업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업가는 주로 국가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소득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③ 외교 관련 인원. 대부분이 관광 가이드로서 월급은 많지 않지만 수입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동남아 단체여행들의 1인 하루 가이드비가 10달러 수준이며 50명으로 구성된 한 단체가 3일간 여행하면 1,500달러의 수입을 얻는다. ④ 공무로 인해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¹⁾ 이들의 수는 비록

1) “북한의 고 소비층은 누구인가?” 『(북한)질보산』 <<http://www.7b3.net/index.asp>>.

적은 편이지만 구매력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6) 2008년 북한 정부는 중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중국 상인들이 북한에서 중국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북한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정부는 연초에 하달하는 중국 기업과의 합작 강화를 위한 지시에서, 투자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중국 상인들에 대해 북한에서 중국 핸드폰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작년 말부터 북한정부는 중국 상인들의 대 북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들의 북한 내 거주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2008년 4월부터 평양 거주민의 핸드폰 사용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04년 4월, 북한 압록강 남쪽 변경지역인 용천(龍川) 기차역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난 이후 금지되었던 핸드폰의 사용이 처음으로 재개된 것이다.

북한 당국은 2004년 4월 최고지도자 김정일이 중국방문을 마치고 전용 열차를 타고 중국에서 평양을 되돌아가는 도중·북한과 중국 국경근처의 용천 기차역에서 큰 폭발사고가 일어난 후 주민들의 핸드폰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북한의 조선 중앙 통신에 따르면, “북한 체신회사”는 작년 1월에 이집트의 통신회사 오라스콤(Orascom)의 자회사 CHEC 과학기술 회사와 통신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북한의 “북한체신회사”가 CHEC 과학기술 회사 지분의 25%를 보유하고 25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기본설비를 포함하여 4억 달러 상당하는 투자를 진행 하였다. Orascom 통신회사 측은 북한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관한 허가를 얻고 평양 주민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으로 타 지역까지 이를 점점 더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이집트의 Orascom사는 북한에서 이동통신 통신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북한에 기반시설의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2008년 5월 1일 Orascom 통신 투자부의 스테파노 소기니(Stefano Sogini)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직원들은 현재 기초설비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북한 측에 서비스 개시시기를 정식으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Orascom 통신은 올 1월에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권을 획득하였으며, 2008년 5월부터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었다.

현재 중국의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평양에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북한의 대도시

에서는 중국의 핸드폰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정부는 아직까지 중국인의 핸드폰 휴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향후 북한과 이집트 합작의 통신회사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2008년: 새롭게 증가하고 비교적 큰 중국의 대 북한 투자의 공동경영 사항

① 중국에서의 중·북 공동경영 담배회사의 개업

2008년 4월 23일 중·북 합작기업 - 평양 백두산 담배 공동경영 회사는 개업식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 주 북한 중국 대사인 리우샤오밍(劉曉明)과 북한 경공업 자치성 부상(副相) 겸 담배협회 위원장 조정웅(趙正雄)이 초대받아 참석했다. 평양의 백두산 담배 공동경영 회사는 길림성 담배공업 유한책임 회사와 북한의 담배수출입 상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기업으로 주로 평양과 백두산 등지에서 담배의 생산과 판매를 해왔다.

② 야밍(亞明)조명 공동경영 합작회사의 개업

2008년 2월 27일에 있었던 개업식에 주 북한 중국대사 리우샤오밍(劉曉明)과 북한 전자 공업상(相) 오수용(吳壽勇), 부상(副相) 강춘남(康春男)과 상해의전 투자공사 회장 장린쩌엔(張林儉) 등이 초청을 받고 참석했다. 평양 야밍 조명 공동경영 회사는 상해 야밍 전구공장 주식회사와 북한 평양 조명부품 공장이 공동 설립한 합작회사로써, 앞으로 북한 조명산업의 발전과 평양의 호화 설비 산업에 공헌을 하게 되었다.

③ 용진광산 공동개발

2008년 6월 중국은 북한의 기업과 협정을 맺고 앞으로 북한과 협력하여 황해북도 용진군에 위치한 철광석을 개발하기로 협의하였다. 중국의 대형 마그네사이트 가공 업체인 S그룹과 북한은 공동으로 서해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2007년 후반기부터 용진군 장송리의 용진 철광석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S그룹은 해외시장 개척전략의 하나로 지금까지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이 과정에서 철광석 개발로 눈을 돌려 북한과 공동으로 광산개발 합작기업을 설립하게 되었다. 양측이 공동으로 설립한 서해 합작기업은 자본금 3,600만 유로(약 4.6억 위안)로, 현재 북한과 공동으로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철광석의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표 II-1> 2007년 1월~7월 중국의 대 북한 무역 통계 수치

(단위: 천 달러)

월별 누계	수출입 총액		수 출		수 입	
	금 액	전년 동기대비 ±%	금 액	전년 동기대비 ±%	금 액	전년 동기대비 ±%
1~1	183,065	42.1	135,410	59.8	47,655	8.2
1~2	275,845	23.6	196,490	36.9	79,354	-0.4
1~3	490,813	47.9	365,894	80.0	124,919	-3.1
1~4	678,884	26.1	497,655	39.9	181,229	-0.7
1~5	884,065	24.7	637,185	34.0	246,880	5.8
1~6	1,143,873	25.3	819,007	31.1	326,867	12.7
1~7	1,423,471	31.7	1,000,815	35.2	422,656	24.1

<표 II-2> 2007년 중국의 대 북한 무역 통계수치

(단위: 천 달러)

월별 누계	수출입 총액		수 출		수 입	
	금 액	전년 동기대비 ±%	금 액	전년 동기대비 ±%	금 액	전년 동기대비 ±%
1~1	128,696	36.2	84,689	25.2	44,007	64.0
1~2	223,100	32.2	143,461	23.9	79,638	50.2
1~3	331,573	11.8	202,694	-2.4	128,879	45.3
1~4	536,434	15.3	355,305	5.6	181,129	40.5
1~5	708,870	16.1	476,158	6.4	232,712	42.9
1~6	912,669	17.2	625,384	7.8	287,286	44.5
1~7	1,080,346	18.0	740,332	9.1	340,024	43.6
1~8	1,250,981	16.7	862,560	9.2	388,420	37.8
1~9	1,444,220	18.0	1,005,134	12.1	439,086	34.3
1~10	1,612,703	16.6	1,129,639	11.8	483,064	29.7
1~11	1,787,285	16.3	1,253,108	12.0	534,177	27.5
1~12	1,975,918	16.2	1,392,588	13.0	583,330	24.7

<표 II-3> 2006년 중국의 대 북한 무역 통계수치

(단위: 만 달러)

월별 누계	수출입 총액		수 출		수 입	
	금 액	전년 동기대비 ±%	금 액	전년 동기대비 ±%	금 액	전년 동기대비 ±%
1~1	9,451	0.4	6,763	7.2	2,688	-13.4
1~2	16,886	7.7	11,580	7.8	5,306	7.4
1~3	29,645	-7.1	20,776	-3.3	8,869	-14.9
1~4	46,533	-1.4	33,641	6.3	12,892	-17.3
1~5	61,037	0.5	44,744	7.7	16,293	-15.1
1~6	77,841	4.8	57,969	13.6	19,872	-14.6
1~7	91,518	2.0	67,850	10.1	23,668	-15.9
1~8	107,220	2.3	79,025	9.6	28,195	-13.8
1~9	122,415	3.0	89,710	10.9	32,705	-14.0
1~10	138,342	4.0	101,092	11.6	37,250	-14.0
1~11	153,744	5.5	111,857	12.7	41,887	-9.9
1~12	170,015	7.6	123,237	14.0	46,778	-6.3

<표 II-4> 2008년 1~9월 중국의 대 아시아 국가(지역)에 대한 무역통계

(단위: 억 달러, 2008년 10월)

국 가	수출입		수 출		수 입		무역 균형	
	금 액	변동폭	금 액	변동폭	금 액	변동폭	2008년	2007년
중 국	19671.2	25.3	10740.5	22.4	8930.7	28.9	1809.8	1847.3
아시아 합계	10563.2	25.3	5003.75	22.5	5559.5	24.0	-555.75	-400.15
아시아 주요국가	6193.26	24.7	2811.03	26.9	3382.2	22.8	-571.20	-539.10
중국 대비	31.5%	0.2%	26.2%	0.9%	37.9%	1.9%		
동북아시아	3,526.87	21.3	1,449.82	25.2	2,077.0	18.8	-627.23	-590.34
일 본	2,027.00	17.9	858.49	16.0	1,168.5	19.3	-310.02	-239.81
한 국	1,462.16	26.2	571.69	41.7	890.47	17.9	-318.79	-351.74
북 한	19.03	31.8	12.99	29.3	6.04	37.5	6.96	5.66

자료출처 : 중국 상무부 아시아 연구소

4. 중국에 대한 북한의 투자현황

북한의 대 중국 투자규모에 대해 중국이나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는 아직 없다. 주중 한국대사관 신정승 대사는 “현재 북한의 대 중국 투자규모가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요식업에 대한 투자라고 보고 있다.” 라고 말했다.²⁾ 이러한 추산 규모가 완전히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이유는 북한이 투자한 심양 소재의 칠보산 호텔만 그 투자액 규모가 2,000만 달러에 이르기 때문이다.

단동시에서의 북한의 대 중국 투자 현황으로 2004년 기준 북한이 직접 투자한 기업은 모두 34곳에 이르며 이들에 대한 투자 총액은 1,181만 달러로써, 설립 자본금 691만 달러, 해외 합자 투자금액 550만 달러, 외국 자본이 215만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2005년에는 이들 중 24개의 기업에 대한 투자가 철회되고, 나머지 10개의 기업에 대한 투자금의 총액이 559만 달러, 설립 자본금 340만 달러, 해외 합자 투자금액 221만 달러, 외국 자본이 135.6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북한이 투자한 이들 대부분의 기업은 야금, 화학 공업, 식품 가공, 기계 가공, 요식 서비스기업 등의 업종에 있으며, 이 중 요식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부채를 가지고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투자규모가 비교적 큰 곳에 속하는 기업은 “단동 금강산 응용 기술개발 주식회사”로서, “단동 널빤지 공장”과 “북한 금강산 국제무역회사”가 공동투자 하였다. 이 기업의 투자 총액은 190만 달러, 설립 자본 190만 달러이며 북한은 76만 달러를 출자 하였다. 그 외의 기업은 모두 100만 달러 이하로 투자된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들이다.

북한은 요녕성 (심양시, 단동시), 길림성(장춘시, 연길시) 및 북경과 청도의 개별 영업장을 포함 총 50여 곳의 요식업소에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큰 북한의 투자 기업은 심양에 있는 칠보산 호텔이며, 나머지는 모두 투자액이 수십만 달러 이내인 소형 식당들로서 이들 대부분은 심양, 단동, 연길 세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2) “금년 중·북 무역규모 25% 성장,” 『(한국)조선일보』, 2008년 10월 13일.

<표 11-5> 북한의 단동시 투자 사례

(금액: 만 달러)

순서	명칭	중국 측 기관	북한 측 기관	협력 방식	등록 지역	업종 및 규모	총 투자액	합작 기간 (년)	중국 측 투자비율	비고
1	북한 평양 청춘관	요녕성 국제무역 회사 단동지사	북한기선 무역회사	합자	평양	음식점, 사진 현상	120	10	30만 위안 상당의 현물, 25%	90년 비준
2	북한 평양 합작 우의 협작 경영회사	단동 여객운수 회사	북한 우의 수입회사	합자	평양	상점, 요식업	24.4	10	설비, 49%	98년 비준
3	북한 압록강 우의회사	단동 여객운수 회사	북한 대외 경제 위원회 합작경영 지도총국	합자	평양	상점	85	10	40만 위안 상당의 화물, 47%	93년 영업
4	수산 양식	동향신술 양식회사	북한 우의 연합회사	협력	북한	합자 양식		5	500톤의 새끼어종, 두 척의 어선 등	북한이 15두령의 양식장 제공
5	윤활유	요녕성 국경 무역회사	북한 매봉 무역회사	합자	북한	윤활유 생산	120	60	50%의 생산 설비	현재 운영 중

Ⅲ. 중·북 경제무역관계의 전망 분석

1. 교통 기반 시설 건설의 가속화

① 육·해·공의 운송 기반시설 건설이 가속화되어야 하며, 특히 단동의 “중·북 국제 철도 및 도로대교”의 건설이 하루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본 대교의 건설은 2007년에 이미 중국 정부의 관계부서로부터 비준을 얻은 상태임에도 아직 시공이 되지 않고 있다.

② 중·북 원나(元羅)도로 건설 사업은 2006년 6월부터 시공자를 모집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원녕(元泞)에서 나진(羅津)까지의 중·북 도로 항만구역 도로 일체화 사업을 위해 2006년 6월부터 시공자를 모집하였으나 현재까지 착공이 되지 않고 있다. 이 공사는 중·북간의 “도로 항만 정비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정이다. 중국 측 시공사는 이미 원녕항에서 나진항

까지의 도로 건설을 위해 정밀측량과 탐사작업을 마치고 시공 설계도까지 확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이 사업을 통해 북한의 나진항을 개발하여 동북아시아 각국의 자원 개발과 무역교류를 촉진시키고, 길림성을 개발하여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대외무역항로를 건설하려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도로 항만 정비사업”을 두 단계로 나누어 첫 단계로 원녕에서 나진항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다음으로 나진항 제3부두를 개조하여 나선(羅先)시 지역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보세 가공지역과 공업단지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본 공정은 2006년 내 정식으로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③ 단동지역 도로의 통관 시설 강화

중·북 국경에 있는 단동지역의 도로에는 매일 150대의 화물트럭이 세관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간다. 이들이 세관을 지날 때는 항상 긴 차량 행렬이 이어지며 매 차량마다 한 시간 가량의 통관시간이 소요된다. 매년 중·북간 무역물량의 약 70% 가량이 단동 세관을 통해 수출입 되며, 최근 몇 해 사이 이곳을 통한 북한과의 수출입 물량 및 수출입액은 매년 13%와 25%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단동 도로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차의 정체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세관은 통관 속도향상 및 국경무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8년 초에 통관차량을 위한 여러 가지 문건을 규범화하여, 높이, 크기, 중량, 길이가 초과하는 화물 이외의 모든 수출입 화물 차량에 대해 일률적으로 밀폐된 적재함을 탑재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일반용 차량의 화물 탑재를 엄격히 금지하고 모든 구매 물품에 대하여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은 수출입 되는 화물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물에 대한 검열을 강화함으로써 통관속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여러 해 동안 지속되어온 자동차의 정체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였고 단동 지역의 국경무역을 더욱 발전시키고 통관시설의 개선 및 기반시설 건설을 증설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④ 단동항은 갈수기인 1~2월에는 해상의 높은 파도로 인해 선박의 정상적인 입출항이 불가능하며, 기온이 따뜻해지고 갈수기가 지나는 3월이 되어야 선박의 출입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이는 단동항을 통한 무역이 발전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이 되므로, 발전을 위해서는 수로를 준설하고 부두를 개선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2.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협력자로서의 북한

(1) 북·러 철도를 통한 한국 상품의 유럽 수출

가까운 장래에 한국 상품이 북한과 러시아의 철도를 통해 유럽으로 운송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 정부는 러시아 철도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블라디보스톡 하산과 북한의 나진항을 연결하는 54km 거리의 철도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러시아와 합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험 운송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24일 나진에서 하산까지의 철도 현대화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직후에 협의된 후속 정책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 협의에서 러시아가 70%의 지분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나진에서 하산까지의 철도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운송권을 소유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한국은 현재 북한과는 직접적인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러시아가 보유한 70%의 지분을 6:4의 비율로 나누는 조건으로 나진에서 하산까지의 철도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 협의를 토대로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 6월에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진행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빠르면 오는 8월부터 부산항에서 출발한 컨테이너선이 나진항에 도착하여 하산에서 TSR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에서 유럽까지 화물을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40일 가량으로, 부산-나진-하산-TSR로 연결되는 노선이 정식으로 개통되면 17일 만에 유럽에 도착할 수 있어 지금보다 절반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2007년 12월 11일 남북한은 56년 만에 처음으로 화물열차의 운행을 개통하게 됨으로써, 중국과 북한의 무역교류와 경제협력의 중요한 통로인 단동에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창출했다. 현재까지 남북한 양국 간의 직접적인 무역교류는 없지만 일단 평화협약이 진행되게 되면 북한이 자국 영토를 통하여 한국의 물건을 중국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동의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럴 경우 철도 운송은 한국이 중국으로 물건을 수출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운송 방식이 될 수 있으며, 대북 무역의 주요 항로인 단동은 중·한 무역의 교두보가 될 것이다.

북한과 한국간의 철도가 개통된다는 것은 제2의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다리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과 한국이 해저터널을 개통한다면 이는 도쿄에서 서울과 단동을 통과하여 만주에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상품 이 경로를 통해 유럽 각지로 운송될 수 있는 동시에 유럽의 상품 또한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중국, 북한, 한국, 일본 4국으로 직접 운송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해운 위주인 운송 체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물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북한과 한국간의 철도가 개통되면 한국은 중국을 대신하여 북한의 최대 무역국가 가 될 가능성이 크며, 또한 북한의 풍부한 자원이 방향을 바꾸어 한국으로 수출됨으로써 중국의 자원 수입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경유 무역지로서의 단동의 현재와 같은 지위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현재 단동 지역에서 유통되는 수출입 화물은 대부분이 북한과의 교역 상품이나 향후 제2의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교두보가 확립되면 단동 항에서의 수출입 물량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 종류 또한 크게 변화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상품은 단동 대외무역의 주요 수출입 화물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단동 지역의 무역 형세와 금융 환경은 더욱 복잡하고 다변화 될 것이다.

현재는 북한과의 수출입 화물의 50%가 단동의 국경 도로를 통해 통관되고 있으나, 유라시아 철도가 개통되면 단동의 국경 철도가 유럽과 한국, 일본을 잇는 주요 세관이 될 것이며, 이곳에서 수출화물의 80%를 담당하게 되어 단동 철도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중·북간 도로운송에 있어 양국은 2008년 7월 협의를 통하여 <중·북 정부간 도로 운송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간의 도로 운송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협정으로 인하여 앞으로 북한의 화물차와 여객 차량은 중국을 통하여 직접 유럽대륙까지 운행될 수 있다.

(2) 두만강 유역의 개발에 관한 신 협정으로 북한의 적극적 참여 유도

2007년 11월 15일 국제연합 개발계획(UNDP)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한 “두만강 지역 개발사업(GTI)”의 제9차 5개국 위원회의에서 각 회원국들의 사업 내용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고의 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GTI는 UNDP의 지원으로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본 회의에서 GTI를 추진하기 위한 10개 항목의 중기적 과제를 선정하고, 두만강 수자원 보호의 시장성, 중·북 국경 지역에 있는 중국 도로와 항구의 이용에 관한 사항, 몽고와 중국을 잇는 철도 건설의 시장성 평가 및 GTI 관광사업 발전 등에 관한 내용 등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과 국가 안보상의 문제로 GTI 참여에 아직까지 적극적이지 않고 있으며, 기타 회원국들은 이 사업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는 북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3) 동북아 각국의 관광 협력 사업에 북한의 참여 유도

북한의 관광 자원은 매우 풍부하며 이러한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북한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북한은 현재 묘향산(妙香山)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이에 대한 동북아 각국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향후 관광산업의 부흥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 정부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한 예로 평양의 상징 건축물로 유명한 “유경호텔”의 건설공사를 2008년부터 다시 진행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호텔은 건설이 중단된 지 16년만인 올해 5.1절 이후부터 다시 공사가 재개되고 있다. 본 건설은 이집트의 무선 통신회사 오라스콤(Orascom)이 공사를 책임지고 피라미드 형태로 된 이 호텔을 짓고 있으며 꼭대기 층의 공사도 진행하고 있다. 1987년에 공사가 시작된 유경호텔은 3,000개의 객실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로 지어져서 1989년부터 문을 열 계획이었으나 자금 부족의 문제로 1992년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북한의 우표와 언론매체를 통해서만 완공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이 호텔은 삼각뿔의 형태로 피라미드와 흡사한 형태로써 105층의 높이로 지어지고 있었으나, 착공 5년 후 건설 자금과 전력부족 등의 이유로 건축의 90%가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오라스콤은 이번 건설에서 호텔 외부 시설물의 리모델링과 지하층부터 지상 5층 객실까지의 내부 인테리어를 책임지고 있다. 완공 후의 유경호텔은 해외 여행객을 접대하는 고급호텔이 될 것이다.

2008년 10월 20일 북한 문화보존 지도국 이의하 부국장은 연내에 묘향산의 역사유적과 명승지를 유네스코(UNESCO)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내년부터는 칠보산, 구월산, 용문대굴 등의 명승지 또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의하 부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문화유적의 원형 보호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최근 발굴한 문화유산의 복원작업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 개성 지역의 고려시대 유적 - 만월대, 개성성벽, 고려 성균관, 표충비, 선죽교와 건왕릉, 공민왕릉 등 10여 곳의 역사 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중·북 양국 간의 관광사업 및 한국인의 금강산과 백두산 관광사업, 또 경의선 철도가 개통 된 후 중국, 러시아, 일본 및 몽고의 여행객들이 북한과 한국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관광 사업이 발전된다면, 북한에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동북아지역에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 몫 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국의 새로운 대외 투자지로서의 북한

중국은 대외개발 및 경제무역 협력을 하는데 있어 쌍방이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상호개방 하고 “선린, 안녕, 부흥”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정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서(走出去)” 북한 기업들과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더 많은 중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고 공장을 건설하여 북한과 함께 발전을 추구하고 양국 국민들이 같이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과 북한은 공동으로 노력하여 양국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와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북한 교역성의 이명산 무역상은 UN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제12차 회의에서 “북한 정부는 자주, 평등, 상호이익의 원칙을 기본으로 평화롭고 공정한 신세계 국가를 건설하는데 힘쓸 것이며, 각 방면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 정부는 현재의 생산 기반시설을 이용하여 다방면으로 대외무역의 발전을 확대해 나가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개발 협력도 장려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천년 부흥’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과 노력은 불평등한 국제 경제 질서에 있어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인 것이 사실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행동 방침을 중점적으로 제정하고 그들이 국제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권을 존중 받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표명하였다.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의 민간경제도 큰 타격을 받았으며 가공수출을 주업으로 하는 민간 기업들은 잇달아 휴업하거나 사업 분야를 전환해야 했다. 따라서 많은 민영기업들이 미개척지인 북한에 눈길을 돌려 투자하는 사례가 최근 몇 년간 점점 늘어나게 되어 2008년 9월, 북한 정부는 이들에 대한 법 규정을 제정하여 북한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은 북한 정부에 10만 유로의 보증금(투자 여부를 막론하고 중국내의 은행에 임시로 예금하고 사업 시찰 후 반송)을 지불하여야만 시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의 북한 시찰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대형 국유기업의 대북투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북한의 채광업에 대한 협력 투자 의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북한 정부의 무역지구 건설사업도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06년 이후 진행된 합작 투자와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 비교적 대규모의 합작 투자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중·북합작의 광산 채굴 사업

루안허(灤河)그룹의 혜산(惠山) 청년 동광산 개발권

허베이성의 루안허 그룹과 그 협력투자 기업들은 2006년 12월 27일, 평양에서 혜산 청년 동광산의 지분 51%를 구매하는 협정식을 가졌으며, 2007년 2월부터 관리 통제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합작 사업에 대한 세부조항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혜산 청년 동광산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 인접해 있고 백두산에서 남쪽으로 65km 떨어져 있으며 중국 길림성 창바이현(縣)과 접하고 있다. 이 광산에는 42만 톤의 동광석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그 중 25만 톤은 지하 600미터에 매장되어 있고 일일 2,000톤 가량의 동광석 채굴이 가능하다.

루안허 그룹은 여러 종류의 자원과 부동산, 시멘트의 개발에 종사하는 종합 무역 회사로서 중국 민영기업 순위 75위의 규모이다.

요우씨(有色)그룹의 헤산 동광산 개발

중국 요우씨 그룹과 쑹씨(中色)국제광업 유한공사, 홍투산(紅透山) 동광산 공사, 북·중 국제 광업공사는 2007년 2월 북경에서 헤산 동광산을 합작하여 공동 개발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으로 요우씨 그룹은 쑹씨 국제광업 유한공사의 헤산 동광산 채굴권을 획득하였다. 헤산 동광산은 중·북 국경의 세관에서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동광석 매장량은 25만 톤으로 보고 있다. 요우씨 그룹은 홍추산 동광산 공사에서 설비, 자재, 기술 인력을 제공하여 광산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요우씨 그룹은 북한 내의 자원 개발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 회사이다. 이번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요우씨 그룹은 이미 길림성 하오룽(昊融)그룹, 북한 금강 총동맹회와 북한의 금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의 유색 금속자원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허베이성(省)의 북한 광산 개발

2006년 9월 친황도(秦皇島)시 린바오(林宝) 광산 유한공사는 북한의 몰리브덴 개발 사업을 위한 상무부의 비준을 얻었다. 이 사업은 총투자 201.6만 달러, 자본금 50.4만 달러가 소요되는 항목으로 하북성 최대의 북한 광산자원 개발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린바오 공사가 개발하는 몰리브덴 광산은 평양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넓이는 15km²로 개발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원저우(溫州) 광서우(廣壽) 그룹의 북한 몰리브덴 채굴 투자

2006년 9월 원저주의 민영기업 광서우 그룹은 605만 달러를 투자하여 북한에 “대광 합영회사”를 설립하여 몰리브덴의 채굴과 선광, 생산, 판매 업무를 하고 있다. 대광 합영회사는 2006년 8월 18일 채광생산을 시작하여 중국으로 몰리브덴을 들여오고 있다. 광서우 그룹은 10개의 계열사가 있으며 광산개발, 지질공사, 부동산개발, 수출입 무역 등 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광서우 그룹의 북한 채광 사업은 상무부로부터 정식 사업 비준을 얻었으며, 상무부는 비준에서 원저우 광서우 그룹과 북한의 대외 경제 협의국의 합작으로 초기 자본으로 242만 달러를 투자하여 대광 합영회사를 경영하고 중국 측이 65%의 지분을 관리한다고 규정 하였다. 이는 북한의 자원채굴 사업에 있어 원저우에서 처음으로

비준을 얻은 사업이다.

중·북 합작 유색 금속 개발사업

2006년 4월 13일에 중국의 요우썬 그룹과 길림성 하오룽 그룹 및 북한 금강 총동맹회는 북경에서 북한의 유색 금속 합작 개발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서 중국 유색그룹과 금강 총 동맹회는 평양시에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금, 구리, 몰리브덴 등의 유색 금속광산을 공동 개발 경영하고, 중국 요우썬 그룹과 길림성 하오룽 그룹은 북한의 선천(宣川) 금광 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시키도록 하는 두 가지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천진 기업의 북한 페인트사업 투자

2006년 9월 천진 서지텐신(世紀天鑫) 공업건설 유한공사는 북한에서 페인트 생산 공장을 합작으로 설립하였다. 총 228만 달러가 투자된 이 사업은 중국 측이 설비, 기술, 자본을 투자하여 57%의 지분을 보유하고, 북한은 토지, 공장 및 기반시설을 제공하여 4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연간 5,000톤의 페인트 생산이 가능하며, 현재 천진시 발전 개혁위원회의 비준을 얻은 상태이다.

요녕성의 푸신(阜新)기업의 북한 내 공장 건설

2006년 8월 중국 요녕성 푸신시(市)의 민영기업 푸신 텐신(天信) 과학기술 발전 유한공사와 북한 진명(眞名)무역회사의 합작으로 “만천 합작 유한공사”를 설립하여 PVC 파이프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만천 합작 유한공사는 평양시 낙랑구(樂浪區)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면적은 3,790㎡로 총 200만 유로의 자본이 투자되었다. 현재 각종 PVC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첫 회 360톤의 제품을 생산 출하하였다.

② 국경 무역 지구의 건설

창바이현(縣)의 북한 무역지구 건설

2006년 길림성 창바이현 현 정부와 소주의 평징유엔린(風景園林) 투자발전 그룹

유한공사는 서로 협력하여 북한에 무역지구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창바이현과 북한의 양강도 사이에는 한 개의 도시와 5개의 군, 하나의 강이 있으며, 북한의 혜산시(惠山市)와는 장혜(長惠) 국제대교가 연결되어 있어 국경지대로 발전하기에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창바이 세관은 백두산으로 가는 여행객 및 차량, 화물수송이 매년 30% 수준으로 증가함으로 인해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본 협정의 내용에 따르면 창바이현 현 정부와 평징유엔린 발전그룹은 3억 위안을 투자하여 “길림성 창바이 공원 발전공사”를 설립하여 창바이 경제개발 지구 내 약 1.2km²의 토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무역 교역과 사무, 창고 보관, 주거, 요식업 등의 산업을 발전시켜 이곳을 종합 무역지구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온성 물류 시장의 공동 건설

2007년 11월 북한과 중국정부는 함경북도 온성군의 남양(南陽)에 물자교류 시장을 공동 건설하기로 협의하였다. 길림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온성군 인민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무역성 중앙 수출입 물자교류 회사로부터 “건축물자 교류시장”에 관련된 공문을 접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에 따르면 “정부내각은 함경북도 온성군 인민위원회가 중국 투먼(圖們)시 정부와 함께 물자교류 시장을 합작하여 건설하는 것을 위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 측은 이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건축자재를 중국 측에서 우선 제공하고 향후 물류시장의 운영을 통해 이윤이 발생하면 상환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성군 인민위원회는 중국 측과 함께 의류, 식품, 곡물, 가구, 농업재료, 화학비료 등의 항목에 투자하여 사업을 공동경영하기로 협의하였다.

신의주 물류센터 공동 건설

2007년 9월 북한과 중국의 기업은 신의주에 대규모의 물류센터를 건설하기로 했다. 북한은 “북·중 우호 물류센터” 건설 사업을 제안하여 중국 측과의 교섭과정을 거쳐 투자회사를 선정하고 협의를 마쳤다. 이 물류센터의 건설은 중국기업이 건설자금과 건축자재를 제공하고 북한이 부지와 인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는 현재 중국과 북한이 경제무역 협력을 진행하는데 있어

크게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유익한 점이 있으므로 중국기업들이 대북 투자를 가속화하여야 한다고 한다.

첫째, 자원의 협력이 가능하다. 현재 북한에는 풍부한 삼림자원과 석탄, 철광석, 흑연, 금, 은, 납 등의 광산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북한 정부는 외국자본이 이러한 자원의 개발을 위해 자국에 투자하는 것을 허가하였으며 자원개발 사업의 형태에 관해 협의하기를 원하고 있다.

둘째, 기반시설 건설의 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의 철도, 도로, 항만 등의 시설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교통운송 수단도 부족하며 복지시설 및 업무용 거주용 공간에 대한 잠재수요가 큰 편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시설들을 협력 건설하는 것을 반기고 있다.

셋째, 관광산업의 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의 관광자원은 매우 풍부하고 이로 인해 북한정부는 이미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넷째, 과학 산업의 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정부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크게 중시하고 있으며, 김정일 총서기 또한 중국 방문 시 과학기술 분야의 참관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므로 전화, 인터넷, 통신과 같은 정보통신 산업에 커다란 발전의 여지가 있다.

다섯째, 농업의 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의 농업기술 수준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식량의 자급자족과 송이버섯, 고려인삼과 같은 수출 제품의 생산량 증가 및 재배 기술의 향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어업 면에 있어서도 연근해 어업, 해수양식, 해산물 가공 등의 사업에 있어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

여섯째, 노동 집약형 제조업의 협력이 가능하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경공업 제품의 보급이 비교적 부족하기 때문이며, 또한 북한에 양질의 비용이 적게 드는 대규모의 노동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기업은 북한에서 가공제조업 같은 노동 집약형 산업의 투자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단동 중·북 국경 국제 쇼핑센터”의 건설

상하이 차이선(菜森) 투자 유한공사의 투자로 압록강 상류의 마시도(馬市島)에 “단동 중·북 국경무역 국제 쇼핑센터”가 건설되고 있다. 전안구(區) 지우렌진(鎮) 마

시도는 단동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17.3km²의 면적에 단동 시내와 9.3km 떨어져있고 압록강과 혼하淸河(산서성(山西省) 북부에서 동쪽의 하북성으로 흐르는 ‘永定河’의 다른 이름)에 둘러싸여 있는 독립된 지역으로 지세가 평탄하며 풍부한 수자원이 있으며 신의주와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마시도는 신의주와 전안구 지우렌진의 교량역할을 하는 곳으로 양쪽으로 통하는 입구에 각각 세관이 있어 앞으로 “마시도 자유 무역지대”의 입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국으로 통하는 세관은 두 나라의 국경을 관리하는데 편리하여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 투자액은 45~50억 위안 가량으로 건축면적은 3,000무(畝)(약 2km²)이며, 2009년 5월에 착공하여 2012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4. 중·북간 관광 산업의 합작

2008년 9월에 중국정부는 민간인 단체의 북한관광을 공식 허가하였다. 양국 정부의 유관 부문은 이를 위해 사업 내용에 관한 협상을 거쳐 정식문서로써 협정을 맺고 적당한 시기를 선정하여 중국인 단체의 북한 관광을 시작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국 국가 여행국 부국장 두장(杜江)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9년은 중·북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 해를 “중·한 우호의 해”로 정하고 양국의 관광산업이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중·북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교류의 범위가 늘어나서 양국관계가 나날이 친밀해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 관광총국 강철수 부국장은 중국은 북한의 중요한 관광 객처이며, 관광 정책, 선전활동, 호텔관리, 통계, 교육훈련의 방면에 있어 중국 국가 여행국의 지원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장은 또한 중국 국가 여행국은 북한이 심양에 비영리 여행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밝혔다. 중국으로 오는 북한인 여행자는 극히 적지만 중국은 북한 최대의 관광 개체로서 이러한 정책을 통해 앞으로 중국인 여행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2009년 이후에는 북한 경제가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다.

5. 중·북 IT 기술 분야의 협력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은 대량으로 IT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액이 수십 배씩

늘어나고 있다. 2006년 5월에 내린 통계에 의하면 2006년 1분기에 단둥에서 수출된 자동차 설비 및 부품의 액수는 209만 달러 상당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배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다른 수출품으로 18만 달러어치의 노트북 184대가 전년 대비 금액 면에서 46배, 물량 면에서 60배가 성장하였고, 155만 달러어치의 5,098대의 컴퓨터가 3.7배와 2.4배로 성장했다. 각종 부대설비 또한 35만 달러어치가 수출되어 전년 대비 2.9배가 성장 하였다. 그 외 인터넷 설비의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교환기는 작년 1분기 수출액이 3.8만 달러로 2006년 전체 1,775 달러에 비해 20배가 성장했다.

중국과 북한이 심양에서 합작하여 진행 중인 IT 기술의 개발 사업에도 큰 발전이 있다. 양국은 심양에 정보기술(IT) 연구개발 기관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의 조선과학원에서는 이곳에 14명의 IT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조선과학원과 심양 대외 과학기술 교류센터는 2006년 7월에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연구소를 설립하여 여러 종류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동북아 최대의 소프트웨어 개발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록 겉으로는 중국기업이 북한 인재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국의 협의 하에 진행되는 연구개발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심양 연구소에는 85명의 북한 IT 인재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국의 IT 기업들과 함께 높은 수준의 지문 및 홍채인식과 같은 생체식별 기술 및 외국어 번역 프로그램의, 외국기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구에 진행 중이다.

6. 중·북 경제무역 협력의 문제점

중·북간 경제무역 협력 사업에는 큰 잠재력이 있는 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도 있다.

- ① 정치적 요소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한다.
- ② 시장 무역의 질서체계가 바로 잡혀있지 않아 국가 경제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 ③ 무역거래의 규범이 미비하여 사업상 위험부담이 크다.
- ④ 무역거래 수준이 높지 못하며 상호역량이 약하다.
- ⑤ 무역항의 규모가 작고 거래를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이 미비하다.

⑥ 북핵문제로 인해 높은 차원의 협력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중·북 경제무역 합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북간 무역거래의 규범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무역거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무역관계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북한 양국 모두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는 단계에 있다. 양국의 경제상황에는 확실히 큰 차이점이 있지만 동시에 상호보완이 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북한과의 더욱 진일보한 상호간 경제무역의 합작을 통해 더 많은 형태의 사업을 연구하고 이익을 추구하여 양국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북 경제무역협력에 있어서의 주요 문제점

1) 정치적 요소로 인한 경제협력 장애

이미 알려진 바대로 현재 북핵문제는 아직도 제대로 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한 간의 적대관계도 여전히 남아있다. 북·미 관계 또한 개선과 악화가 반복되고 있으며 북·일 관계는 일본인 납치문제로 인해 교착상태에 있다.

북·남 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도 북한의 대외 경제무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한 예로, 금강산 한국 여행객 피살사건은 전체 금강산 여행사업과 남북 무역관계의 중단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비슷한 예로 중·북 관계에 있어서도 2006년 10월 북한은 서슴없이 핵실험을 진행했고 2004년 10월에는 심양에서 신의주 특별구역의 장관 양빈을 경제사범의 혐의로 체포하여 중·북 관계 및 양국 무역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2) 점점 심각해지는 밀수무역

2008년 1, 2월 두 달간 단동의 도로세관은 허위신고 및 신고누락 등의 수법을 사용하여 40만 위안 상당의 제품을 밀수하려던 9건의 사례와 세관의 눈을 피해 밀반출을 시도하던 밀수사례 2건을 적발하여 그 중 6건을 밀수관할 기관에 인도하였다. 이는 단동지역 무역거래 역사에 있어 같은 기간에 가장 많이 발생한 건수이다. 2005년

1월에는 단동 세관이 납 20톤의 밀수 사례를 적발하였고, 1월 27일에는 단동 국경 경제협력구의 리이(利奕)경제무역 유한공사가 신청한 60톤의 은 수입 건에 대하여 조사를 벌인 결과 은광석 아래에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20톤의 납을 발견하여 1만 6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와 유사한 밀수거래 행위들은 투먼 세관에서도 자주 적발되었다. 이는 양국간 경제수준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상품가격에도 큰 차이가 있으므로 밀수업자들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2008년 초 이래, 북한의 기근과 국제 식량가격의 상승으로 식량과 화학비료 등 생필품의 밀수가 더욱 늘어났다.

단동시 주변 환경은 매우 복잡하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면에서 이익을 취하기 위한 북한정부가 밀수행위를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며, 중국 측의 밀수 감독자들 또한 대가를 받고 밀수거래에 참여하거나 그 행위를 보호해 주는 등 세관 주변의 이권 개입 행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다. 밀수업자들은 담배와 자동차등과 같은 중국에서 수입을 제한하는 민감한 상품들을 사재기하여 압록강의 특정 지역을 이용해 중국 내로 밀수하고 있다. 2000년에는 단동 세관과 유관부서가 합동 단속을 벌여 담배 8,000여 상자를 압수한 사례도 있다. 특히 압록강이 얼어붙는 겨울철에는 밀수업자들이 양국 간 가격차이가 크게 나는 고급제품들의 밀수를 빈번하게 하고 있다. 연변지역은 3국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고 3국 모두로부터 변두리 지역에 위치해 있어 역사상 밀수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다.

따라서 국가 간 가격차이가 큰 상품들은 모두 밀수업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밀수업자들은 양국 간 제품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합법적, 비합법적의 모든 경로를 통해 거래를 하고 있다. 그 중 어떤 것은 몸이나 짐 속에 숨겨서 이동하고 어떤 것은 가명이나 남의 명의를 이용해 물품을 우송하고 또는 내외부의 결탁세력과 연계하여 특수한 소장도구를 이용하여 밀수를 하기도 한다. 겨울철 언 강을 이용한 밀수행위가 빈번해지면서 차량을 이용해 밀수품을 운송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밀수거래에 있어 생겨난 새로운 동향으로, 이러한 “신종 무역”을 위해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회사형태의 조직도 생겨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인민폐를 지불하고 옷감과 설비를 사들이는 일반무역 행위를 보상을 공급받는 것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내지 않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대금을 한꺼번에 지불하면서 기계설비를 수입하는데 지불하는 보증금이라고 신고하여 감세

혜택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 물량보다 훨씬 적은 물량을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를 적게 내고 대부분의 물량을 중국 내에서 내수로 판매하여 큰 이익을 남기기도 한다. 또 대량으로 옷감을 수입하여 중국산 가공제품으로 바꾸어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남기기도 한다.

연길의 모 공장에서는 불법으로 텔레비전 부품 2대를 수입하다가 적발되고, 차오양추안의 공장에서는 옷감 11.8만m를 불법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세관 관계당국에 의해 사법처리 되었다. 이러한 불법 밀수행위는 그로 인한 큰 이익의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행되는 것으로 양국 상품간의 가격 격차가 존재하는 한 밀수행위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국경 무역의 결제와 운송문제

2008년 2월 21일부터 단동 세관은 대북무역에 있어 모든 결제를 인민폐로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단동이 대북무역에 있어 모든 제품에 대한 자유로운 결제를 가능하게 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대북무역에 있어 단동이 차지하는 교역량 비중이 전국의 70% 이상인 상황에서, “한 손으로 돈을 주고, 한 손으로 물건을 받는다(一手錢, 一手貨)” 현금 상거래 간에 외국돈과 인민폐간의 환전이 비교적 보편화되어 있는 현상은 상거래의 위험부담을 가중시켜 국경무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금융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중국 인민은행 단동시 지점은 상급기관의 허락을 얻어 단동지구 내의 무역거래에 대한 인민폐 결제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외국인의 인민폐 결제계좌 및 개인 계좌의 개설을 허용하였다. 또한 계좌 내의 금액을 외화로 환전해 주는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인민폐 사용 환경 및 결제수단으로써의 인민폐 사용을 정착 시켰다.³⁾

중·북 양국 간의 국경무역은 나날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2006년 한해 동안 요녕성의 대북 수출입 무역총액은 7.88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는 매년 30% 정도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통계조사 의하면 국경지역의 무역활동은 대부분 현금결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불편할 뿐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도 있으며 각종 경제적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3) 『단동의 창』, 2008년 2월 21일 <www.china-dandong.net>: 단동의 대북무역은 인민폐로 결제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단동지역에는 국경무역 기업이 180곳이 있으며 그 중 다른 성(省)에 거점을 두고 있는 30여 곳의 기업이 이곳에 지사를 설립하여 대북 수출입 무역을 하고 있다. 이들은 중·북 국경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며 대규모 무역이든 소규모 무역이든 오로지 현금만을 사용할 수 있어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북한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거액의 자산을 북한의 은행에 넣어 두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금거래는 상거래를 활성화 시키는데 부정적인 요소이지만,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북한 측의 성의부족과, 운송능력의 한계, 장기적 채무 등의 원인으로 규모가 확대 되기는 어렵다. 단동시의 통계에 의하면 몇 년 전 북한은 중국에 2,500만 위안의 현금을 빚지고 작년엔 500만 위안만을 상환했다. 중국이 운영하는 기차의 객차는 북한에 운송된 후 오랜 기간 동안 대여되어 국내 운송에 사용되었으며, 한때 2,600개의 객차가 북한에서 사용되어 중국의 철도 화물운송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2004년에는 대 북한 철도 화물운송 이로 인해 여러 번 운행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운송능력이 모자란 상황에서 상당량의 화물을 적재하고 식량, 곡식, 종자 등의 화물을 운송하다가 변질이 되어 중국 상품의 국제 신용도에 손상을 입히기도 하였다. 북한 측이 일부러 억류해 두었던 객차들은 설령 반환되더라도 심각하게 손상이 된 것이어서 중국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4) 북한 무역회사의 낮은 신용도

2005년 북한은 “외자의 확대”를 통한 “실리”주의 추구를 통해 “전력”생산을 강화하고 입법을 강화하여 더 나은 투자환경을 만들 것을 시도하였다. 또한 농산품과 건축재료 교역시장을 점차 확대하였으며, 요녕성의 기업은 이에 대해 지리적 우세의 이점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국경무역을 발전시켰다. 요녕성은 농산물과 건축 재료를 북한에 판매하고 북한의 광산채굴과 전력설비 등의 사업권을 획득하여 철강기업의 원자재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송전설비 등을 북한에 수출하였다.

중국 대외 경제무역부의 아시아 부서는 1998년에 대북무역의 “외화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사항을 건의하며, 대북 무역에 있어 “외화의 안전 회수”를 위해 현금교환 원칙을 고수해야 하고, 이를 정상적인 무역업체(북한의 대외무역상사)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북한정부 기관(북한 주중사관 경상처 등)과 무역거래를 하지 않아

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외교 기관이 담보기능을 하지 못하며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양국 무역관계가 나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금교역의 원시적인 무역형태는 중·북 무역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결제의 문제 또한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아 중·북 무역의 정상화 및 확대에 걸림돌이 되었다.

중·북 경제 및 과학기술협력과 북한변화에 대한 영향

이종림(李鐘林)(중국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 교수)

I. 머리말

2007년에 들어서 북한은 경제건설을 중시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면서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등 신문들은 공동사설을 통해 경제건설에 대해 크게 논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는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하였고 현 단계의 주요한 임무는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신속히 제고시키며 국가 경제현대화의 기술개선을 다그쳐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최근 “6자회담”이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잡한 북핵문제는 여전히 해결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지 못한 이유로 핵프로그램을 재가동하겠다는 메시지를 IAEA 통보하는 등 북한에 대한 수십년 간의 국제사회 경제제재는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 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서 중국은 “6자회담”에서 보여 주듯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경제협력으로 그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한다.

본문은 최근년간 중국과 북한간의 경제교류현황을 살펴보면서 중국의 대 북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중국과 북한간의 무역 및 과제

1. 중국과 북한간의 국제무역

중국과 북한간의 경제교류는 중국의 대북지원, 국제무역, 변경무역, 대북투자 등으로 구성한다. 그중 국제무역은 양국간 경제교류의 주요한 구성부분이다. 지난 90년대 중반에 들어서 북한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양국 간의 무역은 크게 위축되었다가 2000년에 들어서면서 점차 회복추세를 나타냈다. 1995년 양국 간의 무역액은 5.4억달러에 달했는데 1999년에는 3.7억 달러로 위축되었다. 2000년에는 무역액이 4.88억달러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2001년에는 7.37억달러로 급성장하였으며 그 뒤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어 2005년에는 15.8억달러로 급성장하였다. 2007년 양국 간의 무역액은 이미 19억7,500만달러에 달해 전해에 비해 16.2%를 성장하였다.

<표 II-1> 중·북한 무역액의 추이

(단위: 만 달러)

연도	수출입	수출	수입
1995	54,000	48,000	6,000
1996	56,600	49,700	6,900
1997	65,600	53,500	12,100
1998	41,300	35,600	5,700
1999	37,950	32,900	5,050
2000	48,800	45,100	3,700
2001	73,700	57,100	16,700
2002	73,800	46,700	27,100
2003	102,000	62,800	39,500
2004	138,500	80,000	58,500
2005	158,100	108,400	49,700
2006	170,000	123,237	46,778
2007	197,592	139,259	58,333

자료출처: 중국세관

현 단계 중국은 북한의 생산재와 소비재의 조달지로서 이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러시아와 동유럽시장으로부터 중국시장으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중국에서 수입

되는 석유, 코크스, 식량, 기계설비 등 생산재와 소비재는 북한의 에너지와 식량난의 극복에 중요한 완화역할을 하였다.

2. 중국과 북한간의 변경무역

국제무역에 비해 오랜 역사를 가진 변경무역은 주로 두만강과 압록강을 국경으로 하는 길림성의 연변지역, 통화지역의 장백현과 집안, 요녕성의 단동지역에서 진행된다. 중국과 북한간의 변경무역은 90년대 초반에 아주 활기를 보여주었다가 90년대 중반에 북한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급속히 위축되었다. 90년대 말 이후 북한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양국 간의 변경무역도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연변지역의 대 북한 변경무역액은 1995년의 5,423만 달러에서 1996년에는 2,218만 달러로 위축되었다가 2000년에는 4,872만 달러로 서서히 성장하였으며, 2005년에는 2억 6,204만 달러로 급성장하였다가 그 뒤로 다시 서서히 성장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5년도 연변지역의 대북한 변경무역의 급성장은 연변 천지공업 무역회사가 무산으로부터 철광석을 수입하면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단동지역도 변경무역이 1996년에 약간의 위축이 있었지만 연변지역에 비해 폭도가 크지 않았으며 그 뒤로 변경무역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1996년 단동지역의 변경무역액은 1억 81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2004년에는 3억 1,400만 달러로 성장하였으며 2006년에는 역시 4억 6천만 달러로 빠른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 2> 중·북한 변경무역액의 추이

(단위: 만 달러)

구분 연도	연 변			단 동		
	수출입	수출	수입	수출입	수출	수입
1995	5,423	3,035	2,388	10,196	7,787	2,412
1996	2,218	1,384	834	10,810	86,60	2,150
1997	3,535	2,434	1,101	15,041	12,028	3,013
1998	3,163	2,212	951	17,039	13,189	3,850
1999	5,073	4,044	982	17,915	13,189	3,850
2000	4,872	2,976	848	18,410	15,310	3,100
2001	6,833	5,022	1,811	20,100	17,080	3,020
2002	9,459	6,579	2,880	22,000	18,000	4,000

2003	11,656	7,609	4,046	29,800	20,900	5,900
2004	21,582	9,758	11,824	31,400	23,900	7,500
2005	26,204	13,291	12,913	43,516	23,600	19,916
2006	26,829	14,486	12,343	46,266	29,540	16,726
2007	27,676	16,025	11,651	-	-	-

자료출처: 연변상무국, 단동정보네트

중국과 북한간의 무역은 양국 간의 경제협력에서 주요한 구성부분으로 되며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대 중국무역액 50%에 달해 북한의 대 중국 무역의존도는 급증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국 간의 경제체제 차이로 인해 양국 간의 무역, 특히는 변경무역에서 많은 과제 또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즉, 북한 무역회사의 상납비용인 정상무역액외의 비용을 요구, 북한수출입회사와 중국무역회사간의 정보 비대칭성, 무역금액에 대한 다양한 채납현상, 열악한 통신시설, 리스크가 큰 무역결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된다.

Ⅲ. 중국의 대 북한 투자추세와 과제

1. 북한의 투자환경

투자환경이란 여러 가지 요소의 복합적인 구성체로서 한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요소들의 변화에 따라 투자환경도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는 또한 투자자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투자환경은 경제적으로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의 “3난”, 저 노동열정, 저 국가경쟁력, 저 기술수준 등의 “3저”, 생활환경의 열악, 기계설비의 노화, 제품질량의 저하 등 “3악” 등등 경제적 환경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핵위기는 북한의 안정을 하여금 고도의 긴장상태에 처해있게 하여 투자의 모험성이 아주 크다. 한편, 사회체제적으로 중앙집권제로 인한 정부의 간섭이 기업의 생산, 경영질서에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투자자의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 게다가 열악한 인프라는 투자기업의 비용 부담을 더하게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투자환경은 아주 열악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여러 가지 애로를 극복하면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하고자 하며, 해당 대외경제정책과 대외경제법규를 제정하는 등 외자도입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풍부한 광물자원, 해산물자원을 부유하고 있고 노동력 소질이 비교적 높고 임금이 저렴하며 지리적으로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유리한 투자환경도 가지고 있다.

2. 중국의 대 북한 투자추세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기업에게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물론 선진국시장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취득하고 있는 한편, 지리적으로 인접되었고 시장이 아직 미개발된 처녀지인 북한시장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의 새로운 투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형기업을 제외하고는 더욱 많은 중국투자자들은 대 북한 투자에 있어서 투자규모가 작은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있다. 중국의 대 북한 투자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대 북한 투자는 폭발적이 성장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1999년 말까지 중국 대외경제무역부의 허가를 받고 대외무역경제부에 등록되어 있었던 북한경내의 중국기업은 다만 13개 기업 이었으며 중국 측의 투자액은 272만 달러로서 주로 음식업, 상점 등 서비스분야와 생수, 해산물양식, 경공업 등 생산성분야에 투자되었다. 중국 측은 대부분 설비, 생산재, 기술 등 형태로 투자하였으며 투자규모는 비교적 작고 투자수익이 이상적이 못 되었다. 그러나 2004년에는 중국의 대 북한 기업수는 120여개로서 투자규모는 1억 7,350만 달러에 달해 전체에 비해 130배 늘어났으며 이러한 성장추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둘째, 동북지역기업의 지리적 우세와 남부지역기업의 강한 비즈니스 의식이 대 북한 투자의 주체를 이루고 있다. 현재 120개 중국투자기업 중에서 杭州娃哈哈集團, 河南一拖集團, 吉林紡織進出口公司, 長春維鷹科學股份有限公司, 大連華興集團, 華豐集團, 長春萬達制藥, 延邊天池工業貿易公司, 山東招金鑛業集團, 南京熊貓電子集團有限公司 등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이 있다. 그중 남부지역의 기업들은 중국과 북한간의 변경지역을 중개로 대 북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山東招金鑛業集團은 압록강의 상유지역인 길림성 장백현의 기업을 통해 북한에 투자하였으며, 북한 무산철광에 대한 투자는 延邊天池工業貿易公司를 통한 광둥서 주해시의 한 민영기업의 투

자이다.

셋째, 중국의 대 북한투자에 있어서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제발전의 후진성으로 채굴, 가공의 기술과 능력이 결핍하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자원개발과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편, 자원공급이 날로 부족해지고 있어 양국 간에는 비교적 강한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 양국 간의 이러한 자원우세와 기술자금융세를 결부하면 중국의 경제발전에서 자원제약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발전도 추진하게 된다. 2003년 延邊天池工業貿易公司는 북한 무산철광에 1억원(인민폐)의 광산설비를 투자하여 남평통상구를 통해 철광분을 수입하였다. 본 회사는 2005년에 3,500만원을 추가 투자하여 무산철광에서 남평선광공장까지 13km의 철광분수송파이프를 구축하였다.

북한의 무산철광은 채굴축적량이 11~12억톤에 달하며 연간채굴능력은 800만 톤이다. 길림성은 이 프로젝트에 큰 주시를 보이고 있으며 무산철광의 채굴에 필요한 전력을 보장하고자 長白通商口와 臨江通商口를 통해 무산철광에 해마다 70만 달러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길림성 장백현과 山東招金鑛業集團이 연합하여 북한 양강도 “혜산청년동광”에 인민폐로 2억원의 광산설비를 투자하여 동광의 협력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혜산청년동광”은 아세아지역의 대형동광의 하나이다.

그 밖에 中國五鑛集團은 북한 용등탄광에 합자기업을 설립하여 석탄개발을 한데 관한 협의를 북한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2005년 12월 25일에는 중국과 북한정부는 <중·조정부간에 해상에서 석유를 공동으로 개발할 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북한해역의 석유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게 된다.

넷째, 중국기업의 대 북한 투자동기는 미개발의 처녀지를 점령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기업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바로 중국 시장경제체제 전환이다. 중국 시장경제체제는 날로 개선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은 보다 더욱 넓은 발전공간을 탐구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북한은 시장처녀지로서 중국기업의 투자상대로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밖에 중국은 북한의 인프라구축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북한의 철도, 도로, 항만의 인프라가 낙후하며 교통운수설비가 결핍하며 서비스시설, 사무실과 주택의

수요가 아주 크다. 따라서 북한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프라구축의 협력을 지양하고 있다. 2005년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훈춘시 동림경제무역유한회사와 훈춘변경경제무역합작구 보세유한회사는 북한 라선시인민위원회 경제합작회사와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를 합자경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직 미착공 상태이다. 계약에 따르면, 쌍방은 각각 50%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측은 자금, 설비와 건축원자재를 투자하고 북한측은 기존의 도로기축, 도로표면, 항구를 투자하여 인프라구축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중국은 북한 경내를 포함한 연변의 훈춘장춘간의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팔도용정삼합회령청진구간의 고속도로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3. 중국의 대 북한 투자과제

중국의 대 북한 투자는 비록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대 북한 투자에 있어서 참여하는 기업의 절대수량은 크지 않다. 또한 많은 대규모의 투자는 아직도 실질적인 진전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의 가늠은 많지만 행동이 적고 협상은 많지만 성공이 적으며 소규모는 많지만 대규모는 적다. 이러한 현상들의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제도적인 장애요인이다. 중국과 북한은 경제적으로 부동한 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양국기업으로 하여금 교류를 어렵게 하며 서로의 융합이 어렵다. 예를 들면, 투자협상에 있어서 중국 기업은 북한이 우혜정책의 법률근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고위급 책임자가 내각지상 심지어는 법률지상에서 통제하고 있어 이들과 협력하면 법률절차를 떠나 많은 우혜정책이 보장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게임의 비대칭성은 중국기업으로 하여금 결책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더해준다.

둘째, 북한의 경제발전의 저수준은 중국기업의 대 북한 투자를 저해한다. 북한경제는 장기적으로 침체상태에 처해 있어 투자 이후의 생산정상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전력부족은 최대의 장애요인으로 되며, 운수난, 도로사정, 채굴설비의 노화, 항만하역장비의 부족 등이 모두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된다. 그러므로 단순한 투자항목은 생산의 정상화를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양호한 경제수익은 더욱 어렵다. 현재 대 북한 투자에 있어서 다만 체계적인 투자를 실시하여야만 양호한 생산가동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현 단계 북한은 대규모의 단순투자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셋째, 북한 외자도입정책의 일부 문제점들이다. 광산개발 투자에 있어서 북한은 “합영” 방식을 허락하지 않으며 “합작” 방식을 제창하고 있다. “합작”은 실질적으로 단기차입방식으로서 북한측이 투자액을 상환 뒤에는 투자자에게 광물제품의 판매권을 부여하고 이윤을 2:8의 비례로 분할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의 수익인 이상적이 아니다. 이러한 투자방식은 광산개발 분야만 아니라 다른 투자영역에서도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는 과거의 특수한 혈육관계에서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향하며 선린친선을 지양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전환하고 경제체제는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관계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간의 관계로 전환하였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양국 간의 관계는 더한층 발전하여 전통적인 친선이 부단히 공고해지고 있다. 동시에 중국의 胡錦濤주석은 상호협력하고 공통으로 발전하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여 중국기업과 북한기업간의 다양한 투자 협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쌍방의 무역협력규모를 확대하고 협력수준을 높이고 있으므로 양국 간의 경제무역협력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 기업이 북한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

IV. 중국·북한간의 과학기술협력

중국·북한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체결 50주년을 맞이하는 2007년 12월 13일 중·조 과학기술협력연합위원회는 평양에서 제42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쌍방은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할 데 관한 회의의향서를 체결하였다. 더불어 비망록도 체결하였는데 주 내용은 중국과학기술부는 2008년에 만기되는 조선국가과학원에 대한 매년 과학 기술도서와 간물을 기증하는 협정을 5년간 더 연장하고 후원자금을 매년 15만 위엔(인민폐)에서 20만 위엔으로 증가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를 개최하면서 중국과학기술부는 조선국가과학원에 컴퓨터 등 일부 사무용설비를 기증하였다.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양국 간의 과학기술협력도 경제교류협력과 투자협력의 형태와 같이 중국의 대북원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수십년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국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영역에서도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대 북한 원조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원조는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는 것이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국가지도자들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모두 대북 원조를 약속하였다. 1996년 5월 江澤民主석의 임기 당시 베이징에서 중국의 대북 원조 강화를 위한 “경제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식량, 원유, 석탄 등 물자를 원조로 제공하였으며 그 중 과학기술원조도 포함되고 있다. 2002년 5월 14일 중국과 북한 정부대표는 평양에서 중·조과학기술연합위원회 제38차 회의의향서를 체결하여 쌍방은 나노미터, 미생물, 농업, 석유화학, 자동화 및 채굴 등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특히 胡錦濤국가주석의 취임이후 방북은 양국관계에 새로운 장을 펼쳤다. 당시 두 나라 지도자는 경제원조의 근거가 되는 “경제기술협력협정”을 위의 협정의 연장선으로 새롭게 서명하였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평양에 자진 거공장과 유리공장을 원조형태로 지원하여 세워주었으며 더불어 이 분야의 산업기술을 제공하였다.

2007년 12월 13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42차 중·조과학기술연합회의에서 체결한 위에서의 회의의향서에서는 쌍방이 농업, 전기,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 의학, 해산물양식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한편, 제41차 회의의향서를 집행한 상황을 토론하고 앞으로의 협력프로젝트를 제출하고 쌍방은 맺어진 협력프로젝트들이 철저히 낙실되기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고 새로운 협력분야와 방식을 모색하며 양국 간의 기술협력이 새로운 성과를 취득하기 위해 힘을 다하자고 약속하였다. 최근 몇 년간 중국과 북한의 과학기술협력은 기후변화, 해양기술, IT기술개발 등 영역에서 긴밀한 과학기술협력을 보이고 있다.

1. 기후변화의 과학기술협력

2005년 12월 5일 조선기상수문국 대표단을 베이징을 방문하여 제13차 중·조기상과학기술연합사업팀회의에 참석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제12차 회의에서 협정한 8개 분야의 12개 프로젝트의 추진사업에 만족을 공감하면서 북한은 기상과학기술협력과 원조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더불어 앞으로 쌍방은 위성기후자료, 기후모형연구, 기상예보, 디지털예보제품의 이용, 기후관측표준의기의 검증, 기후통신설비와 MT-SAT위성접수기, 고공기후탐측 등 협력사항 및 WMO VCP계획에서의 프로젝트 등

협력을 구체적으로 협상하였다. 따라서 2007년 4월 중국기상국은 평양에서 701C형 고공 레이더 1대, 고공 탐측자료처리용 컴퓨터와 프린터 및 레이더 보조설비와 비품 등 기후탐측설비를 기증하였다. 2007년 11월 27일, 중·조기상과학기술연합사업팀은 평양에서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프로젝트의 집행상황을 총괄하고 2008~2009년 기간 양국이 기상과학기술협력, 기술인원양성, 국제기상조직내에서 협력을 강화할 데 관한 사항에 입장을 같이하며, 지구온난화, 기후환경변화의 감측, 자연예방에 대응하며 양국기상부문은 정보교환, 자료교환, 재해성 날씨예보 등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2008년 9월 4일 중국의 대북 원조로서 평양고려호텔에서 기상물자 기증의식을 가졌다. 이날 중국기상국은 북한에 虹吸雨量計, 水位計, 휴대용 水文流速流量儀, 電傳風向風速儀, 探空儀, 차량용 인터콤, 초단파 휴대용 트랜스시버 등 설비를 기증하였다. 이는 중국기상국이 세계기상기구(WMO)의 기급 재해협력계획과 자원협력계획에 따라 제공하는 기증품이다.

국제적으로 지구온난화 등 지구기후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국이 공조를 이루고 있는 현재, 중국은 이와 같이 북한도 지구기후변화의 국제적 공조에 참여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있다.

2. 해양과학기술협력

중국과 북한은 해양과학기술영역에서도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유일하게 중국과 정부간 해양기술협력협정을 맺은 발전도상국가이다. 1986년 5월 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해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상수문국의 해양과학기술협력 의향서>를 체결하였다. 최근 양국은 “우호협력, 안정적인 발전”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양자료 교환, 조류·파도의 연합디지털모형연구 등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2006년 11월 2일, 중·조 해양과학기술협력 제13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 양국은 제12차 회의에서 제정된 협력 프로젝트의 집행상황을 총괄하고 2007~2008년 기간의 협력계획에 대해 깊은 토론을 벌였다. 양국은 “황해 오염류에 대한 업무화 예보 실험에 관한 공동연구”와 “해양과 공기간의 연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등 프로젝트를 전제하고자 합의를 가졌다. 중국 측에서 제기한 “GIS(지리정보

시스템)를 북황해에서의 응용연구 및 질량평가 방법”과 “북황해 해수순환 동력학과 퇴적동력학의 협력조사연구” 등 프로젝트에 대해 북한은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표명하였으며, 한편 북한은 중국기상국에 물리해양학, 해양생물, 해양위성중계, 디지털 시뮬레이션 등 영역에서의 북한인재양성을 청탁하였다. 북한은 또한 “황해 해양생태 시스템”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상황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였고 중국은 북한의 프로젝트추진에 필요한 기술과 물자협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본 회의에서 양국은 처음으로 해양관측자료를 교환하여 이는 황해 해양환경예보의 정확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쌍방의 협력에 새로운 활기를 주입하고 또한 양국의 협력이 더욱 실무적인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3. IT산업기술의 협력

21세기를 맞으면서 지구촌의 정보화 고조가 일고 있는 이 시대에 북한도 뒤질세라 IT산업에 대하여 중시를 나타내고 지식·정보화 사회의 세계적 흐름을 인정하고 과학기술의 중장기발전전략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집중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IT산업의 과학기술정책으로 우선 IT산업의 인재양성에 중시를 돌리며, 따라서 청년 과학자들이 선구자가 되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산업에 더 주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일정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과 북한이 IT산업기술의 협력에 보완성을 보여주고 또한 협력의 필요성을 마련하였다. 2007년 5월 중국과 북한은 공동으로 중국 썬양(沈陽)에 IT공동연구기구를 설립하였다. 이 기구에 조선과학원을 14명의 IT전문인원을 파견하였는데 이는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견하는 첫 사례이다. 사전에 중국 기업에서 북한 IT인재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이미 전개하고 있었다. 당시 썬양에는 이미 85명의 IT전문인원이 중국의 IT기업과 함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었다. 썬양 IT공동연구기구에서는 주로 북한이 보유한 과학기술함양이 비교적 높은 지문, 홍채(iris) 등 생물식별기술의 육성, 외국어번역프로그램의 漢語化, 외국기업에 대한 프로그램기발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은 그 밖에도 2005년 5월 山東省 煙台市에서 중·조

과학기술협력(食用菌)협정을 체결, 2007년 6월11일 조선과학제지공정연구소의 제지 전문가들이 중국펄프제지연구원 방문, 북한라선경제무역구 대표단이 江蘇省 太倉市 과학기술국과 협력하여 “金星獾” 토끼의 우량품종과 유기양식기술을 북한에 수출 및 보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 2007년 9월 20일 조선국가과학미원생물연구소, 김일성 종합대학태양에너지연구소, 공업기술회사 등 10여개 과학연구기관과 기업이 2007년 동북아하이테크엑스포에 참가하는 등 과학기술과 산업기술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요컨대 북한의 대외 과학기술협력에서 중국이 가지는 위상은 특별히 크다. 초기에 집중했던 구소련, 동구원 국가들과의 협력이 정치체제의 차이와 지리적 단절로 큰 변동을 겪었지만 중국과의 협력은 60년대 문화대혁명 기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순탄하게 추진되었으며 범위도 넓어 졌다. 특히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으면서 유일하게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V. 맺는 말: 북한의 변화 전망

중국은 지난 근 30년간의 개혁개방과 15년간의 시장경제체 실시를 통해 지속적인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따라서 “세계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은 자원보장의 한계성과 외환보유의 팽창이라는 문제점들을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중국정부는 21세기에 들어서 서부대개발전략과 해외진출의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서부대개발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것은 중국경제의 지속인 발전을 위한 자원보장이라는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 해외진출은 외환보유의 팽창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해외시장의 직접적인 진출을 통해 관세 내지 비관세장벽을 넘어 수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해외의 자원을 수입하여 국내의 자원공급 부족을 완화한다는 자원보장의 의미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고 지리적으로 인접되어 있으며 산업과 시장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처녀지인 북한은 당연히 중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적합한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에 주로 의존해 왔던 북한은 선진국들의 자본도입이 어려운 이 시점에서 다만 중국자본의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양국 간의 투자내지 경제협력의 상호보완성이다. 이러한 상호보완성은 현재 중국의 대북한 투자에 있어서 경제적 바탕으로 된다.

한편, 북한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경제적 원조, 무역, 투자, 과학기술협력은 북한의 변화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선, 북한 경제회복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핵문제해결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또한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확실한 현 단계 북·미간의 관계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북한의 대 중국의 경제적 의존도에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며 따라서 중국의 대북원조, 특히 원유, 코크스, 기계설비 등 생산원자재의 원조는 북한경제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둘째,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몇 년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을 2차례 방문하면서 중국 연해지역을 시찰하여 중국의 개혁개방을 실감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현 체제에서 중국과 같은 경제체제의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001년 비록 “7·1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실시되었지만 이는 다만 국가경제가 어려워져 배급 제도를 실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자급자족하게끔 하는 불가피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북한 전역에서 소비재 시장이 형성하였고 또한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80%이상은 중국과 변경무역을 통해 수입된 중국제품들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 경제체제변화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는 소비시장의 물자공급원이 되었고 이를 통해 북한국민들로 하여금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체득할 수 있어 경제체제개혁의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편, 중국과의 무역확대를 유발함과 더불어 북한무역회사를 하여금 제도개선으로 교역비용을 감소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하며, 북한기업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제도개혁으로 경영의 효율성과 기술개혁의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셋째, 경제관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에 협조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이 대외교류를 활발히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은 수요에 따라 중국현지를 고찰하고 조사연구하며 수요에 따라 경제관리와 과학기술 인재를

파견하여 중국에서 양성시키거나 혹은 중국의 해당 전문가를 초청하여 업무교육을 진행한다. 그동안 중국의 북경대학, 길림대학, 남개대학, 요녕대학 등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는 북한에서 파견한 유학생과 연수인원을 양성시켜 주었고 이는 북한의 경제관리와 과학기술인재수요를 충족시켰다.

요컨대,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북한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현 단계에 북한의 대 중국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 질 것이며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金 哲. 『朝鮮投資指南』. 大連出版社, 2005.
- 林今淑. 『中朝经贸合作』. 延边大学出版社, 2006. 5.
- 徐文吉. “中朝经贸关系发展及其努力方向.” 东北亚论坛, 2003. 1.
- 陈龙山. “中朝经济合作对朝鲜经济的影响.” 当代亚太, 2006. 1.
- 张玉山. “中朝经贸发展的现状及未来走势分析.” 东北亚论坛, 2006. 1.
- 张慧智. “朝鲜的经济变化与中国的作用.” 当代亚太, 2006. 4.
- 李玉珍. “朝鮮對中國貿易依存度研究.” 『조선반도정세와 중·조변경지역경제』. 국제학술회, 2007. 6.
- 林今淑. “중·조 무역의 현화 및 정책과제.” 『중·조경제 협력의 현황과 과제 학술회의 논문집』, 2008. 8.

중·북 사회·문화 교류와 북한의 변화 전망

우영자(禹穎子)(중국요녕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 부교수)

I. 서론

북한은 새 중국이 성립된 후 가장 일찍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¹⁾로서 양국은 조선 전쟁이란 냉전시초의 열전을 거치면서 확실한 검증을 받은 바 있으며 전통적인 우의와 협력관계는 반세기를 넘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비록 중·북 양국관계는 중국의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혼란, 20세기 90년대에 발생한 냉전체제의 종말과 중·한 수교, 그리고 북핵문제 등으로 다소 흔들리는 듯한 양상을 보인 적이 있으나 특수한 지리적 위치와 그에 따르는 전략적인 사고, 그리고 오랜 역사 전통과 현실적 실리관계 측면에서 고려하여 양국은 정치, 경제, 군사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에서도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화교류는 한 나라의 문화건설과 총체적인 문명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양국의 관계를 새롭게 하거나 기존 우호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외교적 수단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대외 문화교류는 단순한 문화적 교류의 목적보다도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관계를 확인하거나 양국의 관계의 새로운 발전, 체제의 대외적 과시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2008년 4월 15일 북경 공연을 시작으로 상해, 무한, 항주, 천진 등 중국의 주요 11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이루어진 피바다 가극단의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공연은 북한과 중국의 정치적 문화적 친연관계를 확인하는 공연이었다면 2008년 뉴욕 필하모니의 평양

1)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창립을 선포하였고 6일 후인 10월 6일 중국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공연은 미국과 북한간의 새로운 정치적 우호관계를 시사하는 공연이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고, “4월의 봄” 친선예술 축전과 “아리랑” 축전 같은 대형 공연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이윤추구의 목적이 내포되어 있지만 북한의 체제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6.25” 조선전쟁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북·중 사회·문화 교류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양국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와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종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과 북한의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의 전개과정과 특징 및 현황을 살펴보고 북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해보며 앞으로 북한의 변화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다만 현재까지 학계에서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를 논할 때 정치, 경제, 군사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많이 해왔고 사회·문화적 교류와 협력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므로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본 연구는 필자의 개인적인 입장이며, 중국의 각급 정부나 소속연구기관의 관점을 대표하는 것은 아님을 특별히 강조한다.

II. 중·북 사회·문화 교류의 현황

1. 개념 정의

중국과 북한의 사회·문화 교류 협력을 논하기 전에 우선 사회·문화교류의 개념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보통 사회·문화 분야에 관련된 문건에서는 그 영역을 문학·예술, 과학·기술, 종교, 체육, 교육, 언론 등 분야에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치, 경제와 같은 굵직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회·문화로 간주하는 경향도 있다. 사회·문화교류를 또 사회교류와 문화교류로 구분해 본다면 문학·예술, 과학·기술, 종교, 체육, 교육, 언론 및 출판 분야 등의 협력과 교환을 문화교류라고 볼 수 있으며 양국 주민들의 상호 방문과 관광 등 인적왕래 등을 사회교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교류에 대한 개념규정도 필요한바 현재 국내외의 다수 학자들은 교류를 정보의 공유, 정보 발송자와 정보 수신자간의 정보 공유의 과정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대외문화교류를 큰 범위 내에서 해석하면 부동한 문명지간의 상호간 영향, 흡수와 융합으로 해석하고 좁은 범위에서는 국가간 교육, 과학기술, 체육과 문화예술의 교류와 협력이라 해석하는데 보통 의미에서의 대외문화교류라고 할 때는 후자를 선택하고 있다.

2. 중·북 관계 흐름 속에서의 사회·문화 교류의 전개와 특징

중국과 북한이 문화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6.25 전쟁” 이후라고 정할 수 있다. 북한 정권수립 초기 대외문화정책은 대 구소련 일변도 정책이었다. 하지만 중·북 양국관계가 동서냉전이라는 특수한 국제환경속에서 조선전쟁이란 냉전 시초의 열전을 거치면서 재검증을 받게 되었고 또한 그 결과로 1953년 11월에 [중·조 경제문화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1961년 7월에는 마침내 군사동맹조약 [중·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²⁾ 따라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도 당시의 국력을 초월하는 거대한 액수였다. 이로써 양국간 관계는 전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중국은 북한의 주요 문화외교 무대가 되었다.

중국 작가들의 문학작품을 비롯하여 영화,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작품들이 북한에서 소개되는 등 중·북 문화교류는 다양한 장르에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중국도 이에 호응하여 방대한 양의 문화예술 기자재들은 북한에 지원³⁾함으로써 중·북 문화교류가 북한의 대외문화교류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중·북 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1953년 북한에서는 ‘모택동 선집’을 비롯하여 중국의 기술, 과학, 문학자료 서적들이 출판되었으며, 중국 영화 78편을 상영하여 북한 내의 중국 영화 붐을 일으켰으며, 중국도 ‘김일성 장군 약전(金日成將軍傳略), 조선의 저명한 소설가 김학철의 소설 ‘공훈장(軍功章), ‘범람(泛濫), 조기천의 ‘백두산(白頭山),

2) 1963년 6월 28일 주은래총리가 조선사회과학원 대표단을 접견한 때 중·조 양국 간의 혈맹관계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을 우리 중국의 전선으로, 나아가서는 전반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초소로 간주하고 있다. 당신들도 중국을 자신의 후방으로, 특히 동북을 당신들의 가장 가까운 후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外事工作通報』, “周恩來總理談中朝關係,” 1963年第 10期 참조.

3) “위대한 중국 인민들로부터도 지난 기간에 많은 문화재를 보내 주었다. 특히 1954년 1월에는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문화 기자재들이 도착하여 각 예술단체들에 분배되어 예술 공연에 큰 방조를 입었다.” 『조선중앙연감 1949.9~1950.6』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 469쪽.

홍순철 의 ‘영광은 그대들에게’(光荣归于你们), 조선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편집한 ‘조국을 위해 싸우는 조선청년’(为祖国而战的朝鲜青年) 등 서적들은 번역하고 출판하였다.⁴⁾ 북한은 1954년에 상반기 동안에만 중국 영화 79편을 상영하였다. 북한의 중국영화 상영은 ‘중국영화 상영주감’을 따로 마련하여 평양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문화계 대표단’과 ‘예술단체’의 중국 순회공연이 있었고, 중국의 ‘문공단도 조선방문중국인민위문단’과 함께 북한에서 순회공연을 진행하였다. 동시에 그 시기 북한이 대사회주의 국가와의 문화교류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북한의 아시아 국가로의 대외교류를 위한 중간 역할을 자처하면서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로의 정체성을 알리고 주변 국가들과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를 할 수 있는 활로를 제공하였다.⁵⁾

1959년 2월 21일 중국과 북한은 “문화교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면서 “문화교류에 관한 사업계획서”로 진행되던 양국 간의 문화예술교류가 더욱 체계화, 본격화 되었다. 중국과 북한은 “문화 교류에 관한 협정”이라는 공식적인 협정 체결문에 따라 매년 각종 문화예술 관련 고위관리들과 예술단들이 호상 방문하고 양국의 각종 전시회를 상대편 국가에서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가 정기적으로 진행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서 중국과 북한의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긴 했지만 예전에 비해 크게 확대되거나 발전되지는 않았다.

1966년 시작된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중국의 대외문화교류 사업이 중대한 좌절을 맞게 되었다. 당시의 “좌파”들은 대외문화교류를 인민사상을 독해하는 위험한 통로라고 보고 정부내 대외문화를 관리하는 기구들은 취소하고 문화에서의 폐관자수(閉關自守) 정책을 실시하였다. 1968~1970년대 중국 문예공연단의 해외공연은 거의 단절되었고 중국과 북한과의 문화교류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시기 중·북 관계 역시 건국 이래 처음으로 냉각기를 맞게 되었다.⁶⁾

4)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공개한 자료.

5) “중국과는 아세아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영화의 배급권을 주는 문제가 결성되어 조선 영화가 동남아 세아 지역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게 되었다.” 『조선중앙연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9), 50쪽.

6) 1967년 2월 북경의 홍위병들은 대자보를 붙여 김일성을 “수정주의자”로 공개 비난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조선중앙통신은 1967년 3월 1일 쿠바 아바나에서 있던 기자 초대회에서 “그들이 우리당을 수정주의자로 비난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수정주의 입장에 서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레 말 북한측은 주중 대사를 소환했으며 1968년에는 중·조 변경 통로를 차단하기에 이르렀다. 陶常梅李曉

1970년대에 들어서 미·소 양국 간의 세계 패권 쟁탈에서 소련이 차츰 우위를 차지하고, 중국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자 중국은 종전의 반미 반소 기치하의 고립외교를 시정하고 미국과 연합하여 소련을 억제하는 새로운 외교전략을 펼쳐내는 한편, 1970년 주은래 총리의 조선방문을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섰고⁷⁾ 북한도 중·소 논쟁 기간 소련으로부터 얻어낸 자주적 지위를 토대로 중소 대립 속에서도 자주중립 외교를 펼쳐 중·북 관계는 드디어 회복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경색되었던 양국 간의 문화예술 교류도 재가동되었다. 1972년 한해에만 북한의 예술단들은 중국의 선양, 난징, 광쑤우, 무한 등지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2달 동안 순회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 말 중국·베트남 전쟁과 중·미 정상화 등으로 인해 중·조 양국관계가 다소 불편한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문화예술 교류는 종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문화예술 교류 대상국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구소련과 중국은 종전에 비해 문화예술 교류의 절대적 대상이 아니었다.⁸⁾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중국과의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해 줄만 한 매개체가 필요했으며 문화예술 교류는 유용한 도구였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순회공연은 1970년대 말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다. 실제로 1978년에는 북한의 국립교향악단이 7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베이징, 심양, 장사, 항주, 상해, 할빈, 대경 등지를 돌며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순회공연을 하였다. 또한 1979년에는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9월에 심양, 베이징, 광주, 남경, 천진, 단둥 등에서 수차례 공연을 진행하였다.

중국은 1980년대 초부터 북한의 친소관계를 견제하고 중국과의 정치적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북한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시도하였다. 중국은 1981년 조자양총리의 평양방문을 시작으로 양국 최고지도자들의 상호방문을 주축으로 한 정치, 경제적

光, “一条线 外交政策下的中朝关系,” (安徽教育学院学报, 2006. 9), 31쪽.

7) 위의 글.

8) 1970년대 북한은 구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 자체적 주체적 대외문화 교류를 정착시키고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해외 공연단이나 전시회, 전람회 등이 북한에 들어오는 정도에 비해 북한의 공연단, 전시회, 전람회를 비롯한 영화 상영 횟수가 많아지는 등의 변화는 북한의 대외문화교류 정책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좋은 예이다.…… 북한은 중국과의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노력과 함께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평양피바다가극단, 만수대 예술단, 조선인민군협주단, 평양학생소년예술단, 국립교향악단 등 북한의 대표적인 예술단들의 해외공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전영선·김지니, “북한의 대외문화교류 정책과 북·중 문화교류,” 『중소연구』, 32권 2호, 135~136쪽 참조.

결속과 이해 그리고 합의를 위한 공식적이고 다양한 영역의 교류로 진행되었다.

북한도 개선된 중국과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일환으로 중국과의 문화예술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1980년대 초반 하더라도 문화예술 교류를 하는 다른 국가들과 공연기간, 공연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1983년 후반을 기점으로 중국과의 문화예술 교류의 규모와 형식이 점차 확대되었다. 북한은 공연예술단이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각 나라별로 몇 주 동안 공연을 해 오던 전례에서 벗어나 대표적인 북한의 공연예술단을 중국에서만 한 달이 넘게 머물러 공연하도록 하였다. 1984년에 이어 1985년에도 북한의 대표적인 공연예술단인 ‘사회안전부협주단’이 10월 한달동안 중국에서 공연을 하였는데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사회안전부협주단’이 ‘중국무용’과 ‘중국노래’를 직접 공연하는 등⁹⁾ 중국과의 문화예술적 유대감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주체예술’의 개념을 정착시키고 대외로는 ‘사상예술성’이 높고 북한식의 독특한 예술적 기교를 자랑하는 예술작품들을 대대적인 홍보를 하던 시기라 북한이 중국의 예술작품을 직접 공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양국 간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충분히 체현해 주고 있다. 1989년 중·조 수교 40주년을 맞으면서 진행된 양국 간의 성대한 경축행사는 중·북 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알리는 징표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북한은 동구권의 변화와 구소련의 해체, 개혁개방으로 따른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의 변화, 3년간의 자연재해, 건국 이래 처음으로 되는 국상(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겹치면서 대내외적으로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극심한 경제적 위기로 대외문화교류에 대한 경제적지원이 어렵게 되었고 체제 유지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공연, 전시되는 문화예술 작품은 대부분이 ‘사회주의 찬양’, ‘김일성·김정일 업적 찬양’ 등의 정치적인 문제로 국한되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제한된 대외 문화교류는 중국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92년 8월 중·한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에 대한 정치적 배신감을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2년 정도 주춤한 조짐을 보였지만 중국과의 외교단절에 대한 부담감이 컸고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1995년을 기점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9) 1984년 6월 중국을 방문한 평양소년예술단은 중국에서의 순회공연에서 “공산당인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라는 노래를 불렀고 1985년 순회공연 때는 중국 노래 “파도치는 홍호의 물결”, 중국 무용 “봄비” 등 종목을 출연하였다.

1995년 북한의 평양 왕재산음악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공연하였으며 중국은 북한의 평양왕재산음악단의 공연을 신문, 방송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중·북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중국과 북한의 문화예술 교류는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된다.

오늘날 중·북 관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2005년 중국공산당 후진타오 총서기는 평양 방문시 조선노동당 김정일 총비서와의 회담에서 현 단계의 중·북 관계 기본방침을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향하며, 사이좋게 잘 지내며 협력을 강화한다(繼承传统, 面向未来, 睦邻友好, 加强合作)”라고 규정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건의를 제출한 바 있다. 첫째로, 고위층 간의 관계를 계속 밀접히 하여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둘째로, 상호 교류 영역을 확대하여 협력 내용을 풍부히 하며; 셋째로, 경제무역 협력을 추진하여 공동 발전을 도모하며; 넷째로, 서로 협력하여 공동 이익을 수호한다는 것이다.¹⁰⁾

여기에서 오늘날 중·북 관계의 재확립은 50년대 전략적 동맹관계의 단순한 연장이 라기보다 전통적 우정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정상적인 국가관계의 건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중·북 사회·문화적 교류와 협력 역시 이러한 방침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중·북 사회, 문화 교류의 분야별 실태

(1) 문화 및 교육 분야의 교류 현황

1959년 2월 21일 중국과 북한은 양국 문화협정을 체결한 이래 정기적으로 이루어 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간 문화교류 집행계획’에 따라 서로간의 문화교류를 진행해왔다.

양국 문화교류 주요 관리기구는 중국의 문화부와 북한의 문화성이며 주요 집행기구는 중국문화부 대외문화연락부와 북한의 대외문화연락위원회이다. 양국은 정기적으로 “중·조 양국 정부사이 문화교류에 관한 집행계획서”를 체결하고 계획에 따라 예술단체, 체육, 위생, 언론, 출판 등 분야의 교류를 진행한다.

10) “胡锦涛开始访朝, 同金正日会谈,” 『新华每日通讯』, 2005年 10月 29日.

(가) 문화예술단체들의 상호방문

예술단체의 상호 방문과 공연은 중국과 북한의 문화교류와 협력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중·북은 양국 간 문화협정이 체결된 후 문화예술단체들의 상호 방문과 공연을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여 왔다. 1985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중국 정부는 매년마다 평양에서 진행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대표단과 공연단을 파견하며 공연제목을 엄격하게 선정하므로 중국공연단의 공연은 언제나 북한관중들의 대환영을 받고 있다. 동방가무단, 상하이발레무용단, 상하이교향악단, 중국교향악단,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가무단 등이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여 공연을 했고 때번의 공연은 북한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가져다주었다. 북한도 현재까지 수십 차례 예술공연단을 파견하여 친선공연을 진행했고 중국에서 열리는 예술축전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조선의 만수대예술단, ‘꽃파는 처녀 예술단’, ‘피바다’ 가극단, 조선민족가무단, 국립교향악단, 평양학생소년예술단 등은 중국인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북한예술단의 중국공연도 매번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의 김정일위원장도 중국예술단의 공연을 수차례 관람하였고 중국예술단의 공연이 ‘독특하고 새로우며’, ‘예술기교가 높다’라고 평가하였고 중국의 강택민, 리봉 등 국가영도들도 수차례 북한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절찬을 아끼지 않았다.

북한교예단은 공연수준이 높고 특히 공중종목들의 난도가 큰 것으로 하여 세계 교예무대에서 여러 차례 큰 절찬을 받았으며 중국 관중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북한교예단은 중국에서 열리는 오교국제교예축전, 무한국제교예축전에 여러 번 참가하여 모두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그중, ‘공중 비인’ 종목은 여러 차례 금상을 받았다.

중국교예단도 매년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여 여러 차례 금상, 은상을 받았다. 2004년 무한교예단이 중국예술단과 함께 리장춘동지의 북한방문에 수행하였으며 김정일위원장을 위한 특별공연을 하였다. 이 교예단의 ‘죽방울돌리기’, ‘비단 줄타기’ 등 종목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¹¹⁾

(나) 전시회의 상호 개최

다년간 중·북 양국은 상호 간에 전시회를 빈번히 조직하였다. 중국이 북한에서 진

11) 『중·북 예술공연단 상호교류 약관』 (본문 196쪽) 참고.

행한 전시회로는 중국공예미술전시회, 중국유화전시회, 중국수예전시회, 중국수채화전시회, 중국중청년화가작품전시회, 모주석기념당장화전시회 등이 있다. 북한이 중국에서 진행한 예술작품전시회에는 조선공예품전시회, 김일성로작 및 혁명활동그림(사진)전시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5돐 그림(사진)전시회, 조선로동당 창건 40돐 사진 및 그림전시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진(도서) 및 수공예품전시회, 조선도서 및 사진전시회¹²⁾가 있다.

(다) 위생부문사이의 교류

중국 위생부와 북한 보건성은 “중·조 두 나라사이의 위생협조에 관한 집행계획서”를 정기적으로 조인하고 계획에 따라 위생치료분야의 교류와 호상 협조를 진행하며 격년에 한번씩 정부대표단을 서로 파견하여 방문사업을 진행한다.

2006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위생부장 고강이 중국위생부대표단을 인솔하고 조선을 방문하여 조선보건상 최창식과 “2006년~2008년 중·조 위생협조에 관한 집행계획서”에 조인하였으며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을 의례 방문하였다.

(라) 체육부문간의 교류

북한은 중국의 대외체육교류 국가 중 교류가 가장 빈번한 나라의 하나로서 중국국가체육총국과 북한체육지도위원회가 “중·조 두 나라 체육교류에 관한 집행계획서”를 정기적으로 체결하고 그 계획에 따라 양국간 매년 양국간 체육부문간 교류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2004년~2007년까지의 현황을 볼 때 2004년 12차, 2005년 22차, 2006년 37차 이루어졌는바 양국 체육부문간 교류가 날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최근 북한 도서출판협회는 중국선양 주재 북한 총영사관의 협조하에 거의 정기적으로 북한의 각종 기념행사에 맞춰 중국 요녕사회과학원에서 [조선도서 및 사진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일성노작]과 혁명사적을 위주로 각종 도서와 사진들이 전시되고 최근에는 북한의 소설과 시, 수필 등을 포함한 출판물들도 전시된다.

(마) 교육과 학술 부문간 교류

1959년 체결한 중·조 문화협정에는 교육부문에 대한 교류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협의에 따라 양국 간에 교육교류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양국 간에 교육 분야의 교류는 대체적으로 교육부문의 대표단 상호방문, 유학생 교환, 중국어교학과 관련된 교류, 자매결연을 통한 양국 대학간 교류,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교육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교육부문의 대표단 상호방문

중·북 수교 후 양국의 교육상들은 여러 차례 상대국을 방문했고 2007년까지 양국 교육부문 대표단 교류는 300여 차례에 달한다. 2002년 11월 중·조 양국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 2002~2010년 교육교류와 협력협약”을 체결하였다. 2005년 10월 북한교육상 김용진 을 단장으로 한 북한교육 부문대표단이 베이징에서 있는 제2차 “아시아교육포럼”에 참석했고 중국교육부 조우찌(周濟)가 대표단을 회견하고 중국교육부를 대표하여 컴퓨터 100대를 무상으로 증정하였다.

- 유학생 교환

양국의 교육관련 협의에 따라 양국은 매년 정부장학생 교류를 진행한다. 현재 북한은 매년 350명(대학재학생, 석사연구생, 박사원생, 연수생 포함)의 정부장학생을 중국으로 파견하고 있는데 이공과 전공이 주류로 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에 파견된 북한 장학생은 3,500명에 달한다. 북한에 유학가는 중국 유학생은 매년 70명좌우(정부 장학생과 자비유학생 포함. 정부 장학생은 매년 50명좌우)이며 거의가 언어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 재학생들이다. 현재까지 북한에서 유학한 유학생은 1,500여명에 달한다.

- 중국어교학 관련 교류

북한 교육성의 초청으로 매년 2명의 중국어 교원이 평양외국어대학의 객원교수로 1년간의 교학을 진행한다. 평양외국어대학 이외 김일성종합대학과 인민경제대학에도 중국어학부가 개설되어 있고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대학들에도 중국어를 선택과목로 개

설하였다. 평양외국어학교, 신의주외국어학교와 원산외국어학교 등 전문대에도 중국 어반을 만들었다. 현재 북한에서 중국어의 인기도는 영어 다음으로 되고 있다.

중국 국가유학기금위원회의 초청에 따라 북한은 2000년부터 매년 5~7명의 대학 중국어교원이 중국에서 6주간의 중국어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하여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교육조의 추천으로 매(연 2명의 북한 대학의 중국어과 학생들을 중국에 파견하여 ‘중국어교(汉语桥)’ 세계 대학생 중국어 시험에 참석하게 하였다. 2006년 처음으로 이 시험에 참가한 북한의 선수들은 49개 국가의 101명의 선수를 물리치고 1등, 2등의 좋은 성적을 따내었다.

- 양국 대학들과 연구기관들의 학술 교류

중국의 베이징대학, 연변대학, 남개대학 등 12개 대학이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식사범대학 등 7개과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중국사회과학원, 상하이 사회과학원, 요녕사회과학원, 길림사회과학원 등 중국의 연구기관들이 북한의 사회과학원, 사회과학자협회 등 연구기관들과 상호 대표단 파견, 학술회의 개최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교류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다만 북한과의 학술교류분야에서는 정치, 경제 등 민감한 부분들의 학술교류보다 과학기술, 언어학, 문학, 철학, 역사학 등 분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 북한에 대한 기술 및 시장경제 교육관련 협력

북한에 대한 기술 및 시장경제 교육관련 협력은 1990년대 후반기에 시작이 되었지만 2002년 북한의 “7.1 조치”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 현재는 2004~2006년 기간에 비해 규모와 범위가 많이 줄어든 상태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에서 북한에 대한 기술 및 시장경제 관련 교육은 보통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들의 후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2004년 6월과 2005년 9월 중국에서 진행된 북한 경제 관리자들을 위한 두 차례 국제회계 교육¹³⁾과 2005년 3월 북한경제 관리간부들

13) 두 차례 국제회계 교육의 내용으로는 새로운 국제회계법의 내용, 국제회계기준의 발전 추세, 사회회계와 재무회계, 관리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회계분석 발전 추세, 국제회계조직 활동 상황, 국제회계조직 가입 여건과 절차 등 일반 회계이론과 유가증권 회계 처리, 투자자산 회계 처리, 이윤과 손실금 회계 처리, 회계 전산처리, 은행과 보험사 회계 처리 등 기업회계 이론 및 중국 기업회계 제도, 중국 기업회계 제도와 일본과 한국 기업 회계제도의 차이점, 중국 세무회계, 중국 감사 방법,

을 상대로 한 시장경제교육이다.¹⁴⁾

(2) 관광, 친척방문 등 인적왕래

중국은 북한의 대외적인 인적교류에서 왕래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최근 몇 년의 불완전 통계를 보면 양국은 회의, 상업교류, 관광, 친지방문, 서비스 종사 등 분야를 중심으로 연간 15만 명에 달하는 인적교류를 갖고 있다. 2008년 1~9월의 중국 방문 북한인에 대한 통계를 사례로 보면 전체 7만 8,586명 중 서비스업 종사를 목적으로 한 방문자수가 36,685명으로 가장 많고 회의, 상무를 목적으로 한 방문자수가 1만 3,912명으로 버금으로 가며 관광을 목적으로 한 방문자수는 3,962명이며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한 방문자수는 겨우 608명으로 가장 적다.¹⁵⁾

Ⅲ. 중·북 사회·문화 교류가 북한 변화에 대한 영향

위에서 중국과 북한의 사회·문화적 교류의 실태와 시기별 전개 양상에 대해 살펴 보았다. 중·북 사회·문화교류는 양국관계를 새롭게 하거나 기존 우호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외교적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또한 양국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와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 시대에 와서 북한의 대외교류에서 절대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정치, 경제 협력에서 뿐 만 아니라 사회·문화 교류에서도 북한의 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중·북 사회, 문화 교류와 협력은 폐쇄된 북한 사회가 외계와 연계를 가지고 세계의 정보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서 북한 사회의 주민들로 하여금 자체의 경제수준에 앞서가는 사고를 가지게 할 수 있다.

둘째, 중·북 사회·문화적 교류는 북한 문화의 상업화 추진에 일정한 역할을 할

특수산업 회계처리 등이 포함된다.

14) 북한의 중앙 경제관리 부서의 책임자와 대학의 경제교수 및 연구자들을 상대로 진행된 금번 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계획, 재정, 은행, 노동, 물가, 농업경제, 사회보험 등 분야와 중국의 개혁개방의 경험·교훈 등이 포함된다.

15) 중국관광총회사 자료 참고.

수 있을 것이다. 중·북 문화교류에서 이미 일부 영역은 상업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예술을 사례로 볼 때 예전에 단순한 친선공연으로 이어지던 상호 교류가 상품화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공연단의 중국공연은 2000년 이후로부터 점차 상업공연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¹⁶⁾ 미술전시회나 공예품 전시회 같은 교류 협력도 상업거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문화예술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셋째, 중·북 사회적 교류는 북한의 시장화를 추진시키는 요소로도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사례로는 90년대 중반기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을 때부터 시작하여 조국방문을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화교와 중국 조선족은 북한 암시장의 중요한 물자공급 내원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재미이사를 방불케 하는 이러한 상거래는 비록 규모는 작아 보이지만 북한 암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컸다는 것이 화교들의 증언이다.

넷째, 중·북 교육부문의 협력에서 북한에 대한 시장교육 관련 협력은 북한의 체제 개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북한이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대외교류를 활발히 진행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들의 수요에 따라 중국현지를 고찰하고 중국의 시장경제체제 개혁 과정에서 얻어낸 경험과 교훈들을 학습하는 등 여러 방식의 교육협력을 진행한다. 북한의 변화를 위한 소유의 노력은 북한사람을 통해서야만 현실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인재양성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가지는 현실적인 의미는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다.

사회·문화적 교류는 정치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가져다주는 영향에 비해 그 효과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아직까지 북한정권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진행되는 중·북 사회, 문화적 교류 역시 자유롭게 진행이 될 수 없고, 이로 하여 북한 사회의 변화에 주는 영향력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북한의 사회부문에서 일어난 변화는 외부의 영향력보다도 북한 자체의 경제난이 가져온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극심한 경제난은 북한 경제의 완전한 계획체제를 붕괴시켰고 생존을 위해 개인들이 암시장과 가내수공업을 발전시켜 북한경제는 시장과 계획이 공존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주민들의 사회의식 및 가치관도 시장체

16) 『중·북 예술공연단 상호교류 약관』(본문 196쪽) 참고.

제에 적응하여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IV. 맺음말 - 북한 변화의 전망

현재까지 북한의 변화를 둘러싸고 수많은 토론과 쟁론들이 있었다. 북한 변화에 대한 해석과 변화수위에 대한 요구가 부동함에 따라 변화에 대한 평가도 부동하게 내려지고 있다. 경제난 해소를 위한 개혁 개방의 불가피성과 체제 유지의 딜레마 속에서 방황하는 북한 당국이 어떠한 국가발전전략을 선택할지는 현 상황에서는 확증이 어렵다. 다만 북한 사회의 변화와 최근 북·미 관계개선 등으로 북한이 마주했던 장애물들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는 현실차원에서 고려할 때 북한 경제개혁과 대외 개방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해볼 뿐이다.

1. 시장화의 역전 불가능에서 오는 경제개혁 선택의 가능성

1990년대 중반, 특히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 후 북한에서는 맹렬한 속도로 시장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전 인민의 상인계층화”라고 일컬어도 좋을 만큼 소수 상층 간부를 제외한 전체 주민과 중하층 간부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시장경제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 거래품목 역시 이미 식량과 소비재를 넘어 일부 생산재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 생산부문에서는 임금노동자를 고용해 소비품을 생산 판매하는 소규모 지하공장이 등장하였으며 계획경제 내부로 개인자본이 투자되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자본주의의 맹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불과 10여 년만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시장은 북한의 체제개혁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7.1 조치”가 성격적으로 주민차원에서 시작된 자생적 시장화 움직임이 정권차원의 승인으로 형성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화의 확산은 사회주의의 고유한 시스템을 침식하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북한정권으로서 그러한 시장화의 움직임을 어떠한 수단으로든 통제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시작된 시장화를 역전시킬 통로가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첫째,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중앙공급능력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시장을 폐지하고 계획적 유통체계를 복원하자면, 생산재와 소비재에 대한 국가의 공급능력

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내부산업이 거의 붕괴된 북한의 현실을 볼 때 국영유통망으로 흘러보낼 상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합법적인 시장을 통제하면 암시장의 확대란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이는 정부가 거두어들일 수 있는 세금의 공간은 축소되고, 이는 다시 정부의 재정위기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2003년부터 점차 시장을 합법화하고 그 거래대상을 확대시켜왔다. 시장의 억압은 암시장을 확대시키고 오히려 국가의 재정난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당국으로서는 시장의 합법화를 통해 제정원천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행동이었던 것이다.

둘째, 계획 영역 내부의 중하층 관료들과 계획밖에 존재하는 “시장지향적 네트워크”의 형성이다. 과거 북한내 간부들의 물질적 생활은 단순 위로부터 내려오는 통상적 임금과 지위에 따른 각종 특혜에 달려 있었지만 현재는 시장 영역으로부터 새로운 물질적 보상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이들은 개혁의 지속과 시장의 확대에 강력한 기득권을 갖고 있어 북한 당국의 개혁 역전 불가능성을 창출해 내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의 확산을 통제하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정책은 중하층 관료들을 통해 수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의 충성심이 이제 당국가체제 내부로만이 아니라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시장세력들 역시 중하층 관료들의 충성심을 물질적인 보상으로 점점 자신에게로 유도하면서 계획 영역에까지 시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북한의 경제체제는 개혁을 역전시킬 수 있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¹⁷⁾

2. 북·미 관계개선에 따라서 형성 될 개혁개방의 불가피성

북한의 현재까지 북한이 경제난을 겪게 되는 주되는 이유가 북·미 관계의 악화에서 왔다고 대내적으로 선전해왔다. 현재 북한 비핵화 과정이 일정한 단계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고 북·미 관계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기타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북핵문제 해결과 더불어 북·미, 북·일 등 대외관계가 정상화 된다면 북한 당국은 더는 경제난의 이유를 외부환경에만 떠맡기는 사회통제의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이 현재의 경제난에서 벗어나고 지속적인 발전을 얻으려면 북핵 해결로 인해 얻는 보상차원에서의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외국투자를 대대

17)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서울: 삼성경제 연구소, 2008), 242~246쪽 참조.

적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과거처럼 개혁개방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땀질식 처방에만 집착한다면 북한은 역시 경제난을 타개하지 못할 것이다. 즉, 북한의 대외 환경이 개선되었을 때 북한 당국이 원하던 원치 않던 개혁·개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록 1]

중·북 예술공연단 상호교류 약관

연도	예술단체	주요 지역·행사
1949.9~1950.6	-	중국(2개월간 순회공연)
1951	중국인민문공단	조선 각지 순회공연, 조선군민과 중국인민지원군 위문
1953	조선철도예술단	중국 공연(2월)
1954	조선예술단	중국 공연(3월)
1957	평양청년예술단	중국
1958	-	중국 공연
1960	조선인민군협주단	중국공연(10~12월)
	중국인민해방군문예사업단	평양 공연(10~12월)
1961	상하이월극단	조선 방문 및 공연(9~10월)
1962	조선국립민족예술극단	중국 고전작품 [홍루몽]을 가극으로 제작하여 12월 27일 평양 대극장에서 공연
1962	중국베이징인민예술극단	수도극장에서 조선 화극 [홍색 선전원]을 공연(12월)
1963	조선국립예술극단	중국 화극 [가로등아래 초병] 공연
1963	중국중앙가무극단	조선의 무도극[붉은기]를 중국무대에 등장(11월)
1971	조선평양민족가극단	대형가극[피바다]공연(1971.8)
1972	중국상하이무도극단	평양공연(5월)
1973	중국선양교예단	평양 공연(6월)
	조선문화대표단	중국 공연(9월)
1975	조선평양교예단	중국 공연(8월)
	중국예술단	조선 공연(8월)
1977	조선인민군협주단	중국(순회공연) -혁명가극[당의 참된 딸]
1979	국립교향악단	중국(7.27~9.5)
1980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중국(9월)
1981	중국 감숙가무단	평양 공연 -민족무도극[丝路花雨]
1983	조선만수대예술단	중국공연
1984	중국요녕가무단	평양공연 -무도극[진주호수]
1984	평양만수대예술단	중국(11.1~12.3)

1985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중국(1984.6) -합창, 무용, 중국무용
	사회안전부협주단	중국(1984.10) -합창, 무용, 중국무용
1985~현재까지	중국예술단	조선[4월의 봄]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여 공연
1986	조선인민군협주단	중국(1985.4.30~6.5)
	철도예술단	중국(1985.5)
1987	평양북도예술단	중국 요녕성(7.28~8.22)
1988	국립평양교예단	중국(11.4~25)
	평안남도예술단	중국 사천성(9.28~10.18) 친선방문
1995	왕재산경음악단	중국 공연(8월)
1998	피바다가극단	중국 청도, 상해(5월) -[봉선화]전설무용극
	평양모란봉교예단	중국(11월) -제6차 중국 오교국제교예축전
1999	만수대예술단	중국(11.21~12.25) -혁명가극[꽃파는 처녀]
	국립민족예술단	연길, 훈춘, 목단강, 하얼빈, 장춘, 길림(8.13~30) 베이징(10.15~26]
2000	피바다가극단	중국(6.8~9.7)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중국(9.18~27)
	평양교예단, 평양교예단 소편대	중국(10~11월) -제7차 중국오교국제교예축전
2001	평양모란봉교예단 소편대	중국(10.28~11.3) -제4차 무한국제교예축전
2002	국립민족예술단	중국(5월) -제5차 '베이징에서 만남' 국제예술축전, 민속무용조곡[평양성 사람들]
	피바다가극단	중국(12월) -노래, 무용, 중국노래
	평양교예단 소편대	중국(10.27~11.4) -제8차 중국오교국제교예축전
2003	국립교향악단	중국(5월)
	학생소년예술단	중국(9.1~7) -합창, 무용 종목

	만수대예술단	중국(9.10~10.27)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평양예술단	베이징, 내몽골자치주 등 -음악무용종합공연
	평양교예단	중국(11월) -무한국제교예축전
2004	조선양강도예술단	중국 상업공연(8~9월)
	조선평양예술단	중국에서 개최된 제6차 아시아예술축전 참가(8.17~9.1)
	조선국립민족예술단	중국 상업공연(9.11~12월)
	만수단예술단	중국(10월, 11월) -제5차 상하이국제예술축전
	평양모란봉교예단	중국(9월) 중국(11.1~9) -제9차 오교국제교예축전
2005	조선평양교예단	중국 상업공연(4~6월)
	조선함경북도예술단	중국 상업공연(4.17~7.16)
	조선평양소년예술단	중국 상업공연(8~9월)
2007	조선평양교예단	제11차 오교국제교예예술절 참가
2008	피바다 가극단	중국 순회공연(4~5월) -[꽃파는 처녀] 공연

* [조선중앙연감]과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자료 정리

참 고 문 헌

- 金哲·禹颖子 等. 『朝鲜投资指南』. 大连出版社, 2005.
- 林今淑. 『朝鲜经济』. 吉林人民出版社, 2000.
- 李南周. “朝鲜的变化与中朝关系.” 『现代国际关系』, 2005.
- 陶常梅·李晓光. “一条线”外交政策下的中朝关系.” 『安徽教育学院学报』, 2006.
- 陈龙山. “中朝经济合作对朝鲜经济的影响.” 『东北亚论坛』, 2007.
- 이춘호. “중·조 관계의 변화와 그 전망.” 『중소연구』, 2007.
-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북한의 경제계획과 체제변화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8.
- 전영선·김지니. “북한의 대외문화교류정책과 북·중 문화교류.” 『중소연구』, 2008.

中国同朝鲜的政治合作现况 与朝鲜的变化展望

张英 (中国吉林省社会科学院, 朝鲜韩国研究所, 教授)

二次世界大战后, 朝鲜半岛被人为地分裂成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朝鲜)与大韩民国(韩国)两个国家^①。由于历史上政治上等方面的原因, 总的看中国同朝鲜之间一直保持着紧密的政治关系^②。但随着两国不同时期对内对外政策的变化^③, 两国之间的政治关系也在不断地发生着变化, 有时出现不太协调·甚至冷淡的状态^④。伴随国际形势的发展和中朝两国对内对外政策的变化, 今后中朝两国的政治关系肯定也会有新的变化, 这种变化对于朝鲜未来的发展必将会产生深远的影响^⑤。

一. 中朝进行密切的政治合作时期

回顾半个多世纪以来的中朝关系, 维持紧密的政治合作是其主流^⑥。中华人民共和国建立后, 立即同朝鲜建立了正式外交关系^⑦。1950年6月25日朝鲜战争爆发, 由于美国指挥的联合国军的参战, 朝鲜人民军一溃千里^⑧。在朝鲜处于生死存亡之时, 应金日成的请求, 中国人民志愿军赴朝参战^⑨。几十万中华儿女献出了自己的青春和生命, 为中朝两国之间留下了“鲜血凝成”的友谊^⑩。直到20世纪60年代中国处于3年严重自然灾害时期, 中国人民还不得不忍饥挨饿地拿出宝贵的物资去清偿朝鲜战争期间因使用苏联军火而欠下苏联的几十亿美元债务^⑪。朝鲜战争后, 中国对于朝鲜的恢复建设又尽可能地给予人力·物力·财力支援, 同时在包括和平解决朝鲜问题的日内瓦会议等一系列国际会议上, 中国均采取了支持朝鲜的政治立场^⑫。整个看来, 自中华人民共和国建立到20世纪50年代末, 中朝两国之间一直维持着热烈友好的政治合作关系^⑬。

在20世纪50年代末和60年代初,中国遭受了连续3年的严重自然灾害,国际上又掀起了反华浪潮,使中国处于十分困难的境地。尽管如此,中国仍然在1960年和1961年,先后同朝鲜政府缔结了〈关于中华人民共和国贷款给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的协定〉等,从资金·物资上大力支援了朝鲜的经济建设。特别是1961年7月11日,中朝两国政府签订了〈中朝友好互助合作条约〉。条约中规定:“缔约双方保证共同采取一切措施,防止任何国家对缔约双方的任何一方的侵略。一旦缔约一方受到任何一个国家或几个国家联合的武装进攻,因而处于战争状态时,缔约另一方应立即尽其全力给予军事及其他援助。”“缔约双方将继续对两国共同利益有关的一切重大国际问题进行协商。”毫无疑问,此时中朝两国不仅是政治盟友,而且成为名副其实的军事盟国。

20世纪50年代后期到60年代中期,中国共产党同苏联共产党以及欧洲的一些共产党之间,就马列主义的一系列原则问题产生重大分歧并进行了公开的论战。在这种情况下,中朝两国不仅在社会主义建设问题上,而且在国际政治·国际共产主义运动中的许多重大问题上,都保持着相同或相近的观点。因此,双方在政治上保持着相当融洽的合作关系。

20世纪60年代中期,中国“文化大革命”开始,出现了全国性的动乱,使中朝关系·特别是政治合作关系受到影响,进入冷淡时期。尽管如此,双方的经济·科技等方面的合作关系仍然没有间断。1970年4月周恩来总理正式访问朝鲜,向金日成主席就中国“文化大革命”中出现的问题作了解释和说明,消除了“文化大革命”以来两国之间产生的隔阂与误解。自那以后,中朝两国频频派出政治·经济·军事·文化等各方面的代表团进行互访,使两国在政治·经济·军事·文化等各方面的合作有了进一步的加强。

毛泽东主席逝世后,中国人民粉碎了江青反党集团,从而宣告了“文化大革命”的结束,中朝关系也从1976年开始进入一个新阶段。自1978年以后,中国党和国家主要领导人华国锋·邓小平·胡耀邦·赵紫阳等先后访问了朝鲜;朝鲜党和国家主要领导人金日成等也先后访问了中国。中朝两国领导人互相访问,就共同关心的问题交换意见,对于加强和发展双方的政治合作关系是十分有益的,并且取得了良好效果。

二. 充满分歧的政治合作时期

自1978年10月中共中央召开第11届3中全会以后,中国实行了对内改革对外开放的方针,适时地调整了对内对外政策。特别是在对外政策方面,中国在与美国·日本等

西方资本主义国家改善关系·加强经济贸易等方面合作的同时，还调整了对韩国的政策，积极发展同韩国的关系。在对外援助方面，采取根据中国国力的情况实事求是地向友好国家提供援助的政策，对包括朝鲜在内的一些国家的援助有所减少（对朝鲜的援助仍占中国对外援助总额的 1/3）。对于中国这些符合中国国情和国际惯例的一系列变化，朝鲜方面是不够理解的，从而影响了中朝两国的政治合作关系。从 20 世纪 70 年代中期到 90 年代初这一段时间里，尽管中朝关系总的看来还是比较热的，但在对内对外政策方面，特别是从 20 世纪 70 年代末以后，已经出现了相当大的分歧。

进入 20 世纪 80 年代以后，围绕 1986 年汉城第 10 届亚运会和 1988 年汉城第 24 届奥运会的举办问题，朝鲜方面出现了一些不利于中朝关系发展的举动。1986 年 1 月 22 日，《劳动新闻》发表了题为《奥林匹克历史上的又一个阴影》的文章，咄咄逼人地说：“以和平与友谊为宗旨的亚运会和奥运会为什么要在南朝鲜这样的战争火药库举行？不是丧失理智的人，怎么能去那种地方？”公开攻击中国等表态要参加汉城亚运会和奥运会的国家。

伴随冷战时期的结束，苏联解体·东欧社会主义国家全面倒向西方，世界形势发生了剧烈变化，国际共产主义运动也出现了天翻地覆的变化。在这种形势下，迎来了 1992 年 4 月 15 日金日成主席的 80 岁诞辰。中国国家主席杨尚昆率领的中国党政代表团和其他 50 多个国家的 70 多个共产党和工人党代表团到平壤为金日成祝寿，朝鲜借此机会要求中国牵头发表一项《维护和发展社会主义事业宣言》，被中国党政代表团拒绝了。于是，由朝鲜牵头发表了这个后来被称为“平壤宣言”的《宣言》。由于中国未在该《宣言》上签字，中朝之间的分歧公开化了。

1992 年 8 月 24 日，中国同韩国正式建立了外交关系。对此大为恼火的朝鲜出于报复心理，采取了一系列不友好的行动。诸如，关闭中朝边境口岸·打碎中国驻朝鲜使馆宣传橱窗，甚至发生朝鲜炮艇向中国渔船开炮事件等。另外，朝鲜不经事前协商，公然要求中国撤走“朝鲜停战委员会”里的中方代表团。而且还抛开中国，单方面地同美国协商建立“新保障和平体制”问题。与此同时，朝鲜中断了保持多年的双方高层领导人频繁互访的传统。不仅如此，朝鲜还欲打“台湾牌”，通过同台湾发展关系来牵制中国。

1994 年 7 月 8 日，金日成主席突然去世。包括邓小平在内的中国党和国家领导人立即致电朝鲜党和政府，对于金日成的不幸去世表示深切哀悼，同时表示希望维护和加强同朝鲜的友好关系。但从那以后，朝鲜一方面表示愿意同中国发展友好关系，一方

面却又含沙射影地公开地攻击中国^①。1994年11月4日，朝鲜《劳动新闻》发表署名为金正日的题为《社会主义是科学》的文章^②。在这篇文章里，金正日指责“社会主义的叛徒，”“开展改革闹剧，”“对资本主义抱有幻想，叫嚷物质至上，经济万能^③。”在大肆吹捧所谓主体思想的同时，指责“社会主义的叛徒引进资产阶级自由化和资本主义市场经济，复辟资本主义^④。”在竭力美化朝鲜所谓的仁德政治的同时，指责“社会主义的叛徒为了复辟资本主义，把失业和贫穷当作进行竞争和提高劳动强度的压迫手段，放弃了社会主义对人民的所有政策，不相信本国人民的力量，对西方资本主义国家的‘援助’，‘合作’抱幻想，屈服于帝国主义者”，等等^⑤。联系到当时中国所实行的改革开放政策，这篇文章攻击的目标也就一清二楚了，这种态度和做法显然无助于中国和朝鲜之间的政治合作^⑥。

近十多年来，中朝两国在政治方面·也是安保方面的重大合作是中国与朝鲜携手解决朝鲜核问题^⑦。

在20世纪90年代初发生朝美第一次核对抗时，中国积极缓和朝美敌对气氛，努力促成朝美柏林会谈并达成框架协议^⑧。中国主张用对话方式，而不是用制裁方式解决朝鲜核问题的立场，得到国际社会的广泛理解与赞同^⑨。当然，关于核开发问题的立场和政策是朝鲜完全自主地作出决定的，中国从未干涉过朝鲜的内政^⑩。但当美国等西方世界纷纷表示要对朝鲜采取经济甚至军事制裁措施时，中国挺身而出，做了大量调解工作，缓和了局势，维护了朝鲜的最大利益^⑪。对此，中国方面认为是自己应尽的国际义务，并未因此而炫耀什么^⑫。然而，1994年12月1日，朝鲜《劳动新闻》发表了一篇署名文章，题目是《我们将自主地解决一切问题》，主要谈的是朝鲜同美国达成的关于朝鲜核问题框架协议^⑬。文章中反复强调“朝美框架协议的签订完全是我们共和国自主的对外政策的成果^⑭。……有谁对我们指手划脚是绝对行不通的^⑮。”“我们并不是由于某某的‘同情’或者‘劝告’，而是站在自主的立场上独自与美国进行并完成了会谈^⑯。……我们并非由于某某施加了‘影响力’，才签订了朝美框架协议^⑰。”朝鲜口口声声大谈“自主”，否认包括中国在内的一些友好国家在朝美第一次核对抗时为解决朝鲜核问题所作出的各种努力，这显然不是实事求是的态度^⑱。

在2002年10月爆发朝美第二次核对抗之后，为了维护朝鲜半岛及东北亚地区的安全·稳定，坚持朝鲜半岛无核化的中国积极努力促成和推动了有美国·日本·俄罗斯·中国4个大国及朝鲜半岛的主人——朝鲜和韩国参加的“六方会谈”的多次举行^⑲。对于出现

这种和平·有效地解决朝鲜核问题的模式——“六方会谈”，美国·韩国等世界各国都认为是作为“六方会谈”主席国的中国发挥了不可取代的良好作用，给予高度评价，这是铁的事实。倘若没有中国及有关国家的努力，朝鲜的核问题的解决能否取得今天这样的进展，国际社会自有公断。而在举行各次“六方会谈”过程中，都是充满了矛盾和斗争的，尽管中国一再为推动“六方会谈”作出各种努力，但朝鲜总是不肯积极配合，甚至步步设卡。

三、中朝两国政治合作产生矛盾的原因

中朝两国之间的政治合作一直在进行着，但是随着时间的推移，这种合作时常出现忽而紧密忽而疏远·忽而融洽忽而不协调的状态。为什么会出现这种情况呢？这是由于两国内外政策的变化导致的。

1. 对内政策的变化

这里所说的对内政策的变化主要是指国家经济建设路线上的变化。众所周知，在20世纪五六十年代，同是走苏联式社会主义道路的中朝两国在国内经济建设路线上几乎是一模一样的。党的绝对领导·清一色的计划经济·优先发展重工业·中国的工业学大庆（朝鲜的大安工作体系）·中国的农业学大寨（朝鲜的青山里精神）·中国的人民公社（朝鲜的合作农场）……几乎是同出一辙，惟妙惟肖。甚至两个国家包括领导人在内的人们的思维方式·观察视角都大同小异，当然，两个国家经济建设中遇到的问题·社会的贫困和落后也都相差无几。在那个年代，中朝两国之间在对内政策上没有什么大的分歧。然而，20世纪70年代末中国开始实行改革开放政策，逐渐地放弃了实行多年的单纯的计划经济路线，改而实行计划经济与市场经济相结合的有“中国特色的社会主义路线”。在工业上，中国实行承包制·股份制，个体经济不但与国有经济并存而且占有相当大比重。在农业上，实行家庭联产承包制，并允许农民离开农村到城市里打工。在商业上，允许个体经营。而且实行对外开放政策，允许和鼓励包括西方资本主义国家在内的一切外国资本进入中国市场投资·建厂·生产，等等。这一切纯属中国的内政问题，但朝鲜一直不能予以理解，甚至抱有极大反感，中朝之间出现分歧·矛盾是不可避免的。

2. 对外政策的变化

自 20 世纪 70 年代以来,特别是冷战结束后,整个世界战略格局发生了根本变化,原来的东(社会主义阵营)西(资本主义阵营)两大对立体制不复存在。东北亚地区的国家关系也发生了根本性的变化,原来敌对的南(美·日·韩)北(苏·中·朝)两个军事同盟体系解体或某些国家之间已经化敌为友。伴随中国实行的改革开放政策,中国同原来的敌对国家美国·日本·韩国建立起十分紧密的经济贸易关系,彼此成为最重要的经济合作伙伴和贸易对象国。不仅如此,在诸如和平解决朝鲜核问题的“六方会谈”等国际场合,中国由于同美国·日本·韩国持有相同或相似的立场,还能进行比较密切的协商与合作。而始终不肯放弃对于美国·日本·韩国敌对立场的朝鲜对中国的变化却接受不了,时常采取与中国对立的立场,从而不可能不影响中朝之间的政治合作。

3. 在朝鲜半岛无核化方面立场相悖

长时间以来,中国一直坚持朝鲜半岛无核化的立场。这不仅有利于维护朝鲜半岛及东北亚地区的安全·稳定,也有利于朝鲜自身经济的发展和国家的安全。而朝鲜却不顾自身的实际,一直醉心于开发核武器,并把核开发事业作为立国之本。本来由中国一手促成的“六方会谈”目标是促使朝鲜放弃核计划和销毁核武器,使其可以得到能源等方面的丰厚回报,快速恢复经济,改善人民生活。但朝鲜从一开始就对中国和在北京举行的“六方会谈”充满敌意,公开宣称“六方会谈”就是要“解除朝鲜的武装”、“对朝鲜有百害而无一利”。¹⁾正是基于这种认识,朝鲜不顾包括中国在内的国际社会一致而强烈的劝阻与反对,悍然于 2006 年 10 月 9 日进行了第一次地下核试验。朝鲜此举立即遭到了全世界的齐声谴责和声讨,也遭到中国的坚决反对。中国外交部发表严正声明称:“中国政府对此(朝鲜的核试验)表示坚决反对。”中国政府公开发表声明反对朝鲜的一项重大举动还是中朝建交半个多世纪以来的第一次,说明中朝之间政治分歧的严重性。在这种形势下,中国在联合国对制裁朝鲜的决议也只能投赞成票了。对此,朝鲜不但不反思其核试验对中国以及世界和平造成的巨大危害,反而指责中国在联合国对制裁朝鲜的决议投赞成票是对朝鲜的“背叛”,并私下散布“中国不堪信任”等言论。这

1) “朝鲜外务省发言人 2003 年 8 月 30 日的谈话,”『(韩国)联合新闻网』, 2003 年 8 月 30 日。

说明，在朝核问题上，在“六方会谈”中，中朝之间的立场是多么的不同，这是中朝两国难以实现紧密合作的根本原因¹⁾

4. 对于中朝关系的实用主义态度

多年来，中朝关系的特点是中国给予朝鲜大量的全面的力所能及的一切援助，甚至为了朝鲜作出了最大的民族牺牲(例如抗美援朝战争)，朝鲜认为这都是应该的·合理的·受之无愧的²⁾。倘若中国需要朝鲜的帮助和支援，则比登天还难，朝鲜或者向中国提出难以接受的条件，或者干脆拒绝³⁾。特别是在金日成主席去世之后，朝鲜对中国完全采取了实用主义态度⁴⁾。中国成了朝鲜手中一张呼之即来·挥之即去的可随心所欲使用的王牌，既可作御敌的盾牌用，又可作后勤基地用，还可作随时可取的金库用⁵⁾。总之，想怎么用就怎么用，想什么时候用就什么时候用⁶⁾。甚至朝鲜屡屡向中国的根本利益挑战，放肆地损害中国的利益⁷⁾。这就是多年来中朝关系的真实写照⁸⁾。在朝鲜核问题上，朝鲜一再同中国分庭抗礼，直至2006年10月进行了核试验，遭到包括中国在内的整个国际社会的谴责和反对⁹⁾。2007年3月上旬，前往美国参加朝美关系正常化工作组会议的朝鲜“六方会谈”代表团团长·外务省副相金桂冠公开对美国的朝鲜问题专家发表谈话称：“中国只想利用朝鲜”¹⁰⁾。“中国对于朝鲜没有太大的影响力”¹¹⁾。美国不要为了解决朝鲜核问题而过分对中国寄予期待¹²⁾。“过去6年里，美国一直依赖中国解决朝鲜核问题，但得到了什么结果？朝鲜发射了导弹，也进行了核试验，朝鲜想要做的事情都做了，但中国一件事也没能解决。”¹³⁾金桂冠在朝鲜“第1号敌人”美国面前如此诋毁其“第1号盟友”中国，决不是一时口无遮拦，而是精心安排的¹⁴⁾。说明朝鲜用不惜攻击中国来取悦于美国，同时也说明朝鲜根本不把中国放在眼里¹⁵⁾。在需要达到自己的目的时，一点也不怕刺激中国；在为了达到自己的目的而需要出卖中国利益时，朝鲜是从来不曾有过半点犹豫的¹⁶⁾。朝鲜为什么敢于公开倒打一耙，恩将仇报呢？根本原因在于多年来的中朝关系发展现实使朝鲜认为：朝鲜无论如何刺激中国，中国对于朝鲜也没有什么办法¹⁷⁾。用金正日的话说：“中国领导人既讨厌我又怕我，却不敢把我怎么样”¹⁸⁾。这就是朝鲜有恃无恐的根本所在，朝鲜如此对待中国，怎么可能不妨碍中朝之间的政治合作呢！

2) 『(韩国)朝鲜日报』(中文网)，2007年3月9日。

3) 曹丽琴译，『黄长烨回忆录：〈我看到了历史的真理〉』，中译本，(中国东北边疆研究译丛，2005.10)，216页。

四. 朝鲜的变化趋势展望

今天的朝鲜会向哪个方向发展，其对内对外政策会发生怎样的变化，这是人们极为关心的。对此，笔者展望如下。

1. 不会放弃“先军政治”路线

具有金正日时代突出特色的·把军队放在一切事业前头的“先军政治”路线是金正日1995年提出来的，金正日一直把它看成重中之重，并公开宣称：“军队就是党·就是国家·就是人民。”“军事是国是中的第一国是，国防工业是建设富强国家生命线。离开军事和国防工业就不能建设经济强国，就无法保障国家和人民的安宁。”⁴⁾因此，朝鲜总是利用一切机会强调“先军政治”。2003年，朝鲜〈劳动新闻〉·〈朝鲜人民军〉·〈青年前卫〉三报联合发表的题为〈在伟大的先军政治旗帜下，增强共和国的尊严和威力〉的元旦社论中，强调2003年是“高举先军政治旗帜，向强盛大国高峰迈进的勇敢进军之年·波澜壮阔地进行变革之年”。2005年“三报联合元旦社论”的标题是〈全党全军全国人民团结一心，进一步弘扬先军政治的威力〉，在社论中先后41次提到“先军政治”，可见“先军政治”在当前朝鲜政治生活中的重要地位。2006年“三报联合元旦社论”更加明确指出：“以先军的威力，实现建设社会主义强盛大国中的新飞跃。”“在先军革命的大进军中再一次快马加鞭，在政治·军事·经济·文化等一切方面全面突出朝鲜式社会主义的优越性。”从中可知，“先军政治”已经成为朝鲜的一面永远高举的旗帜，推动国家·社会前进的动力，今后也不会放下“先军政治”的旗帜。

值得注意的是，近几年来朝鲜对于“先军政治”的宣传不断升温。众所周知，无论在朝鲜宪法中还是在劳动党章程中，都明示着主体思想是左右朝鲜一切的指导思想。但自2003年“三报联合元旦社论”中正式使用了“先军思想”这一用语之后，朝鲜媒体异口同声地宣扬“先军思想”是“党和国家活动·革命的指导方针·指导思想”，并称金正日时代是“先军时代”，把“先军政治”宣传成可以战胜一切强敌·克服所有困难的法宝，〈劳动新闻〉还发表评论称“先军思想是主体思想新的更高的阶段”。总之，在今天的朝鲜，金日成的主

4) 金正日，『金正日选集 14』(平壤：朝鲜劳动党出版社，2000)，457页。

体思想在逐渐淡化，金正日的“先军政治”在日益加强。

2. 难以走真正意义上的改革开放道路

尽管朝鲜讳言改革开放，金正日甚至说过“改革开放是亡国之路”。但迫于经济方面的压力，自20世纪90年代以来，朝鲜还是在逐步地进行着改革开放的。在对外开放方面，朝鲜先后建立了罗津·先锋自由经济贸易区·金刚山旅游开发区·开城工业园区等（新义州经济特区中辍）。

在对内经济改革方面，朝鲜也在一直摸索着。诸如，在工厂企业中实行物质鼓励政策，划小合作农场的生产·分配单位等。其中最具代表性的是2002年7月1日公布的《经济管理改善措施》，即实行流通领域中的改革。它取消了供给制，使国家卸下了沉重的财政包袱，抑制了黑市经济，活跃了国家商业，打破了平均主义，提高了劳动者的生产积极性，有利于经济的发展。但实施改革几年来的事实说明，这场改革所带来的副作用也是不容低估的。诸如，出现恶性通货膨胀，造成贫富两极分化严重，民众滋生物质崇拜思想，官员腐败盛行，等等。在这种形势下，朝鲜不得不将放开的措施重新收回，并恢复了配给制度。不仅如此，朝鲜还用高压手段对待缓解市场控制所带来的严重后果。从2006年底开始，着手实行以边境地区为重点的大张旗鼓的“非社会主义检查”行动，对于被“检查”出问题的人，或罚款，或免职，或坐牢，有的还被枪毙。这实际上是对改革开放的一种遏制·一种刹车。这一系列做法又一次地告诉人们：朝鲜难以走改革开放之路。其根本原因在于，朝鲜深怕改革开放在国内形成“资本主义市场体制”，从而动摇封闭的朝鲜经济根基，威胁到“朝鲜式社会主义”的存在基础。

3. 不可能彻底弃核

自朝鲜核问题出现以来，国际社会一致要求朝鲜立即中止其核开发计划·销毁已有的核武器，实现朝鲜半岛无核化。为此，举行了包括“六方会谈”在内的多种形式·不同层次的解决朝鲜核问题的各种会谈。尽管在国际社会的一致努力下，“六方会谈”通过而且朝鲜也接受了“2·13共同文件”，即朝鲜承诺放弃核开发计划和销毁核武器，其他与会各方保证朝鲜的国家安全·尊重朝鲜和平利用核能的权利·向朝鲜提供能源援助。但“2·13共同文件”落实起来却一波三折，迄今朝鲜也没有在规定期限内全部履行约定，反

而提出种种理由，与国际社会叫板。众所周知，朝鲜向来是以不按国际游戏规则行事著称的，让朝鲜彻底放弃核开发计划和销毁已经制造的核武器，几乎是不可能的。其根本原因在于，朝鲜是出于政治·经济上的需要，把核开发计划当作维护朝鲜现体制稳定·进而实现半岛统一的一项国策·立国之本。朝鲜把发展核武器当作其“先军政治”的核心，在朝鲜不放弃“先军政治”路线的情况下，让其彻底放弃核开发计划及已经制造出来的核武器是绝对不可想象的。

4. “后金正日时代”权力结构预测

金正日现年 66 岁，已经进入人生的暮年，且多种疾病缠身。朝鲜已开始步入“后金正日时代”。此时人们最关心的是未来朝鲜的掌权者将是谁？新的掌权者会推行怎样的对内对外政策？从朝鲜目前的情况看，未来的朝鲜掌权者也许是某个人，也许是某个集团，更大的可能性是某个人与某个集团结合。得出这一结论的依据是：

第一，最高掌权者很难将权力交给外姓之人。朝鲜最高掌权者金正日考虑接班人时自然会着眼于几个儿子，很难想象他会考虑交班给别人。

第二，军队不过是维持政权的工具。尽管目前朝鲜大力鼓吹“先军政治”，国防委员会成为朝鲜的权力核心，而且国防委员会的成员个个炙手可热，但成为新的掌权者或者形成军队集团领导体制的可能性却几乎没有可能。这是因为，“先军政治”也好，国防委员会也好，都不过是党和领袖维持政权的统治手段·工具而已。军队不能离开党生存，党不受军队监督，而军队却要接受党的彻底监视，军队动员武力控制劳动党是完全无法想象的事情。这样看来，军方人士接班或抢班夺权的可能性不大。据前朝鲜劳动党中央书记黄长烨最近讲：“朝鲜军队只知道战斗战略，不知道政治。”“政治水平低的国家有军队掌权的可能性，而在朝鲜很难找到具备相应能力的军人。”⁵⁾ 因此他认为，“后金正日时代”的朝鲜“很有可能被党掌控，而不是军队。”因此可以得出结论：在当今朝鲜的最佳接班方式应该是：由劳动党中央某个实权人物支持一个王子(金正日之子)接班，并得到军队的支持。这是因为：

第一，党内官僚支持某个王子接班最易得到金正日的首肯，而在当前，金正日的意见

5) “黄长烨：在首尔某处与大学生举行的恳谈会上的发言。”『(韩国) 每日NK网』，2008年 9月 17日。

仍然是压倒一切的°

第二，党内官僚支持某个王子接班最能得到军队的支持，而军队态度对于接班体制的成败是举足轻重的°

第三，党内官僚支持某个王子接班最能获得人民的拥护，而人民的立场对于接班体制的存在下去是关键性的°

5. 朝鲜离不开中国的合作

金正日曾在一次朝鲜驻外使馆长会议上说：“全世界都是我们的敌人，所以，我们要靠自己的力量解决困难的问题。”6) 既然全世界都变成了朝鲜的敌人，中国当然不能例外° 那么，中朝之间还会有政治上的合作吗？肯定地说，中朝之间的政治等各方面的合作还会继续下去° 朝鲜离不开中国，它也不想离开中国°

第一，经济上离不开中国

当前，朝鲜经济中的问题堆积如山，而且这些问题是属于结构性的，朝鲜自己是无力回天的° 尽管从 20 世纪 90 年代中期开始，朝鲜就向包括西方资本主义发达国家在内的国际社会要求援助，但能慷慨地向其伸出援助之手的国家并不多，有的国家即使肯于提供援助，也大多附有这种那种条件° 朝鲜明白，真正能对朝鲜提供无私无偿援助的，只有中国(还有韩国)° 而要想挽救陷于困境的朝鲜经济，没有中国的援助几乎是不可能的° 不同中国合作，朝鲜经济便没有出路°

第二，巩固政权的需要°

随着经济困难的加剧，朝鲜的社会危机也日益加深，国内偷·抢粮食等刑事犯罪甚至政治性犯罪此起彼伏，外逃者接连不断…… 加强同中国的合作关系，得到中国对朝鲜的支持，有利于化解内部矛盾，缓和社会危机，巩固政权°

第三，融于国际社会的需要°

多年来，由于种种原因，朝鲜被美国等西方国家宣布为“搞恐怖活动的国家”，“无偿

6) 『(韩国) 东亚日报』(中文网), 2006 年 10 月 9 日.

还能力的国家”，等等，受到西方国家的经济制裁，甚至在国际上被公开起诉，使朝鲜在国际上十分孤立。现在，朝鲜为了自身的生存与发展，急于走向国际社会，推行全方位外交，全面改善对外关系。而同最大的发展中国家·在国际上有良好信誉的中国搞好关系·在国际上会得到中国的多方面支持，这对于朝鲜摆脱国际上的孤立地位·改变其形象显然是十分需要的。

第四，增加同美国·日本·韩国等抗衡的筹码

无论是为了解决制裁等经济问题，还是为了解决核问题等安全问题，朝鲜都需要同美国·日本等西方国家，以及韩国进行多方面的谈判和协商。朝鲜清楚，如果有强大的中国作后盾，就使朝鲜手中握有一张王牌，在任何谈判中对手都不敢小视自己。因而，加强同中国的合作关系，就能增强朝鲜在国际上的发言权，提高抗衡美国·日本·韩国等的力量。

与此同时，也应该看到中朝关系发生的变化。当前的中朝关系已经不是 20 世纪五六十年代那种建立在所谓的无产阶级国际主义原则上的同属于社会主义阵营的兄弟党·兄弟国家的关系了。当然，也决不是敌对的关系。冷静地看来，当前的中朝关系是一种正常的战略性合作关系，是具有传统友谊的和睦为邻的国家关系。中朝两国在对内对外政策上，既有共同点，也有分歧点；在双方关系中，既有共同利益，也有不少矛盾。应该说，保持良好的中朝关系对双方都有利。反之，则对双方有害。因此，中朝两国谁都不会放弃彼此之间的合作关系，朝鲜更不会放弃这种合作关系。

参考文献

金正日.『金正日选集 第14卷』. 平壤: 朝鲜劳动党出版社, 2000.

曹丽琴译.『黄长烨回忆录:〈我看到了历史的真理〉』. 中译本. 中国东北边疆研究译丛, 2005年 10月.

『(韩国)联合新闻网』.

『(韩国)东亚日报』.

『朝鲜日报(韩国)』.

『(韩国)每日NK网』.

中朝政治合作现状与朝鲜变化展望

张宝仁 (中国吉林大学 东北亚研究院, 朝鲜韩国研究中心, 教授)

中朝两国是山水相依的近邻, 双方有着深厚的历史政治渊源与悠久的交往经历。长期以来, 两国一直保持着传统的友好合作关系, 是唇齿相依·生死与共的战友与兄弟。近年来, 两党·两国政府和两国人民更加珍惜由老一辈领导人亲手缔造和培育的传统友谊, 相互尊重, 相互帮助与支援, 使兄弟般的中朝传统友谊进一步发扬光大, 中朝关系正焕发出新的生机与活力。

目前, 随着世界政治格局的改变·两国政治与经济形势的发展变化, 双方在政治和经济上的合作形式·合作内涵正在发生一些变化, 既由过去的传统型向常规型转变; 由五·六十年代的“用鲜血凝成的战斗友谊”般的意识形态色彩, 一定程度的转向战略层面上的合作, 由以双边合作为主转向双边合作与多边合作并进, 合作的领域也在不断拓宽, 合作的内涵更加丰富。但要完成这一转变过程尚需一定的时间, 短期看中朝合作交往中传统友谊型的色彩仍会较浓厚, 并作为基础及动力推动双方政治·经济·文化等领域的合作。总体上看, 双方紧密合作·相互依赖·实现双赢将是两国政治·经济合作发展的基本趋势。

随着朝核问题的逐步解决·朝鲜国内外形势的不断发展, 其将会不断加大国内政治·经济的调整力度, 实现建设社会主义强盛大国的目标。

首先, 在政治方面, 由于形势的好转, 金正日的威望会明显提高, 其权利和地位将会进一步得到巩固和加强, 并有可能正式出面担任国家主席一职, 名正言顺地成为国家元首, 届时军队的地位会有所下降, 党的地位会重新提升上来, 成为国家最高领导权力的象征, 同时对党政机构进行调整, 使部门之间·上下之间的职能运行更加通畅与有效; 其次, 朝美关系改善后, 朝鲜会迅速发展与西方发达国家的关系, 对外交往会显

得十分活跃，同时其政策的重心将会很快转移到经济建设上来，加快促进经济的恢复与好转，增强国家综合实力，重新树立其在国际社会中的地位与影响力°

一. 中朝政治合作现状及其特点

长期以来，中朝两国在政治领域中的合作一直表现较为紧密而活跃，成为两国关系发展与合作的重要内容，并形成了良好的合作机制，体现了多层次·多渠道的交往合作模式°多层次主要分为党与党之间·中央政府与中央政府之间·高层领导人与高层领导人之间·中央所属各部委与对方相应机构之间·地方党政部门与地方党政部门之间等的接触与合作，以及互派承担某种特殊使命的特使与对方商谈有关国际和地区问题等，目的是及时传递相关信息，表明态度，进行深入·坦诚的交流与沟通，统一看法，进一步了解和掌握对方的立场·态度及具体想法等，以便同步行动及代替对方进行协调，利于想法与目的的实现，问题的解决°多种渠道主要是指直接或间接的合作形式，其中直接形式是指中朝两国间的正常性的政治沟通与合作及对两国利益紧密相关事务的双边性合作，间接形式是指两国中的任何一方通过与第三国或地区的合作为对方创造各种机会，发挥桥梁的作用°如朝韩·朝美·朝日等之间相关人士接触机会营造与提供·北京六方会谈平台的营造等°

自 2000 年以来，中朝两国政治合作进入了一个崭新的时期，不仅中朝两国党·政·军高层互访不断，合作领域也不断拓宽°而且两国地方党政部门之间的交流也十分活跃°如原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江泽民·现任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胡锦涛·中国全国人大常委会委员长吴邦国以及国务院·政协·中央军委等党政高层领导人相继应邀访问朝鲜，同时朝鲜劳动党总书记·国防委员长金正日也应邀多次来华访问，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委员长金永南·内阁总理·国防委员会等朝鲜党政军高层领导人率团访问中国°此外，两国中央所属相关部委和地方政府官员也纷纷组团互访，以此来进一步加强两国高层领导人及相关部门间的沟通与合作，这是 20 世纪 80 年代以来中朝两国间从未有过的频繁高层次和宽范围的接触，它反映出两国关系的紧密与合作的深入程度°

通过双方高层领导人的互访与交流，双方达成了一些新的共识，这些为中朝两国政治·经济合作营造了良好的氛围，成为双方政治·经济合作的强大的牵引力，特别是，

使中国进一步增强了对朝鲜政治·经济合作并使其尽快摆脱政治孤立和经济困境的信念和承担义务的责任感。朝鲜也愈来愈感受到来自中国的支援和加强与中方合作的重要性及利益所在。

现在，中国以胡锦涛为总书记的新一届党中央十分重视发展新时期的中朝友好关系，进一步加强了双方高层往来及各层次·各领域的交流，不断丰富和充实中朝友好合作的内涵，促进双方共同发展，积极协调配合，维护共同利益，并提出了强化中朝友好合作关系发展的十六字方针，既“继承传统·面向未来·睦邻友好·加强合作”，主张在治国理政方面相互学习和借鉴，在重大国际和地区问题上加强沟通与协调。朝鲜也对目前同中方的政治·经济合作关系发展感到满意，对中国改革开放以来取得的成就表示赞赏，并表明中朝关系在继承传统友谊的基础上适应了新形势的发展，朝鲜将从战略的高度把握朝中友好，把发展朝中友谊作为坚定不移的战略方针，提出要“继往开来·与时俱进”，朝方愿与中方共同努力，推动朝中关系不断向前发展。并感谢中国政府和人民长期以来给予的大力支持和实实在在的援助。从中可以看出，中朝两国合作关系又迎来了明媚的春天，两国对加强双方合作的重视程度愈来愈高，合作的欲望愈来愈强，形成了强大的推进合力。

中朝政治合作主要表现在以下几个方面：

1. 两党之间的合作

中国共产党和朝鲜劳动党的性质均属无产阶级的政党，也都是执政党。早期均受苏联共产党的影响较深，苏共曾一度作为原社会主义国家执政党的老大哥备受尊重，成为社会主义国家的旗手。90年代初，前苏联解体，苏共的领导地位丧失，但中国共产党和朝鲜劳动党与苏共根深蒂固的渊源及受的影响却一时无法完全消除，至今仍保留早期苏共的痕迹。所以，目前中国共产党和朝鲜劳动党的性质·宗旨·目标·地位·机构设置·运作机制以及对党员的要求等有许多相同或相似之处。其共性奠定了两党合作与交流经验基础，在不同的历史发展阶段，作为执政党如何加强其自身建设，清除腐败·维护党的纯洁性，树立党的光辉形象，不断提升党在人民群众中的威望，更好地发挥党的领导作用，以适应新形势发展的需要是十分重要的，这已成为中朝两党的共识·合作交

流的重要内容。因此，长期以来中朝两党一直保持着良好的沟通与合作关系，经常相互交流加强党的建设和执政的体会与经验·相互通报现阶段本党的中心任务，以及双方共同关心的国际和地区问题的看法等。

交流与合作的基本形式是，党的高层领导人的互访·中央党口部门组团互访·地方省(道)市级党口的领导人组团互访等，不同层次党口领导人的访问有着各自的不同使命与任务，其中中央一级的党代表团主要是传达相关信息·就某些问题交流一些看法，达到沟通与理解及增进友谊的目的；而地方一级的党代表团则多是履行形式上走动，以增进地方间的相互沟通，联络感情，保持交往的连续性。但无论是哪一种形式，主要目的和作用都是为了进一步推动两党之间的相互了解，增进友谊，促进交流与合作事业及友好关系不断向前发展。

中朝两党的关系也是两国关系的重要组成部分，通过两党之间的接触与沟通进一步密切了双方的党政关系，以此为契机，从而带动两国经贸·文化等领域的交流与合作的发展。同时，中朝两党的合作也是两国合作与交往的基础，它直接影响着两国关系的发展，影响着两国经贸合作及各个领域的交流与合作。所以，中朝两国无论是过去·现在和将来均会把两党之间的交流与合作作为首要任务和主要合作的领域。在正常的情况下，两党之间的沟通与合作只能会不断得到巩固与加强，而不会被削弱。

现阶段中朝两党之间的交流具有以下几个新特点：一是两党领导人保持着密切的交往与联系，为两国关系的发展发挥了重要的引领作用；二是多渠道多领域的交往，为中朝关系和两国经济社会的发展发挥了独特的作用；三是两党就国际和地区形势问题深入交换意见，为维护东北亚地区和平与稳定，推动朝核问题的妥善解决发挥了建设性的作用。

2. 在巩固和发展社会主义制度上的合作

20世纪90年代初，世界上原社会主义国家多数改变了国家的性质，选择了资本主义的发展道路，特别是连社会主义国家的鼻祖——苏联，其社会主义体制也发生了崩溃。在这种状态下，中国·朝鲜·古巴·越南等社会主义国家顶住来自国内外的各种压力，继续坚持走社会主义道路不动摇，并适应世界形势发展新潮流·根据本国实际情况调整了社会·经济发展战略，逐步实行了改革·开放的政策，建设符合本国国情和各具

特色的社会主义国家，保存住社会主义的革命火种，使世界政治格局依然有社会主义阵营的席位。

中国和朝鲜均经历了这次浪潮的冲击与考验，两国在坚持走什么样的道路上的选择是坚定而果断的，不仅排除和战胜了强大的冲击与影响，而且更加坚定了走社会主义道路的信念与决心，并面对各种挑战各自探寻出一条新的社会主义发展模式。这表明中朝两党·两国政府和两国人民的政治理念和信仰上没有发生质的变化，大体上仍是基本趋同的和相近的，是两个性质相同的社会主义国家和同一阵营的战友。

政治理念和信仰决定一国政权的性质和国家发展方向，相同的政治理念和相同的信念又会成为政治合作深入发展的基础。因此，过去两国就在巩固和加强社会主义建设中有过良好的合作，尤其是在反美反帝的斗争中并肩作战，捍卫了社会主义。现在，在新的形势下，两国在如何进一步巩固和加强社会主义制度·建设更加完美的社会主义国家的问题上合作更加需要紧密配合。两国有过相同的经历·面对同样的现实·面向同样的未来，这些使中朝两国的前途和命运更加紧密地联系在一起，为坚持社会主义，建设社会主义强国，两国领导人建立起了互访制度和沟通机制，互相帮助与支持，相互理解与相互信任，共同抵制资本主义思潮对社会主义肌体的侵蚀，携手完成坚守社会主义阵地·掌起社会主义伟大旗帜的使命。中国明确支持朝鲜党和人民坚持社会主义的发展方向，支持朝方积极探索适合本国国情的发展道路，朝鲜也对中方在建设具有中国特色社会主义中取得的成就感到由衷的高兴，赞赏中国的改革开放政策。目前，中国正在努力建设具有中国特色的社会主义，并已取得成效，社会主义的政治·经济体制更趋完善，其在世界的地位和影响力正在不断攀升，成为社会主义国家政治体制改革和经济发展的样板。朝鲜正在建设具有朝鲜特色的社会主义，陆续出台了一些新的政策和措施，并进一步开始了建设“主体社会主义强盛大国”的新征程，并把其作为新世纪追求的核心国家目标。

中国和朝鲜等国家进行的社会主义政治·经济建设，实际上是一场社会主义与资本主义的竞争与较量，即两种社会制度·两种政治·经济体制·两种意识形态领域的激烈竞争，最终体现在社会制度的优越性，生产力的提高，社会的进步·经济的发展，国民财富的增加，国家的强盛等方面。所以，中朝两个社会主义国家会格外重视对建设具有特色社会主义经验的交流，尤其是政治·经济体制改革成功经验的相互借鉴，以及防止资本主义思潮侵蚀经验的交流，共同抵制西方发达资本主义国家对中朝的扼杀，从而使

两个社会主义国家的政治·经济体制不断完善，各项建设取得飞跃的发展，以彰显社会主义的优越性及强大生命力°

3. 在国际和地区重大问题上的合作

中朝两国一直在国际和地区重大问题上保持着良好的合作，建立了较为顺畅的联系与沟通渠道，保证双方对国际和地区重大问题的看法和意见的及时交换，以便采取符合两国共同利益的相应举措°

目前，中朝两国在这方面的合作方式也主要是，通过双方高层领导人的互访·派遣特使及利用各自驻对方使领馆官员进行深入沟通与协商，交换各自看法，力争达成广泛的共识° 主要实例有：

(1) 在反对西方国家指责两国存在人权问题上的合作° 美国等西方国家一直对中国和朝鲜的人权问题蛮加指责，宣扬什么“中国·朝鲜没有人权”“没有民主”等言论，美国国会的某些议员经常提出〈中国人权法案〉和〈北韩人权法案〉等，要求国会讨论通过° 此外，西方某些国家也常常随波逐流，向中朝两国发难，肆意破坏中朝两国的国际形象° 对此，中朝两国政府为共同应对西方国家诬陷与干涉行为，双方通过沟通，交换看法，形成统一的对策，在此基础上采取一致行动予以反击，揭露他们干涉别国内政，在人权问题上实行双重标准的做法，并取得了较好的效果：

(2) 在解决朝核问题上的合作，中朝双方在解决朝核问题上进行了良好的合作，朝方认同和支持中方在六方会谈中所扮演的角色，相信中国的能力与作用，同时中方也能够充分尊重和考虑朝方的合理主张与要求，支持朝鲜党和政府为和平解决朝鲜半岛问题所出的努力° 中国作为北京六方会谈的总召集人，每次会谈前都事先与朝鲜协商将要讨论的会谈内容，通告其他与会方的想法等，帮助朝鲜做好摸底工作，以便使朝方在会谈时立于主动° 同时中国也根据朝方的想法和要求，与其他相关与会者协调，争取六方能坐到谈判桌前进行协商，并取得进展° 其实六方会谈是中国为了通过对话的方式和平解决朝核问题° 维护朝鲜国家主权和国家利益而想出的一个最佳办法，现在六方会谈已成为东北亚国家解决地区争端的有效的沟通机制与平台，并取得了较好成效° 到目

前为止，已经促成了“2·13”，“10·3”两个共同文件，为和平解决朝核问题，维护地区和平与稳定做出了贡献；

(3) 在国家统一问题上的合作，朝鲜一直坚持“一个中国”政策，公开支持中国〈分裂国家法〉，坚决反对台湾当局“台独”和达赖集团分裂祖国的活动，在涉台·涉藏问题上予以中方坚定支持；支持中国政府按照“一国两制”的方针实现祖国统一^①。同时，中国也积极支持朝鲜提出的北南和平统一的合理政策主张，支持北南双方改善关系，支持朝鲜半岛最终实现自主和平统一，并为南北和解·对话交流作了大量的工作；

(4) 在联合国中的密切合作^②。朝方多次在国际机构竞选中支持中方候选人，中方支持联合国通过关于支持朝鲜半岛南北双方加强对话和实现和平统一的决议案，反对有关国家提出无理指责朝鲜人权状况·干涉朝鲜内政的议案，主张解除对朝鲜的政治·经济制裁，公平公正的对待朝鲜；

(5) 反霸主义中的合作^③。东北亚地区还没有形成完善的和平机制，冷战地位根深蒂固，传统的势力均衡逻辑依然有用^④。中朝在军事上的同盟关系是长期以来维系“北三角”和“南三角”力量均衡的重要组成部分，朝鲜是中国重要的战略缓冲，中国是朝鲜的重要战略伙伴^⑤。冷战结束后，朝鲜半岛传统的力量均衡被打破，朝鲜的安全环境严重恶化，美国不断扩充本地区的军事力量，以保障其在该地区的主导地位，并扼杀朝鲜，面向中俄^⑥。日本则不断宣扬“中国威胁论”和“朝鲜威胁论”，丑化朝鲜，其〈新防伪大纲〉中视中朝为主要威胁，以此为借口，大肆扩充军备，试图成为军事大国^⑦。加之美日积极建立新的导弹防御系统^⑧。这些均对中朝两国构成直接的威胁，在这种情况下，两国进一步加强了军事磋商与交流，进行正当的军事合作，以维护两国国家安全和主权，维护地区和平与稳定，反对霸权主义和强权政治，推动朝鲜半岛和东北亚地区安全机制的建立^⑨。

二. 政治合作中存在的问题

中朝两国的政治合作虽然较为紧密，取得的成绩较为显著，但同时也存在一些值得

思考的问题，如不引起高度重视，将会对两国的政治合作带来一定的影响，概括起来，主要有以下几点：

（一）意识形态领域存在差异与看法上的分歧

中朝两国虽然都是社会主义国家，在国家性质和制度上相同，但两国对目前社会主义现阶段的划分·社会主义建设中推行的路线·方针·政策等方面却存在较大的差异，政治理念·人们的观念及价值取向等也存在很大差别。中国共产党十一届三中全会上对现时期社会主义发展阶段进行了重新定位—处于社会主义的初级发展阶段阶段，提出在巩固公有经济的同时扩大私有经济的发展，发展市场经济，允许一部分人先富起来等政策，并不断加大改革·开放的力度，使中国的政治·经济体制发生了较大的变化，政治上较前更加开放，民主意识增强，言论自由度增大，市场经济成分和私有化程度愈来愈高，鼓励观念不断更新，树立新的价值观和形成新的思想方式。相反，朝鲜仍在固守旧的政治·经济体制，宣称其是社会主义的乐园，国家早已进入全民所有制阶段，如单从所有制成分上看，现在朝鲜已进入社会主义的中·高级发展阶段，实际上朝鲜的全民所有制是一种脱离社会现实的所有制，并没有发挥出优势。朝鲜不提倡甚至不允许观念更新和形成新的价值观，一直对意识形态领域的控制很严格。所以，朝鲜对中国的改革·开放政策一直是有看法的，在背后里批评中国已脱离社会主义轨迹，正在走向资本主义社会，只是表面上或公开场合对中国改革开放以来发生的变化表示赞赏与祝贺。同时，中国的老百姓对朝鲜看法并不太好，认为其政治体制较为僵化，经济体制不够开放，封建统治的色彩较为浓厚，经济发展落后·生产力水平低下，人民生活贫困等。因此，两国在意识形态上明显存在较大的分歧。这种分歧如在两个不同社会体制的国家中对双方合作影响不会太明显，但对两个相同社会体制的国家而言，其影响程度就会大不一样。因为越是一家人就会越格外关注对方，遇事反映也越加强烈。因此，朝鲜对中国实行的改革·开放政策以及发生的变化持有异议以及中国百姓对朝鲜不佳看法也就不难理解了。但是，这种情况如长期得不到改善，势必会对中朝两国政治·经济合作关系的长期发展带来不同程度的影响。

（二）相互间存有一定的戒备心理

在中朝两国政治，经济合作中，相互间在某些问题上还存有一定的戒备心理，担心自

已被对方利用，在这一问题上朝方表现得尤为明显。具体主要表现在某些国际和地区重大问题合作上戒备中国。如在解决朝核问题的过程中，最初的三方会谈方案中是朝方把中国排除在外的，最终在美韩的坚持下中国才加入进来，形成后来的四方会谈局面，但在四方和六方会谈中朝方也是不完全相信中国的，多少有些担心自己的地位和作用被中方替代，以及中方利用会谈的机会来提高自己的地位与影响力，同时，中国也担心朝方的要求过于苛刻或者态度过与强硬，由此引起美·韩·日等国的对中方的不满，怀疑是否中方在后面支使朝方，另外，就此问题与朝方沟同时也不敢更多的进行规劝，所以，中方在这方面是较为谨慎的，生怕被各方误解。又如由中方有关部门组织的国际学术会议，向朝方发出的邀请常被拒绝，原因除受其外事活动正常规定约束外，其中也有对主持方的戒备心理，认为其与会将提高中方地位和作用，帮中方的实惠；再如，对中朝两国百姓之间的接触限制较严，不能随便接触，就连在朝鲜学习的学生和进修人员课后约见朝方老师都较困难，尤其是对中国的朝鲜族与朝方的亲戚走动限制更加严格，原因是害怕两国百姓的相互接触使朝方人员受到某种影响，动摇信念，增加政治的不稳定因素。如果中朝两国只注重党政高层领导人之间的接触与交流，而缺乏人民群众之间的联系，是否会对两国的政治·经济交往与合作根基的牢固性产生疑问。也就是说，缺乏百姓基础的合作是否存在问题。

（三）是否完全适应了新合作形式的转变

在新的形势下，两国的政治·经济合作形式正在发生变化，双方理应主动适应新形势下合作方式转变的现时。首先，中国应逐渐把两国的传统合作关系转为正常性的国家合作关系。朝方也不应该总以“血盟关系”、“亲如兄弟的关系”要求中国提供政治·经济·军事援助。其实两国发展正常性的国家关系才是正确的选择，也是早晚最终要达到的目标。如果两国不能按新形势变化的要求改变合作方式，并加以适应，就有可能会出现一方提出的合作要求，而另一方不能或无法满足时，必然导致不满或抱怨的情绪的出现，影响两国关系的发展。其次，合作的长期效果相对较差。中朝合作中中方不能仅靠援助·扶持来维系两国关系，应侧重促使朝鲜自身发生变化，增强自生自救意识，尽快具备改变经济落后局面的能力，并使其国力不断得到提高。只有这样才能使中朝两国的合作会更加长远，更具生命力，合作的效果才会更大。

三. 朝鲜变化展望

随着国际形势和其国内形势的不断发展，特别是朝核问题解决希望的增大，朝美·朝日·朝韩关系的逐渐改善，朝鲜的政治·经济形势将会随之发生一些变化。对其前景的预测如下：

(一) 政治形势变化预测

短期内，朝鲜政治领域的变化不会太明显，仍会继续坚持主体思想下的自主·自立·自强的建国方针，在政治上采取进一步强化“以我为主”·充分利用外部环境，获取最佳利益的基本策略。在政治体制上可能会有些大的调整动作，但前提条件是，朝核问题得到妥善处理，朝美关系得到改善，取消对其制裁，使朝鲜迎来发展的良好局面。在这种情况下，金正日就有可能出面担任国家主席一职，名正言顺地成为国家元首，以为其与西方国家接触确立身份地位。同时，朝鲜的政治和思想领域也会逐渐有限度的松动，以营造较为宽松政治氛围开放，不仅是为了经济发展，而且也让世人知道朝鲜在发生变化，改变一下形象。另外，其政策的重心转移到经济建设上来以后，“先军政治”路线将会受到冲击，军队的权力与地位将会遭到削弱，党的核心领导地位和作用将会重新得到确立，权力结构将由目前的军——党——政转为党——政——军，以符合社会主义国家的性质要求和适应经济建设的需要。中央政府和地方政府的权·责·利会更加明晰化，原中央政府的部分权力(经济管理权限和经济决策权力)会逐渐下放给地方，以扩大地方的经济自主权，调动地方政府官员的积极性，增强地方政府的工作活力。

从总体上看，朝鲜的国内政治形势会相对稳定，不存在政权被颠覆的可能性，这将是朝鲜政治形势发展的基本趋势。主要依据是：

1. 金正日委员长完全可以控制和操纵朝鲜军队。军队是维护国家安全·捍卫国家主权和领土完整·为国家发展提供安全保障的重要工具。金正日深知作为最高领导人尤其是在国内外形势较为严峻的情况下掌控军队的重要性，所以一直狠抓军队思想建设和思想工作。

现在，朝鲜实行的“先军政治”已深入人心，军队已成为国家与社会发展的权利主体，对国家政治·经济·社会的发展和国家安全的作用强大，不仅使朝鲜在全国军民中牢固

地树立了坚持主体社会主义的政治理念·保障了政权的稳定，而且增强了人民忠于金正日委员长的决心与信念。现在，现任军队的高层领导人都是经过金正日精心挑选的，而且对其相当忠诚，这些人已成为其控制军队的有力帮手。所以，在金正日执政时期军队出现问题的可能性不大，这样朝鲜的政局就不会出现动荡。

2. 党的思想工作卓有成效。近年来，朝鲜深入开展党的思想工作，普及广泛而细致，目的是使朝鲜民众培养和树立爱党·爱国，忠于领袖的信念，其中忠于领袖是至高无上的，不可动摇的。在这方面朝鲜军队和人民的思想是统一的，全国向下一致效忠于金正日，其威望和地位可与金日成主席同语。同时，通过党的思想工作锻炼出一批中青年领导干部，他们分别被安排在军·党·政部门的重要工作岗位，其中包括军事委员会·各兵种的指挥部·劳动党中央指导部·对外联络部·统一战线部·财政部·35号室·38号室等部门担当要职，其年龄多数在40-50岁之间，属于青壮派，精明强干，并享有相当的特权，成为金正日信赖和依靠的中坚力量。这些人早就开始熟悉军队·党和国家的领导业务，自身经历和各方面经验较为丰富。现在，他们在领导岗位上能很好的理解金正日的想法，忠实地执行金正日的政治意图，成为金正日的左膀右臂和智囊团。今后，这批人在朝鲜政治舞台上的作用将会日益凸显。

3. 朝鲜半岛周边国家对朝政策有利于其政局的稳定。在朝鲜半岛的周边国家中无论是与其政治对立的还是保持友好关系的均一致希望朝鲜半岛和平稳定，不愿看到朝鲜发生内乱，出现大量难民外逃，殃及鱼池，即会给周边国家带来冲击，不仅造成经济上的沉重负担，而且还会带来社会安全问题。尤其是中俄两国更不会对朝鲜政局动荡坐视不管。因为维护朝鲜的稳定是中俄两国东北亚战略的重要组成部分，朝鲜政权被颠覆，将会使中俄的东北亚战略受损，破坏了东北亚的政治格局。其次，韩·日两国也希望朝鲜能维持现状，逐渐发生变化，恢复经济发展，避免因朝鲜发生内乱而影响其经济·社会的发展。所以，从内外部环境看，均对朝鲜维持政治稳定有利。

4. 朝核问题的解决正在朝着有利的方向发展。六方会谈已取得成效，虽然目前朝核问题出现反复，但解决的前景还较光明。随着朝核问题的逐步解决，朝鲜将会得到更多的政治·经济实惠，即朝鲜将从国际反恐名单中除掉，朝美·朝日等关系会得到改善，

从而使朝鲜的国际形象和国际地位得到一定的提升，便于其融入国际社会。另外，解除西方国家对朝鲜的经济封锁，并在经济上得到一些补偿，有助于朝鲜经济恢复与发展，等等。这些都会对朝鲜的政治稳定起着重要的作用。

但是，也不能说朝鲜的政治稳定一点问题也没有，在有利因素存在的同时，一些不利因素也是客观存在的。具体讲，主要有以下几点：

一是经济困难尤其是粮食危机久拖不决。近年来，朝鲜经济一直不景气，又开始出现负增长，加之去年(2007年)又遇洪涝灾害，粮食大幅度减产，使粮食缺口继续扩大，而朝鲜又缺乏粮食进口能力，现在城市居民每月粮食配给仅达60%，不足部分只能靠自己解决，但又不具备条件。朝鲜综合市场的大米价格每公斤已飙升至2000朝元，也就是说，普通工人一个月的工资仅能买1公斤大米。所以朝鲜民众只能默默地承受挨饿之苦。如果上述问题今后不能尽快得到及时妥善解决，继续发展下去，人们对政府不满的情绪肯定会不断上升，达到一定程度时就会爆发，有可能会发生社会混乱，导致政局不稳；

二是先军政治使军队的地位和待遇不断提高，并享有特殊的权力，这些使军人特别是干部更加骄傲蛮横，不可一世，军人胡作非为，侵害人民生命财产的现象逐年增多，致使军民关系不断恶化，已引起社会对军队的质疑。如不加以解决，继续蔓延的话，势必会使人民疏离军队，甚至产生反感情绪，最终导致人民对推行的先军政治的正确性产生质疑，甚至削弱对朝鲜劳动党信任度，进而损害金正日的权威和正统性，直接威胁政权的稳定；

三是由军—党—政政治体制转向党—政—军政治体制过程中，军队的核心地位和作用将受到威胁，军队的核心价值受到挑战，也就是说，过去的权力和地位由顶峰滑落下来，过去享有的部分特权被免除，关键是军队是否具备承受的心理，能否消除掉被剥夺地位和权力的不快之感，心平气和的接受这一现实。所以，如果不谨慎，处理不好，就有可能使党政与军队关系紧张起来，甚至发生冲突，直接威胁到政局的稳定，等等。

综上所述，朝鲜的政治变化只是相对而言，总体变化不会太快太大，可能发生变化的部分，只是其内外政策的调整，局部或形式上的改变化。在短期内，朝鲜政策的调整方向将是，始终会把国内的政治稳定摆在第一位，采取“先安保后经济”的策略；继续推行“先军政治”，以保障国家安全；优先考虑与美国关系的改善，以打破西方国家的制裁与封锁，创造生存和发展的空间。如果上述意图得以实现，朝鲜才会在政治、经济领

域进行较大的动作，即对政治经济体制进行较为全面而深入的改革，使政治体制结构更加理顺，真正转移到为经济建设服务上来，实现建设社会主义强盛大国的目标，回归国际社会。但具体朝鲜会向何种方向发展，其变化程度如何，还需要一定时间去验证，有待进一步观察。

中朝政治合作现状与朝鲜的变化前景

金哲 (中国辽宁社会科学院, 朝鲜半岛研究中心, 教授)

一. 前言

所谓政治合作,是指政治主体为了实现特定的政治目标,摒弃隔阂·分歧与冲突,达成共识·团结一致的政治行为¹⁾ 国家间的政治合作,从本质上作为两国间的双边关系,或更为广阔的国际关系,其实质是在实力基础上通过各种手段追求国家利益而相互博弈的结果²⁾ 外交的实质就是在国际关系中追求国家利益的极大化,即国家利益的集中体现³⁾ 因此,对外关系的指导思想必然是国家利益高于一切⁴⁾

中国和朝鲜自古以来就是唇齿相依的友好邻邦⁵⁾ 1949年10月6日,两国建立外交关系,1950年朝鲜战争爆发后,两国人民并肩作战,共同抗击外敌,结下了鲜血凝成的友谊,1961年7月11日,两国签署了“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在长达半个世纪的冷战格局下,中朝作为同一阵营的战友,“经历了一段兴衰与共又不无曲折的历程⁶⁾” 国家间关系逐渐完成了由意识形态导向到国家利益导向的转变⁷⁾ 冷战结束后,中朝双方对对方的战略价值重新进行评估,两国关系确立了“继承传统·面向未来·睦邻友好·加强合作”的方针,这标志着中朝关系由意识形态主导转入开展正常的国家战略合作,开创了中朝两国关系发展史的新阶段⁸⁾

1) 宋衍涛·陈明凡,“政治合作与政治冲突的互动关系研究,”『北方论丛』,2005年01期

2) 实力是决定格局的基础,格局反过来又加强或削弱一国的实力⁹⁾ 在国际斗争中,一国在世界上的地位不仅取决于其政治·经济和军事的综合力量,还在于该国运用何种外交战略¹⁰⁾ 高明的外交手段可以在相当程度上弥补一国实力的不足¹¹⁾

3) 陈峰君,『冷战后亚太国际关系』(新华出版社,1999),442页¹²⁾

4) 刘长敏,『论朝鲜核问题解决中的国际斡旋与调停』(中国政法大学出版,2007年3月),205页¹³⁾

2005年10月28日,胡锦涛主席同金正日委员长举行会谈时,就进一步发展两党两国关系提出了四点建议:一是继续密切高层往来,加强相互沟通;二是拓展交流领域,丰富合作内涵;三是推进经贸合作,促进共同发展;四是积极协调配合,维护共同利益。金正日对此表示赞同,并说,无论国际局势发生什么变化,朝方都将从战略的高度把握朝中友好,把发展朝中友谊作为坚定不移的战略方针。同样,中国政府一贯致力于发展同朝鲜的睦邻友好合作关系的政策坚定不移。

毋庸置疑,中朝政治关系的健康发展,对朝鲜今后的发展将起到积极作用。

二. 中朝政治关系历史回顾

中国和朝鲜山水相连,在老一辈领导人亲手缔造和精心培育下,两国的传统友谊不断巩固和发展。半个多世纪以来,中朝各自探索符合本国国情的发展道路,两国都尊重对方的选择,并互相帮助和支持。不管国际风云如何变幻,中朝政治关系一直是稳固的,经得住考验的。纵观半个多世纪的中朝关系,大体可分为以下几个发展阶段。

1. 第一阶段: 1949~1964年

新中国刚刚成立,1949年10月6日,朝鲜就与中国建立了外交关系,是最早同中国建交的国家之一。当时各国的对外政策和国际关系受意识形态的影响,中国、前苏联和朝鲜同属于社会主义阵营,共同反对以美国为首的帝国主义阵营。朝鲜与前苏联又有特殊关系,按照冷战思维的逻辑,朝鲜与中国的关系也十分密切。特别是在历时三年的朝鲜战争中,⁵⁾中朝两国人民用鲜血凝成了战斗友谊,推动了两国关系的深入发展。1953年11月,中国与朝鲜签订了〈中朝经济及文化协定〉。中苏论战时期,朝鲜在言行上倾向于中国。1958年10月,中国人民志愿军全部撤离朝鲜回国。1961年7月,中国与朝鲜签订了〈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这一时期两国在政治经济各个领域,都保持着兄弟般的友好关系。

5) 确切的说,“新阶段”就是由过去的同盟关系向正常的国家关系的过度阶段——笔者。

6) 关于这场战争,在中国称为“抗美援朝”战争,朝鲜称为“朝鲜战争”,韩国称为“韩国战争。”

2. 第二阶段：1965~1969年

当时国际形势和两国国内形势都发生了较大变化⁶。前苏联政局变动，赫鲁晓夫下台以后，朝鲜与苏联的关系有所改善⁷。此时，中国爆发了史无前例的“文化大革命”，这场运动对中国的国内形势和对外关系都产生了极大的冲击，“文化大革命”运动中的中国红卫兵直接抨击包括朝鲜领导人在内的国内外领导人，使朝鲜与中国之间产生了隔阂，双边关系有所降温，朝鲜对中国的“文化大革命”持中立的立场⁸。相反，朝鲜与前苏联的关系则有所升温⁹。

3. 第三阶段：1970~1989年

1970年4月，周恩来总理访问朝鲜，两国发表联合公报，双方表示要进一步巩固和发展两国人民的友好团结和互助合作关系¹⁰。朝鲜也依据主体思想，对中苏采取了等距离的外交政策¹¹。

这一时期的国际形势也发生了比较大的变化，东西方关系缓和，特别是中美关系正常化·中日建交，借此中国政府制定了“一条线”外交政策¹²。7) 在此外交政策的指导下，中朝关系虽然在六十年代经历一段波折但继续平稳发展¹³。8)

上世纪80年代，朝鲜与中国加大了在政治·经济·文化·体育等各个领域的密切合作，两国高层领导人以及政治·经济·军事·贸易等方面的代表团频频互访，促进了两国人民的友好团结¹⁴。1989年是中朝建交40周年，两国都举行了庆祝活动，中朝关系和暖如春¹⁵。

7) “一条线”外交战略：二十世纪70年代，国际形势发生重大变化¹⁶。美苏两个超级大国的军事力量对比朝着有利于前苏联的方向发展¹⁷。美国由于长期对外扩张，特别是陷入侵越战争的泥潭中，实力遭到削弱，霸权地位受到挑战¹⁸。而前苏联则乘机加紧扩充军备，并依仗其膨胀起来的军事实力对外扩张¹⁹。在双方激烈争夺中，出现了苏攻美守的战略态势²⁰。

为维护美国的全球霸权地位，美国调整对外政策，在亚洲实行收缩战略，打开中美关系大门，谋求从印度支那脱身，以集中力量确保欧洲重点²¹。为推动国际局势朝着有利于和平与稳定·有利于各国人民的方向不断发展，毛泽东主席于1973年在会见基辛格时提出，只要目标相同，我们不损害你们，你们也不损害我们，共同对付苏联霸权主义²²。希望美国跟欧洲和日本加强合作，要搞一条横线，就是美国·日本·中国·巴基斯坦·伊朗·土耳其·欧洲²³。这就是联合反对苏联霸权主义的“一条线”战略²⁴。

8) 陶常海·李晓光，“‘一条线’外交政策下的中朝关系，”《安徽教育学院学报》，第24卷，第05期（2006）²⁵。

表 II-1 : 1970~1989年, 中朝两国领导人互访情况

序号	姓名	当时身份	访问性质	访问时间
中国领导人访问朝鲜				
1	周恩来	总理	正式友好访问	1970.4.5~4.7
2	姬鹏飞	外长	友好访问	1972.12.22~12.25
3	华国锋	党主席' 总理	正式友好访问	1978.5.5~5.10
4	邓小平	党副主席' 副总理	友好访问	1978.9.8~9.13
5	赵紫阳	总理	正式访问	1981.12.20~12.24
6	胡耀邦	党主席	非正式访问	1982.4.26~4.30
	邓小平	党副主席		
7	吴学谦	外长	正式访问	1983.5.20~5.25
8	胡耀邦	总书记	正式友好访问	1984.5.4~5.11
9	胡耀邦	总书记	非正式访问	1985.5.4~5.6
10	李先念	国家主席	友好访问	1986.10.3~10.6
11	杨尚昆	国家主席	友好访问	1988.9.7~9.11
12	赵紫阳	总书记	正式友好访问	1989.4.24~4.29
朝鲜领导人访问中国				
1	许 鍊	外长	正式访问	1973.2.9~2.14
2	金日成	主席	友好访问	1975.4.18~4.26
3	李钟玉	总理	正式访问	1981.1.10~1.14
4	金日成	主席	国事访问	1982.9.16~9.25
5	金正日	书记	非正式访问	1983.6.2~6.12
6	金永南	副总理兼外长	正式访问	1984.2.7~2.14
7	姜成山	总理	正式访问	1984.8.5~8.10
8	金日成	主席	非正式访问	1984.11.26~11.28
9	金日成	主席	正式友好访问	1987.5.21~5.25
10	李根模	总理	正式友好访问	1987.11.9~11.14
11	金永南	副总理兼外长	正式访问	1988.11.3~11.7
12	金日成	总书记	非正式访问	1989.11.5~11.7

资料来源：中国外交部网站

4. 第四阶段：1990~1998年

上世纪 80 年代末 90 年代初，东欧剧变，前苏联解体，冷战格局崩溃，意识形态不再是决定国际关系的主要因素。这期间东欧国家和前苏联先后与韩国建交。在此背景下，中国与韩国也于 1992 年 8 月 24 日正式建立了外交关系。国际格局和东北亚国际关系一系列的巨变给朝鲜带来了极大的冲击，它似乎一下子难以适应变化了的环境。这种波动对中朝关系也产生了微妙的影响。90 年代初邓小平南巡以后，中国加快了改革开放的步伐，加速了对社会主义市场经济理论的探索和实践。同为社会主义国家的朝鲜，也密切关注着中国发生的巨大变化。同时，由于中国的对外经济关系更多地开始按照市场经济规律来运行，在一定程度上也影响了中朝的经济合作和双边贸易。1994 年 7 月，金日成主席逝世，又连续几年遭受较大的自然灾害，朝鲜的经济出现了较严重的困难。上述各种因素导致中朝高层互访相对减少，但是在朝鲜最困难的时候，中国还是伸出了援助之手。

表 II-2：1990~1998 年，中朝两国领导人互访情况

序号	姓名	当时身份	访问性质	访问时间
中国领导人访问朝鲜				
1	江泽民	总书记	正式友好访问	1990.3.14~3.16
2	李鹏	总理	正式友好访问	1991.5.3~5.6
3	钱其琛	国务委员、外长	正式友好访问	1991.6.17~6.20
4	杨尚昆	主席	正式友好访问	1992.4.12~4.17
5	胡锦涛	政治局常委、书记处书记	中国党政代表团	1993.7.26~7.29
6	罗干	国务委员兼国务院秘书长	中国党政代表团	1996.7.10~7.13
朝鲜领导人访问中国				
1	延亨默	总理	正式访问	1990.11.23~11.28
2	金日成	主席	正式友好访问	1991.10.4~10.13

资料来源：中国外交部网站

5. 第五阶段：1999年~至今

1998 年金正日正式执政后，当年 9 月，朝鲜修改了宪法，在内政与外交上都采取了一

些新的积极的做法。朝鲜与中国的关系也逐渐重新回到正常发展的轨道上来。1999年6月,朝鲜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长金永南访问中国。同年10月,中国外长唐家璇访问朝鲜,朝鲜与中国的关系出现了新的起色。2000年5月,朝鲜劳动党总书记·国防委员会委员长金正日在朝韩首脑会晤前夕非正式访问中国,进一步巩固和发展了两国间的传统友谊,两国政治关系也增添了新的内涵。2001年2月,金正日总书记在不到一年的时间里再度访问中国,江泽民总书记也在2001年9月访问朝鲜。此后,中朝两党和两国政府间的高层领导每年互访不断,中朝关系的发展进入一个新的历史阶段。

表 II-3 : 1999年~至今, 中朝两国领导人互访情况

序号	姓名	当时身份	访问性质	访问时间
中国领导人访问朝鲜				
1	唐家璇	外长	友好访问	1999.10.5~10.9
2	迟浩田	军委副主席·国务委员兼国防部长	中国高级军事代表团	2000.10.22~10.26
3	姜春云	全国人大副委员长	中国友好代表团	2001.7.9~7.13
4	江泽民	总书记·国家主席	正式友好访问	2001.9.3~9.5
5	贾庆林	政治局委员·北京市委书记	中共党代表团	2002.5.6~5.10
6	李长春	中共中央政治局常委	正式友好访问	2004.9.10~9.13
7	唐家璇	国务委员	胡锦涛主席特别代表	2005.7.12~7.14
8	吴仪	副总理	政府代表团	2005.10.8~10.11
9	胡锦涛	总书记·国家主席	正式友好访问	2005.10.28~10.30
10	曹刚川	政治局委员·中央军委副主席·国务委员·国防部长	正式友好访问	2006.4.4~4.6
11	顾秀莲	全国人大副委员长·全国妇联主席	中国妇女代表团	2006.4.18~4.22
12	回良玉	政治局委员·副总理	友好访问	2006.7.10~7.15
13	唐家璇	国务委员·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胡锦涛的特别代表	-	2006.10.18~10.19
	戴秉国	中央外事办公室主任		
14	杨洁篪	外长	正式访问	2007.7.2~7.3

15	刘云山	中央政治局委员·书记处书记·中宣部长	友好访问	2007.10.29~10.30
16	王家瑞	中联部长	中联部代表团	2008.1.29~2.2
17	习近平	政治局常委·国家副主席	正式友好访问	2008.6.17~6.19
朝鲜领导人访问中国				
1	金永南	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长	正式友好访问	1999.6.3~6.7
2	白南舜	外务相	正式友好访问	2000.3.18~3.22
3	金正日	总书记	非正式访问	2000.5.29~5.31
4	金正日	总书记	非正式访问	2001.7.10~7.14
5	杨亨燮	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 副委员长	正式友好访问	2002.10.15~10.19
6	金正日	总书记	非正式访问	2004.4.19~4.21
7	金永南	委员长	正式友好访问	2004.10.18~10.20
8	朴凤柱	内阁总理	正式友好访问	2005.3.22~3.27
9	卢斗哲	内阁副总理	正式友好访问	2005.12.24~12.27
10	金正日	总书记	非正式访问	2006.1.10~1.18
11	杨亨燮	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 副委员长	友好访问	2006.7.11~7.15
12	朴义春	外务相	正式访问	2008.4.26~4.29
13	金永南	委员长	参加北京奥运会	2008.8.7~8.9

资料来源：根据中国外交部网站及中国驻朝鲜使馆网站资料由作者整理

三. 中朝政治关系现状

进入新世纪以来，中朝关系站在新的历史起点上^①。两国领导人继往开来，高瞻远瞩，就巩固中朝传统友谊，发展两国友好合作关系，保持密切沟通，达成多项重要共识，确定了“继承传统，面向未来，睦邻友好，加强合作”十六字方针^②。金正日总书记先后4次访华，江泽民总书记和胡锦涛总书记也分别实现访朝^③。两国领导人的亲切关怀和直接领导为中朝关系发展提供了不竭的政治动力^④。在新时期，珍视友谊，继承传统，维护和加强老一辈革命家亲手缔造的中朝传统友谊，事关两国人民的根本利益，符合两国

人民的共同愿望；面向未来，与时俱进，不断发展和充实中朝友好合作关系的战略内涵，更是时代赋予中国和朝鲜人民的光荣使命⁹⁾

1. 恢复中朝两国最高领导人之间的来往⁹⁾

进入 21 世纪后，中朝关系在新的形势下取得了进一步的发展⁹⁾。世纪之交的 2000 年 5 月，在朝鲜半岛举行历史性的首次南北首脑会晤前夕，应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江泽民邀请，朝鲜劳动党总书记、国防委员会委员长金正日时隔 17 年对中国进行了非正式访问，宣告正式恢复了上个世纪 90 年代中后期一度停顿的中朝两国最高领导人之间的来往⁹⁾

此次金正日就任朝鲜劳动党总书记之后进行的首次访华，对于巩固和发展面向新世纪的中朝关系具有重要的意义⁹⁾。江泽民总书记与金正日总书记就进一步发展中朝两党两国关系、地区及国际形势等共同关心的问题深入交换了意见，取得了重要共识⁹⁾。双方表示，将共同努力，继承传统，面向未来，睦邻友好，加强合作，不断充实中朝友好合作关系的内涵，把两国友好关系推进到新的发展水平⁹⁾

2. 中朝两国领导人达成多项重要共识⁹⁾

(1) 朝鲜积极评价中国的改革开放政策取得的成就⁹⁾

2000 年 5 月，金正日就任朝鲜劳动党总书记之后首次访华时，就明确表示，朝鲜党和政府支持邓小平提出的改革开放政策；2001 年 1 月，金正日再次对中国进行了非正式访问，参观了上海城市规划展示馆·上海通用汽车有限公司·上海华虹 NEC 电子有限公司·浦东新区·上海贝尔有限公司·上海证券交易所·上海宝山钢铁(集团)公司·张江高科技园区和孙桥现代农业开发区等项目，听取了关于上海改革开放情况和发展进程的介绍，最后金正日强调指出，中国尤其是上海改革开放以来发生的翻天覆地的巨大变化，充分证明中国共产党实行的改革开放政策是正确的⁹⁾

2005 年 10 月，胡锦涛以中共中央总书记和国家主席的身份对朝鲜进行正式友好访问

9) 刘晓明，“继承传统，面向未来：共建中朝友好合作关系。”『刘晓明中国驻朝大使在金日成综合大学发表演讲』，2007 年 11 月 26 日⁹⁾

时，金正日总书记高度赞赏中国在建设中国特色社会主义进程中取得的成就，相信在胡锦涛为总书记的新一届中共中央领导集体领导下，中国人民在全面建设小康社会和实现祖国完全统一的宏伟大业中将会取得新的业绩^①

(2) 关于中朝关系未来发展方向

2001年9月，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江泽民访朝时，江泽民总书记与金正日总书记就进一步巩固和加强中朝传统友好合作关系达成了重要共识^②。双方共同确定“继承传统，面向未来，睦邻友好，加强合作”十六字方针，并以此方针继续巩固和发展由两国老一辈领导人亲手缔造和培育的中朝传统友好合作关系，努力把两党·两国和两国人民之间的友好合作关系推向更高的发展水平^③。

2005年10月，胡锦涛总书记访朝时两党两国的最高领导人为中朝关系发展进一步指明了方向^④。双方最高领导人深切地回顾了中朝建交56年来的发展历程，强调中朝友谊是两国老一辈领导人亲手缔造和精心培育的，是中朝两党两国和两国人民的共同财富，继续巩固和发展中朝友谊是双方共同坚持的坚定不移的方针，推动中朝友好合作关系是双方的共同责任^⑤。为此，双方一致表示，将继续“密切高层往来，加强相互沟通；拓展交流领域，丰富合作内涵；推进经贸合作，促进共同发展；积极协调配合，维护共同利益。”这表明，中朝两国根据双方面临的新形势，进一步丰富了“继承传统，面向未来，睦邻友好，加强合作”精神的内涵^⑥。

(3) 加强在国际和地区重大问题上的沟通·磋商与合作^⑦

2004年4月，金正日第三次对中国进行非正式访问时，胡锦涛总书记表示，为了在新的形势下把中朝友好合作关系提高到新的水平，建议双方进一步加强两党两国高层交往，增进相互理解与信任；加强相互交流，深化各个领域的全面合作；加强在国际和地区重大问题上的沟通·磋商与合作；进一步发展两国的经贸合作^⑧。

2005年10月，胡锦涛总书记访朝时中朝两国领导人共同重申继续推动通过对话和平解决朝鲜半岛核问题^⑨。胡锦涛总书记强调，在各方共同努力下，第四轮六方会谈取得了重要的阶段性成果；中方主张坚持半岛无核化的目标，坚持对话和平解决的方向，坚持维护半岛和地区的和平稳定，将同朝方以及有关方面共同努力，落实第四轮六方会谈共

同声明所提出的总体目标,推动第五轮六方会谈取得新进展。金正日总书记对中方致力于朝鲜半岛和平稳定和为此所做出的重要贡献给予了高度评价,重申朝鲜坚持半岛无核化,坚持通过对话和平解决问题的立场,认为第四轮六方会谈发表的共同声明具有积极意义,成果来之不易,表示朝方将根据已做出的承诺,如期参加第五轮六方会谈。

(4) 确认了中朝两国面临的共同任务

2005年10月,胡锦涛总书记访朝时中朝两国领导人互相通报了各自国内的政治经济社会发展情况。双方一致认为,中朝都在探索符合本国国情的发展道路,面临着发展经济、提高人民生活水平的共同任务。中朝保持经常性的交流,相互学习,相互借鉴,有助于推动各自国家的社会主义建设事业不断发展。

3. 从朝鲜对中国的战略价值上看,中朝关系中政治关系占主导地位

朝鲜对中国来讲,政治利益大于经济利益,全局利益大于局部利益,长远利益大于短期利益,潜在利益大于现实利益。因此,中朝关系的政治关系占主导地位,这一点在中国驻朝鲜大使馆公布的2007年中朝关系十件大事中也集中体现。¹⁰⁾在2007年中

10) 2007年中朝关系十件大事:第一,胡锦涛总书记分别通过刘云山书记、杨洁篪外长和刘晓明大使向金正日总书记转达了重要口信,胡锦涛总书记在口信中表示,中国党和政府十分珍惜并高度重视由两党两国老一辈领导人亲手缔造和培育的中朝传统友谊。中方愿与朝方一道,继续本着“继承传统、面向未来、睦邻友好、加强合作”的原则,认真落实近年来双方达成的重要共识,不断深化中朝友好合作关系,使之更好地造福于两国人民,并为实现本地区持久和平、共同繁荣做出更大贡献。第二,金正日总书记于3月4日元宵之际,应刘晓明大使的邀请到中国大使馆做客。刘晓明大使转达了胡锦涛总书记的亲切问候和重要口信。第三,朝方热烈祝贺中共十七大召开,金正日总书记对胡锦涛同志再次当选中共中央总书记、中央军委主席致电祝贺。朝党报《劳动新闻》用近一版的篇幅刊载了胡锦涛总书记在十七大上做的报告。第四,中共中央政治局委员、书记处书记、中宣部长刘云山同志于10月29日至30日访问朝鲜,与朝党中央书记崔泰福举行会谈,向朝方通报了中共十七大有关情况。这是中国共产党首次在党代会后派中央政治局委员来朝通报情况。金正日总书记予以亲切会见刘云山书记转达了胡锦涛总书记的亲切问候和重要口信。第五,外交部长杨洁篪于7月2日至3日对朝鲜进行正式访问,也是杨洁篪就任外长后第一次正式出国访问。金正日总书记予以亲切会见。杨洁篪外长转达了胡锦涛总书记的亲切问候和重要口信。第六,中朝政治磋商加强,两国在国际问题上密切合作。朝鲜外务省副相金永日、崔寿宪分别访华,中国外交部副部长武大伟访朝,访问取得成功。在国际舞台上,中朝相互支持,密切配合。朝方坚持一个中国政策,坚决反对台湾当局“台独”分裂活动,在涉台问题上予以中方坚定支持。中朝在联合国保持密切合作,朝方多次在国际机构竞选中支持中方候选人。中方支持联合国通过关于支持半岛南北双方加强对话和实现和平统一的决议案,反对有关国家提出无理指责朝鲜人权状况、干涉朝鲜内政的议案。中朝双方在六方会谈中进行了良好合作,与其他有关方一道促成“2.13”、“10.3”两个共同文件,为维护朝鲜半岛和东北亚地区的和平与稳定做出了贡献。第七,中朝经贸科技合作活跃。第八,中朝文化交流有声有色。第九,中朝双方确定将

朝关系十件大事中，关系到政治领域的就占八件，从中足以看到政治关系在中朝关系中占据的主导地位^①

4. 新时期中朝两国的党际关系正在加强。

中朝关系逐渐完成由意识形态导向到国家利益导向的转变；由意识形态主导转入开展正常的国家战略合作，两党关系一度疏远^②。其根本原因就是改革开放认识上的分歧^③。但是，新时期中朝关系的一大特点就是中朝两党关系日益密切^④。这一点集中表现在以下几方面^⑤。

(1) 2005年10月，胡锦涛访问朝鲜时的第一身份是中共总书记，具体访朝事宜也由中联部安排^⑥。胡锦涛总书记还建议双方进一步加强两党两国高层交往，增进相互理解与信任^⑦。

(2) 金正日积极评价中国的改革开放政策取得的成就，双方还一致认为，中朝都在探索符合本国国情的发展道路，面临着发展经济·提高人民生活水平的共同任务^⑧。

(3) 2007年10月，中共中央政治局委员·书记处书记·中宣部长刘云山访问朝鲜，与朝党中央书记崔泰福举行会谈，向朝方通报了中共十七大有关情况^⑨。这是中国共产党首次在党代会后派中央政治局委员来朝通报情况^⑩。

(4) 2008年6月，习近平副主席访朝同杨亨燮副委员长就中朝关系和加强双边交往与合作交换意见时提出了五点建议^⑪。其中，第一条就是保持高层交往势头，加强政治沟通^⑫。进一步密切两党之间的交往^⑬。就治国理政和党的建设交流经验^⑭。保持在重大问题上的沟通^⑮。

四. 中朝政治合作与朝鲜的变化前景

在新时期中朝政治关系的发展，是建立在中朝两国国家利益的基础之上，当前中朝两国共同的国家利益就是：中朝都在探索符合本国国情的发展道路，面临着发展经济·提高人民生活水平的共同任务^⑯。中朝保持经常性的交流，相互学习，相互借鉴，有助于推动各自国家的社会主义建设事业不断发展，而不是在意识形态主导下的阵营外

^①平壤作为奥运火炬传递城市^⑰第十，中方积极协助朝抗灾^⑱

交。在新的国家利益基础之上中朝政治关系的健康发展对朝鲜今后的发展将起到积极作用。

1. 朝鲜变化的关键

事实上，朝鲜的确发生了一些变化。其主要特点是¹¹⁾：

(1) “先行动，后理论”推进改革进程，即朝鲜没有通过召开党的代表大会来公布改革措施，也未提出有关理论，只是根据最高领导人的意志，通过内阁决定就开始了这些改革举措。

(2) “先外后内”选择改革切入点。朝鲜早在1984年就制定了〈合营法〉，这是朝鲜的首次改革尝试，1991年将罗津先锋地区定为经济自由贸易区是朝鲜的第二次改革尝试。这两次改革的切入点都是在特区和招商引资方面，均属于涉外经济领域。2002年7月，朝鲜所实行的经济调整措施是第三次改革尝试，而切入点却是物价和工资领域。这说明，朝鲜经过长期的探索后，已开始将改革范围由涉外经济转向了国内经济。以隔离方式管理特区。为了安全，朝鲜将特区与其他地区采取隔离方式进行管理，这一点是独到的“朝鲜特色”。朝鲜要在坚持计划经济的前提下，按照现实情况不断加强和完善对经济的管理，走出一条“朝鲜式”的现代化经济发展道路。

但是，所谓“改革”本身就包含了对过去和现实的某些否定因素，这就不可避免地与过去习以为常的思考方式·经济文化·利益结构发生冲突。因此，朝鲜今后推进改革过程中能否继续稳定国内政局事关重大。在此前提下，如果改革进展顺利就会深得人心，政局便更趋于稳定，反之就会人心相背。

2. 中朝政治合作可以使朝鲜更有效借鉴中国改革开放的发展思路

1998年金正日正式执政以后，又重新恢复了中朝两国最高领导人之间的来往，加强了中朝政治关系，在2000年至2006年间金正日先后四次访华，对中国的改革开放所

11) 于美华，“朝鲜特色经济调整：涉及面广 利弊共存”，『世界知识』，2003年第23期

取得的成就给予了高度评价¹²⁾。与此同时，朝鲜一直在探索符合本国国情的经济发展战略，尽管朝鲜至今并未脱离计划经济的基本框架，但开始吸收市场经济的一些合理因素来弥补计划经济缺陷，带有明显的实用性，应该充分肯定这是朝鲜经济建设理论的重大创新¹³⁾。

(1) 实利主义原则¹⁴⁾

实利主义原则是金正日就任朝鲜劳动党总书记后提出的第一个新观点¹⁵⁾。按照2004年9月，由朝鲜百科全书出版社出版的《朝鲜语词典》的解释，实利主义是“以获得实际利益为目的的计划和处理事务的工作作风”。

根据朝鲜理论工作者的研究成果，实利主义有两层含义：

第一层是建设繁荣富强的国家切实为人民生活带来实惠¹⁶⁾。金正日总书记也指出：“在社会主义经济建设中保障实利，就是指有效利用社会人力·物力资源，为国家的繁荣富强和人民福利带来实际利益”。

第二层是在经济建设中讲求效益，即在生产 and 建设中合理使用人力·物力资源，以最小的投入创造最大经济效益¹⁷⁾。比如，2004年4月朝鲜通过修订《财政法》，把企业经营的最大目标由“减少成本”改为“增加净收入”，促使企业朝着利润导向型经营方向发展¹⁸⁾。

此外，实利主义还包含着对过去脱离实际利益的虚假作风·不精打细算的经营手段和对产品质量麻木不仁的不良现象的批判¹⁹⁾。目前，实利主义是在朝鲜的各项工作中必须遵循的原则²⁰⁾。朝鲜的经济学家形象地比喻，如果和中国相比较，实利主义与中国的实事求是相似²¹⁾。从这一点，可以说实利主义原则将成为朝鲜人民解放思想，推进经济改革的理论基础²²⁾。

(2) 确立以经济建设为中心的发展战略²³⁾

朝鲜确立以经济建设为中心的发展战略，主要体现在朝鲜“建设社会主义强盛大国”

12) 朴永根(朝鲜)，“经济管理中坚持社会主义原则下保障实利的原则问题”，『社会科学院学报』，2004年第2期

13) 同上¹²⁾。

14) 张石，『金正日时代的朝鲜，今天和明天』(平壤人民出版社出版，2005. 6)

奋斗目标上。朝鲜关于“建设社会主义强盛大国”的战略目标，首见于1998年8月22日朝鲜劳动党机关报《劳动新闻》政论《强盛大国》，这篇政论指出，朝鲜现在面临着建设强盛大国的新的宏伟目标。

从1998年8月至今，朝鲜关于“社会主义强盛大国”的概念，经历了一个演变过程。随着强国战略内涵的不断丰富和完善，经济因素在其中的地位不断提高，建设强盛大国的经济发展战略开始逐渐清晰起来。如果说它在最初阶段主要起到了树立金正日领导体制的权威·团结民众的作用，那么它现在就像金正日所说的那样，已经成为21世纪朝鲜的国家发展战略目标。在这个过程中，经济的地位不断提高，发展经济已经成为整个国家的中心任务。再从“社会主义强盛大国”的内容上看，这里包括建设军事强国·政治强国和经济强国，朝鲜认为，在这三个战略目标中，军事强国和政治强国已经实现，只剩下建设经济强国的任务。因此，“社会主义强盛大国”奋斗目标意味着经济建设是当前朝鲜的中心任务。

(3) “新思考”观点

2001年元旦，朝鲜通过《劳动新闻》·《朝鲜人民军》·《青年前卫》共同社论提出了“新思考”，强调“适应新时代要求，要在思想观点·思考方式·斗争风气和工作作风上带来根本的转变是摆在我们面前的首要问题。”金正日总书记也指出，我们已经进入了新的时代，不能站在以往奠定的基础上按老样式生活，要根据新时代的要求更新其面貌，不能为旧的观点所束缚，抱着过去旧的·落后的东西不放，该抛弃的要大胆抛弃，“在21世纪要以新观念，从新高度出发对待·解决所有问题”。朝鲜《劳动新闻》社论也指出“要大胆变革”，“进一步改善朝鲜的经济管理体制，适应新环境·新气候的要求”，新世纪劳动党优先解决的最重要的问题是使朝鲜人民的思想观念·思考方式和工作作风符合新世纪的要求。

以上经济改革理论的共同点是，均在不同角度强调了为经济发展必须变革的观点。就以上观点的相互关系而言，实利主义原则是改革的理论基础和原则；建设社会主义强盛大国战略是经济改革的目标和方向；“新思考”观点是经济改革的方法论。由此看，可以认为朝鲜基本建立了经济改革的理论框架。

2. 中朝政治合作是朝鲜今后发展的有力后盾^①

(1) 中国是朝鲜经济发展的有力后盾^②

如前所述，中朝关系中政治关系占主导地位，换言之，紧密的政治关系推动中朝经济合作。中国正实现和平崛起，“聚精会神搞建设，一心一意谋发展”，大力推进中国的现代化事业，就是中国的根本利益。邓小平指出，发展是中国“最大的政治”，也代表着中国人民的“最大利益”。与此同时，中国需要长期的和平环境。中国要真正实现经济腾飞进入世界一流强国的行列需很长时间的努力。因此，为了实现中国的现代化建设目标，构筑和平的国际环境将是今后中国对外关系长期坚持的目标，尤其是要确保周边地区的稳定。对中国来说，搞好周边关系·改善周边环境，与支持国内建设具有头等重要的意义。因为，创造睦邻友好的周边环境，最首要的是要控制好周边的热点问题，我们最大的机遇在周边，最大的挑战也在周边；最有希望的在周边，最容易出问题的还是在周边。为此，中国在坚持传统睦邻友好政策的基础上，针对周边国家进一步提出了“以邻为伴·与邻为善”和“睦邻·富邻·安邻”的政策方针。

这从两方面体现了中国传统睦邻政策在新时期的进步和升华：第一，它把中国自身的发展与这种发展对邻国的影响作为一个统一体全面地加以看待，使中国的睦邻政策更富于开放与合作精神；第二，它把共同安全与共同发展的理念转化为“富邻”·“安邻”的具体方针，并以此作为睦邻政策的基础。中朝都面临着发展经济·提高人民生活水平的共同任务，因此，中朝政治关系的发展必然推动两国经济合作与交流。

(2) 中国是为朝鲜发展营造良好外部环境的重要力量^③

2005年4月，在雅加达召开的亚非峰会上，国家主席胡锦涛首次提出了“共同构建一个和谐世界”的主张。同年9月在联合国成立60周年庆典上，胡锦涛主席系统地阐述了“建立持久和平·共同繁荣的和谐世界”的新理念。和谐世界的思想比较集中地表明了中国政府对国际局势和全球治理的原则性立场，体现了中国在21世纪初的全球战略。这种建立在和谐世界理念之上的全球战略，就是中国的和谐外交。和谐外交的主要策略可以概括为16个字：对话协商·合作共赢·求同存异·包容开放。和谐外交主张通过平等的·友好的·坦诚的对话与协商，增加相互理解·相互信任和相互尊重，以便达成最大限度的共识。和谐外交主张通过平等互利的合作，谋求各方最大的共同利益，

达到双赢或多赢的目的；和谐外交力求减少国与国交往过程中的分歧和不同，努力扩大双方的共识。双方暂时无法取得共识的问题，则采取搁置争议、着眼未来的方针；和谐外交承认世界文明和民族文化的多样性，主张对各国不同的政治、经济和文化采取包容和开放的态度，反对把自己的文明、价值和制度强制推行给其他国家¹⁵⁾。由此可见，中国的和谐外交战略不仅有利于中朝政治关系的发展，而且有利于为朝鲜的发展营造良好的外部环境。

五. 结束语

本文的核心议题是中朝政治关系对朝鲜的变化产生何种影响的问题。在本文中得出的基本结论有以下三点：

第一，半个多世纪以来，中朝各自探索符合本国国情的发展道路，两国都尊重对方的选择，并互相帮助和支持。不管国际风云如何变幻，中朝政治关系一直是稳固的，经得住考验的。在新时期，珍视友谊，继承传统，维护和加强老一辈革命家亲手缔造的中朝传统友谊，事关两国人民的根本利益，符合两国人民的共同愿望；面向未来，与时俱进，不断发展和充实中朝友好合作关系的战略内涵，更是时代赋予中国和朝鲜人民的光荣使命。

第二，在新的国家利益基础之上中朝政治关系的健康发展对朝鲜今后的发展将起到积极作用。

第三，在新时期，中朝两国领导人继往开来，高瞻远瞩，在新起点上巩固中朝传统友谊、发展两国友好合作关系。在此过程中，朝鲜改变过去的观点支持中国的改革开放政策，高度赞赏中国在建设中国特色社会主义进程中取得的成就。与此同时，朝鲜在改变中国发展道路的观点过程中，又在国内一直探索符合本国国情的经济发展战略，开始吸收市场经济的一些合理因素来弥补计划经济缺陷，带有明显的实用性，应该充分肯定这是朝鲜经济建设理论的重大创新。

尽管如此，朝鲜的变化之路将是艰难曲折。

第一，如前所述，朝鲜今后推进改革过程中能否继续稳定国内政局事关重大，是朝鲜

15) 俞可平，《瞭望，新闻周刊》，2007年4月24日。

能否推进改革的关键因素。迄今为止的研究结果几乎一致地认为是朝鲜的改革冲击波可能导致朝鲜的政局不稳定，然而，朝鲜政局的不稳定可能开始改革之前就会出现，换言之，朝鲜一旦举起改革大旗时究竟能有多少人支持是一个未知数，这才是朝鲜迟迟不能下决心改革的原因所在。对这样一个“先天不足”的国家要求从内部推动改革显然是不合情理的，应该从外部创造一个宽松的环境，逐渐培育朝鲜的改革力量。

第二，朝鲜问题的关键是经济发展。目前，朝鲜的主要问题表现在经济问题和军事（安全）问题，但归根结底是经济问题，没有经济基础支撑的强大军事是不会存在的，即使存在也是短暂的、脆弱的，因此，经济问题得不到解决，朝鲜的安全问题也得不到根本解决。可以说，核问题在内的朝鲜安全问题是朝鲜经济问题的外在表现。由此可见，解决朝鲜问题应该从发展朝鲜经济入手，为了发展经济就要推动朝鲜的改革，但是由于朝核问题严重阻碍朝鲜经济的正常发展。假如解决了朝核问题，但朝鲜依然处于原有体制，朝鲜的经济仍然得不到发展。总之，不应该把解决朝核问题设定为前提，而是应该把解决朝核问题与发展朝鲜经济有效结合起来。

第三，尽管中朝政治关系朝着健康方向发展，但也有分歧。尤其是，朝核问题折射出了中国与朝鲜之间存在着相当分歧甚至是某种程度上的互不信任，反映出中朝关系尚存在一定问题的客观现状。

中国把“和平崛起”为国际战略抉择。在处理国际关系时，中国始终坚持将中美关系置于“重中之重”的位置，始终坚持“发展合作，不搞对抗”的基本立场，始终把握“坚持原则，不失灵活”的政策方针。因此，在解决朝核问题上中国的战略目标是：既能和平解决危机实现朝鲜半岛无核化，又能维护朝鲜半岛的和平与稳定；既能维护中美关系的现状甚至得以发展，又能维护与朝鲜的传统友谊。而朝鲜认为，小国的生存方式有两种，一种是依附于大国，另一种是自力更生。朝鲜选择了自力更生。其理由是朝鲜认为，中国在关键时刻总是放弃朝鲜，主要原因是中国的力量比不过美国，也就没有保护朝鲜的能力。所以，朝鲜是谁也不依靠，走自力更生道路。这是朝鲜处理和发展朝中关系的基本出发点。这正是朝鲜一方面积极发展朝中友谊，另一方面在关键时刻朝鲜“无视”中国的根本原因所在。

总而言之，朝鲜的发展更多是国际层面的问题，国际社会应该积极努力为朝鲜的经济发展营造更为良好的外部环境，这是朝鲜发生变化推动经济发展的根本途径。

参考文献

- 陈峰君.『冷战后亚太国际关系』.新华出版社,1999年°
- 张石.『金正日时代的朝鲜,今天和明天』.平壤人民出版社出版,2005年6月°
- 孟庆义·赵文静·刘会清.『朝鲜半岛:问题与出路』.人民出版社,2006年12月°
- 刘长敏.『论朝鲜核问题解决中的国际斡旋与调停』.中国政法大学出版社,2007年3月°
- 于美华.“朝鲜特色经济调整:涉及面广利弊共存.”『世界知识』.第23期,2003年°
- 朴永根.“经济管理中坚持社会主义原则下保障实利的原则问题.”『社会科学院学报』.第2期,2004年°
- 宋衍涛·陈明凡.“政治合作与政治冲突的互动关系研究”『北方论丛』.第01期,2005年°
- 李南周.“朝鲜的变化与中朝关系—一个韩国学者的视角.”『现代国际关系』.第9期,2005年°
- 李敦球.“中朝:从友好邻邦到友好合作伙伴.”『世界知识』.第22期,2005年°
- 邱震海.“中朝:从意识形态到战略合作.”『凤凰卫视时事评论』,2005年10月29日°
- 陶常海·李晓光.“一条线外交政策下的中朝关系”『安徽教育学院学报』.第24卷第05期,2006年°
- 刘晓明.“继承传统,面向未来:共建中朝友好合作关系.”『刘晓明大使在金日成综合大学发表演讲』,2007年11月26日°
- 于美华.“中朝关系在世界形势变革中与时俱进.”『世界知识』,2008年2月°
- 中国外交部网站°

中朝经济关系的现状与前景

吕 楚 (中国辽宁社会科学院, 朝鲜韩国研究中心, 教授)

一. 中朝经济合作的自然条件和自然资源的合作

1. 自然状况

朝鲜是中国的近邻, 两国山水相连. 中朝边界以鸭绿江·图们江为两国界河, 鸭绿江发源于长白山南麓, 全长 759公里, 流域 62,703.2平方公里。辽宁省和吉林省沿鸭绿江·图们江与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分界, 以河流为天然国境线。中朝划界方式虽然是以江为界, 但与国际惯例完全不同。比如中俄之间的分界是以黑龙江的中心主航道为界, 江心岛·沙洲也以主航道为界划定归属, 这种划分方式属于世界各国普遍接受的国际惯例。但是中朝边界则是任何时候都以江水水面的宽度为界, 界河为两国共有, 由两国共同管理·共同使用, 包括航行·渔猎和使用河水。界河中的岛屿和沙洲划分依据是:

- ① 在中朝边界条约签订之前(1962年 10月 12日签订) 已有一方公民定居或耕种的岛屿和沙洲, 即成为该方的领土, 不再改变;
- ② 除此之外的岛屿和沙洲, 靠近何方江岸则属于何方, 位于两岸正中的由双方协商确定其归属;
- ③ 处于一方河岸和其所属岛屿之间的岛屿和沙洲, 虽然靠近另一方的河岸或在两岸正中, 仍然归该方所有。

由于江水冲积, 江流改道等原因, 江中洲岛经常发生变化, 中朝政府每年都要进行定期会晤, 讨论洲岛变化和江水改道带来的新问题。

中朝边界线总长度为 1,334公里, 其中陆界45公里; 水界分为鸭绿江界803.2公里·图们江界 485.8公里(中朝国界在图们江距出海口 15公里 处的防川为止, 防川以下的图们江为俄·朝国界)°

辽宁、吉林两省边疆区位对比表

项目 省份	面积 (平方公里)	国界线 (公里)	边界长		接壤国量
			朝鲜 (公里)	俄罗斯 (公里)	
辽宁	14.75万	577	577	-	1
吉林	18.74万	1,438.7	1,206	232.7	2

中朝边界的吉林段为图们江和鸭绿江上游。图们江名称来源为满语tumen ula, “图们江”的汉语意思是: 万江之源, “图们”是满语“一万”的意思。韩语作 Tuman-Gang, 就是来自于满语(tumen) 和汉语(gang)° 朝鲜称 “豆满江”。中国东北与朝鲜北部的界河° 下游为朝鲜与俄罗斯界河° 图们江源出中朝边境上的白头山(海拔 2,744米), 经狭谷, 流向东北转东南, 注入日本海° 为朝鲜的第三长河, 全长 521公里(324哩), 通航里程85公里(53哩), 流域面积 10,513平方公里(4,059哩)° 上游的茂山附近有铁矿, 中游的钟城·稳城和阿吾地区蕴藏褐煤, 下游为朝鲜半岛矿产资源最丰富的地区° 河口附近的雄基有铁路通俄罗斯的克拉斯基诺(Kraskino)°

图们江也是中国延边朝鲜族自治州第一大河, 金·元称爱也窟河, 其下游段称统门河, 明称啊也苦河, 其下游段称徒门河, 清称河源段为大浪河, 红旗河口以下称图们江° 1962年 中朝两国协定, “红土水”与溺流水以下称图们江° 朝鲜语称豆满江° 图们江发源于长白山东南部石乙水, 流经中朝边界, 向东北又折向东南, 其干流流经和龙·龙井·图们·珲春四市° 珲春市敬信镇防川的土字牌(清朝时期所立的中俄界牌) 附近为中·俄·朝的三国分界处° 在东经 130度 42分, 北纬 42度 17分处出境流入日本海° 干流全长 525公里° 流域面积中国一侧 2.2万平方公里° 中朝界河段 510公里° 土字牌以下 15公里 为朝俄界河段° 河道总落差 1200米° 滞道平均坡降 1.6%, 沿途接纳 10公里 以上的支流 180条, 30公里 以上的支流 30条, 在中国境内主要支流有红旗河·嘎呀河·布尔哈通河·海兰河·珲春河等, 图们江与红旗河汇流处以上河源区, 为长白山主峰地域, 崇山峻岭, 森林茂密, 人烟稀少, 交通不便°

中朝边界辽宁段基本上为鸭绿江水界。鸭绿江，汉称“马訾水”，唐称“鸭绿水”，宋辽时期始称鸭绿江。鸭绿江发源于长白山南麓，向西南流经吉林省的长白·临江·集安，由集安与浑江水汇流入辽宁省境内的宽甸·丹东·东港，在东港市的赵家沟附近注入黄海。全长 795 公里，流域 62,703.2 平方公里。在辽宁省境内汇集大小支流 50 余条，主要有浑江·大蒲石河·大安平河·叆河·大沙河等。鸭绿江中上游，两岸多高山，河道落差大，江水多沿隘谷·嶂谷·峡谷流动，河床多为大卵石·大块石组成，并有基石出露。两岸高山连绵，河谷切割较深，河道弯曲。鸭绿江下游被水丰大坝和太平湾大坝拦截为三段，形成水丰库区和太平湾库区。吉林省的海关村(朝方为新岛场) - 辽宁省的拉古哨(朝方为水丰洞) 间为水丰库区。这段边界基本为吉林省段。

鸭绿江平均每年流入黄海的总径流量为 300 多亿立方米。建有云峰(中朝合建)·渭源(朝方)·水丰(中朝共管)·太平湾等水电站。鸭绿江丰富的水利资源为中朝共有·共管，其开发主要以电力为主，结合灌溉·航运等综合利用。

据朝中社报道说，朝鲜与中国 2007 年 6 月 5 日 在平壤举行第 46 次“朝中国界河川航行合作委员会会议”，并就河川的航行等利用签订了协议。朝鲜代表团长李南正与中国团长张勇在协议上签字。据了解，朝中两国从 1960 年 5 月 在北京召开首次会议之后，每年就两国国界河川的航行等利用问题，每年轮流举行会谈。

中朝两国在鸭绿江界河上修建了一些工程。在辽宁段有水丰大坝(发电站)·哑巴沟小坝(溢洪道)·太平湾大坝(发电站)·上河口铁路桥·长甸河口公路桥(1951 年被美机炸毁)·丹东中朝友谊铁·公路两用桥·丹东中朝友谊地下输油管道·中朝友谊国际输电线路·中朝友谊国际通讯线路等。以上为两国共有工程。中朝两国还在鸭绿江岸各自修筑了大量的护岸堤·导流坝·水闸·抽水站等设施。

鸭绿江界河工程主要设施是：

水丰发电站位于辽宁省宽甸满族自治县长甸镇拉古哨村，朝鲜平安北道朔州郡水丰工人区，距丹东市 76 公里。水丰发电站始建于 1937 年日伪统治时期，由当时的伪满洲国与朝鲜伪总督府共同投资建设，1943 年建成。1945 年 日本投降前，已安装了 6 台发电机和 7 台水轮机。1955 年 4 月 17 日 中朝两国政府签订了《关于鸭绿江水丰发电厂的协议》，5 月 7 日 又签订了《关于中朝鸭绿江水丰水力发电公司议定书》，明确规定了水丰水力发电站的全部资产为中朝两国共有。抗美援朝战争期间美国轰炸机炸毁了发电站，1958 年 改建竣工。现厂内装有 7 台水轮机组(1 台备用)，发电量 60 千瓦，控制鸭绿江

流域面积 51,200平方公里。水丰水库正常高水位 123.3米,死水位原设计 95米,水库有效库容量 79.3亿立方米,最大库容量 147亿立方米。水丰发电站由朝方管理运行。

哑巴沟小坝属备用溢洪道,位于宽甸满族自治县长甸镇碑碣子村哑巴沟,与1939年始建,1945年 8月竣工,1946年 被水冲毁,1958年 改建完工。是弥补水丰大坝泄洪用的。哑巴沟小坝共有 18孔,每孔宽 9米,总宽213米,顶部高程 116米,以 10×9米的平板闸门关闭。哑巴沟小坝由朝鲜负责管理维修,看护任务由中国负责。

太平湾水电站为中朝合营的电站,位于鸭绿江下游,是鸭绿江干流梯级电站之一。电站中国一侧为宽甸县古楼子乡太平湾村,朝鲜侧为朔州郡方山里。坝址距上游水丰电站 29.6公里,距下游丹东市40公里。电站由两国共同投资兴建,我国负责设计施工,建成后由我国管理运行,分别向中朝两国电网送电。电站装4台水轮发电机组,总装机容量190MW,平均年发电量 7.2亿kw·h,是一座以发电为主的电站,同时考虑下游航运·生活及工农业用水的需要。1987年 10月 竣工发电。

上河口——清水桥位于中国凤上铁路终点,上河口至朝鲜朔州郡清水工人区间。该桥于 1940年 4月竣工,桥全长673米,宽3米,高20.8米,共29空,梁部结构。1951年遭美机轰炸,但是为了抗美援朝战争运输需要,采取了临时措施,但1954年 停止使用。由于战争破坏·洪水冲刷·多年失修,钢梁锈蚀严重,桥枕木腐朽,需要大修才可开通使用。

长甸河口——清城公路桥始建于 1937年,1950年 抗美援朝战争时使用,1951年 被美机炸断,至今未修复使用。

丹东中朝友谊铁·公路两用桥位于沈丹铁路终点,丹东至新义州间,始建于 1941年全桥共12孔,西侧为铁路线,东侧为公路线。全长940米,桥面宽 9米,高 16.2米。1954年 6月以前由我方负责维修,之后我方负责维修和警卫跨度 90米 的6孔,全长570米。朝方负责维修警卫跨度90米 的6孔,全长370米。这是中朝边界辽宁段中朝运输惟一正在使用的桥梁,桥上公路路面仅能够通行一台汽车并且年久失修,路面损毁严重。

丹东市中朝双方设国际通行口岸1处——丹东至新义州国际通行口岸,设边境通行口岸1处——太平湾至朝鲜方山里边境通行口岸。为方便两国边境贸易还增设临时过货口岸多处。有国家开放一类口岸2个(丹东·东港),二类口岸2个(太平湾·大台子),有渔港11处,停泊点 78处。

丹东市是我国目前最大的边境城市，工·农业都比较发达。丹东交通运输业发展较快，铁路·公路交错，水运·空运相加，形成了海·陆·空一体，四通八达的交通运输网体系。人民生活水平在辽宁省属中上游。

中朝边境朝鲜方面自然状况。

辽宁与朝鲜的平安北道的新义州市·盐州郡·薪岛郡·龙川郡·义州郡·朔州郡·昌城郡·碧潼郡，还有慈江道的楚山郡·雫时郡(2道·1市·9郡)隔江相望。朝鲜边境地区总人口约200万。朝鲜边境的主要城镇是新义州市(北城区)·盐州邑·绸缎岛工人区·西湖工人区·龙川邑·龙岩浦区·义州邑·德龙工人区·德砚工人区·朔州邑·水丰工人区·清水工人区·碧潼邑·雫时邑·发银工人区。新义州市是朝鲜最重要的重工业城市之一。

朝鲜平安北道的简要概况如下：

① 自然地理条件

平安北道位于朝鲜西北部，东与慈江道·南与平安南道相邻，西临西海，北隔鸭绿江与我辽宁省相望。面积为12,300平方公里(约相当于朝鲜全境面积的1/10)。总人口约为220万。目前平安北道的道内行政区划为：道辖2个市(新义州市·龟城市)·21个郡(义州郡·枇郡·盐州郡·铁山郡·东林郡·宣川郡·郭山郡·定州郡·云田郡·博川郡·宁边郡·球场郡·泰川郡·云山郡·东仓郡·碧潼郡·昌城郡·朔州郡·大馆郡·龙川郡·天摩郡)和一个地区委员会(薪岛—绸缎岛地区委员会)。原香山郡(即妙香山所在地)于1986年划归中央直属。道会(首府)为新义州市，人口28万(1987年)。在成立新义州特区时朝鲜曾计划兴建南新义州，然后把道会迁往该地。

平安北道的铁路·公路·河运·海运在朝鲜国内都是比较发达的。该道内铁路有7条，新义州通往平壤的铁路已实现了机车电气化。新义州同我国丹东有国际联运。主要公路有6条，其中较长的一条是新义州—朔州—碧潼段的鸭绿江沿江公路。江上和海上的主要港口有新义州·龙岩浦·薪岛和铁山。新义州至龙岩浦，水丰至碧潼都经常有客轮和货轮往来。朝鲜边境地区的铁路·公路(相对于朝鲜国内来讲)比较发达，主要边境口岸都有铁路·公路与内地相连。边境郡与郡之间，一线前沿的里与里之间均有公路相连。但是其铁路设施老化·电力不足；公路多为砂石路面，交通受气候·季节影响较大。朔州郡以北地区，冬季大雪·夏季山洪经常造成交通中断。铁路有两条纵干线与

丹东·长甸上河口铁路相连接° 主要纵向公路的北段伸展到鸭绿江边，至新义州的纵向公路与我丹东公路隔江相连°

平安北道的教·文·卫事业都相当有基础° 现在有各级各类学校 1,600多所° 其中,小学(人民学校) 650所, 中学(高级中学)630所, 高等专科学校 35所(其中农专 19所), 大学 8所(师范大学·“共产主义大学”·农业大学·医科大学·“教员大学”·“教养员大学”·工业大学等); 还有工厂办的“大学 13所·“高等专科学校” 30所·“勤劳者高级中学”(即劳动人民业余中学) 250 所还有幼儿园 3,000所° 各级各类学校在校学生 70多万人, 占全道人口的三分之一° 城乡普及了 11年(包括学前教育)免费义务教育制度° 全道各市·郡都设有剧场·“文化会馆”·图书馆·电影院·俱乐部° 道内各市·郡和工人居住区都设有医院° 据称, 每个里(相当于我国的乡)都实现了“诊疗所医院化”。朝鲜全社会实行免费医疗° 不过普通朝鲜医院大多缺少医疗设备·医药, 军队和大城市的高级干部就医情况略好一些, 而平民就医非常困难°

2. 中朝电力合作

鸭绿江水利资源丰富, 全长 795公里, 发源于长白山南麓, 注入黄海° 鸭绿江上下游落差高达 2,400米, 蕴藏着丰富的水力资源° 平均每年流入黄海的总径流量为 300多亿立方米, 开发主要以电力为主, 结合防洪·灌溉·航运等综合利用° 目前中朝鸭绿江干流已建电站有, 云峰发电厂·渭原发电厂·水丰发电厂·太平湾发电厂等°

2006年 中国和朝鲜在界河鸭绿江上游合作建设望江楼(林土) 和文岳(长川)两座水电站° 2006年 5月 14日, 中朝两国有关方面就合作开发建设文岳(长川) 电站项目在吉林省长春市举行签约仪式° 该电站总装机容量为 4.2万千瓦时, 年发电量 1.6亿千瓦时, 总投资4亿元人民币° 朝方为解决该电站的建设资金问题, 通过招商, 由中国辽宁格林斯投资有限公司投资 4,500万美元建设该电站, 朝方则用电力偿还中方的全部投资°

为了充分有效地利用鸭绿江水力资源, 1995年 12月 1日, 中朝水力发电公司理事会第 48次会议确定, 由中方投资建设望江楼(朝鲜名为林土)电站, 朝方投资建设文岳(中国名为长川) 电站° 望江楼(林土)电站中方侧位于吉林省集安市青石镇望江村附近, 朝方侧位于林土火车站上游 5.5公里处, 中方侧位于集安市青石镇长川村附近, 总长 602.7米, 坝高 15.5米, 厂房布置在朝鲜一侧°

2004年3月吉林省集安市政府通过招商引资,成立了集安望江楼水电有限公司,负责望江楼电站项目。根据对等原则,望江楼(林土)和文岳(长川)两座水电站2006年同时开工建设。云峰发电厂·渭原发电厂·水丰发电厂·太平湾发电厂归属于设在沈阳的中朝水力发电公司,公司设立理事会。在中朝边境吉林省段内的云峰发电厂和渭原发电厂由电厂委托朝方运行管理。水丰发电厂和太平湾发电厂在中朝边境辽宁段境内,由电厂委托中方运行管理。水丰发电厂多年平均发电量为40亿千瓦时;云峰发电厂多年平均发电量为15亿千瓦时;渭原发电厂多年平均发电量为12亿千瓦时;太平湾发电厂多年平均发电量为7.7亿千瓦时。1969年朝方提出要在水丰大坝旁建一地下电站,从水丰水库引水发电。1971年2月第24次理事会通过了‘关于水丰水库两侧修建地下电站问题’的决议,决定中朝双方在自己境内各自修建一座装机容量为15万千瓦的地下电站。1985年中方据此开始建设长甸电站,1988年建成。长甸电站和太平湾电站执行一厂(太平湾发电站)两站的管理方式。中朝水力发电公司所属的四个发电厂是公司的基层单位,所发电量中朝双方各半分配,公司年平均发电量总计约为75亿千瓦时,为中朝两国的经济建设做出了巨大贡献。中朝两国的电力合作事业也有过不顺利的情况,在上世纪80·90年代,朝鲜以国内经济困难·能源短缺为由,经常在枯水期时过多地占用所发电量,而在汛期时再将多占用的电量返还给中方。枯水期和汛期的电价有区别,因此中方不免蒙受损失。由于朝方管理运营的两座电厂装机容量大,因此朝方在电力分配方面占据主动,因此朝方往往过多地占用所发的电量,比例达到朝方占60%,中方占40%。中方曾免除过朝方所欠电量的债务,部分所欠电量朝方虽然已开始逐年偿还,但朝方欠中方的电量仍然为数很多。多年来朝鲜的电力紧张问题一直未得到解决,但是2005年起朝鲜向丹东出售了相当数量的电力,这表明朝鲜工业发展已经停滞,为获取外汇对自己也急需的电力实施了出口。

二、中朝经济贸易关系的历史与现状

1. 中朝贸易的历史发展

中朝贸易始于1950年。1992年以前主要采取政府间记账贸易方式。1992年两国政府签订新的贸易协定,取消政府间记账贸易后,中朝贸易曾一度增至1993年的8.99

亿美元，创历史新高。此后，受朝鲜经济面临暂时性困难等影响，中朝贸易连年下滑，1999年降至3.7亿美元。

二十世纪七十年代后，中国同朝鲜签订了〈1971年-1976年相互供应重要货物协议〉。中国每年向朝鲜提供50万吨石油。1976年1月，中朝两国共同建设的中朝友谊输油管开通，1976年至1979年间，中国每年以优惠价格向朝鲜提供100-150吨石油，占朝鲜石油需求量的30%。与此同时，中国免除了五十至六十年代中国向朝鲜提供的贷款中尚未偿还的部分。

八十年代后，中国除继续向朝鲜提供优惠价格的石油外，每年还向朝鲜提供价值达4,000万美元的焦炭和100吨以上的食品援助，并且提供以轻工业为主的经济援助。1984年，中国向朝鲜提供了4亿美元的贷款。中国援助朝鲜改装鸭绿江上三座水力发电厂的输电线路，1982年，中国帮助朝鲜兴建了发电量为19万千瓦的太平湾电站，帮助朝鲜在新义州建设了炼油厂（年处理量为200万吨，由中国提供原油），帮助朝鲜建设熙川五一燃料厂·平壤齿轮厂·计量器厂。1988年，中国帮助朝鲜建设海州造纸厂·新义州纤维厂·咸兴钢笔厂·收音机零件厂，并扩建平壤市电网。

1996年，朝鲜和中国签订〈中朝经济技术交流协定〉。1996年，中国无偿支援朝鲜12万吨粮食，1997年，中国无偿支援朝鲜20.7万吨粮食，1998年，中国无偿支援朝鲜10万吨粮食和2万吨化肥，1999年，中国无偿支援朝鲜15万吨粮食和40万吨焦炭。

总之，九十年代尽管朝鲜处在经济停滞时期，但中朝经济关系仍十分活跃，呈上升趋势。

进入新世纪以来，随着朝鲜经济逐渐恢复，中朝贸易迅速回升，尤其是2003年以来连创新高。贸易额由1999年的3.7亿美元增至2005年的15.8亿美元，6年间年均递增27.4%。

中国与朝鲜的双边贸易在2005年一年中增长14%。2005年的贸易额已接近16亿美元。朝鲜从中国进口了10亿多美元的商品，包括石油和玉米，向中国出口了5亿美元的商品，主要是煤炭和铁矿石。韩国贸易协会说，中朝双方贸易额的增加得益于双方经济关系的迅速扩展和中国对朝鲜矿业投资的持续增加。

2006年1月中旬，朝鲜劳动党总书记金正日对中国进行了非正式访问。观察人士分析说，种种迹象表明中朝两国的经贸合作进入了一个新的历史时期，朝鲜欢迎中国企业赴朝投资的意愿十分明显。随着贸易的拓展，中国企业赴朝投资商机日益扩大，朝

鲜有望成为中国对外投资的新选地°

从朝鲜经济发展的情况来看，2005年 朝鲜经济发展曾现出诸多有利于外资进入的背景° 首先，困扰朝鲜多年的粮食问题有所缓解° 朝鲜 2005年的粮食产量达到近十年来的最高水平°

朝鲜官员曾透露，朝鲜每年食用粮食的最低需求量为 380万吨，超过部分可以用于发展畜牧业和其他工业° 朝鲜政府在粮食问题得到缓解后， 将把经济发展的重点转移到其他经济领域°

其次，朝鲜政府积极促进与中国的经贸合作° 以美国为首的经济制裁使朝鲜的对外合作受到了极大的限制° 特别是 2005年 10月 美国以朝鲜制造假币和洗钱为名对朝鲜实施金融制裁，使本来外汇短缺的朝鲜经济更是雪上加霜° 目前与朝鲜开展经济合作的国家主要是中国和韩国，2004年 中国和韩国与朝鲜的贸易额约占朝鲜对外贸易总额的 60%° 2005年 1月至 11月 中朝贸易总额达到 14.6 亿美元，韩朝贸易总额达到 9.7亿美元，中韩两国对朝贸易可能达到朝鲜对外贸易总额的 65%°

这种现象表明，朝鲜不愿意完全依赖与韩国的经济合作，更多地希望与中国开展经济合作，以此推进对外经济交流，同时谋求在中韩两国之间保持比较平衡的经贸合作态势°

中朝投资合作互惠互利° 2005年 中朝两国高层互访格外频繁，关注的焦点主要是经贸合作问题° 两国政府首脑签订了一系列有关经贸合作的协议，如〈关于投资优惠和保护协议〉等，为投资合作提供了法律保障°

温家宝总理在 2006年 1月 中旬与金正日总书记会见时提出了“政府引导，企业参与，市场运作”的经济合作方针° 此方针的一个深层次含意是中朝经济合作将改变过去的传统方式，进入互惠互利·共同发展·合作双赢的新时期，也为不断开辟新的合作领域和途径，推进两国经贸合作，共同发展提供了运作准则°

尽管目前朝核问题还存在诸多不确定因素，朝美分歧很大，但朝鲜半岛无核化·以外交方式解决朝核问题的基本原则已趋明朗，因此和平发展不仅成为共识，也为与朝鲜经济合作提供了有利的环境保障°

中国企业成投资主力° 事实上，自从 2002年“7·1”朝鲜经济政策调整之后，中国诸多企业已经看到了朝鲜经济政策开放及其前景的大好商机，并以中朝边境为中介开始了对朝鲜的投资° 仅 2004年 一年，朝鲜吸引外资总额的 5,900万美元中，中国达到

5,000万美元, 占 85%。据韩国中央日报报道, 2004年 进入朝鲜的外国企业约 300家, 其中 40%是中国企业。

朝鲜吸引中国企业积极投资的热情, 主要原因是朝鲜国内经济发展呈现了巨大商机。朝鲜丰富的劳动力和自然资源, 对一些企业具有较大的吸引力, 而且, 朝鲜正创造条件鼓励外资进入。2005年 2月 朝鲜在北京举办招商引资说明会时, 重点宣传了朝鲜政治稳定和资源丰富的投资环境。朝鲜政府也积极制定改善投资环境的措施, 着力对外开放市场, 扩大出口, 保障资金流通顺畅, 缓解资金压力。

对朝投资近年增长显著。在 2006年 10月底的统计, 中方累计批准对朝投资 49项, 中方协议投资额 1.35亿美元。投资项目涉及食品·医药·轻工·电子·化工·矿产等领域。在中朝双边贸易中, 以吉林·辽宁两省为主的对朝边境贸易占较大比重。中国对朝出口商品主要有粮食·原油·机电产品·钢材·纺织品·汽车·塑料制品等, 自朝进口商品主要有原木·锯材·废钢·初级形状塑料·液化气·铁矿砂·水产品等。不过因各种条件制约, 中朝双方互利合作规模不大, 中方企业效益普遍不佳。

2. 多样化的中朝贸易形式

一般来讲, 边境贸易主要有边境互市·边境小额贸易和旅购贸易(旅游购物贸易)三种形式。其中, 边境互市是一种较常见的贸易形式, 是指边境地区边民在边境线 20公里以内·经政府批准的开放点或指定的集市上, 在不超过规定的金额或者数量范围内进行的商品交换活动。除以上三种形式外还有丹东市的水上贸易船形式在边贸中也占有重要位置。

1) 丹东市的水上贸易船方式

辽宁省与朝鲜新义州以鸭绿江一水之隔, 中朝边境贸易近两年年货物通过量在 300万吨左右, 其中水路年运量 170万余吨。货物种类朝方出口以水产品·废金属·铁·金·银等金属矿粉和煤碳为主, 中方出口以粮食·食品·日用品和五金家电为主。自上世纪 80年代末辽宁和朝鲜水上边贸开始发展以来, 为当地经济建设作出了重要贡献。1996年颁布实施了《丹东市边境小额贸易水上运输管理暂行办法》, 使边境贸易运输纳入了法制化的轨道。经过近二十年的发展, 现有边贸运输船舶 168艘, 可供边贸船舶停靠码

头 6 处^①。中朝水路边贸运输具有航线固定·船舶固定·运距短(4—40海里)·航行时间短(半个小时—5小时)·船舶吨位小(10—100吨)·年经营时间短(1—3月份冰封期停航)等特点。边贸运输的发展吸引了国内外商家云集丹东市，也为丹东市加速建设东北东部现代化沿海港口城市·按照国务院要求建设成为“边境经济合作区·互市贸易区和出口加工区，并具有物流贸易集散和进出口加工等功能”提供了坚实的运输保障^②。

随着朝鲜经济的逐步开放，中朝边贸量尤其是经辽宁省水路口岸进出口贸易量迅速增长，2006年以来，每年达到约 300—400万吨，货物主要体现在从朝方新义州出口，到辽宁省丹东市上岸和转口的工业原料·燃料等大宗散杂货^③。由于受鸭绿江大桥汽车单向通行·铁路车皮调配困难装卸设备落后·朝鲜海关管理方式不合常规的影响，公铁路运输方式的通过能力已经远满足不了市场需求，大量散杂货滞留新义州，已影响了边贸的快速发展^④。

为解决中朝边贸发展的瓶颈问题，省交通管理部门和当地政府开通了鸭绿江上浪头港到新义州港的水上边贸运输通道，力争将中朝水上边贸运输航线开通到朝鲜的各个港^⑤。现丹东港浪头港区和多艘大吨位船舶已经投入营运^⑥。

限于多种原因，中朝两国边民互市贸易始终未开展起来，这是影响边境贸易大规模发展的重要原因^⑦。丹东大东港沿海的海上小额易货贸易由于船舶吨位小·运距长·无港口装卸设备，只能进行水产品·食品等小批量交易，从长远看，这种形式的小额易货贸易还会长期存在下去，但不会在规模上有大的突破，也不适应今后中朝两国边境经济·贸易的全面发展要求^⑧。所以要继续落实国办发 36号文件，文件指出：“依据地缘优势，通过实施‘走出去，请进来’战略，进一步深化同周边国家的能源·原材料·矿产资源的开发合作，主动参与区域经济合作，积极开拓国际市场，带动商品·技术和劳务输出^⑨。继续支持东北地区构筑同周边国家开展国际贸易·投资·科技等合作的平台”。

开展边境贸易是辽宁省独有的区位优势，长期以来我国政府对边境贸易进口关税和进口环节税采取减半征收的优惠政策，因此边境贸易将始终是活跃地方经济·吸引国内外资金的热点^⑩。鉴于朝鲜半岛局势缓和·朝鲜有望加快开放步伐以及新义州港滞留大量散杂货，国内许多客商看好中朝边贸，南方部分船公司欲参与中朝港口间边贸运输等有利因素，所以丹东水上边贸运输的格局应为：巩固和规范海上小额易货贸易秩序，开展鸭绿江上点对点(新义州—浪头港)散杂货贸易运输，开发丹东港至朝鲜南浦港等港口间海上边贸运输航线^⑪。

开展浪头港区水上边贸运输。浪头港是国家一类开放口岸，作为界河港距新义州港仅5海里，距大东港20海里，该港系常年不冻港但每年的1-3月份枯水期不能行船)，有1,000-4,000吨靠泊能力的泊位4个，年吞吐能力90万吨，但2005年以来吞吐量仅60万吨左右，其中外贸吞吐量仅有十多万吨，港口资源没有充分发挥出来，2005年该港曾组织部分船舶从新义州港进口废钢·煤炭等大宗散货6,000余吨，但后来由于边检部门禁止非指定边贸航线运输而停航。因此现正在争取口岸部门共同认可浪头港区为边贸水上运输港口。

2) 边民过境夹带货物贸易

据珲春公安边防大队介绍，每年春节临近，办理中朝边境地区出入境通行证的人员就急剧增加，各边境贸易公司办理赴朝签证的人员由以往的每天二三十人激增至400多人，中朝边境贸易迎来节前高峰。据了解，由于春节前国内对鲜活海产品的需求量急剧上升，各边境贸易公司纷纷加紧对朝海鲜贸易，因此出现了大部分边贸公司集中在春节前办理出境签证的火爆场面。每年在中国居住的朝鲜族居民约有15万人到朝鲜去探亲·访问，他们大多携带大量的粮食·衣服·日用品等。每年朝鲜公民来中国探亲访友的人数约在3-4万人，仅在辽宁丹东过境的朝鲜公民每年携带出境的物品就达6,000多万元人民币。边民往返夹带的物品大多不是自用而是作为商品流通。海关人员用“络绎不绝”和“夹带量超出极限”来形容每天不断的出境的朝鲜公民和中国的朝鲜族公民。这部分“出口货物”不在中国出口统计之内，但出口绝对量是惊人的。

3) 粮食走私“贸易”

由于近两年(2006-2008年)朝鲜方面粮食短缺，而我国粮食大丰收，致使两国边境地区的粮食走私异常猖獗，这一情况即便在合法贸易大幅度上涨的情况下也无法避免，联合国粮食机构警告说，朝鲜2008年和2009年所面临的粮食大饥荒将可能越来越严重，因为即便在一个丰收年，朝鲜也无法保证正常的粮食供应。联合国粮农组织预测，今年朝鲜将缺粮166万吨，比2007年翻了近一倍，是自2001年以来粮食缺口最大的一年。目前平壤的粮价已经达到自2004年以来的最高纪录，大米的价格为每公斤2,000朝鲜元，而去年4月为700至900朝鲜元；猪肉现价为每公斤5,500朝鲜元，而朝鲜人均月工资约为6,000朝鲜元。(官方汇价1欧元约等于199.02朝鲜元)

不过据笔者了解，联合国粮农组织对朝鲜的粮食短缺问题估计得过于严重了。朝鲜官员透露，今年朝鲜的粮食总产量为 468 万吨，这个总产量完全可以保障朝鲜 2009 年的基本需求。2009 年 粮食的短缺现象还会存在，但并不严重，粮食形势远远好于 2008 年。

裸露的山体使得朝鲜容易遭遇洪水侵袭，而基础设施的恶化又使得朝鲜遭遇干旱的可能性增大。据吉林粮食局局长祝业辉说：“朝鲜的干旱非常严重，大量的中国玉米被走私到了朝鲜。朝鲜的玉米价格是中国的 10 倍还多”。

相关媒体报道说，2008 年年初，为了控制国内的通货膨胀，中国有效的遏制了玉米和粮食的出口，但对朝鲜，台湾和香港地区的出口却没有得到有效限制。中国海关的数据表明，今年前 7 个月，中国出口到朝鲜的玉米激增到 97606 吨，比去年同期增长了 564%。2007 年冬天，朝鲜进口粮食增多，这说明朝鲜的粮食产量无法满足需要，2008 年春季进口有所减少，而到了今年 6 月，进口量上升到了 37111 吨，是今年进口粮食最多的月份。

世界粮食计划署在朝鲜启动价值 5 亿美元、为 620 万人提供援助的紧急援助方案。联合国粮农组织与粮食署 2008 年 6 月联合进行的评估显示，朝鲜四分之三的家庭已经减少了每天的粮食摄入量，半数家庭每天只吃两顿饭，由于营养不良和生病而入院的儿童数量不断增多。

今年 7 月世界粮食署与朝鲜政府就扩大在朝援助签署协议，这一协议使接受粮食署援助的人数由 120 万增加到 500 万以上；将受援地区由 50 个郡增加到 100 多个，包括粮食署此前一直未能获准进入的地区；并允许粮食署增派 50 多名国际职员。

最近朝鲜粮食问题严重，从丹东·图们等地向朝鲜走私粮食盛行。由于国际粮食价格暴涨，2008 年下半年以来中国为国内粮食安全，开始严格限制粮食出口，通过正式渠道出口到朝鲜的中国粮食急剧减少。丹东海关表示，2008 年 1 至 5 月，出口到朝鲜的粮食与去年同期相比减少 50.5%，而走私粮食远远多于正式渠道出口量。

3. 2008 年中朝贸易的状况·特点

中朝贸易额近年来持续增加，从 2005 年的 16 亿美元增加到 2006 年的 17 亿美元，2007 年又增加到 20 亿美元。中朝之间的贸易额 2008 年上半年已达 11.9 亿美元，比

去年同期增加 25%左右, 预计年底可超过上年, 突破 20亿美元° 2008年 中朝贸易状况出现了新特点:

1) 由于原油·粮食等主要输朝产品涨价, 中国对朝粮食出口量减少了° 从丹东海关获悉, 由于国际原油价格高涨, 使得由丹东口岸出口的原油价格也随之增长, 目前, 对石油征收的出口关税已成丹东口岸的海关主要税源° 据统计, 2008年 1-6月 丹东口岸原油出口量为 30.4万吨, 价值 2.43亿美元, 征收出口关税 8,225万元, 与去年同期相比分别增长了 1.6%·69%·55%° 上半年受原油国际价格一路走高影响, 丹东口岸原油出口价格也是一路上扬, 每吨由1月份的 687美元上涨到 6月份 974.5美元, 增幅达 37%° 受此影响, 原油出口关税也是连续刷新历史记录°

2) 丹东口.

粉·玉米淀粉·大豆种子和大豆° 从贸易方式来看, 边境小额贸易占主导地位° 自 2007年末, 国家相继出台了取消小 麦·稻谷·大米·玉米·大豆等原粮及制粉的出口退税, 并从 2008年 1月 1日, 起 征收出口暂定关税两项调控政策° 这两项宏观调控措施实行后, 丹东口岸出口粮食明显放缓°

2008 年前 1-5月份, 以边境小额贸易方式自丹东口岸出口的粮食共计 2.06万吨, 同比下降 50.5%° 面粉出口量也迅速滑坡, 仅在1月份 出口 0.67万吨, 同比下降 25.5%, 2月份以来均为零出口; 大米·玉米出口量自4月起双双跌落为零°

3) 丹东口岸应税化肥产品出口放缓° 自丹东口岸出口至朝鲜的应税化肥类产品及部分原料到 2008年 5月末止, 总计 6,813.94吨, 价值235.9万美元, 征收税款 375.6万元; 但自 4月 20日 起, 国家对化肥类产品及部分原料加征特别出口关税以来, 出口应税化肥仅为1吨, 价值1,454美元, 征收税款 5,850元° 出口呈现新特点: 对朝鲜出口的化肥中以尿素为主, 1-4月份共出口 6,531.5吨, 价值 227.6万美元, 与去年全年出口的尿素相比分别增长了 9倍和 12倍. 但 4月 20日 后, 国家开始加征特别出口关税后出口为零° 含氮·磷·钾中两种或三种肥效元素的混合肥料出口为辅, 量为 96吨, 价值为 2,7845美元, 同比下降 59%和 63%° 4月 20日 加征特别出口关税后仅出口1吨° 化肥原料今年仅有氮肥原料少量出口, 4月 20日 加征特别出口关税后出口为零°

2008年 开始, 朝鲜大量进口化肥的原因是, 韩国自李明博总统执政后调整了对朝援助政策, 年初停止了对朝鲜的化肥无偿援助(过去每年韩国对朝鲜无偿援助化肥约30万吨), 所以朝鲜增加了从中国和俄罗斯的进口化肥的数量。韩国政府在 2009年可能恢复对朝鲜的化肥无偿援助, 所以预计 2009年 年初中国对朝鲜的化肥出口量会相应减少。

4) 进出口商品种类的出现变化。2008年 5月 丹东口岸海关出口征税额的前四位商品依次为原油·钢铁制品·金属硅·粮食。

而由朝鲜进口商品的特点是: 一是在边境小额贸易中居主导地位的矿砂类产品进口逐渐走强, 铁·铅矿砂增势强劲, 锌·银矿砂略有回升·钼矿粉·钨矿粉进口呈增长的态势; 二是稀有金属进口量值增加, 氧化镨等进口在丹东口岸均属首次, 用于制作永磁材料; 三是电力进口受丹东硅业公司大量出口金属硅影响, 进口量增加。

从商品结构分析, 进口贸易值最大的是服装及其附件, 占进口总值的 35.5%; 其次是贱金属及制品, 占进口总值的 21%; 再次为机电产品及零配件, 占进口总值的 10.7%; 最后是无烟煤, 占进口总值的 6.7%。

出口商品中贸易值由大到小排列顺序分别为原油·机电产品及零配件·服装及附件·农产品·贱金属及制品·纺织材料及纺织物·水产品和塑料制品。

另外, 对朝鲜出口的商品还有家具也大幅增加。据丹东海关统计, 2008年 一季度, 丹东口岸对外贸易进出口值 3.82亿美元, 比去年同期增长 56.5%, 其中进口 5,402.7万美元, 出口 3.28亿美元, 分别同比增长 19.6%和 64.9%。一季度实现贸易顺差 2.74亿美元。其中, 家具出口量激增, 成为出口商品中的新宠。目前, 丹东的主要贸易伙伴为朝鲜·韩国·日本·美国·香港。贸易值最大的是朝鲜, 为 3亿多美元, 占丹东口岸进出口贸易总值的 81.4%; 其次为韩国, 贸易值 3,914.6万美元, 占进出口贸易总值的 10.2%。从监管方式看, 一般贸易占进出口贸易总值的 55.8%; 其次是保税仓库货物, 占进出口贸易总值的 19%; 再次是边境小额贸易, 占进出口贸易总值的 17.4%; 最后是加工贸易, 占进出口贸易总值的 7.1%。家具需求量的增加说明朝鲜民众的生活水平有所提高。

据中国海关总署统计, 2007年 第三季度, 山东省从朝鲜进口的无烟煤达到 165.6万吨, 占其进口总量(90.9万吨)的 86.8%, 尤其山东省 2007年 第三季度从朝鲜进口的煤

炭, 同比增加了 120%。山东省进口朝鲜煤炭的数量迅速增加, 主要原因是朝鲜不仅煤炭储藏量丰富, 在地理位置上也很近。但是由于朝鲜出台限制出口地下资源的政策, 2007年中国从朝鲜矿产进口资源总量大大减少。据中国海关总署的数据显示, 2007年 1月-11月, 通过临江和集安等吉林省通化地区的各海关进口的朝鲜无烟煤和矿石等矿产资源为 1.7150万吨(约合 104.1万美元), 同比减少6.7% (41.3%)。在此期间, 从朝鲜进口无烟煤炭数量为 71.9万美元, 同比减少47.9%。

5) 朝鲜由中国进口的高级装饰材料·家具·电脑·家用电器·中高档服装等高档消费品也有所增加。说明朝鲜的高端消费阶层已逐步形成。据了解, 目前朝鲜的高端消费者主要是以下五类人群:

① 侨眷。平壤的家庭中有 60%~70%是侨眷, 以中国·日本和东南亚为主; ② 一些政府官员, 特别是外交人员·海关人员; 涉外贸易人员。朝鲜政府不允许私营企业存在, 涉外生意人主要替国家单位工作, 但其隐性收入巨大; ③ 涉外人员。这类人的代表就是导游, 导游的工资不高, 但是小费收入却很高。东南亚团队一般一人一天给导游 10美元, 50人的团队, 三天就是 1,500美元; ④ 是因公长期驻外人员¹⁾。这些高消费阶层人员的人数虽少但购买力较高。

6) 2008年 朝鲜对中国投资者的另一宽松政策是, 中国商人可在朝鲜用中国手机, 给中国生意人带来极大方便。朝鲜消息人士表示: “朝鲜政府在年初下达的加强与中国企业合作的指示中甚至还表示, 投资额超过5万美元的中国商人可以在朝鲜使用中国的手机。”

朝鲜消息人士还表示: “朝鲜政府年初下达指示说, 对消费品等轻工业产品当中除了进口价格相对较低的商品外, 鼓励以合营和合资方式积极吸引中国商人来朝投资, 在国内进行直接生产。”该消息人士表示: “去年底, 朝鲜政府也曾下达过这种指示, 而今年年初的这一指示更加具体化。此次, 朝鲜政府力主在与中国企业进行合营和合资时, 鼓励中国企业来朝投资引进设备, 在朝鲜境内直接进行生产活动。”韩国媒体指出, 朝鲜有当局原计划从 2008年 4月 起准许平壤居民使用手机。这将是 2004

1) “朝鲜的高消费人群有哪些?” <朝鲜七宝山网: <http://www.7b3.net/index.asp>>.

年4月 朝鲜鸭绿江南方边境地区龙川火车站发生爆炸事故后，首次对使用手机采取解禁措施。

朝鲜当局于 2004年 4月 朝鲜最高领导人金正日结束中国访问，搭乘专车由中国返回平壤途中，在朝鲜与中国边境附近的龙川火车站发生严重爆炸事故，此后，朝鲜便禁止国民使用手机，并下达手机使用禁令。据朝鲜朝中社报道指出，“朝鲜递信会社”去年1月与埃及 Orascom 电信公司子公司CHEC 科技公司签署通信领域合作协议，由朝鲜“朝鲜递信会社”拥有CHEC科技公司 25%的股份，契约年限达 25年，投资额包括基础设施等共达 4亿美元。据Orascom电信公司方面表示，已经获得在朝鲜提供手机服务的许可，在准许平壤居民使用手机后，并将逐步扩大到其他地区。

埃及Orascom 电信还表示，为了在朝鲜开展手机通讯服务，目前正在朝鲜进行基础设施建设工作。2008年 5月 1日，Orascom电信投资部门负责人斯蒂法诺·苏吉尼在接受媒体采访时表示：“我公司员工正在进行基础设施建设工作。暂时尚未向朝鲜通知正式启动通讯服务的时间表。” Orascom电信今年 1月获得朝鲜的手机运营权。据该公司当时称，原定从2008年 5月 开始提供手机通讯服务。

目前有部分中国手机通讯网络可覆盖到平壤，朝鲜大部分城市可使用中国线路手机。但目前朝鲜政府仍在严格限制中国公民携带手机进入朝鲜。未来朝埃合资的通讯会社将会大大提高手机通讯质量。

2008年新增的较大的中国对朝投资的合营项目

① 中国中朝合营烟草公司开业。2008年 4月 23日，中朝合资企业—平壤白山烟草合营会社举行开业仪式，中国驻朝鲜大使刘晓明·朝鲜轻工业省副相兼烟草协会会长赵正雄等应邀出席。平壤白山烟草合营会社是由吉林省烟草工业有限责任公司与朝鲜烟草进出口商社共同成立的合资企业，主要从事“平壤”、“白山”等品牌卷烟的生产和销售。

② 中朝合资企业—平壤亚明照明合营会社开业。2008年 2月 27日，中国驻朝鲜大使刘晓明·朝鲜电子工业相吴寿勇·副相康春男·上海仪电控股(集团)公司董事长张林俭等应邀出席开业仪式。平壤亚明照明合营会社是由上海亚明灯泡厂有限公司与朝鲜平壤照明配件工厂共同成立的合资企业，主要生产节能灯·高压钠灯·金属卤化灯等

各种照明灯，填补了朝鲜照明工业的空白。为平壤的豪华工程和朝鲜的照明工业做出贡献。

③ 朝中企业共同开发瓮津矿

2008年6月中朝企业签署协议，中国将与朝鲜联合开发位于黄海北道瓮津郡的瓮津铁矿。据了解，中国大型菱镁矿加工企业S集团与朝鲜共同成立了西海合资企业，从2007年下半年开始对位于瓮津郡长松里的瓮津铁矿进行开发考察。S集团作为开拓海外市场的战略之一，一直在重点推进朝鲜菱镁矿开发项目，但在此过程中转向开发铁矿，并与朝鲜共同成立了开发铁矿的合资企业。

双方共同成立的西海合资企业注册资金达3,600万欧元（约合4.6亿元人民币），目前主要推进铁矿，并与朝鲜共同成立了开发铁矿的合资企业。

附录：2006年~2008年上半年中国对朝贸易统计数字

〈表 II-1〉 2008年度 1~7月份中国对朝贸易统计数据

(单位：千美元)

月份累计	进出口总值		出口		进口	
	金额	比上年同期 ±%	金额	比上年同期 ±%	金额	比上年同期 ±%
1~1	183,065	42,1	135,410	59,8	47,655	8,2
1~2	275,845	23,6	196,490	36,9	79,354	-0,4
1~3	490,813	47,9	365,894	80,0	124,919	-3,1
1~4	678,884	26,1	497,655	39,9	181,229	-0,7
1~5	884,065	24,7	637,185	34,0	246,880	5,8
1~6	1,143,873	25,3	819,007	31,1	326,867	12,7
1~7	1,423,471	31,7	1,000,815	35,2	422,656	24,1

〈表 II-2〉 2007年度中国对朝贸易统计数据

(单位：千美元)

月份累计	进出口总值		出口		进口	
	金额	比上年同期 ±%	金额	比上年同期 ±%	金额	比上年同期 ±%
1~1	128,696	36.2	84,689	25.2	44,007	64.0
1~2	223,100	32.2	143,461	23.9	79,638	50.2
1~3	331,573	11.8	202,694	-2.4	128,879	45.3
1~4	536,434	15.3	355,305	5.6	181,129	40.5
1~5	708,870	16.1	476,158	6.4	232,712	42.9
1~6	912,669	17.2	625,384	7.8	287,286	44.5
1~7	1,080,346	18.0	740,332	9.1	340,024	43.6
1~8	1,250,981	16.7	862,560	9.2	388,420	37.8
1~9	1,444,220	18.0	1,005,134	12.1	439,086	34.3
1~10	1,612,703	16.6	1,129,639	11.8	483,064	29.7
1~11	1,787,285	16.3	1,253,108	12.0	534,177	27.5
1~12	1,975,918	16.2	1,392,588	13.0	583,330	24.7

〈表 II-3〉 2006年度中国对朝贸易统计数据

(单位：千美元)

月份累计	进出口总值		出口		进口	
	金额	比上年同期 ±%	金额	比上年同期 ±%	金额	比上年同期 ±%
1~1	9,451	0.4	6,763	7.2	2,688	-13.4
1~2	16,886	7.7	11,580	7.8	5,306	7.4
1~3	29,645	-7.1	20,776	-3.3	8,869	-14.9
1~4	46,533	-1.4	33,641	6.3	12,892	-17.3
1~5	61,037	0.5	44,744	7.7	16,293	-15.1
1~6	77,841	4.8	57,969	13.6	19,872	-14.6
1~7	91,518	2.0	67,850	10.1	23,668	-15.9
1~8	107,220	2.3	79,025	9.6	28,195	-13.8
1~9	122,415	3.0	89,710	10.9	32,705	-14.0
1~10	138,342	4.0	101,092	11.6	37,250	-14.0
1~11	153,744	5.5	111,857	12.7	41,887	-9.9
1~12	170,015	7.6	123,237	14.0	46,778	-6.3

资料来源：中朝经贸合作网《统计数据》

〈表 II-4〉 2008年 1~9月我对亚洲国家(地区)贸易统计

2008年 10月(单位: 亿美元)

国家	进出口		出口		进口		贸易平衡	
	金额	增长	金额	增长	金额	增长	2008年	2007年
全国	19,671.29	25.3%	10,740.58	22.4%	8,930.71	28.9%	1,809.87	1,847.33
亚洲合计	10,563.25	23.3%	5,003.75	22.5%	5,559.50	24.0%	-555.75	-400.15
亚洲司主管国	6,193.26	24.7%	2,811.03	26.9%	3,382.23	22.8%	-571.20	-539.10
占全国比	31.5%	-0.2%	26.2%	0.9%	37.9%	-1.9%	-	-
东北亚	3,526.87	21.3%	1,449.82	25.2%	2,077.05	18.8%	-627.23	-590.34
日本	2,027.00	17.9%	858.49	16.0%	1,168.51	19.3%	-310.02	-239.81
韩国	1,462.16	26.2%	571.69	41.7%	890.47	17.9%	-318.79	-351.74
朝鲜	19.03	31.8%	12.99	29.3%	6.04	37.5%	6.96	5.66

资料来源: 中国商务部亚洲司整理

4) 朝鲜在中国的投资情况

中国和朝鲜目前都没有公布朝鲜对中国的投资规模。但韩国驻中国大使辛正承认为:“据推算, 朝鲜目前在中国的投资规模达 200万至 300万美元, 大部分是对餐饮业的投资²⁾”这个推算的规模并不准确, 因为单是朝鲜投资的沈阳七宝山饭店就达到 2000 万美元。

以朝鲜在丹东市的投资规模为例: 2004年 朝鲜在丹东市的投资企业为 34家, 投资总额为 1181万美元, 注册资本 691万美元, 合同外资金额550万美元, 实际外资到位 215万美元。2005年 撤销 24家, 实有投资企业 10家, 投资总额 559万美元, 注册资本 340万美元, 合同外资金额 221万美元, 实际到位 135.6万美元。朝鲜兴办的三资企业涉及冶金·化工·食品加工·机械加工·餐饮服务企业等行业。从经营状况来看, 除餐饮业外, 多数处于亏损负债经营。投资规模较大的是丹东金刚山应用技术开发有限公司, 由丹东纸板厂与朝鲜金刚山国际贸易会社共同投资, 投资总额为190万美元, 注册资本 190万美元, 朝方出资 76万美元全部到位。其他朝鲜经营企业总投资都在 100万美元以下, 规模不大。

朝鲜的餐饮业投资主要在辽宁省(沈阳市·丹东市)·吉林省(长春市·延吉市), 在北京

2) “中北贸易规模今年增加2.5%,” 『(韩国)朝鲜日报』, 2008年 10月 13日。

市和青岛市还有个别业户，总计约 50 户左右。朝鲜在中国最大的投资项目是沈阳市的七宝山饭店，其余都是投资十几万美元到几十万美元规模的小型餐馆，比较集中在沈阳·丹东·延吉三个城市。

〈表 II-5〉 朝鲜在丹东市投资举例

(金额：万美元)

序号	项目名称	中方单位	外方单位	合作方式	注册地	项目内容及规模	总投资	合作年限	中方投资比例	备注
1	朝鲜平壤青春馆	辽宁国贸公司丹东公司	朝鲜五轮贸易会社	合资	平壤	餐馆彩扩	120	10	30万元实物, 占25%	90年批准
2	朝鲜平壤友谊合营会社	丹东客运公司	朝鲜友谊进口会社	合资	平壤	商店餐饮	24.4	10	设备实物占49%	98年批准
3	朝鲜鸭绿江友谊会社	辽宁国贸公司丹东公司	朝鲜外经委合营工业指导总局	合资	平壤	商店	85	10	40万元货物占47%	93年营业
4	水产养殖	东港新述养殖公司	朝鲜友谊联合会社	合作	朝鲜	合作养殖		5	500吨苗种, 两只船等	朝方提供150町步养殖场
5	润滑油	辽宁省边境贸易公司	朝鲜梅峰贸易会社	合资	朝鲜	生产润滑油	120	60	50%以生产设备投入	已运营

三、中朝经济贸易关系的前景分析

1. 交通基础设施将要增加，建设加快。

① 陆海空运输设施建设还要加快，特别是丹东的中朝国际公路铁路新桥的建设计划，迫切需要加快实施。该新桥建设规划早在 2007 年初中国政府有关部门就已批准，至今尚未开工。

② 中朝元罗公路项目 2006 年 6 月 就开始招标，但至今尚未开工。

据有关媒体报道，中朝路港区一体化项目元汀至罗津段公路 2006 年 6 月份 招标，

该工程作为中朝“路港区”项目极为重要。本来中方工程人员已经对朝鲜元汀口岸到罗津港的高等级公路重新进行了现场勘测，并确定了道路施工设计图，但迟迟不能开工。中朝“路港区”一体化项目的提出，目的是通过朝鲜罗津港的辐射作用，进一步开发和利用东北亚地区各国资源和促进各国间的贸易往来，开辟吉林省乃至东北一条新的对外出海通道。中朝“路港区”项目计划分两步实施，第一步修建元汀到罗津港的高等级公路，第二步改造罗津港3号码头·综合开发罗先市区地产，并建设保税加工区和工业园区。整体工程原定于2006年内正式开工建设，但由于种种障碍，至今也未开工。

③ 丹东公路通关设施将要加强

在中朝边境地区的丹东公路口岸每天有150左右辆的载货卡车通关到朝鲜。通关时经常看到长长的车队，每车通关时间有的要1小时左右。我国每年有近70%左右的中朝进出口货物经丹东口岸进出，近年来丹东口岸对朝贸易进出口货运量和进出口额更是分别以每年13%和25%的速度递增，丹东公路口岸汽车排长队等候通关的现象逐渐严重。为提高口岸通关速度，促进边境贸易发展，2008年初丹东海关采取多项措施，不断规范进出境车辆备案程序，除超高·超大·超重·超长的货物外，要求所有对朝进出口货物一律由全封闭厢式货车装载。同时，还禁止进出境客车载货行为，全部采购物品凭报关单验放。这些举措一方面实现了对进出口货物全程有效的监管，另一方面实现了出口货物的集中验放，提高了通关速度，但是从根本上解决公路口岸存在多年的汽车排长队问题，进一步促进了丹东地区的边贸发展，还要从改善通关设施，加强基础设施建设入手。

④ 丹东水运口岸进出境船舶1-2月枯水期不能正常进出

由于天气寒冷和1-2月属于枯水期，导致丹东浪头水运口岸进出境船舶无法正常进出境。进入3月后，天气转暖，枯水期过后，丹东浪头水运口岸进出境船舶才能恢复正常进出。这种状态对发展水运贸易影响很大，疏浚河道，改善水运码头已成当务之急。

2. 争取让朝鲜成为东北亚经济一体化的合作伙伴°

1) 韩国商品经朝俄铁路运欧洲°

不久的将来，韩国商品有望通过朝鲜与俄罗斯的铁路运往欧洲° 朝鲜政府最近与俄罗斯铁路公司达成协议，为了推进连接符拉迪沃斯托克哈桑和朝鲜罗津港的总长 54 公里铁路的现代化项目，成立合作公司，并从下半年起投入试运输°

这是朝鲜与俄罗斯24日签署推进罗津至哈桑铁路现代化的协议后，采取的后续措施° 俄罗斯和朝鲜在该协议中决定，以俄罗斯持股 70%的条件，成立负责罗津至哈桑铁路及西伯利亚横断铁路(TSR)运输的合作公司°

韩国考虑目前很难同朝鲜直接磋商，决定以 6比4的比例分割俄罗斯持有的 70%股份的形式成立韩俄合作公司，并参与罗津至哈桑铁路现代化项目° 根据上述协议，韩国政府将在 6月同俄罗斯成立合作公司后，加快项目进展，最快从 8月起试运营从釜山港出发的集装箱船抵达罗津港后，通过铁路经俄罗斯哈桑与 TSR连接的路线° 目前通过海路从韩国向欧洲运货需要 40多天，但如果利用釜山港-罗津港-哈桑-TSR路线，只需 17天，可节省一半时间°

2007年 12月 11日，朝韩 56年来首次开通货运列车，给中国与朝鲜进行贸易往来和经济合作重要通道的丹东带来新的机遇和挑战°

目前，朝韩之间没有直接贸易往来，而朝鲜与韩国一旦达成和平协议，朝鲜极有可能允许韩国经过其境内向中国运输货物，这样一来，铁路运输极有可能成为韩国对华出口货物首选运输方式，作为对朝主要铁路口岸的丹东，将成为中-韩贸易的桥头堡°

朝韩铁路全线贯通，标志着第二座欧亚大陆桥的启动° 如果日本与韩国修通跨海隧道，第二座欧亚大陆桥将从东京起步经首尔入丹东从满洲里通往欧洲，日本产品和韩国产品将源源不断地通过这座欧亚大陆桥运往欧洲各地，同时欧洲的产品也将通过这座欧亚大陆桥运抵中·朝·韩·日四国，改变目前以海运为主的物流格局，构建了一个全新的物流体系°

朝韩铁路贯通后，韩国极有可能取代中国成为朝鲜最大的贸易伙伴国，朝鲜丰富资源性产品将改道运往韩国，必将我资源性商品进口产生影响，也将改变丹东作为朝韩转口贸易中心的地位°

目前，丹东地区进出口货物主要以对朝货物为主，如果第二座欧亚大陆桥成为现实，

丹东口岸进出口活动将日趋频繁，进出口货物种类将发生翻天覆地的变化，韩日商品将成为对外贸易主要进出口货物，丹东地区对外贸易形势和金融环境将变得更加复杂多变。

当前，有近 50%对朝进出口货物是由丹东公路口岸承担，但第二座欧亚大陆桥贯通后，丹东铁路口岸将成为欧洲·韩日产品主要进出口岸，将承担 80%的进出口货物，丹东铁路口岸可能发生新变化。

再从中朝公路运输来看，2008年 7月 中朝签署汽车运输协定。中国与朝鲜政府经过协商，签订了〈中朝政府间汽车运输协定〉，为中朝双方开展国际道路运输合作提供了法律保障。根据此协定，今后朝鲜货车和汽车将可以通过中国，直接驶往欧洲大陆。

2) 图们江流域开发新协议期待朝鲜积极参与。

由联合国开发计划署(UNDP) 于2007年 11月 15日，在俄罗斯符位迪沃斯托克举办的“大图们江地区经济合作(GTI)”第9次五国委员会上，各成员国就图们江流域开发项目达成协议。GTI是韩国·朝鲜·中国·俄罗斯·蒙古等远东五国，为开发图们江地区，在UNDP的支援下于 1992年 构建的机制，是图们江流域开发计划的后续机制。

为推动GTI的发展，各成员国在此次会议上选定 10个项目，决定作为中期课题进行推进，其中包括图们水资源保护可行性评估·朝中边境中国公路及港口的利用·蒙古—中国间铁路可行性评估·发展GTI旅游项目等。但可能是出于建设资金和国家安全方面的考虑，朝鲜政府尚未显示出参与GTI的积极性，其实，该项目的最大受益国就是朝鲜，所以参与规划的各国应努力创造条件，争取朝鲜的积极参与。

3) 争取朝鲜参加东北亚各国旅游合作项目。

朝鲜境内旅游资源非常丰富，积极发展旅游产业是朝鲜尽快摆脱当前经济困境的有效途径。目前朝鲜拟将妙香山申请世界遗产，应得到东北亚各国的支持。

为应对未来的国际旅游热潮，朝鲜政府也作了积极准备。例如著名的平壤标志性建筑朝鲜柳京酒店 2008年 又开工重建。

据悉，这座停工达 16年的朝鲜柳京酒店在 5.1节后复工。埃及电讯集团Orascom标下了工程，将继续兴建这座金字塔型的酒店。酒店的顶层部分开始重建。该酒店原打算成为拥有 3,000个房间·全球最高的酒店，于1987年起兴建，原预计在1989年 开业。

但由于缺乏资金，工程在 1992年 起停顿。不少朝鲜邮票及媒体上都能看到这座酒店完工后的模样，它呈三角锥形，外表极像一座金字塔，楼高一百零五层。酒店在开始施工5年后，因缺乏资金和电力，已经完成九成主体建筑的酒店工程中止。这次由埃及企业接手建设的柳京酒店，只负责完成楼体外部装修和地下楼层与地上 5层客房的室内装修。建成以后将成为接待国际游客的高档旅游宾馆。

朝鲜文化保存指导局副局长李义夏 2008年 10月 20日，表示，他们计划在年内将妙香山历史遗址和旅游胜地申请为联合国教科文组织世界复合遗产，并从明年开始申请七宝山·九月山·龙门石窟等旅游胜地为世界自然遗产。李义夏向媒体表示：“目前正在极力保护文化遗产的原貌，并保持周边环境的清洁，同时正在全力推进将最新挖掘的文化遗产复原的工作。”他还介绍：“计划将开城地区的高丽时期遗址——满月台·开城城·高丽成均馆与表忠碑·善竹桥与王建王陵·恭愍王陵等，10余处历史遗址，申请为世界文化遗产。”

中朝两国游客的过境游·韩国赴金刚山旅游和白头山旅游，特别是如果京义铁路开通，开展中·俄·日·蒙游客的途经朝鲜赴韩国旅游和韩国游客来中·俄·蒙旅游，将给朝鲜带来巨大经济效益，也会带给东北亚地区和平稳定的祥和氛围。

3. 朝鲜有望成为中国对外投资的新选地。

中国对外开发经贸合作的方针是始终不渝奉行互利共赢的开放战略和“睦邻·安邻·富邻”的周边政策。中国积极支持中国企业“走出去”与朝鲜企业开展互利共赢合作，希望看到有更多的中国企业家到朝鲜投资建厂，与朝鲜同行共谋发展，造福两国人民。中方愿与朝方共同做出努力，为两国企业开展互利合作·实现共同发展提供更多的机会，创造更有利的条件。

朝鲜贸易相李明山在联合国贸发会议(UNCTAD) 第12届大会上表示：“朝鲜政府将与所有本着自主·平等及互惠原则，致力于建设和平公正新世界的国家，继续扩大各方面的经济合作与交流。”李明山强调称：“朝鲜政府将利用现有的生产基础，全力·多方面扩大发展对外贸易，为信息技术的发展做出贡献。此外，正在鼓励通过国际机构的开发协助。”他还表示：“发展中国家在努力实现包括‘千禧年’开发目标在内的国际开发战略，但他们的努力因不平等的国际经济秩序面临严峻的挑战，本次大会要重点制定

行动方针，使发展中国家实现国际开发目标”，“为此，国际性开发战略和政策要以尊重国家主权和提高国内开发能力为目标。”

在世界金融危机到来期间，中国国内民营经济也受到一定冲击，中国一些以出口加工为主业的民营企业纷纷歇业·转产，很多民营企业家将目光瞄向了朝鲜——这块未开发的处女地。近年来赴朝鲜考察的民营企业家越来越多，以致朝鲜政府在 2008年 9月做出规定，赴朝考察的各国企业家要向朝鲜政府交纳 10万欧元的保证金(暂存在中国境内银行，不论投资与否，考察后退回)才有考察资格。但这也并没有减缓中国企业家赴朝考察的热潮。

大型国有企业的对朝投资也呈上升势头，对朝鲜采矿业投资合作的意向尤为突出。中朝边境地方政府间的贸易区建设也很引人注目。2006年 以来已经投资和正在洽谈的较大合资项目有：

① 中朝合作的矿山开采项目

滦河集团获朝惠山铜矿开发权

2007年 2月 河北滦河实业集团及其合作伙伴签署协议获得朝鲜惠山青年铜矿管理控制权。滦河实业集团及其合作伙伴于 2006年 12月 27日在平壤签署协议购入惠山青年铜矿 51%股份，从而获得管理控制权。此次交易的财务条款细节没有公布。惠山青年铜矿位于中朝边境附近，在长白山以南 65公里，靠近中国吉林长白县。该矿预计拥有 42万吨铜，其中 25万吨埋藏在地表以下 600米 深处，其铜矿日开采量约为 2000吨。

滦河实业集团是一家贸易公司从事各种资源·房地产和水泥业务的开发，在中国民营企业中排名第 75位。

中国有色集团开发朝鲜惠山铜矿

2007年 2月 中国有色集团与中色国际矿业股份有限公司·红透山铜矿·朝中国际矿业公司在北京签署合作协议，共同开发朝鲜惠山铜矿。根据协议，中国有色集团将开发经营中色国际矿业股份有限公司在朝鲜境内拥有采矿权的惠山铜矿。朝鲜惠山铜矿距中朝边境口岸仅 10公里，保有铜储量约为 25万吨(金属量)，中国有色集团将委托红透山铜矿组织相应的设备·材料和技术人员，恢复矿山生产和经营。

中国有色集团将包括朝鲜在内的周边资源富集国家和地区作为海外开发的重点工作

区域之一。此次协议签署之前，中国有色集团已与吉林昊融集团·朝鲜金刚总会社联手开发朝鲜金矿项目，迈出中国企业到朝鲜开发有色金属资源的第一步。

河北省在朝鲜开发矿产资源

2006年9月，秦皇岛市林宝矿产开发有限公司在朝鲜开发钼矿项目得到国家商务部批准。该项目总投资201.6万美元，注册资本50.4万美元，这是河北省第一家在朝鲜开发矿产资源的企业。林宝公司开发的钼矿位于平壤市，矿区面积15平方公里，开发前景十分广阔。

温州广寿集团投资开采朝鲜钼矿

2006年9月，温州民营企业广寿集团投资605万美元在朝鲜设立“大广合营会社”，从事钼矿开采、选矿和生产销售工作。大广合营会社于2006年8月18日，正式投产，钼矿石已经运回国内。广寿集团旗下有10个分公司，现有矿业建设、地质工程建设、房地产开发、进出口贸易四大支柱产业。

广寿集团的赴朝采矿计划，正式得到了国家商务部的批复同意。据商务部的批复文件称，由温州广寿集团有限公司和朝鲜对外经济协作推进委员会合资的大广合营会社，一期投资242万美元，中方控股65%。该项目成为温州首个获准刊朝开采资源的投资项目。

中朝合资开发有色金属资源

2006年4月13日，中国有色集团·吉林昊融集团与朝鲜金刚总会社在北京签署朝鲜有色金属合作开发协议。该协议包括两方面内容，一是中国有色集团与金刚总会社在平壤成立合资公司，共同开发和经营金、铜和钼等有色金属矿山，二是中国有色金属集团与吉林昊融集团就朝鲜宣川金矿开展合作并将逐步扩大合作。

天津企业投资朝鲜油漆厂

2006年9月，天津世纪天鑫工业建设投资有限公司在朝鲜合资建设民用油漆厂。项目总投资228万美元，中方以设备、技术和资金投资，占股57%；朝方以土地、厂房和基础设施投入，占股43%。项目建成后计划年产涂料5,000吨。日前，该项目已经天津市发

展和改革委员会核准°

辽宁阜新民企在朝鲜建厂

2006年 8月 中国辽宁省阜新市的民营企业阜新天信科技发展有限责任公司与朝鲜真明贸易公司合作成立万天合作有限责任公司，共同建成塑料管生产厂° 这个塑料管生产厂已投产° 万天合作公司坐落在朝鲜平壤市乐浪区，占地面积 3,790平方米，总投资额 200万欧元，主要生产和销售各种塑料制品，首期年产量为 360吨°

② 边境贸易区的建设

2006年 长白县建设对朝鲜贸易区 吉林省长白县政府与苏州风景园林投资发展集团有限公司签订合作协议，共同建设长白对朝贸易区开发项目° 长白县与朝鲜两江道一市五郡一江之隔，县城与朝鲜惠山市通过长惠国际大桥相接，边境条件极为良好° 近年来，长白口岸始终保持着良好的运行态势，经由长白山口岸出入境的人员·车辆和货物数量以年均 30%左右的速度递增° 根据合作协议，长白县政府和苏州风景园林投资发展集团有限公司将指定企业共同出资组建吉林省长白功园发展有限公司，投资 3亿元人民币，对长白经济开发区内约1.2平方公里的土地实行分期滚动开发，建设一个集边贸交易和办公·仓储·住宿·餐馆等配套功能为一体的综合性商贸区°

中朝共建稳城物资交流市场 2007年 11月 朝鲜和中国决定在朝鲜咸镜北道稳城郡的南阳，共同建立物资交流市场° 据〈吉林新闻〉报道，朝鲜稳城郡人民委员会已接到朝鲜贸易省中央进出口物资交流公司，有关建筑物资交流市场的批文° 报道转载的批文称，“经内阁委任，批准咸镜北道稳城郡人民委员会同中国图们市政府，签订关于建设物资交流市场的合同°” 朝鲜要求中方先提供建筑材料，并于日后以交流市场的利润偿还中方的建筑材料° 稳城郡人民委员会还与中方进行有关服装·食品·粮食·家具·农业原材料·化肥等方面的投资协商，并进行共同经营°

中朝共建新义州物流中心 2007年 9月 朝鲜和中国企业规划在新义州兴建大规模物流中心° 应朝鲜提出的建立“朝中友谊物流中心”的建议，朝鲜与中国进行交涉° 朝鲜已经选定了中国投资公司，并签署了投资协议° 该物流中心以中国企业提供资金与建

材·朝鲜提供建设用地和人力的方式兴建° 中国朝鲜问题专家认为,目前有利于中国和朝鲜进行经贸合作的领域约有六个方面,我国企业可着手加快投资步伐:

第一,资源与能源合作° 朝鲜有丰富的森林资源,煤·铁·石墨·金·银和铅等矿产储量可观° 朝鲜政府已允许外来资本进入资源开发领域,并且正探讨合资开发资源的模式°

第二,基础设施合作° 朝鲜的铁路·公路·港口的基础设施相对落后,交通运输工具比较缺乏,服务设施·办公和居民用房等需求量很大° 朝鲜欢迎以各种方式进行合作建设°

第三,旅游合作° 朝鲜旅游资源丰富,旅游业的收益已使朝鲜重视旅游业的发展°

第四,科技领域合作° 朝鲜政府非常重视尖端科技领域的发展,金正日总书记在中国参观的重点主要是科技领域° 信息产业如电话·网络·通讯等都有巨大发展空间°

第五,农业合作° 朝鲜的农业技术水平相对落后,迫切需要增加农业的科技含量,如提高粮食单产·提高传统出口农产品松茸·高丽参的产量等° 另外朝鲜渔业存在很大优势,沿海捕鱼·海水养殖·海产品加工等都有很大的合作空间°

第六,劳动密集型制造业合作° 一方面朝鲜涉及居民生活的轻工产品相对短缺;另一方面朝鲜拥有大批素质高·成本低的劳动力° 因此,中国企业可以考虑在朝鲜投资加工制造业等劳动密集型产业°

“丹东中朝边贸国际商品城”建设 由上海布莱森投资有限公司投资运作,建设“丹东中朝边贸国际商品城”,地点位于鸭绿江上的马市岛° 振安区九连镇马市岛地处丹东市东端,占地 17.3平方公里,距丹东市中心仅 9.3公里,为鸭绿江与浑河所环抱,区域独立完整,地势平坦,水系发达,与朝鲜民主共和国新义州一衣带水隔江相望,只要架通马市岛与朝鲜新义州和丹东振安区九连镇的桥梁,并在朝鲜新义州入桥口和丹东入桥口互设边境海关,一个马市岛自由贸易区的地位突显眼前° 两国的边境海关,也为两国的边境管理提供了方便和保障° 预计本项目总投资 45-50亿元人民币,规划总占地面积 3,000亩土地° 预计 2009年 5月 开始动工建设,2012年底完成项目建设°

4. 中朝旅游合作

2008年 9月 中国政府决定开放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为中国公民组团出境旅游目的地

的地° 中朝旅游部门将在工作层面进一步磋商,待正式实施文件签署后,将选择合适的时机启动中国公民组团赴朝鲜旅游°

中国国家旅游局副局长杜江表示,2009年是中朝建交60周年,被定为“中朝友好年”,这为加强两国旅游合作创造了良机,相信中朝关系将进一步发展,交流合作将日益密切° 朝鲜国家观光总局副局长姜哲秀说,中国是朝鲜重要的旅游客源地国家,希望在旅游政策·宣传推广·饭店管理·行业统计·教育培训等方面得到中国国家旅游局的帮助° 杜江表示,中国国家旅游局同意朝鲜国际旅行社在中国辽宁沈阳设立非营利性旅游办事处°

朝鲜来华旅游人数极少,可以忽略不计,但中国是朝鲜最大的旅游客源地,旅游政策放宽将极大刺激中国游客的赴朝旅游人数,肯定会成为朝鲜2009年以后的新经济增长点°

5. 中朝IT技术方面的合作

近年来朝鲜开始大量进口IT产品,每年进口额都有几十倍的增长° 据2006年5月的统计,2006年一季度,辽宁省丹东地区对朝出口自动数据处理设备及配件209万美元,比去年同期增长3.9倍,其中,笔记本电脑184台,价值18万美元,同比分别增长60倍和46倍;台式电脑5098台,价值155万美元,同比分别增长2.4倍和3.7倍;各种配套装置35万美元,同比增长2.9倍° 另外,值得一提的是今年网络设备出口明显增加,以太网交换机去年一季度出口贸易值只有1,775美元,而2006年出口贸易值达3.8万美元,增长了20倍°

中朝在沈阳市合作开发IT技术也取得较大进展° 朝鲜和中国联合在中国沈阳设立信息技术(IT)共同研究开发机构° 由朝鲜的朝鲜科学院派遣14名IT专业人员到沈阳° 双方设立中朝研究开发基地,共同进行各种软件的开发° 开发基地将设立在目标建立成为东北亚最大的软件开发团地的沈北新区的浦河新城° 朝鲜科学院与沈阳市对外科学技术交流中心在2006年7月,缔结了联合软件共同开发的意向° 在最近几年,虽然有中国企业雇用朝鲜人才进行软件开发,但政府间的研究开发合作这还是第一次° 现在在沈阳工作的朝鲜的IT人才有85名,和中国的IT企业一起进行软件的开发° 共同开发的内容是:将朝鲜拥有的较高科技含量的指纹和虹膜等生物识别技术的

生育以及外语翻译相关软件汉化化，为外国企业开发软件等°

6. 中朝经贸合作存在的问题和困难°

中朝经贸合作潜力巨大° 中朝经贸合作存在的主要问题有： 受政治因素影响较大，存在着较大的不稳定性 and 不确定性市场贸易秩序欠佳，危及国家经济安全操作不规范，贸易风险较高贸易总体水平不高，互动力度不强贸易口岸规模小，软硬环境建设欠缺朝核问题阻碍了高层次合作的进程° 克服中朝经贸合作困难的对策： 正确定位中朝经贸合作多种措施并举提升中朝贸易层次°

中国希望中朝经贸关系的合作形式更加多样化° 中国和朝鲜两国都处于发展国民经济，提高人民生活水平的阶段° 两国经济确实有很大的不同，同时也有很多的互补性，因此，我们希望能够进一步开展互利经贸合作，能够探讨更多的合作形式，使两国的经贸合作能够在友好·互利的基础上不断发展，造福于两国人民°

中朝经贸合作的主要问题是：

1) 政治因素对经济合作的干扰° 众所周知的问题是： 朝核问题目前还没有真正解决·朝鲜半岛北南的敌对状态没有完全解除·朝美改善关系的进程出席多次反复·朝日关系因绑架日本人问题没有解决而陷入僵局等等°

由于北南关系的不确定性， 还有一些偶发事件也直接影响了朝鲜的对外经贸关系，如金刚山韩国女游客被枪击事件直接导致了金刚山旅游活动的中止和北南贸易关系的中断° 在中朝贸易中也出现过诸如 2006年10月 朝鲜悍然进行核试验·2004年 10月 朝鲜新义州特区长官杨斌因经济犯罪在沈阳被捕而对中朝正常贸易活动产生了负面影响°

2) 愈演愈烈的走私贸易

2008年前两个月丹东海关在公路口岸就查获涉及伪报·低报等走私违规案件 9起，涉案金额达 40万元人民币，查获旅检通道闯关案件2起，向缉私部门移交案件 6起，查获案件数量达到了历史同期的最高水平° 2005年 1月 丹东海关查获夹藏走私进口粗铅 20吨° 1月 27日，丹东边境经济合作区利奕经贸有限公司申报进口银精矿 60吨，丹东海

关查验发现在银精矿下夹藏粗铅 20吨未向海关申报,涉嫌偷逃税 1.6万元。类似走私活动在图们海关也屡禁不绝。由于中朝两国经济发展程度有较大差距,商品价格差价较大,因而走私分子不惜铤而走险,以身试法。2008年年初以来,由于朝鲜的粮荒和国际市场粮食价格的上涨,粮食·化肥·日用品的走私现象更为严重。

丹东市周边环境复杂,由于政治·经济利益因素的影响,朝鲜官方对走私活动持默许态度,此外,中方个别执法部门人员也参与走私·护私,使我海关执法环境更为复杂。走私分子在朝鲜境内囤积香烟·汽车等我国限制进口的敏感商品,利用鸭绿江水域特殊地理条件,伺机向我境内走私。2000年 丹东海关协同其他部门查获走私香烟达 8,000余箱。尤其在冬季鸭绿江面封冻时,两国走私分子时常向我境内走私两国差价大的高档商品。延边地区在历史上就是走私多发地区,既是地处三国交界处,又都是在三国中的偏远地区,国际间差价较大的商品都成了走私分子关注的目标。走私者利用两国间某些物品的差价,通过合法与非法途径进行走私活动。有的利用人体·行李物品夹带私货,有的以化名·冒名来邮寄私货,有的内外勾结,制造特殊私藏工具蒙混过关。越境走私多利用封江季节,整车偷运私货。走私活动的另一新动向,是某些经营“新型贸易”的企业,利用进出口货运渠道进行走私。有的支付人民币购进布料和设备,变补偿贸易为一般贸易,以求偷漏关税。有的汇出人民币作为来料加工进口设备的订金,以求享受关税优惠。有的进口布料以多报少,蒙骗过关,多出的布料内销,赚高额利润。有的进口布料擅自出售赚取利润,以国内布料顶替加工出口等。延吉市某厂非法进口2套彩电零件案·朝阳川某厂擅自出售进口布料 11.8万米。案件均由海关移交司法部门立案处理。由于边境走私非法牟利高,因此,铤而走险的走私分子屡禁不绝,只要这种巨额价格差存在,这类走私活动就不会减少。

3) 边境贸易的结算和运输问题

从 2008年 2月 21日 开始,丹东的对朝贸易开始实行人民币结算,这意味着丹东对朝贸易所有的结算渠道全部打开。丹东对朝边境贸易总额占全国的七成以上,以往“一手钱·一手货”,外币现钞和人民币现金结算现象较为普遍,随之产生的信用和交易风险制约了边贸的发展。为改善金融投资环境,中国人民银行丹东市中心支行争取上级支持,批准了在丹东地区实行人民币结算纳入边贸结算试点管理,允许境外贸易机构和个人在境内银行开立人民币边贸结算专用存款账户和个人银行结算账户,允许账

户内资金兑换成可自由兑换货币，规范边贸人民币结算账户开立和结算工具的使用，鼓励和支持人民币作为边贸计价结算货币，推动边贸本币结算³⁾。中朝两国之间的边境贸易日趋活跃，仅辽宁 2006年对朝鲜进出口贸易总额就达 7.88亿美元，且正以每年 30% 左右的速度增长。然而调查发现，在边境地区的贸易活动大多用现钞结算，不仅不方便·存在安全隐患，还容易引发各种经济纠纷[°]。

目前丹东有边贸企业 180多家，其中外省企业建立了 30多家分公司专作对朝进出口贸易[°]。虽然中朝边境贸易势头不错，但仍存在较大风险，无论是大宗买卖还是小笔交易只能用现钞，非常不便[°]。个别在朝投资企业因巨额资产暂存朝鲜银行，往往被骗血本无归[°]。

现金交易不便引发以货易货行为增多[°]。但是易货贸易由于朝方缺乏诚信·运输能力有限·长期拖欠等原因，难以扩大规模[°]。据丹东市的统计，前几年朝方欠中方 2,500万元现金，到去年只还了 500万元[°]。中方运货的火车皮到朝鲜后，常被其挪用为国内运输，最高峰时在朝鲜积压 2,600多节中方车皮，造成中方的铁路货运受到影响[°]。2004年对朝铁路货运出现过多次被迫停运[°]。

据了解，因运力不足，运往朝方的货物积压严重，造成运往朝鲜一些食品·粮食·种子等过期，产品质量受到影响，有损于中国商品的国际信誉[°]。朝方有意扣留的车皮等运输工具，即使归还了也已经破旧不堪，令中方叫苦不迭，损失较大[°]。

4) 朝鲜一些贸易会社的商业信誉不高

2005年朝鲜以“扩大吸引外资”为主，追求“实利”主义，加强“电力”生产，完善经济立法，力图营造更好的投资环境，朝鲜正逐步建立农产品和建材交易市场，辽宁省的企业正在利用有利的地理优势，积极开展边境贸易，力争把辽宁的农产品和建材消费到朝鲜；私营企业“走出去”受到鼓励，投资朝鲜的矿山开采和电力设备等行业，与辽宁经济实现区域经济互补，既缓解辽宁钢铁企业原材料紧张的局面又能将输变电设备卖出去[°]。

中国外经贸部亚洲司曾在 1998年 秋季，对朝贸易“收汇安全”等问题提出相关建议：对朝贸易要坚守“现汇贸易安全收汇·易货贸易有去有回”的原则；要经过正常贸易渠

3) 『丹东之窗』“丹东的对朝贸易开始实行人民币结算”〈www.china-dandong.net〉，2008年 2月 21日[°]

道(朝对外贸易商社)进行,不同朝政府机构(朝鲜驻华使馆经商处等)发生贸易关系,因为外交使团既不具备担保职能,亦不履行因支付发生问题而产生的担保义务。但随着形势发展,易货贸易及现金交易这种原始的贸易形式已经完全不适应日益扩大的中朝贸易需求。金融结算问题不彻底解决,中朝贸易就难以正规化及进一步扩大。